

# 1981

1981

1981



##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한·아세안  
새 협력시대

## 전두환대통령각하 내외분 아세안 5개국 순방



◇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의 환담 (6. 25 자카르타)



◇ 환몽산정에서 양귀국기에 대한 전례  
< 6. 29 부산대(해변부근) >



권두언(卷頭言) ..... 정훈감(政訓監) 이상민(李相敏) (12)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실적(理實的) 적용방안(適用方案) ..... 유광진(俞光震) (14)

**세계(世界)로 뻗는 한국(韓國)**

**특집 (特輯)**

「팀·스피리트 81」훈련(訓練)의 의의(意義)와 성과(成果)··· 문도빈(文道彬) (22)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대두(擡頭)와 우리의 활로(活路)  
..... 정태원(丁泰垣) (29)

소련(蘇聯)의 팽창주의(膨脹主義) 정책(政策) 세계사회(世界社會)에서의  
한국(韓國)의 위치(位置) ..... 이기탁(李基鐸) (39)

북한(北韓)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관학적(官學的) 성격(性格)··· 신일철(申一澈) (48)

남북(南北) 연방제론(聯邦制論) 비판(批判) <II> ..... 편집실(編輯室) (68)

**새 공화국(共和國)의 경제과제(經濟課題)** ..... 편집실(編輯室)(81)

공군교리(空軍敎理) ..... 윤재진 95)

**항공·항공·군사·군사·과학·과학**

소련(蘇聯) 항공지원(航空支援)의 발달(發達) ··· 최양수(崔良洙) (106)

프로그(Flogger) 전투기(戰鬪機) ..... 이건순(李建淳) (117)

소련(蘇聯)의 패권주의(霸權主義) ..... 박종언 (130)

공군 만상(空軍 漫像) ..... 정운섭(鄭雲燮) (93)

고려명장(高麗名將) 강감찬(姜邯贊) ..... (152)

**군가 (軍歌)**

우리는 대한민국군 ..... (155)

은익의 노래 ..... (156)

보라매의 꿈 ..... (157)

비행 행진곡 ..... (158)

■ 단편소설 ■ 선고(宣告) ..... 프란츠 카프카 작(作) (159)



◇ 제임스 미 태평양 유나이티드 항공편 접견



◇ 실내체육관 개관 테이프를 끊고  
이영기관장(중장) <6.17 (목) >



◇ 인도네시아 각계인사를 접견하고 계시는  
전국항대총연합회 각내외대표 <6.26 자카르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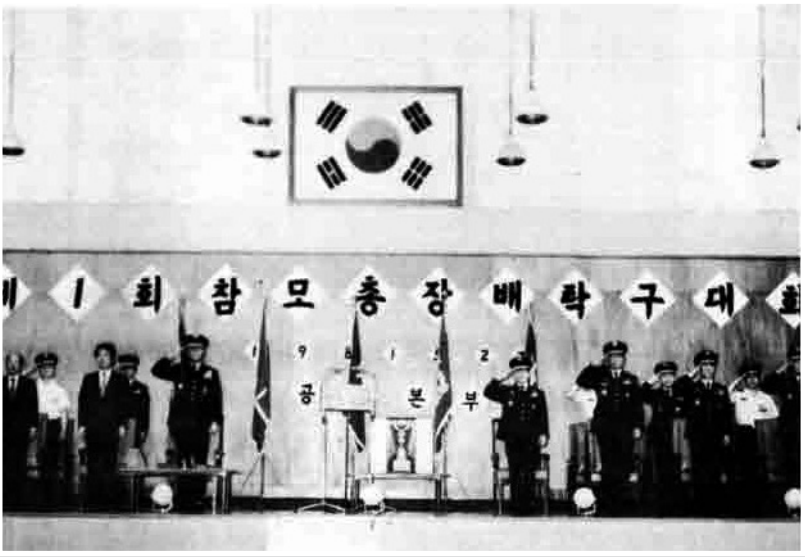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의 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에  
반고 계시는 영인인 이순자 여사  
<6.29 쿠알라룸푸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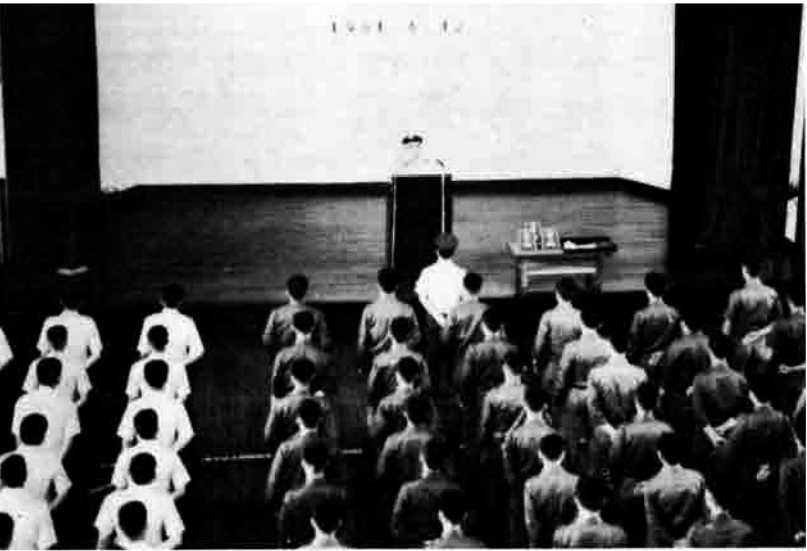
◇ 1981년 주제발표경연대회 개최  
 < 7. 4 (1981년 7월 4일)>



◇ 1981년 4월 4일 정사면  
 < 5. 4 (1981년 5월 4일)>



◇ 1981년 6월 17일 배장총모참회 개최  
 < 6. 17 (1981년 6월 17일)>



◇ 1981년 6월 12일 영문대학 개회  
 < 6. 12 (1981년 6월 12일)>

# 공군

제 176 호

1981년 제3호



참모총장(參謀總長) 통솔방침(統率方針)

**완벽(完璧)한 영공방위태세(領空防衛態勢) 확립(確立)**

항시전장(恒時戰場)

정병강군(精兵強軍)

절용증강(節用增強)

## 항시전장(恒時戰場)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령)  
이 상 민 (李相敏)

민족적(民族的) 비극(悲劇)인 6·25동란이 발발(勃發)한지도 올해로서 31년(年)이건만, 북괴(北傀)의 적화망상(赤化妄想)은 오히려 더해가고 있기에, 우리는 조국분단(祖國分斷)과 동족이 질화(同族異質化)의 아픔을 씹으며 오늘도 쉬임없는 경계(警戒) 속에 통일(統一)에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1953년(年),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전문(全文) 5조(條)6항(項)의 휴전협정(休戰協定)이 체결(締結)되어, 일단 전쟁(戰爭)의 포성(砲聲)은 멎었지만, 북괴(北傀)의 호전성(好戰性)과 도발속성(挑發屬性)에 의(依)해 휴전협정(休戰協定)은 사실상(事實上) 사문화(死文化)되고 80년 말(年末)까지 협정위반건수(協定違反件數)는 무려 5만건(萬件)에 이르고 있다. 즉 북괴(北傀)는 휴전협정(休戰協定)을 오히려 그들의 재침준비(再侵準備)를 위한 제도적(制度的) 방책(方策)으로 악용(惡用)하면서, 1962년말(年末) 4대군사노선(大軍事路線)이란 것을 채택한 이래(以來) 전쟁준비(戰爭準備)에만 광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의(正義)로운 민주복지국가건설(民主福祉國家建設)을 위(爲)해 온 국민(國民)이 합심노력(合心努力)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발전(發展)이 안보(安保)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可能)함을 재인식(再認識)하여, 다시는 무비(無備)에서 오는 유환(有患)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침 80년대(年代)의 국제정세(國際情勢)는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에로의 북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한반도(韓半島)의 긴장(緊張)은 더욱 고조(高潮)되고 있다. 따라서 참모총장통솔방침(參謀總長統率方針)에 제시(提示)된 바와 같이 우리는 항시전장(恒時戰場)의 상황인식(狀況認識)을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견지(堅持)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과연 긴장고조(緊張高潮)의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첫째로, 국제정세(國際情勢)의 신냉전체제(新冷戰體制) 돌입(突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年代)의 동서화해(東西和解)(데탕트) 무드가 1980년대(年代)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퇴색되고,

1960년대(年代)의 냉전(冷戰)·양극체제(兩極體制)와 같은 새로운 냉전체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괴(北傀)는 외부여건이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호전주의(好戰主義)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판(誤判)하여 가능(可能)한 도발(挑發)과 공세(攻勢)를 자행(恣行)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전법(戰法)이므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소련의 사주(使嗾)에 의한 도발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즉 미(美)·일(日)·중공(中共)이 제반 협력체제(協力體制)를 구축할 움직임이 강(強)하게 보일수록 소련이 북괴를 자극시켜 한반도(韓半島)에서 전쟁(戰爭)을 야기(惹起)시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북괴의 도발속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80년대(年代)에 김일성(金日成)이 계속 집권할 경우, 그의 남은 수명을 감안하여 최후행동(最後行動)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며,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金正日)이 집권하게 되면 북한 주민의 반발(反撥)과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세찬 매도(罵倒)의 기운에 의해 그의 정치적(政治的) 생명(生命)이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대남도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인데, 만약에 제3의 권력자(權力者)가 집권하더라도 그 상황(狀況)에는 변동(變動)이 없으리라 예견된다. 이와같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80년대(年代)에는 특히 도발의 위험성은 큰 것이다.

이상의 주요인(諸要因)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북괴의 최종목표(最終目標)가 한반도(韓半島)의 적화통일(赤化統一)에 있는만큼, 결코 그들에 의한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특히 80년대(年代)가 고비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시대(時代)를 극복(克服)할 수 있도록 최선(最善)·최대(最大)의 노력(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휴전(休戰)은 종전(終戰) 아닌 전쟁상태(戰爭狀態)이므로 촌음(寸陰)도 방심(放心)할 수 없으며, 북괴의 비인도적(非人道的) 만행을 저주·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력 배양과 국방태세강화(國防態勢強化)에 진력(盡力)해야만 안정(安定) 속에 발전(發展)을 거듭할 수 있고, 나아가 풍요 속에 통일(統一)된 새 시대(時代)를 구가(謳歌)하게 될 것으로 확신(確信)한다.

논단(論壇)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현실적(現實的) 적용방안(適用方案)**

**- 우리 실정(實情)에 맞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정립(定立)을 위하여 -**

유 광 진(俞光震)

〈정박(政博)·동국대(東國大) 법정대교수(法政大教授)〉

자유롭고 풍요한 복지사회(福祉社會)의 현실(實現)을 위해

우리는 국가발전(國家發展)에 헌신하는

정신자세를 확립(確立)해야 하겠다.

1. 머리말

「자유(自由)와 질서(秩序)의 조화(調和)가 이룩된 가운데 안정(安定) 속에서 착실한 정치발전(政治發展)을 이룩하자」는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던 제(第)5공화국(共和國)의 건설은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舉)를 성공적(成功的)으로 끝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안정(國基安定)과 정통성(正統性)을 완벽하게 확립하였다.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토착화(土着化), 복지사회(福祉社會)의 건설, 정의사회(正義社會)의 구현 그리고 교육혁신(教育革新)과 문화창달(文化暢達)을 국정지표(國政指標)로 삼아 역사적 전진(前進)의 거보(巨步)를 내디딘 제(第)5공화국(共和國)은 「구헌법(舊憲法), 구정부(舊政府) 등의 구시대적(舊時代的) 논리(論理),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통과 애증으로부터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조(創造)와 개혁(改革)과 발전의 기치 아래 대화합(大和合)의 정치전개(政治展開)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터전 위에 새로운 가치(價値)를 추구하는 「창조(創造)의 의지(意志)」, 국가사회에 새로운 활력소(活力素)를 주입하려는 「개혁(改革)의 의지(意志)」, 훌륭한 전통(傳統)과 민족적(民族的) 정통성(正統性)을 살찌게 하는 「발전(發展)의 의지(意志)」를 한데 모아 나가는 것

이 새 시대(時代)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이며, 이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체질화(體質化)하는 것이, 곧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民族史)가 고통(苦痛)스럽게 겪어왔던 그리고 겪고 있는 역사적 숙원(宿願)을 극복(克服)하고 해결(解決)하는 열쇠임이 분명한 것이다.

80년대(年代)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을 강조하는 보다 더 큰 구체적인 이유(理由)는 해방(解放) 이후 36년은 방황(彷徨)과 혼돈(混沌)의 시대였으며, 특히 70년대(年代)는 물질적인 성장(成長)에 치우쳐 정신적(精神的)인 성장이 도외시된 시대였으며, 장기집권(長期執權)에서 연유(緣由)하는 해괴한 정치작태(政治作態)와 흑백논리(黑白論理)가 횡행하던 시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80년대는 한 시대(時代)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창조(創造), 개혁(改革), 발전(發展)의 시대정신(時代精神)에 입각하여 민족사(民族史)가 요구하고 있는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정(安定)과 화합(和合)이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안정(安定)과 화합(和合)은 또 자유(自由)와 다양성(多樣性)을 조화(調和)하는 민주주의가치(民主主義價値)를 생활신조(生活信條)로 실천(實踐)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使命을 지고 있는 우리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천(實踐)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뼈저리게 겪었던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류(誤謬)와 시행착오(試行錯誤)의 악순환(惡循環)을 극복(克服)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올바른 민주주의(民主主義)국가는 영원히 건설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주정치(民主政治)의 가능조건을 일반론적 입장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2.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가능조건(可能條件)

민주주의는 자연계의 생물과 같이 생활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생명체(生命體)이다. 식물(植物)이 토질, 양분, 기후 등 환경조건(環境條件)에 민감한 것처럼 민주정치(民主政治)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명력(生命力)과 활동(活動)을 유지하려면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환경과 구조(構造) 그리고 정치 풍토 및 국내외(國內外)의 정치적(政治的)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사회와 같은 변동요인(變動要因)이 많은 조건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價値)를 실현하고 정치제도(政治制度)를 유지 운영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근대적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정신적 기반(基盤)과 전통이 전무(全無)하며 정치전통(政治傳統)과 풍토 및 사회(社會)여건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의 이념(理念)과 제도(制度)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험적 교훈(教訓)은 우리나라 헌정(憲政) 33년사(年史)가 잘 입증(立證)해 주고 있다.

그러면 민주정치(民主政治)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제반(諸般) 여건(與件)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정상운영은 국제적인 평화(平和)와 국내적인 안정(安定)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민주정치제도(民主政治制度)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나라도 국가(國家)의 존립(存立)과 사회질서(社會秩序)를 근본적으로 위협(威脅)하는 내외적(內外的) 긴장(緊張)요인이 발생하면 비상대권(非常大權)과 같은 긴급수단(緊急手段)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권력구조(權力構造)와 제도(制度)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권력구조(權力構造)가 다원화(多元化)하여 각 정치집단(政治集團)간의 견제균형을 이루는 환경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우기 정치문화적(政治文化的) 요인에서 본다면 민주정치(民主政治)는 참여적(參與的) 정치문화(政治文化)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급(普及)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생활방식(生活方式)으로 파악하고 있는 「에벤스타인」(William Ebenstein)은 ① 자유(自由)로운 결사의 믿음 ② 관용성과 다양성 ③ 국가의 수단시(手段視) ④ 폭력수단(暴力手段)의 배격 ⑤ 자발적 활동원칙의 고양(高揚)을 들고 있으며, 민주적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을 제시한 「린드만」(Edward C. Lindeman)은 ① 다양성(多樣性) 희생없는 통합(統合) ② 이상(理想)과 현실의 타협 ③ 수단(手段)은 목적(目的)과의 일치(一致) ④ 회의(會議)는 민주주의수단(民主主義手段) ⑤ 계획(計劃)은 민주주의(民主主義)수호를 위한 대가(代價) ⑥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제도적(制度的)으로 보장 ⑦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교육(教育)과정이라고 하였다.

둘째,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경제적(經濟的) 안정(安定)과 번영(繁榮)을 누리는 사회환경(社會環境)에서 실현(實現)된다는 점이다. 「바이카」(Ernest Barker)도 일찌기 국민들이 가난하여 기본적인(基本的)인 생존(生存)이 위협을 받을만큼 경제적 안정(安定)이 이룩되지 못하면 민주정치(民主政治)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經濟的) 안정(安定)이 민주정치(民主政治)의 관건이라는 점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발전과정에서 충분히 입증(立證)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不安)과 취약(脆弱)이 민주주의체제(民主主義體制)를 근본적으로 위협(威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적(經濟的) 부(富)와 함께 사회구조(社會構造)가 분산(分散)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라스웰」(Harold D. Lasswell)은 민주사회(民主社會)의 특징을 부(富), 권력(權力), 존경(尊敬)이 사회전체에 넓게 분산(分散)되어 있는 사회(社會)라고 보았다.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정치(民主政治)를 중산계급(中產階級)의 지배와 동일시(同一視)한 이래 중산층(中產層)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아몬드형(型) 사회구조(社會構造)를 민주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한 가능조건(可能條件)으로 삼아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社會構造)는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문화적(文化的) 동질성(同質性)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분화(社會分化)를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多元的)인 사회집단(社會集團)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회인 것이다.

넷째,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성공과 실패(失敗)는 사회규모(社會規模)와 크기 특히 인구(人

口)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찌기 「루소」는 민주정치(民主政治)는 그리스의 도시국가(都市國家)와 같은 나라에서만 가능(可能)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광활한 지역(地域)과 방대한 인구(人口)를 가진 나라에서는 고도(高度)의 기술(技術), 문화(文化)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제기(提起)시키었다. 근래 구미선진제국(歐美先進諸國)에서도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위기(危機)가 자주 논의(論議)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섯째, 사회심리적(社會心理的) 요인으로서 근대적(近代的)인 가치관(價值觀)과 정치행태정향(政治行態定向)이 국민간에 보편화(普遍化)됨이 없이는 민주사회(民主社會)를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近代的)이라 할 수 있는 행동정향(行動定向)은 평등주의(平等主義), 실적주의(實績主義) 보편성(普遍性), 전문성(專門性)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국가(國家), 정부(政府), 정치지도자(政治指導者)에 대한 합리적(合理的), 세속적(世俗的) 태도와 상대주의(相對主義), 실증주의(實證主義), 경험주의(經驗主義) 세계관(世界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는 민주적(民主的) 인격(人格) 즉 ① 개방(開放)된 자아체계(自我體系) ② 다원적(多元的)·분산공유적(分散共有的) 가치관(價值觀) ③ 인간(人間)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信賴) ④ 공포와 불안(不安)으로부터의 해방 등의 요건을 갖춘 인간형(人間型)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民主主義)가 가능(可能)하려면 적어도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심리(心理) 등 제조건(諸條件)을 구비(具備)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한국(韓國) 현실여건(現實與件)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가능조건(可能條件)에서 제기(提起)된 제문제(諸問題)를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의 이식(移植)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모방(模倣)에만 그치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여건(現實與件)과 환경조건(環境條件) 그리고 역사적 전통에 알맞도록 주체적(主體的) 창조(創造)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첫째, 정치환경요인(政治環境要因)부터 국제적 평화(平和)와 국내적(國內的) 안정(安定)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끊임없는 무력도발기도(武力挑發企圖)는 국내외평화(國內外平和)와 안정(安定)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은 공지(公知)의 사실(事實)이다. 국제적 긴장완화(緊張緩和)가 한반도(韓半島)의 안정조건(安定條件)이 된다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반도(韓半島)의 준전시상태(準戰時狀態)가 국제적 긴장(緊張)을 완화시키느냐 못시키느냐 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여건하(與件下)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전혀 실현불가능(實現不可能)하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위하다 보니 서구적(西歐的)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같은 형태

를 취할 수 없다는 특수성(特殊性)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문화적(政治文化的) 요인(要因)으로 보아도 참여적(參與的) 정치문화(政治文化)의 보편화에는 아직도 시간(時間)을 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생활양식(生活樣式) 또는 행태유형(行態類型)이 우리 생활에 토착화(土着化)하려면 역시 상당한 시간(時間)과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 하(狀況下)에서는 역사적 전통(傳統) 속에서 우리의 민주적(民主的) 가치(價値)를 발굴하여 우리의 특성(特性)에 맞는 제도(制度)를 현실(現實)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부터 국민경제(國民經濟)가 고도로 발달하여 안정(安定)과 번영(繁榮)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급속(急速)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해 왔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나 일반국민이 안정(安定)된 경제생활을 영위(營爲)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급격한 성장(成長)으로 인하여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과 긴장(緊張)이 감돌았던 것도 사실인 것이다. 경제성장이 너무 급속하게 진전(進展)될 때 사회경제제도(社會經濟制度)와 기능상(機能上)의 부조리(不條理)가 더욱 크게 노정(露呈)되며, 또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분배(分配)를 둘러싸고 반목(反目)과 갈등(葛藤)이 심화(深化) 표출(表出)됨으로써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안전성(安全性)을 위협한다는 논리(論理)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속(急速)한 경제성장이 물질적(物質的) 생활수준(生活水準)을 급격히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 빈부(貧富)의 격차, 도시(都市)와 농촌(農村), 정부(政府)와 국민간의 거리감을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셋째, 사회구조적(社會構造的) 요인으로서 우리나라는 전근대적(前近代的) 사회구조(社會構造)와 사회문화(社會文化)로부터 근대적인 사회구조(社會構造)로의 재론(再論) 및 문화구조 유형(文化構造類型)으로 전환(轉換)하는 과도기(過渡期)에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아직도 근대적인 의식구조나 행위양식(行爲樣式)보다도 현실적으로 덜 근대화(近代化)된 의식(意識)구조나 행위양식(行爲樣式)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성격(性格)이나 인간유형(人間類型)에 있어서도 민주정치제도(民主政治制度)를 정상 운영하는데 적합한 시민정신(市民精神)을 가진 생활방법(生活方法)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단순한 정부제도나 헌법규정(憲法規定)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생활방식(生活方式), 행태유형(行態類型)으로 본다면 더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넷째, 사회심리적(社會心理的) 요인(要因)으로서 우리 국민(國民)은 아직도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인간형(人間型)의 특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정치변동(政治變動)을 몇번 경험(經驗)하면서 점차적으로 민주적(民主的) 시민성(市民性)의 특성으로 접근(接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選舉)나 투표행태(投票行態)에서 나타나는 유형(類型)을 보면 개방성(開放性), 진취성(進取性), 신축성(伸縮性), 관용성, 자발성(自發性), 다원적(多元的) 가치성(價値性), 평등주의(平等主義) 등에는 크게 접근(接近)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政治)의 현실여건(現實與件)은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의 이념(理念)과 제도(制度)가 성공적으로 뿌리 박아 결실(結實)할 수 있는 모든 환경(環境)과 조건(條件)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포기하여야 한단 말인가. 결코 그런 의미(意味)에서 주장(主張)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세계민주제국(世界民主諸國)이 각기 자국(自國)의 특성(特性)에 맞추어 민주제도(民主制度)를 발전시켜 나가듯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일반론적인 가치(價値)를 존중(尊重)하면서 우리의 특성(特性)에 알맞는 제도(制度)를 창출(創出)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토착화(土着化)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특수성(特殊性)에 알맞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어떻게 토착화(土着化)시킬 것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 4. 한국민주주의(韓國民主主義)의 정립방안(定立方案)

정치체제(政治體制)나 정치이념(政治理念)이 아무리 숭고(崇高)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집단(社會集團)의 공통욕구(欲求)를 충족하며 그 집단(集團)의 정치적 목표(目標)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성(生成)되고 발전(發展)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욕구충족(欲求充足)과 목표달성(目標達成)을 위한 효용성(効用性)에 의하여 정치이념(政治理念)이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는 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민족(民族)의 집단적 욕구는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당면 정치적(政治的) 목표(目標)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민족의 공통된 욕구(欲求)를 크게 보면 ① 통일(統一), 독립(獨立)된 민족국가(民族國家)를 이루어 국가이익을 수호·신장(伸張)·확대(擴大)하려는 욕구 ② 민족문화(民族文化) 전통(傳統)의 계승(繼承)·발전(發展)을 통한 자주적(自主的) 민족(民族) 생존양식(生存樣式)을 창조(創造)하려는 욕구 ③ 국가안보(國家安保)와 경제번영(經濟繁榮)을 통한 복지(福祉)·정의사회(正義社會)를 실현하려는 욕구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과제(課題)를 실현하는데 있어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 방식으로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욕구실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의 이념(理念)과 제도(制度)하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그 존재가치(存在價値)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로, 앞에서 지적한 우리 민족의 공통된 욕구는 해결되지 못한채 서로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壓迫)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엄청난 과업(課業)을 동시적이고 지체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수행하는 과제(課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정(公正)하고 성실(誠實)한 정책수행(政策遂行)으로써 국민의 신뢰(信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 국민의 자제(自制)와 양해(諒解)로써 정부에 대한 요구(要求)가 과도하지 않을 때 민주정치는 순탄할 수가 있

다. 그러나 우리 국민(國民)은 국가안보(國家安保)를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완전한 자유(自由)와 민주(民主)도 원한다. 급속한 경제성장(經濟成長)도 원하면서 복지정책(福祉政策)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要求)에 대처(對處)하는 정치(政治)도 때로는 국가이익(國家利益)의 관점에서보다 또는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의 관점에서보다는 당리당략(黨利黨略)과 정권적(政權的) 차원에서 원색적인 대결(對決)을 일삼았다는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화(對話)와 토론(討論)을 통한 민의반영(民意反映)의 전당으로서의 국회(國會)가 되어야 하며, 행정부(行政府)도 신뢰(信賴)와 성실(誠實)로서 정책(政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에 따른 집행(執行)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민주정치(民主政治)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정치체제(國內政治體制)와 국제적(國際的)인 지원기구(支援機構)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산적한 민족적(民族的) 과제(課題)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방식을 가지고는 그 현실적(現實的) 효용성(效用性)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서구민주정치(西歐民主政治)를 이식(移植)시켜 토착화(土着化)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반현실여건(諸般現實條件)이 불비(不備)한 상태(狀態)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해방 후 국민성과 정치문화(政治文化)에 뿌리박지 못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명분이 그나마 유지(維持)될 수 있었던 것은 「유엔」과 미국(美國)을 위시한 자유우방(自由友邦)이 주도(主導)하는 국제체제(國際體制)였다. 그 이후에도 국제적인 협조(協調)와 후원(後援)이 외부적(外部的)인 압력(壓力)과 내부(內部)의 위기(危機)를 감당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課題)를 지닌 우리는 우리의 현실상황(現實狀況)에 알맞는 양면적(兩面的) 접근과정(接近過程)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상황(現實狀況) 그리고 국민 성격(國民性格)을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의 이념(理念)과 가치(價値)에 접근하게끔 개조(改造) 발전(發展)시켜 나가야 한다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서구민주주의의 이념(理念)과 제도(制度)를 우리나라의 현실상황과 정치문화(政治文化), 국민성격에 알맞도록 변용(變容)·개조(改造)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民主主義)로 귀일(歸一)시켜 토착화(土着化)된 창조적(創造的)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정립(定立)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욕구충족(欲求充足)과 목표달성(目標達成)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政治社會)를 자유민주주의적(自由民主主義的) 가치(價値)를 존중(尊重)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한국화(韓國化)하는 접근방법(接近方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과정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이다.

## 5. 맺는 말

아무리 좋은 의관(衣冠)이라도 입는 사람의 몸에 맞추어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의 체질(體質)에 맞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의관(衣冠)이 크다 작다고 말해야 소용없으며, 자기 체질을 생각지 않고 음식을 트집잡아야 소용없듯이 우리의 역사적 전통(傳統)과 정치문화(政治文化) 그리고 의식수준(意識水準)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가 소망하는 정치체제(政治體制)나 이념(理念)이 당장 실현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입장(立場)에서 우리가 정착(定着)시켜야 할 현실적인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요건은 ①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생존(生存)과 안전(安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② 국정(國政)의 비능률성(非能率性)을 배제하고 민의(民意)를 정상적(正常的)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하고 ③ 자유경제체제(自由經濟體制)의 활동을 보장하고 ④ 고유한 문화(文化)배경과 민족전통에 합치(合致)해야 하는 등이다. 사실 제5공화국 헌법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 요건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두환 대통령(全斗煥大統領)은 취임사에서 3대고통(大苦痛)으로부터의 해방(解放)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즉 전쟁(戰爭), 빈곤(貧困), 정치적(政治的) 탄압과 권력(權力)남용으로 부터의 해방은 바로 민주정치(民主政治)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관건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민족(民族)과 국가를 위한 예지(豫)에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최고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意志)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적극 참여하고 공동 합심하는 대화합(大和合)의 참여정신이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토착화(土着化)하기 위한 전제(前提)가 바로 안정(安定)과 화합(和合), 그리고 창조(創造), 개혁(改革), 발전(發展)의 의지(意志)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自由)롭고 풍요한 복지사회(福祉社會)」의 실현(實現)을 위해 다 같이 국가발전(國家發展)에 헌신하는 정신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곧 민주주의를 보다 빨리 토착화(土着化)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 〈명장(名將) 명언(名言)〉

전력(戰力)은 단결(團結)에 있고, 단결(團結)은 곧 승리(勝利)를 낳는다.

- 맥아더 -

부하(部下)들에게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승리(勝利)하는 기회(機會)를 자주 체험(體驗)시키면 되는 것이다.

- 롬멜 -

## 「팀·스피리트 81」훈련(訓練)의 의의(意義)와 성과(成果)

문도빈(文道彬)

〈서울신문·논설위원(論說委員)〉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익힌 전술 전기는  
북괴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즉각 응징 섬멸할 것이다.

### 새 차원(次元)의 전략태세(戰略態勢)를 과시(誇示)

한(韓)·미(美)연합군의 한반도 방위능력과 유사시 전략기동(戰略機動) 능력을 시험하는 「팀스피리트 81」 연합훈련이 지난 2월 1일부터 4월초까지 60여일 간에 걸쳐 한국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연합훈련 사상(史上) 최대규모인 16만1천여 명의 한(韓)·미(美)양국군이 참가한 이번 훈련의 구체적인 목적은 『한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韓)·미(美)양국군의 전개, 수용, 운용 등을 연습』 하는데 있었으며, 전반적인 훈련은 ① 전략적 전개 ② 야전기동 및 상륙훈련 ③ 해외투입부대의 주둔지 복귀 등 3단계로 진행된 것이 예년과 비슷했다.

「팀스피리트」(단체정신)로 불리는 한(韓)·미(美)연합훈련은 지난 76년 이래 이번이 6번째, 한(韓)·미(美)연합사령부 창설 후로는 3번째가 된다. 이렇듯 훈련자체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최근 한(韓)·미(美)양국이 처해 있는 안보(安保)환경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감안할 때 예년에 비해 각별한 의의(意義)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훈련은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의 철수계획이 완전히 백지화(白紙化)된 상황에서 전개된 사실에 큰 뜻이 있었다고 하겠다.

지난 2월 초 「레이건」 미국(美國)대통령이 전두환(全斗煥) 대통령과의 정상(頂上)회담 공동성명에서 철군(撤軍)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북괴(北傀)의 대남(對南)공격태세를 극동(極

東)지역에서 급격히 증강되고 있는 소련(蘇聯)의 군사적 팽창(膨脹)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새로운 전략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군(美軍)의 한국(韓國)주둔은 단지 북괴(北傀)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東北亞)지역 자유국가들을 위협하는 소련(蘇聯)군사력에 대한 견제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미국(美國) 정부의 새로운 전략판단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미국(美國)의 「아시아」 지역 방위전략은 지상(地上)방위의 1차적 책임을 해당지역 우방국에 지운다는 69년에 발표된 이른바 「괘」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69년의 「포커스·레티나」와 70년의 「프리덤·볼트」 등 대공수(大空輸)훈련은 바로 이같은 전략개념에 따른 「주한미(駐韓美) 7사단의 철수에 대비한 「대체역량(代替力量)」의 준비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76년부터 실시된 「팀스피리트」 역시 잔여 미지상군(美地上軍)의 철수문제와 결코 무관(無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전(前)행정부가 금년들어 한(韓)·미(美)간에 재검토하기로 예정했던 철군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러한 의혹을 깨끗이 불식했다. 이로써 한(韓)·미(美)연합방위 전략개념은 국군(國軍)과 주한미군(駐韓美軍) 그리고 증원미군(增援美軍)을 주축으로 하는 3중(重)의 억지력으로 지역안보(地域安保)에 기여하는 새 차원으로 재정립되었으며, 그 전략태세의 첫 시험이 이번의 「팀스피리트 81」 훈련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훈련이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선거기(選舉期)에 편승, 새 공화국(共和國)의 출범을 방해하려는 북괴(北傀)의 기도(企圖)에 결정적인 제동(制動)을 걸었다는 사실을 또한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우리 국방(國防)당국은 전군(全軍) 지휘관회의를 통해 새해 들어 북괴(北傀)는 대남(對南)침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한 판단과 결의의 근거로서 군(軍)지휘관들은 ① 최근 미국(美國)의 관심과 군사력이 중동(中東)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소련(蘇聯)의 군사력은 증강일로에 있어 동북아(東北亞)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 ② 소위 제6차당대회(黨大會) 이후 전례없이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보이고 있는 북괴(北傀)의 최근 동향 ③ 특히 우리의 제5공화국(共和國) 출범을 앞둔 양대(兩大)선거기를 겨냥한 북괴(北傀)의 도발격화 징후 등을 들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정세판단에 의한 우리의 철통같은 대응태세가 「팀스피리트 81」로 과시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팀스피리트 81」 훈련은 만일 북괴가 남침공격을 시도해 올 경우 한(韓)·미(美)연합군은 침략군을 현전선(現前線)에서 단호히 섬멸할 뿐만 아니라 적(敵)의 심장부(心臟部)에까지 치명적(致命的)인 타격을 가한다는 한(韓)·미(美)연합방위 전략태세의 행동적 실증(實證)이다.

한(韓)·미(美)연합군의 이와 같은 전략태세를 북괴(北傀)와 그 배후(背後)세력에 거듭 확실

히 인식시킨 것이 이번 훈련이었던 것이다.

### 연합방위(聯合防衛)능력의 획기적 제고(提高)

「팀스피리트 81」 훈련의 성과(成果) 역시 예년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번 훈련의 전개와 때를 같이 해서 「존·위킵」 한(韓)·미(美)연합군사령관이 지난 2월, 미의회(美議會)에서 행한 증언(證言) 내용과 그에 병행한 미국(美國) 정부의 몇 가지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킵」 장군은 그의 증언에서 북괴(北傀)의 위협적인 남침(南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韓)·미(美)연합 방위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法的) 뒷받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의회(議會)도 동조(同調)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그는 현재 북괴(北傀)가 한국(韓國)에 대해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경고했다.

즉 북괴(北傀)는 외부(外部)의 지원이 없이도 최소한 60일간의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각종 장비면(裝備面)에서 전반적으로 한국(韓國)측보다 2배 내지 4배로 우세하며, 세계 최대규모의 특공대(特攻隊)와 이를 한국(韓國)후방에 투입하기 위한 2백 25대의 AN-2기(機) 및 20척의 잠수함(潛水艦) 등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상에는 12개의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推定)되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근방에 새로운 탱크부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거했다.

그는 북괴(北傀)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와 동북아(東北亞)지역의 안정(安定)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韓)·미(美)연합군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韓國)전력증강을 위해 미의회(美議會)는 지난 79년에 체결된 「나토」(북대서양(北大西洋)조약기구) 상호지원(相互支援)조약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새로운 법안(法案)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아울러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증강조치와 그리고 북괴(北傀)의 기습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국(美國)은 조기(早期)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미지상군(美地上軍)과 해(海)·공군(空軍)을 추가로 증파하는 것이 절대 불가결(不可缺)하다고 역설(力說)한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청이 「팀스피리트 81」 훈련의 진행과정에서 미국(美國)의 정책(政策)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실을 눈여겨 보았다. 오랜 현안(懸案)이던 F-16전폭기(戰爆機)의 대한(對韓)판매결정과 군사판매 원조액의 증액조치, 주한미군(駐韓美軍) 전력증강을 위한 소요예산의 대폭적인 상향(上向)조정과 AN-2기(機) 등의 저공(低空)침투에 대응키 위한 「스팅어」 방공(防空)미사일 및 M-198 신예(新銳)곡사포의 신규배치 결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방(美國防)당국이 세계분쟁지역에서의 공격행위를 신속 저지하기 위해 최근 편성한 「신속배치군」(RDF)의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灣) 지역만으로 축소조정함과 함께 이 지역의 방위를 위한 별개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美國)은 조기(早期)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증원군(增援軍)을 한국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새 전략개념을 정책적 차원에서 착실히 굳혀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미국(美國)정부가 한(韓)·미(美)양국의 군사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한(韓)·미(美)연합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나토」 상호 지원조약과 비슷한 내용의 「상호보급지원에 관한 행정협정(行政協定)」을 올해 안에 한국(韓國)정부와 체결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2월 한(韓)·미정상(美頂上)회담에서 합의된 군사협력의 강화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美國)이 대외(對外)군사지원정책에 있어 이제까지 「B그룹」에 속해 왔던 한국(韓國)을 앞으로는 「나토」 권(圈)과 동등한 「A그룹」의 최혜국(最惠國)으로 대우하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의지(政策意志)가 그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건」 행정부의 새 군사전략은 과거의 이른바 신고립주의적(新孤立主義的) 성향을 벗어나 소련(蘇聯)의 그칠 줄 모르는 군사팽창주의를 「연계(連繫)개념」(Linkage Concept)에 의해 저지하려는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 전략개념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련(蘇聯) 군사력의 4분의 1을 극동(極東)지역에 고착(固着)시켜 「유럽」으로의 이동을 견제하고 있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국군(韓國軍)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또 국방비(國防費) 부담에 있어서도 「나토」 권(圈)에 국민총생산(GNP)의 평균 2%선, 같은 A그룹인 일본(日本)이 1%를 밀돌고 있는데 비해 미국(美國)과 거의 맞먹는 6%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韓國)을 최혜국(最惠國)으로 격상(格上) 대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론(論理)의 귀결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미국(美國)은 한(韓)·미정상(美頂上) 공동성명에서 「필요적절」한 장비류의 대한(對韓)판매와 방위산업(防衛産業)기술지원 그리고 긴급사태시의 「에너지」 공급 등을 다짐한 바 있다. 「팀스피리트 81」 훈련은 실전적(實戰的)인 상황전개를 통해 한(韓)·미(美)간 「상호지원」의 요소(所要)를 충분히 산출해 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오는 4월 하순에 열릴 한(韓)·미안보(美安保)협회의회에서는 이 훈련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군(韓國軍)과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전력강화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 알찬 결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팀스피리트 81」 훈련의 성과는 바로 이상과 같은 시각(視角)에서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 북괴(北傀)의 비난(非難)은 적반하장(賊反荷杖)

「팀스피리트 81」 훈련의 성과는 훈련실시를 전후해서 북괴(北傀)의 모든 선전매체들이 거의 매일같이 신경질적인 대남(對南) 및 대미(對美) 비난의 반응을 나타낸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서두(序頭)에서도 지적했듯이 훈련이 때마침 우리의 양대(兩大)선거 기간중에 실시되

었고 따라서 이 기간을 악용하여 대남(對南)도발을 꾀하려던 기도가 이번 훈련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좌절된 데서 나온 단말마적(斷末魔的)인 반응인 것이다. 지난번 10·26사태 때 북괴(北傀)는 이를 『18년만에 닥쳐온 혁명고조기(革命高潮期)』라고 좋아 날뛰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남한인민(南韓人民)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떠들어대다가 군(軍)이 선도(先導)한 일련의 개혁(改革)조치에 의해 우리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되찾게 되자 그 후부터는 군(軍)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不信任感)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혁명고조기」의 재연(再燃)에 줄곧 혈안이 되어 왔다.

그들은 그 적기(適期)를 이번의 선거기로 보고 온갖 발악을 다하려다 「팀스피리트」에 의해 결정적인 제동이 걸린 것이다. 더우기 이번 선거에서 민주·복지·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유감없이 드러났고 새시대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安保)체제의 구축이 최우선적 과제를 믿는 국민적 합의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기 과시되자 그들은 대남(對南)모험을 어쩔 수 없이 유보(留保)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괴(北傀)는 그들의 흥계가 좌절을 맞보자 또 다른 발악을 일삼고 있다. 얼마전 김일성(金日成)은 평양(平壤)을 방문한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과 「레이건」 미국(美國)대통령에 대해 입에 못담을 극렬한 인신(人身)공격을 퍼부으면서 한(韓)·미(美)양국은 「북침(北侵)」을 위해 군사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그 증거의 하나가 「팀스피리트 81」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엉뚱하게도 이른바 「동북아(東北亞) 비핵(非核)지대」의 설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다고도 떠벌었다고 한다.

「팀스피리트」가 평화목적의 순수한 방어훈련임은 지난 2월 13일의 제4백5차 군사정전위(軍事停戰委) 본회의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가 최근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불법 배치된 북괴(北傀)병력이 5배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기습공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같은 적대적(敵對的)이며 파괴적인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한(韓)·미(美)연합훈련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북괴(北傀)측 대표의 말문이 막혀 버린 것은 그들의 「팀스피리트」에 대한 비난이 한낱 자신의 호기성(好機性)을 호도하기 위한 생떼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시인(是認)한 것이라 하겠다.

「동북아(東北亞) 비핵(非核)지대」 운운도 똑같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핵확산(核擴散)금지조약은 핵보유국을 미(美)·영(英)·불(佛)·소(蘇)·중공(中共) 등 5개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북괴(北傀)가 한반도와 일본(日本)에서 미국(美國)의 핵우산을 거둬가라는 것은 자신과 군맹(軍盟)관계에 있는 소련(蘇聯)과 중공(中共)의 핵지원을 한반도(韓半島)에서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이 담긴 위장(僞裝)평화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군사태세를 철저히 공격 위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선제(先制)기습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비공개리에 거의 날마다 실시하고 있는 북괴(北傀)가 우리의 「팀스피리

트」 훈련을 비난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美國)정부는 국무성(國務省)대변인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까지를 포함한 북괴(北傀)의 구태의연한 대미(對美)도발자세를 결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美國)을 위시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自主的)이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남북한(南北韓) 최고책임자의 교환방문을 제창한 전(全)대통령의 「1·12제의」를 하나같이 공명,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전(全) 대통령은 북괴(北傀)의 이제까지의 반응을 아직 공식거부로 보지 않으며 김일성(金日成)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직접 만나서 전쟁방지에 관해 공개(公開)토론할 용의가 있음을 최근 지방순시의 기회에 거듭 천명했다.

따라서 이제 북괴(北傀)가 택할 길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를 찾느냐, 아니면 부질없는 전쟁모험의 고집으로 자멸(自滅)을 재촉하느냐의 두 길밖에 없다. 이번의 「팀스피리트 81」 훈련은 바로 그같은 명제(命題)를 김일성(金日成)에게 거듭 명시적(明示的)으로 일깨워주었다 할 것이다.

### 자주국방(自主國防) 결의(決意)를 새롭게 하자

결론적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종료에 즈음해서 우리 국군(國軍)이 새삼 다짐할 바는 더욱 완벽한 초전(初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한 마디로 집약된다.

현대전에서 초전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국지전(局地戰) 사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더구나 북괴(北傀)의 기습남침이 이른바 「3일전(日戰)」 등으로 불리는 단기속결전(短期速決戰) 양상으로 벌어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익혀 예견하고 있는 터이다.

또 사실상 이에 대응키 위한 한(韓)·미(美)연합방위태세에 있어서 증원미군(增援美軍)이 한국(韓國)지역에 투입 전개될 때까지 초전(初戰)은 우리 국군(國軍)이 도맡아 수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자적인 전선방어 능력과 일단 유사시 즉각적인 대량보복에 의한 초전섬멸능력을 완비해야 할 우리 국군(國軍)의 소임(所任)은 한없이 막중한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한(韓)·미(美)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위해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美國)의 대한공약(對韓公約)은 지난날의 월남(越南)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의 자주국방(自主國防) 노력을 전제(前提)로 해서 이행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 안 될 줄 안다.

전(全) 대통령은 지난번 방미(訪美) 귀국인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즉 『미국(美國)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는 입장이며 국가안보의 진정한 주체(主體)는 우리들이다』 『우리 자신이 나라를 키질 결의와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는 타국(他國)이 우리를 도우려 해도 도울 수 없게 된다』 『강한 벼를 갖기 위하여는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하며 약자(弱者)에게는 강한 벼

은 물론이고 약한 벗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한 대목들을 이제 우리는 초전(初戰)능력 완비라는 과제와의 관련하여서 거듭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하겠다.

기실 「레이진」미국(美國)대통령도 지난 1월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美國)은 우방(友邦)들의 협조도에 따라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외(對外)지원공약의 이행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른 대한공약(對韓公約)의 이행이 철근계획의 백지화, 한국(韓國)의 국방력(國防力) 향상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의 최혜국(最惠國) 대우, 주한미군(駐韓美軍)전력의 획기적인 강화조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韓)·미(美)연합 방위능력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조도에 상응하는 지원」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창출(創出)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이 다름 아닌 군(軍)·민(民) 일체화된 자주국방(自主國防) 태세의 확립인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전이 총력전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군(國軍)전력증강과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세(防衛稅) 부담을 기꺼이 나누어 맡음과 아울러 특히 북괴(北傀)의 대남(對南)전략은 소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에 의한 전후방(前後方) 동시적인 기습침공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직시하여 후방지역에 허점(虛點)이 없도록 예비군(豫備軍), 민방위(民防衛)조직을 주축으로 한 자위(自衛)노력에 가일층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혼란은 적(敵)의 도발을 불러들이는 최대의 유인(誘因)임을 명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기조(安定基調)를 계속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겠다.

한편 전선(前線)을 맡고 있는 국군(國軍)장병들은 통수체계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단결 속에 적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나 침투도 초전(初戰)에 자신있게 섬멸할 수 있는 힘을 꾸준히 연마해 나가야 하겠다. 전(全) 대통령은 지난 겨울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투철한 정신무장, 강인한 체력, 효율적인 전술전기(戰術戰技) 등 3대요소가 유지되어야 비로소 우리 군은 강군(強軍)이 될 수 있다고 훈시한 바 있다.

이 3대요소의 부단한 강화문제가말로 곧 한(韓)·미(美)연합방위에 있어서의 초전(初戰)능력 완비를 위한 과제와도 직결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번 훈련을 계기로 우리 장병들이 새로이 다짐할 바가 무엇인가는 이제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대두(擡頭)와 우리의 활로(活路)

정 태 원(丁泰垣)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 석사(碩士)〉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외교통념상(外交通念上)

절대적(絕對的)인 우방국과 절대적(絕對的)인 적대국이 없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利益)과 목적(目的)이

환경(環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1.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개념(概念)

#### 1. 자원(資源)

자원(資源)이란 천연자원(天然資源), 인력자원(人力資源), 기술자원(技術資源), 식량자원(食糧資源)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대체적(大體的)인 자원(資源)의 정의(定義)를 내리면 자원(資源)이란 인류(人類)의 물질생활(物的生活)과 그 수단(手段)을 가능(可能)케 해주며 따라서 그것이 집체적(集體的)으로 표현(表現)될 때 국력(國力)의 토대(土臺)가 되는 희소가치(稀少價値)가 있는 천부(天賦)의 물리적(物理的) 실체(實體)로서 인간(人間)의 노력(努力)에 의하여 자연적(自然的) 또는 인위적(人爲的) 환경(環境) 속에서 추출(抽出) 응용(應用)되는 합목적적(合目的的) 기능(機能)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資源)으로서 가장 중요(重要)한 요건(要件)은 통설적(通設的)으로 기술적(技術的) 타당성(妥當性)(Technical Feasibility)과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Economic Feasibility)을 들고 있다. 첫째는 현재(現在)의 기술(技術)로 그 자원(資源)을 실용화(實用化)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問題)이며 둘째는 그렇게 해서 일반에 보급시킬 때에 어떤 경제성(經濟性)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問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알렉산더스포 교수(教授)는 자원

(資源)에 대한 문화적(文化的) 인식(認識)을 강조(強調)하고, 또 교통경제학자(交通經濟學者)나 공간경제학자(空間經濟學者)들은 자원(資源)의 요건(要件)으로서 근접성(近接性)을 중요시(重要視)한다.

## 2. 민족주의(民族主義)

민족주의(民族主義)는 한 마디로 민족이익(民族利益), 국가이익(國家利益)을 모든 가치(價値)보다 우선시(優先視)하는 일련(一連)의 주의(主義)이다. 이러한 민족주의(民族主義)(Nationalism)는 한 민족이 자각적으로 민족국가(民族國家)(Nation State)를 수립하고 단결하여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또는 문화적(文化的)으로 독립(獨立)하려는 의지(意志)이며 안으로는 국민(國民)의 모든 생활제도(生活制度)-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기타 문화(文化)-를 민족화(民族化)(국민화(國民化), 사회화(社會化))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民族主義)는 18세기 후반기 계몽사상(啓蒙思想)과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대두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結果)는 각각 그 특색(特色)을 유지한채 산업혁명(産業革命)의 물결을 타고 자본주의화(資本主義化)하였으며 결국은 자민족국가(自民族國家)의 이익(利益)을 추구(追求)하는 중상적(重商的) 민족주의(民族主義), 나아가서는 식민지제국주의(植民地帝國主義)로 발전(發展)된다. 대체로 초기(初期) 민족주의(民族主義) 시대(時代)의 발아시(發芽時)에는 인본적(人本的)이며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이고 세계주의적(世界主義的)이기도 했던 민족주의(民族主義)가 산업화(産業化), 물질화(物質化), 부국화(富國化)를 지향(指向)하는 과정(過程) 속에서 자민족국가(自民族國家)의 이익(利益)을 위해서는 타민족국가(他民族國家)를 침해도도 좋다는 예후(豫後)된 논리(論理)를 정당화(正當化)시켜 나갔던 것이다.

## 3.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는 여러 가지 유형의 후진국 민족주의(民族主義)의 하나로서 한 마디로 정의(定義)하자면 기본적인(基本的) 자원(資源)이 있으면서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을 못가진 후진(後進)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이 정치적(政治的) 독립(獨立)과 더불어 그 독립(獨立)을 확고(確固)히 하기 위해 필연적(必然的)으로 자국(自國)의 유한(有限)한 자원(資源)을 외세(外勢)로부터 보호(保護)하며, 또한 효과적(效果的) 이용(利用)으로 국가이익(國家利益)을 도모코자 함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경제적(政治經濟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20세기(世紀)의 범민족주의(汎民族主義) 시대(時代)에 있어서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처럼 세계(世界)를 불안하게 한 것도 없고 근본적(根本的)으로 모든 국가(國家)의 정책(政策)과 노선(路線)에 지대한 영향(影響)을 끼친 것도 없는 듯하다. 어쩌면 서구(西歐)의 민족주의(民族主義)는 17,8세기(世紀)에 처음으로 주창(主唱)되기 시작한 이래 자유주의적(自由

主義的) 민주주의(民主主義), 식민제국주의(植民帝國主義), A. A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분화과정(分化過程)을 거쳐 현금(現今)에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라고 하는 일련(一連)의 저항적(抵抗的) 이데올로기를 파생(派生)시킴으로써 세계적(世界的)인 혼란을 야기시켰고, 그럼으로써 그 자체(自體)의 속성과 한계(限界)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대두(擡頭)

### 1. 저개발국(低開發國)의 빈곤화(貧困化)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근대적(近代的) 태동은 일찌기 중남미(中南美)지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17년 멕시코는 혁명 후 「지하천연자원은 국가소유임」을 헌법에 규정했고 곧 이어 1920년 베네주엘라가 석유탐사 및 개발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세금(稅金)의 부과를 시작하였으며, 2차대전 이후에는 경영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신석유법(新石油法)을 제정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국제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중남미(中南美)에서 발생(發生)한 석유자원(石油資源)의 국유화(國有化)를 향한 점진적 조처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번져가서 마침내 1951년 이란의 석유국유화(石油國有化)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1952년 제7차 UN총회에서 「천연(天然)의 부(富)에 대한 국유화(國有化)」가 선언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처는 2차대전 이후 식민치하(植民治下)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가들이 정치적(政治的) 독립은 성취하였으나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을 구축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개발(開發)에 대한 전통적 장벽에 부딪쳐 크게 좌절되자 식민지시대(植民地時代)의 대중주국(對宗主國)들에게 일방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던 천연원료 및 1차산품(產品)의 역사적 부등가(不等價)교환에 대한 뒤늦은 보상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經濟的) 낙후성을 해결하는데 선진국의 공동책임(共同責任)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후 이들 신생국들은 미(美)·소 양 대국을 축으로 하는 양극화(兩極化)의 냉전체제 속에서 초연한 정치(政治), 외교적(外交的) 입장을 취하면서 「라룻세」가 지적한 대로 낙후성을 지닌채 자유주의 경제진영에도 공산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불록을 형성하였고, 그들의 주도세력들은 비동맹중립주의(非同盟中立主義)의 정치적(政治的)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들 신생국가들이 국제경제 속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즉 국제경제구조의 다원화(多元化) 추세 속에서 이들 신생독립국가들이 추구한 제3세계 운동이나 혹은 이들 가운데 그 주도세력들이 추구한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차원보다는 「프랭크·오리브」가 말한 남북(南北)관계에서 남(南)으로 통칭되는 국가군(國家群)들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를 남북(南北)관계에서 볼 때 선진 고도공업국의 공산품과 자원보유(資源保有) 저개발국의 1차산품(產品) 사이의 국제교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發生)하는 부등가(不等價)교환이 초래하는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남(南)측의 항변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전후 경제부흥을 끝낸 소련을 위시한 동(東)유럽 및 아시아의 사회주의 진영국가들은 50년대 중반부터 제3세계의 신생국가군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자본주의 선진제국들은 저개발국의 빈곤의 퇴치없이 자본주의 세계의 안정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의 결과 60년대에 접어들면서 UN총회에서는 「식민지독립선언(植民地獨立宣言)」을 채택하여 신생독립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관한 이슈가 국제정치적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2. 석유위기(石油危機)와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남북(南北)관계에 남(南)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73년 10월 중동전(中東戰)을 계기로 획기적 신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中東戰)을 계기로 OPEC에 의한 석유의 자원 무기화의 단행으로 산유국(產油國)은 석유산업의 국유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석유의 가격결정 메카니즘에 생산자측의 의지를 개입시키고 선진국의 대공산품 패리티지수(指數)를 인상시킨 결과 산유국들의 대공업국 교역조건은 크게 상승되었으며, 이는 그만큼 석유소비국의 소득이 산유국으로 강제 이동되었음을 뜻한다. OPEC의 자원 무기화(資源武器化) 성공은 개도국(開途國)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 주었다. 자원(資源)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남권(南圈)은 그들의 자원을 무기로 단결하면 선진국의 자선적 시혜(施惠) 없이도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 국제정치에서의 비중을 선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자원(資源)카르텔의 형성이 석유(石油) 이외의 원자재(原資材)에 이르기까지 파급되었고 남북(南北)관계에서 개도국(開途國)이 전후(戰後)에 그렇게 부르짖어 오던 대등한 주권(主權)과 공평한 부(富)의 분배를 실현하는데 그들의 단체 교섭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던 원자재=저가격, 공산품=고가격의 등식은 깨어지고 원자재의 저가격(低價格) 대량공급 시대는 그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石油武器化)의 성공으로 자원보유개도국(資源保有開途國)의 경제적 비중의 신장, 중공(中共)의 UN 진출, 제3세계 운동과 상승적으로 향상된 개도국(開途國)의 정치적(政治的) 지위향상을 배경으로 1974년 4월에는 UN자원특별총회(資源特別總會)가 개최되어 남북(南北)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신국제경제질서(新國際經濟秩序)(NIEO)의 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行動綱領)」이 개도국(開途國)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이 선언(宣言)에서 개도국(開途國)은 새로운 국제경제(國際經濟)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을 요구하였다.

① 개도국(開途國)의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항구전과 국유화를 위한 관리 및 개발권의 인정

- ② 개도국(開途國) 교역(交易)조건 개선
- ③ 다국적 기업의 규제 및 감시
- ④ 원조의 확대와 공여 조건의 완화
- ⑤ 개도국(開途國)의 개발촉진을 금융면에서 보증하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 ⑥ 생산자, 카르텔의 촉진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대강(大綱)을 선진국들은 지지하였고 이어서 그해 12월 UN총회에서 「제국(諸國)간의 경제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은 부존자원(賦存資源) 국유화 권리와 자원 카르텔 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는데 성공하였다. 1976년 5월 나이르비에서 1백39개 국가가 참석한 UNCTAD 4차 총회에서 1차 상품의 종합(綜合) 프로그램이 채택되는 등 신경제질서(新經濟秩序)는 선후진국간의 경제관계를 대등한 교역 당사자로 정립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 3.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미래(未來)

OPEC에 의한 석유 무기화의 성공적 실증(實證)과 그에 따른 일련의 비석유(非石油) 국제자원 카르텔의 형성 등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열기는 오일달러의 산유국(產油國) 집중으로 인한 국제무역구조의 커다란 변혁과 비산유개도국(非產油開途國), 국제수지의 구조적 역조(逆調), 선진국 경제와 비산유개도국(非產油開途國)의 성장둔화와 고(高)인플레이가 초래하는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켰다.

개도국(開途國)들은 석유파동을 계기로 OPEC구성원 산유국과 비산유국(非產油國)으로 구분되어 국제경제상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고 선진국들은 석유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써 종전과 같은 세계 경제의 남북(南北)관계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자원보유 개도국(開途國)과 자원빈곤 개도국(開途國) 사이에는 석유의 부존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유형의 「종속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선진공업국은 석유의 대량 공급에서 구축한 소비문명(消費文明)에 커다란 조정(調整)(Adjustment)과 변환(變換)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세계인구의 5%의 국민으로서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독보적 에너지 다소비문화(多消費文化)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79년 5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5차 UNCTAD총회는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開途國) 상호간 특히 신흥공업국(NICS) 산유국(產油國), 비산유국(非產油國)그룹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제3세계의 공동보조에 균열이 일어났다.

코스타리카가 비산유개도국(非產油開途國)의 석유(石油)문제로 인한 국제수지의 어려움에 대하여 대산유개도국(對產油開途國) 석유정책의 수정을 제기하였으나 OPEC회원국은 이를 반대하였다. 한편 OPEC에 의한 자원민족주의의 공세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은 크게 단합된 보조를 취하는 대조적 현상이 일어났다. 제5차 UNCTAD총회에서는 남북간의 상호 의존관계, 다자(多

者)간 무역협정(MTN), 기술이전문제, 완제품 및 반제품의 무역확대조치, 외채(外債)의 삭감 등이 논의되었으나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UNCTAD는 「다음 총회 때까지 노력하든지 연기하자」(Unit Next Conference, Try and Delay)로 풍자하면서 폐막되었다.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열병을 치른 세계경제는 각 개별국가가 여전히 기본적인 국제경제 단위가 되지만 공동의 문화 및 정치이념의 배경, 지리적 접근성(近接性)을 기초로 다국적 경제블록들이 국제적인 경제행동 및 교섭단위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게 대두되었다. EEC의 선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개의 북수국가들이 동일 경제단위화되어 가는 조적이 농후하다.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는 19세기 이래 서구적 발전(發展)사상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면서 제3세계에 만연되고 있었던 천연부존자원의 고갈, 다국적 기업의 진출, 대외(對外)채무의 누적, 상대적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중심국(中心國)」 의존형의 「주변국」 발전노선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민족주의는 중심(中心)-주변(周邊)관계의 단절(斷切)에서 주변국(周邊國)의 발전잠재력이 실제화 된다고 보고 전통적 국제분업 이론의 거부, 다국적 기업의 배제 등 자원의 힘에 의한 경제적 자력갱생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다극화 되어 가고 있는 경제블록화의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에게서 오일쇼크 전후와 같은 자원민족주의의 열풍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나 경기순환의 단기적 극복을 좌우할 정도의 자원파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보유국의 집단화(集團化)(Grouping)에 의한 힘의 집결은 국제경제 조류의 흐름에 커다란 변수로 앞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는 전후 세계 경제의 지속적 확대균형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음에 틀림없다.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는 자원의 고갈에서 당연하게 될 인류의 비판적 장래를 앞당겨 예고하여 주었고 그에 따른 충분한 조정시간(調整時間)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는 선진공업국의 독점적 자원소비문명(資源消費文明)의 향락에 제동을 걸고 제3세계의 빈곤(貧困)해결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남북(南北)의 유기적이고 공평한 상호의존(相互依存)(Mutual Interdependence)관계에서만 지속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선, 후진국들을 막론하고 세계는 상자원(商資源)가격에 발맞추어 향후 20여 년까지는 장기적 안목으로 신축적 조정기를 거쳐야만 될 것 같다. 세계은행의 1979년도 세계개발보고서(世界開發報告書)(World Development Report)가 지적한 대로 선진국은 자원수요의 절제, 핵발전(核發展)의 안전적 개발, 합성연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산유국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생불가능 자원의 수명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타 개도국(開途國)들은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 및 경제성 재고에 노력하여야 될 것 같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같은 비산유 NICS는 발전전략(發展戰略)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어 위에서 제기한 3개의 경제전의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신축적 자세가 요청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고 세계전체생산이 신장하기 위하여는 국제상품교역, 국제적 자본이동, 에너지자원개발 면에서 인류의 보완적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어느 한 요소, 예를 들어서 국제상품교역이 개도국(開途國)의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대(對) 선진국(先進國)의 보호주의 정책의 대립때문에 파멸이 생길 경우 비산유 개도국(開途國)의 대외채무(對外債務)상환은 전면적 불능상태에 직면하여 국제금융시장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南北)간의 상호 의존성은 표면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더욱 깊게 얽혀 있다. 단기적 이익(Ephemeral Gains)에 집착한 남(南)의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나 혹은 북(北)의 대국주의(大國主義)는 다 같이 호혜(互惠) 부등(不等)의 관계로 발전적 승화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와 우리의 활로(活路)

#### 1. 자원확보정책(資源確保政策)의 문제점(問題點)

가. 정책방향(政策方向)의 확립(確立)과 정책실천(政策實踐)의 적극화(積極化) : 석유위기(石油危機)의 장기화전망(長期化展望)을 고려하여 조기(早期)의 정책확립(政策確立) 및 이의 구체화(具體化) 실천(實踐)이 요망되며 정부(政府)가 설정(設定)한 에너지 정책(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에 다음 사항(事項)이 확립(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자원확보체제(資源確保體制)의 방향(方向)을 장기적(長期的)으로 정부주도(政府主導)로 밀고 나갈 것인가, 또는 민간종합상사(民間綜合商社) 등 민간(民間)의 활동(活動)을 제고(提高)시킬 것인가의 확정(確定)과 이에 수반(隨伴)된 지원체제(支援體制)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구조(價格構造)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하여 국내탄가(國內炭價)가 수입탄가(輸入炭價)의 1/2정도(程度)이므로 이를 정부보조금(政府補助金)으로 지원(支援)하고 있다. 국내가격결정(國內價格決定)도 물가(物價)에의 영향(影響)을 고려하여 억제(抑制)하는 등 에너지 가격(價格)을 물가정책(物價政策)의 범주 내에서 묶어주는 정책추진(政策推進)을 요망하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가 더욱 증대(增大)할 우려로서는 에너지 확보상(確保上) 커다란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長期的)으로 에너지 가격구조(價格構造)의 정상화(正常化) 국제화(國際化)가 시도(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경제협력(經濟協力)의 미흡(未洽) 및 단조(單調)로운 협력방식(協力方式) ; 우리나라의 대산유국(對產油國) 경제협력(經濟協力)은 중동석유수출국(中東石油輸出國)에의 건설수출(建設輸出)과 이에 따른 인력(人力) 송출(送出)이 주종(主宗)을 이루었고 상품수출(商品輸出)도 석유사태(石油事態)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각(各) 산유국(產油國)이 가장 바라고 있는 직(直)·합작(合作) 투자면(投資面)에서는 아직도 초보적(初步的)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중동(中東)의 석유수출국(石油輸出國)들은 건설수출위주(建設輸出爲主)의 진출(進出)은 실질적(實質的)이며 장기적(長期的)인 경제협력(經濟協力)이 아니라는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하고 있어 직접거래(直接去來)를 통한 원유(原油)의 안정적(安定的) 공급선(供給先) 확보(確保)를 위해서는 합작투자(合作投資), 기술제공(技術提供) 등의 실질적(實質的) 경제협력(經濟協力)이 확대(擴大)되어야 한다. 경제협력(經濟協力)은 제공(提供)뿐만 아니라 도입(導入)도 중요(重要)한 협력방식(協力方式)이라는 견해(見解)에 입각하여 우리의 국제수지(國際收支) 악화(惡化)의 보전수단(補填手段)으로 중동국가(中東國家)의 잉여 오일마니를 도입(導入)하는 방안(方案)도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산유국(產油國) 자본(資本)의 국내도입(國內導入)은 산유국(產油國)과의 경제협력증진(經濟協力增進) 및 원유확보(原油確保)를 위한 효과적(效果的)인 방안(方案)으로 평가(評價)되며 다른 부문(部門)에도 확대(擴大), 협력심화(協力深化)에 노력(努力)해야 할 것이다.

다. 재원확보(財源確保) : 자원비축(資源備蓄), 해외자원개발지원(海外資源開發支援), 국내 자원개발보조(國內資源開發補助),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發電所) 건설(建設), 에너지이용(利用) 합리화(合理化) 추진(推進) 등 종합자원(綜合資源) 대책(對策)을 위하여는 재원확보(財源確保)가 큰 과제이다.

79년의 국제수지악화(國際收支惡化) 및 80년의 어두운 전망(展望)을 감안(勘案)할 때 해외(海外)로부터의 재원보전(財源補填)에는 상당한 애로(隘路)가 수반(隨伴)될 것이나 자원확보(資源確保)의 중요성(重要性)을 감안하여 석유비축(石油備蓄),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發電所) 건설(建設) 등의 자금(資金)에는 적극적(積極的) 차입(借入)이 필요(必要)하다. 일본(日本)의 경우에는 에너지 확보(確保)를 위한 재원확보방안(財源確保方案)으로 전원발전축진세(電源發展促進稅)를 인상(引上)하고 특별(特別) 회계(會計)를 신설(新設)하고 있다.

## 2. 자원외교(資源外交)의 강화(強化)

석유(石油)를 전량(全量) 수입(輸入)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석유(石油) 총력외교(總力外交)를 강화(強化)해야 할 필요(必要)가 절실하다. 특히 중동(中東)에서 전량(全量)을 수입(輸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동외교(中東外交)의 적극화(積極化) 즉 방문(訪問), 초청외교(招請外交)를 강화(強化)하고 자원담당관(資源擔當官)의 신설(新設) 또는 증설(增設)과 아라비스트를 양성(養成)하여 석유정보(石油情報)를 정확(正確)히 파악(把握)하여 이에 대한 외교정책방향(外交政策方向)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안정적(安定的)인 원유확보(原油確保)를 위한 자주적(自主的) 외교(外交)의 강화(強化)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 승인문제(承認問題)로 미국(美國)을 비롯한 강대국(強大國)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PLO와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는 항상 석유위기(石油危機)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이에 한(韓)·사우디, 한(韓)·쿠웨이트의 정상회담(頂上會談)을 통하여 PLO의 사실상(事

實上) 승인을 하였다. 특히 PLO의 승인문제는 석유확보(石油確保)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관계개선(關係改善)에도 지대한 영향(影響)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유국(產油國)의 미수교국(未修交國)과의 외교관계수립(外交關係樹立)에 적극적(積極的)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하다. 이들 대상국(對象國)에는 우선 정치(政治), 외교적(外交的) 노력(努力)보다는 경제(經濟), 문화(文化) 예면(例面)부터 시작하여 정부(政府)보다는 민간(民間) 베이스로 국가이익(國家利益)과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해야 한다.

## 3. 자원공급선(資源供給先)의 다변화(多變化)

우리나라는 중동지역(中東地域) 국가(國家)에서 100% 의존(依存)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地域)에 정변(政變) 또는 분쟁(紛爭)이 발생(發生)할 때에는 자원(資源)의 장기(長期) 안정적(安定的) 확보(確保)가 어렵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유(原油)의 도입지역(導入地域) 및 공급국(供給國)의 다변화(多變化)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最近)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中南美)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 상당량의 석유매장량(石油埋藏量)이 발견(發見)되어 생산단계(生產段階)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발표(發表)하였다. 이들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들에게 장기적(長期的)인 경제협력 및 자원외교(資源外交)를 강화하여 안정적(安定的)인 자원확보(資源確保) 대책(對策)을 수립(樹立)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經濟構造)가 수출주도적(輸出主導的) 체제(體制)이므로 대미의존적(對美依存的) 또는 대일의존적(對日依存的) 상태(狀態)에서 과감히 탈피(脫皮)하여 자주적(自主的) 외교(外交)로 직접(直接) 또는 간접(間接)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 바터무역(貿易)을 강화(強化)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必要)한 자원공급(資源供給)을 중동제국(中東諸國)과 병행(並行)하여 여러 지역(地域)에서 공급선(供給先)을 확보(確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이면서 자본(資本) 또는 기술(技術) 부족(不足)으로 개발(開發)이 되지 않는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에 대해서 자원개발(資源開發)을 통(通)한 수입(輸入)도 강화(強化)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結論)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외교통념상(外交通念上) 절대적(絶對的)인 우방국과 절대적인 적대국이 없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利益)과 목적(目的)이 환경(環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의 배경(背景), 이념(理念), 이상(思想), 그리고 Nationalism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本稿)는 중동(中東) 산유국(產油國)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외교적(外交的)인 측면( 측면)을 자원정책(資源政策)의 차원(次元)에서 고찰해 보면 첫째, 그들의 국제적 지위강화(地位強化) 및 국가안보(國家安保),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제(第)3세계(世界)에서의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 그리고 경제(經濟) 및 사회개발(社會開發)

## 소련(蘇聯)의 팽창주의(膨脹主義) 정책(政策)

이기탁(李基鐸)

《연세대(延世大) 정법대(政法大) 교수(教授)》

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外交關係) 개선(改善)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形成)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60년대 이전(以前)의 UN외교(外交)를 중심(中心)으로 한 정치외교(政治外交)보다 경제외교(經濟外交)를 더욱 강화(強化)하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자원부족(資源不足) 그리고 수출증대,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고 하면 중동산유국에 대(對)한 외교(外交)를 적극적, 능동적 그리고 자주적(自主的) 외교(外交)를 강화(強化)하며 변동대응전략외교(變動對應戰略外交)를 검토(檢討)해야 한다. 셋째로 중동산유국(中東產油國)에 대(對)한 외교(外交) 전문가(專門家)를 양성(養成)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 이것은 미국(美國)이 오일쇼크 직후(直後) 중동(中東)에 대(對)한 석유전문가(石油專門家)들이 없어서 당황했다는 사례(事例)를 보면 우리도 아라비스트를 대량 양성하며 자원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對)한 외교정책방향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자원의 중요성이 중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동산유국을 중심으로 자원확보에 대(對)한 외교전(外交戰)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60%가 중동제국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 또는 수입 등의 전략 수립에 정책(政策)을 집중(集中)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석유수출국으로 부상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동,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공급선(供給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합작투자(合作投資) 또는 통상교역증진(通商交易增進) 그리고 방문, 초청외교를 강화하고 전문자원 담당관의 신설 또는 증설이 외교정책적 차원(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자원위기를 감안(勘案)한 자원외교정책(資源外交政策)을 수립(樹立)해야 한다. 자원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정책결정에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져야 하며 특히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수립(樹立)되어야 하며 수립된 정책(政策)을 일관성(一貫性) 있게 꾸준히 추진(推進)하여 국내 에너지 기반강화(基盤強化)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협력(協力)이 절실(切實)히 요구(要求)되는 바 정부의 솔직(率直)하고 알기 쉬운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자원위기에 대비한 자원비축정책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최소 60일(日)에서 최장 180일분(日分)까지 비축량을 확대하여 지하, 지상, 해상에서 자원비축(資源備蓄)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Gulf, Caltex, Union의 대석유회사(大石油會社)의 불평등 계약을 수정 또는 폐기(廢棄)하여 그들의 폭리를 막고 국민경제(國民經濟)를 보호(保護)해야 한다. 끝으로 민족자본을 민족자원회사의 설립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긍지를 심어 주는데 보탬이 될 것이며 자원위기와 국민적(國民的) 화합(和合)이 이루어질 것이다.

### 목차(目次)

- 일(一). 소련(蘇聯)의 팽창정책(膨脹政策)의 역사적(歷史的) 패턴
  - 1.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要因)
  - 2.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짜르의 연장
- 이(二).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 침공(侵攻)과 문제점(問題點)
- 삼(三). 결론(結論)

### 일(一). 소련(蘇聯)의 팽창정책(膨脹政策)의 역사적(歷史的) 패턴

소련(蘇聯)의 팽창(膨脹)정책(政策)은 러시아의 짜르시대로부터의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에서 기인한다.

짜르정권(政權)으로부터의 역사적 전통(傳統)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에트의 세계정책(世界政策)도 이러한 러시아의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러시아로부터 소비에트에 이르기까지의 팽창정책(膨脹政策)을 보려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요인(要因)이며 또 하나는 역사적(歷史的) 전통(傳

統)에서이다. 소련(蘇聯)의 팽창정책(膨脹政策)은 따라서 고전적인 전통(傳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 가장 영토(領土)와 세력권(勢力圈)을 확장하고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소비에트러시아인 것이다.

오늘의 소련(蘇聯)은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적(軍事的) 침공(侵攻)에서 보듯이 혹은 석유지대(石油地帶)인 중동문제(中東問題)에 개입(介入)하려는 태세(態勢)에서 보듯이 그의 영토적(領土的)이며 세력권(勢力圈) 영역(領域)의 확대를 그칠 줄 모른다. 아마도 미국(美國)의 새로운 레이건 정부(政府)가 이에 단호한 정책(政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소련(蘇聯)의 팽창정책(膨脹政策)이 이 이상 전개(展開)될 때에는 「서방(西方)」의 「치명적 이익(利益)」(Vital Interest)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출발점에서 그의 정책(政策)을 전개(展開)하려는 것을 충분히 이해(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 1.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要因)

소련(蘇聯)은 기본적으로 「대륙국가(大陸國家)」라는 점이다. 나폴레옹전쟁(戰爭) 이후 러시아는 대륙(大陸)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비엔나체제(體制)의 특징인 유럽대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패권(霸權)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구축된 「세력균형(勢力均衡)」체제(體制) 때문에 패권(霸權)이 형성(形成)되지는 못하였으나 러시아의 기본적인 정책(政策)은 항상 중부유럽으로의 진출(進出)을 통한 유럽 대륙(大陸)에서의 패권(霸權)의 수립(樹立)이 목표(目標)로 되어 왔다. 오늘에 이르러 러시아가 중부 유럽인 독일(獨逸)까지 지배(支配)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例)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파악한다면 역사적(歷史的)인 의미(意味)에서와 서방(西方)은 항상 중부유럽의 강화(強化)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것이 1, 2차(次) 대전(大戰)을 거치면서 서방정책(西方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제2차(第二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以後)부터는 중부(中部)유럽에까지 진출(進出)할 수 있게 되었고 중부(中部)유럽을 동독(東獨)이라는 형태로 깊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의 중부유럽에 대한 장악은 순수하게 군사적(軍事的)인 것이다. 러시아가 오늘날 동독(東獨)을 지배(支配)하는 것은 직접적인 러시아 사단의 주둔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나폴레옹 전쟁(戰爭) 직후 영국(英國)이 가장 걱정하였던 것은 나폴레옹군(軍)의 몰락 이후 가장 큰 육군국(陸軍國)으로서 등장한 러시아의 중부유럽진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문제였던 것이고 따라서 영국(英國)은 중부(中部)유럽의 강화(強化), 즉 독일(獨逸)의 형성(形成)을 통하여 이를 실천한 것이었다. 오늘의 독일문제(獨逸問題)의 해결(解決)은 독일(獨逸)의 해체를 통한 중부(中部)유럽의 약화(弱化)라는 해결로서 러시아와 서방(西方)이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정책(政策)의 핵심(核心)은 역시 유럽대륙(大陸)에서의 패권수립(霸權樹立)

立)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정책(軍事政策)의 핵심(核心)도 역시 유럽전장(戰場)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소련(蘇聯)의 모든 군사정책(軍事政策)의 초점과 사활적(死活的)인 전략지점(戰略地點)이 유럽에 있는 것도 러시아의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륙적(大陸的) 성격(性格)은 러시아의 역사적(歷史的)인 형성(形成)의 기원(起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중부유럽으로의 팽창정책은 지리적(地理的)으로 항상 서방지향적(西方指向的)으로 진행된 것이다. 폴란드의 3차에 걸친 분할정책(分割政策)이 그 대표적(代表的)인 특징(特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소련(蘇聯)의 외교군사정책(外交軍事政策)도 역시 그러한 지리적(地理的)인 요인(要因)이 지배(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중부(中部)유럽의 장악을 통한 유럽대륙에서의 패권수립(霸權樹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地理的)인 러시아가 지리적(地理的)으로 「유라시아」라고 하는 특징(特徵)이다. 아마도 세계열강중(世界列強中)에 대륙(大陸)에 있어서나 해양(海洋)에 있어서나 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점하는 지리적(地理的) 국가(國家)는 아마 소련(蘇聯)을 제외하고는 없다. 러시아는 유럽대륙과 함께 극동(極東)과 시베리아라는 동(東)아시아까지 깊숙이 뻗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地理的) 특징(特徵)은 러시아나 소련(蘇聯)의 대외관계(對外關係)에 있어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러시아의 역사(歷史)는 사실상 대서양(大西洋)으로부터 태평양(太平洋)에 이르는 국가적(國家的) 노력(努力)의 균형(均衡)을 어떻게 잡아 가는가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그의 외교군사상(外交軍事上)의 노력(努力)을 어느쪽에 보다 힘을 기울이느냐 하는 데에 대한 국가적(國家的) 노력(努力)에 따라서 그 균형(均衡)이 대서양(大西洋) 혹은 극동(極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러시아가 대서양(大西洋) 혹은 태평양(太平洋)으로의 진출방향(進出方向)의 선택이 한쪽으로 나타날 때에는 다른 반대방향(反對方向)에서는 「엄호」적인 성격(性格)을 띠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선호적인 진출(進出)의 방향(方向)은 러시아의 국가이익(國家利益)이나 행동(行動)의 자유(自由)가 주어질 때에 그의 방향(方向)이 결정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방향 즉 대서양(大西洋)으로의 진출(進出) 혹은 대서(對處)인가 아니면 그 반대방향(反對方向)인 태평양(太平洋)으로의 진출(進出)인가 하는 두 개의 방향(方向)은 항상 상호(相互)연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서양(大西洋)인가 태평양(太平洋)인가 하는 두 개의 군사외교(軍事外交)의 노력(努力)과 방향(方向)이 상호적(相互的)이라는 말이 된다. 러시아는 그가 진출하려는 방향(方向)의 반대방향(反對方向)에 대하여는 적어도 항상 외교적(外交的)인 엄호정책이 작용하는 것이다. 때로 상황이 허용된다면 러시아는 진출(進出)의 반대방향(反對方向)에 대하여서도 군사행동(軍事行動)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이 역사적(歷史的)인 예(例)인 것이다. 이는 진정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방향(方向)에 대한 대대적인 힘을 기울이기 위한 노력(努力)의 일환인 것이다. 적어도 진출하려는 방향(方向)과는 반대방향(反對方向)에

서 안전(安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이러한 예(例)를 1960년말에 있어서의 소련(蘇聯)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침공(侵攻)을 보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蘇聯)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침공(侵攻)은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체코의 자유화(自由化)를 탄압하기 위한 군사조치(軍事措置)로도 생각할 수 있다. 체코의 자유화(自由化)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에는 동(東)유럽 전체가 자유화(自由化)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데서 소련(蘇聯)의 체코군사조치(軍事措置)가 나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論理)와는 달리 체코군부자체(軍部自體)의 정보평가(情報評價)에서는 보다 깊은 평가(評價)를 한 일이 있다. 소련(蘇聯)의 체코 침공(侵攻)으로 병영(兵營)에 갇혀 있었던 체코군부(軍部)의 첩보보고서와 두브체크에게 낸 종합보고서(綜合報告書)에 의하면 소련(蘇聯)의 체코 침공(侵攻)은 그 목적(目的)이 다른데 있다는 것이었다. 소련(蘇聯)의 체코 침공(侵攻)은 단순히 체코라는 소국의 자유화(自由化)를 염려하여서가 아니라 소련(蘇聯)의 체코침공(侵攻)의 목적(目的)은 그 목적(目的)이 첫째로 중소국경문제(中蘇國境問題) 때문이며 둘째로 중소국경(中蘇國境)의 군사대처(軍事對處)를 위한 것이고 셋째로 중공(中共)과의 앞으로의 본격적(本格的)인 대처(對處)를 위한 것이 그 목적(目的)이었다고 결론(結論)짓고 있는 것이다.

소련(蘇聯)이 체코를 침공(侵攻)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장기간(長期間)의 중공(中共)과의 본격적(本格的)인 극동(極東)에서의 대처(對處)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소련(蘇聯)은 일단 그 반대방향(反對方向)인 서구(西歐), 적어도 동구(東歐)에 대한 진압(鎮壓)을 가할 필요(必要)가 있었다는 것이 체코침공(侵攻)의 논리(論理)였던 것이다. 소련(蘇聯)의 체코침공(侵攻)은 그 목적(目的)이 체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공(中共)에게 있다는 것이 그 논리(論理)인 것이다. 소련(蘇聯)의 체코침공(侵攻)은 단순히 소련(蘇聯)의 동구정책(東歐政策)이라기보다는 세계전략적(世界戰略的)인 관점(觀點)에서 전개된 것이라는 점(點)이다. 소련(蘇聯) 모스크바의 세계전략(世界戰略)은 앞으로 극동(極東)에서의 소련(蘇聯)의 군사정치적(軍事政治的) 대결(對決)이 소련(蘇聯)의 기본목표(基本目標)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구(西歐)와의 「데탕트」와 적어도 동구(東歐)의 동요(動搖)를 진압(鎮壓)하거나 탄압(彈壓)함으로써 그 반대방향(反對方向)인 극동(極東)에서의 소련(蘇聯)의 행동범위(行動範圍)를 확고하게 확보한다는 것이 소련(蘇聯)의 세계전략하(世界戰略下)의 체코 침공(侵攻)이었다는 논리(論理)인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地理的)인 요인(要因)의 양면성(兩面性)은 러시아와 소련(蘇聯)의 외교사(外交史)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獨逸)과의 대처(對處)를 위해서는 일본(日本)과의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을 서슴치 않으며 극동(極東)에서의 소련초기(蘇聯初期)의 혼란(混亂)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일(獨逸)과의 비밀조약(秘密條約)으로 현상유지(現狀維持)를 서슴치 않는 소련(蘇聯)의 외교(外交)가 이를 잘 증명(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 2.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 - 짜르의 연장

이러한 지리적(地理的)인 요인(要因)과 함께 소비에트 외교(外交)나 군사정책(軍事政策)을 관찰(觀察)하는데 중요(重要)한 것은 역사적(歷史的) 전통문제(傳統問題)인 것이다. 소련(蘇聯)은 1920년대 초기에 짜르정권(政權)의 비밀외교문서(秘密外交文書)인 「홍문서(紅文書)」(끄라스노이·알히브)를 간행하기 시작한 일이 있다. 짜르정권(政權)의 외교문서(外交文書)를 간행하기 시작한 이유(理由)는 물론 짜르정권(政權)의 「제국주의정책(帝國主義政策)」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짜르정권(政權)의 극동정책(極東政策)에 관한 중요(重要)한 자료(資料)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중단되고 만다. 그 이유(理由)는 극동(極東)에 관한 많은 외교문서(外交文書)가 간행됨에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立場)에서 짜르정권(政權)의 극동정책(極東政策)이라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國家利益)으로 볼 때에 극히 「타당한」 측면(側面)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에트정권(政權)이 추구(追求)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책(政策)의 모형(模型)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정부(政府)는 이 외교문서(外交文書)의 간행(刊行)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사실상 소비에트정권(政權)은 짜르정권(政權)의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을 거의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오늘의 소비에트외교(外交)나 군사전략(軍事戰略)을 고찰할 때에 중요한 방법(方法)의 하나는 러시아의 역사적(歷史的)인 전통(傳統)을 깊이 관찰하거나 알고 접근(接近)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最善)의 방법(方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소련(蘇聯)의 외교(外交)나 군사전략(軍事戰略)의 성격(性格)을 캄플라지하게만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인(要因)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짜르정권(政權)의 역사적(歷史的) 보기를 그대로 계승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짜르정권(政權)의 역사적 패턴의 계승이라는 것은 오늘의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 침공(侵攻)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 침공(侵攻)은 소련(蘇聯)의 이데올로기나 소련(蘇聯)의 공식적(公式的)인 외교논리(外交論理)를 갖고서 무리를 해서도 설명될 수 없는 군사현상(軍事現象)인 것이다. 소련(蘇聯)의 이데올로기나 기타 소련외교논리(蘇聯外交論理)를 갖고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는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과의 논리(論理)를 갖고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상 러시아외교(外交)나 군사전략상(軍事戰略上)의 진출(進出)은 세계의 방향(方向)으로 집약되었다. 즉 그 하나는 중부(中部)유럽으로의 진출(進出)이고 또 하나는 반대방향(反對方向)인 극동(極東)으로의 진출로서 주로 중공(中共)과 일본(日本)과의 관계에서 형성(形成)되어 간 것이다. 그 또하나가 「중앙(中央)아시아」로의 진출인 것이었다. 오늘날 중앙(中央)아시아에서의 문제인 중국문제(中國問題), 아프카니스탄문제, 이란문제(전에는 페르사문제) 등으로 집약되는 이 지역(地域)은 사실상 1907년 「영로조약(英露條約)」에 따라서 러시아의 중앙(中央)아시아로의 진출(進出)을 제어하고 영국(英國)과 타결한 조약(條約)의 결과(結果)로 현상유

지(現狀維持)되어 온 지역(地域)인 것이다. 1907년의 영국(英國)과 러시아간의 대립(對立)을 중앙(中央)아시아에서 지역적으로 타결한 조약(條約)이었다. 여기에서도 페르샤문제, 아프카니스탄문제, 티베트문제를 타결함으로써 중앙(中央)아시아 문제를 타결하고 오랫동안의 영국(英國)과 러시아간의 대립(對立)을 일단 현상유지(現狀維持)한 것이었다. 지금의 이란, 아프카니스탄, 중공(中共) 등과의 관련에서 거의 같은 패턴의 중요성(重要性)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상 역사적(歷史的) 패턴이라고 할 때에 짜르 정권(政權)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핵심(核心)이었던 「따뜻한 바다」로의 진출(進出)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다와 가까운 지역(地域)에 대한 전략적(戰略的) 장악(掌握)이나 돌파(突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략적(戰略的) 장악(掌握)은 주로 지중해(地中海)로의 진출(進出)을 위해서 항상 터키의 와해와 보스포루스해협과 다 아다넬스 해협의 장악으로 나타났었다. 진출(進出)과 돌파(突破)는 가능한 모든 바다로의 진출구(進出口)에는 시도되나 중앙(中央)아시아도 그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국(英國)의 견제로 결국(結局) 실패(失敗)하거나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2세기에 걸친 긴 외교사(外交史)는 대륙(大陸) 러시아세력(勢力)의 바다로의 진출(進出)과 영국(英國)이라는 해양국가(海洋國家)의 이에 대한 견제와 대처(對處)의 역사(歷史)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소비에트역사(歷史)도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패턴과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以後)는 영국(英國) 대신 같은 앵글로색슨인 미국(美國)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二).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과 문제점(問題點)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을 상기(上記)한 지리적(地理的)인 요인(要因)과 역사적(歷史的)인 패턴이라는 관점(觀點)을 전제하고 다음 구체적인 아프카니스탄 사태(事態)를 고찰(考察)하기로 하자.

첫째,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은 「알타」 체제(體制)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가 하는 문제이다. 아프카니스탄지역(地域)은 실제상 「알타」 체제에서 볼 때에 적어도 소련(蘇聯)의 세력권(勢力圈)으로 구분된 곳은 아니었다. 따라서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진출은 일단 「알타」 체제(體制)에 대한 침범(侵犯)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지역적(地域的)인 붕괴는 다른 곳에도 언제나 침범(侵犯)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알타」 체제에 대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點)이다. 오늘의 미국(美國)이 아프카니스탄사태(事態)에 대하여 극단적(極端的)인 신경질적인 경계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을 그대로 러시아권에 넣어 두게 될 때에는 앞으로 중부(中部)유럽에서의 소련(蘇聯)의 진출(進出)이나 극동(極東)에서의 소련(蘇聯)의 진출(進出) 등 많은 예기하지 못할 소련(蘇聯)의 진출(進出)을 사전에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알타체제(體制)라

고 하는 제이차(第二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의 종전처리(終戰處理)와 협약(協約)이 붕괴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이 알타체제(體制)에 대한 붕괴를 의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는 중요한 것이 아프카니스탄 침공(侵攻)을 그 형태(形態)로 볼 때에 완전한 「소비에트」 화(化) 과정(過程)임으로 보아서 역시 노골적인 침략(侵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고의적인 알타체제(體制)의 전반적인 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소련(蘇聯)의 의지에 맡겨둘 때에 올 문제점은 전세계적(全世界的)인 영역(領域)에서의 세력권(勢力圈)의 재편성이 언제나 기준(基準)없이 진행(進行)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點)이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후(戰後)를 벗어나 전전(戰前) 상황(狀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문제점은 중공(中共)에 대한 문제이다. 소련(蘇聯)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쳐서 특히 미(美)·중공(中共) 화해(和解)를 통한 중공(中共)의 변화(變化)에 대처하여 온 것이다. 중공(中共)은 파키스탄을 통하여 유일하게 인도양(印度洋)으로의 진출(進出)을 꾀하여 온 것이다. 중공(中共)에게 적대적(敵對的)인 인도(印度)나 이 지역(地域)에 대한 소련(蘇聯)의 결정적인 진출(進出)은 결국 중공(中共)에 대한 소련(蘇聯)의 대처(對處)의 일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소련(蘇聯)은 인지반도(印支半島)를 통하여 중공(中共)의 인도양(印度洋) 출구(出口)나 페르샤만(灣)에 대한 중공(中共)의 접근(接近)을 일단 저지하여 왔다. 중월전쟁(中越戰爭)이라는 소련(蘇聯)의 군사선연장(軍事線延長)이 그것이었다. 오늘날 소련(蘇聯)이 중공(中共)에 대한 대처(對處)를 직접적인 전쟁정책(戰爭政策)을 통하여서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方法)으로 밖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련(蘇聯)은 중공(中共)에 대한 대처(對處)가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또 하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련(蘇聯)의 군사선(軍事線)을 북한(北韓)으로 연장하여 만주를 포위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함은 말할 필요없는 것이다.

셋째 문제점은 이란문제, 즉 석유지대(石油地帶)에 대한 접근(接近)이라는 관점이다. 사실상 1907년 영국(英國)과 러시아가 협상(協商)을 시도하였을 때에도 이 지역(地域)은 중국문제(中國問題), 중앙(中央)아시아문제, 페르샤문제 삼자(三者)를 합하여 해결하였던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도 복합적으로 「이란문제」라는 석유자원(石油資源)에 대한 접근정책(接近政策)이 작용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란 문제(問題)는 미국(美國)의 영역(領域)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混亂)을 틈타 소련(蘇聯)은 간접적인 방법(方法)으로 이란을 위협한 것이다. 사실상 석유(石油)는 서구자본주의(西歐資本主義)의 기초(基礎)인 것이다. 이 지역(地域)에 대한 위협(威脅)은 단순한 소련(蘇聯)의 이데올로기나 서구(西歐)의 자유주의이론(自由主義理論)만을 갖고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사활(死活)이 관련되고 있는 지역(地域)이기도 한 것이다.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 침공(侵攻)은 어떤 의미(意味)에서도 이란문제(問題)의 접근(接近)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문제는 인도양(印度洋)과의 관련문제인 것이다. 중앙(中央)아시아의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접근(接近)은 물론 인도양(印度洋)과의 관련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양(印度洋)은 제2차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以後)도 영국(英國)함대에 의해서 그의 세력권(勢力圈)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1960년(年)을 경계(境界)로 하여 영국함대는 이 지역(地域)에서 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역(地域)은 미국(美國)의 태평양함대(太平洋艦隊)의 연장으로 군사적(軍事的)으로 파악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특히 닉슨독트린 이후부터는 태평양(太平洋)과 페르시아만의 연결은 중요한 성격(性格)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美國)의 군사전략(軍事戰略)도 극동(極東)으로부터 페르시아만(灣)으로 이동(移動)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인도양(印度洋)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의미(意味)에서 중요(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蘇聯)의 중앙(中央)아시아 진출(進出)은 인도양(印度洋)에 대한 접근(接近)이라는 각도에서 중요한 진출(進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소련(蘇聯)의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에 대한 장악(掌握)이라는 관점(觀點)에서 중요한 접근(接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소련(蘇聯)의 인도양(印度洋)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進出)은 자유세계(自由世界)에 대한 차단으로 발전할 가능성(可能性)을 전략적(戰略的)으로 그 의미(意味)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소련내(蘇聯內)의 소수민족문제(少數民族問題)와 관련한다. 소련(蘇聯)이 이론상(理論上)으로 와해가능성이 있다면 소수민족문제(少數民族問題)라고 할 수 있다. 중앙(中央)아시아에는 상금도 회교(回教)의 생활양식(生活樣式)과 사고(思考)를 갖는 엄청난 소수민족(少數民族)이 소련령내(蘇聯領內)에서 생활(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사태(事態)를 기점으로 회교민족(回教民族)의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경향(傾向)이 크게 소련령내(蘇聯領內)의 회교민족(回教民族)에게도 영향하고 있었다. 소련(蘇聯)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수민족문제(少數民族問題)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중앙(中央)아시아의 한국민족계(韓國民族界)의 소수민족(少數民族)도 안보상(安保上) 이유로 우라디보스톡으로부터 중앙(中央)아시아로 강제이주(強制移住)시켰던 것이다. 소수민족(少數民族)의 국경(國境)너머의 연결은 소련사회(蘇聯社會)의 침투와 와해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對處)의 일환으로 선제정책(先制政策)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앙(中央)아시아의 상당한 지역(地域) 특히 아프카니스탄과 접경을 하는 광대한 지역(地域)은 회교지역(回教地域)인 것이다. 이 지역(地域)에 대한 회교소수민족문제(回教少數民族問題)가 이란사태(事態)를 전후하여 동요받고 있었고 동요가능성(動搖可能性)이 큰 지역(地域)이었던 것이다. 이 지역(地域)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소련(蘇聯)은 그 외곽지대에 대한 완충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삼(三) 결론(結論)

러시아의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과 러시아의 고전적인 팽창정책(膨脹政策)을 이어받은 소비에트는 소비에트 정권수립(政權樹立) 이래 엄청난 팽창정책(膨脹政策)을 전개(展開)하여

왔다. 다만 오늘날 아프카니스탄 침공(侵攻)이나 중동(中東)에 대한 진출(進出)에서 보듯이 소비에트 주변의 확보나 보호가 아니라 「세계정책(世界政策)」이라는 각도에서 세계적(世界的)인 전략(戰略)과 특히 서방(西方)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서방(西方)」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그의 팽창정책(膨脹政策)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은 벗은지 오래인 것이다. 동구권(東歐圈)에 대한 「세력권(勢力圈)」 확보정책(確保政策)도 사실상 「고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실제상 「제국주의(帝國主義)」정책(政策)의 성격을 크게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에트의 세계팽창정책(世界膨脹政策)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레이건정부(政府)의 태도(態度)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북한(北韓)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관학적(官學的) 성격(性格)

## 소련 「철학교정(哲學敎程)」 과의 비교 분석

신일철(申一澈)

〈고려대(高麗大) 교수(敎授)〉

### 목차(目次)

#### (상(上))

1. 머리말
2. 북한 관용철학(官用哲學)의 성립과정
3. 「전체철학(全體哲學)」과 소련 「철학교정(哲學敎程)」과의 관계
4. 소련의 철학논쟁이 북한에 미친 영향
  - (1) 철학논쟁의 발단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
  - (2) 사회주의하의 모순논법
  - (3) 공산권 철학논쟁의 평가
5. 북한 「철학사전」의 「주체사상」적 성격

#### (하(下))

6. 「주체철학」의 기본적 성격
  - (1) 김일성(金日成) 일인철학(一人哲學)의 구성(構成)
  - (2) 「철학강좌(哲學講座)」의 기본구조
  - (3) 의식의 능동성(能動性) 문제
  - (4) 「사람」결정론의 문제

### 1. 머리말

해방 이후 소련군의 진주(進駐)와 동시에 형성된 북한의 철학(哲學)이데올로기는 소련의 국정철학(國定哲學)인 스탈린주의적(主義的)인 「철학교정(哲學敎程)」 「변증법적(辨證法的) 유물론(唯物論)」의 도입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의 공산당(共產黨) 지배는 강력한 사상통제정책(思想統制政策)에 기초해 있었고, 그 통제는 소련의 스탈린주의적(主義的) 철학교조(哲學敎條)의 강요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에는 자유로운 철학연구도 허용된 바 없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서도 당(黨)과 김일성(金日成) 외에는 그 해석권을 가질 수 없었다.

북한에는 다만 당교조(黨敎條)가 있을 따름이고 김일성 1인(人)에 의해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의 독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철학 30여년의 전개과정은 자유로운 철학적 사색의 발전과정이 아니고 다만 사상통제(思想統制)의 1인독재(人獨裁)로 경직화된 30년이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에 대한 김일성 1인독점(人獨占)의 시기였다.

8·15직후 소련군의 진주하(進駐下)에 북한에는 일제하(日帝下)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들의 사회과학적 지식과 특히 일본 유학중 좌익 사상을 습득하고 돌아온 지식분자들중 사회주의나 공산주의(共產主義) 철학(哲學)에 대해 간혹 기초적 지식을 가진 소수가 있었으나 이들의 지식은 소련군과 더불어 수입된 소련공산주의 교조(敎條)와 스탈린 철학 앞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과도적인 중앙권력기구가 설치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학」 또는 「다원주의 기본」이 사상교육의 교본이 낮은 수준의 마르크스주의사상(主義思想)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 그러나, 6·25 동란까지의 북한 철학이데올로기는 소련의 「볼셰비키당사(黨史)」와 고급당학교(黨學校)과정이나 대학(大學)에서 알렉산드로프의 「변증법적 유물론(唯物論)」, 콘스탄티노프의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의 번안이 사상교육의 교본몫을 하여 통치이데올로기의 전적인 소련의존(依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철학이데올로기가 소련의 수정주의적(修正主義的) 철학을 경계하면서 독자적인 철학교본의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66년 소위 「자주선언(自主宣言)」 이후로 볼 수 있고, 1970년대 초에 와서 비로소 김일성일인독재의 철학적 합리화를 위한 북한형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정(敎程)으로 소위 「주체철학(主體哲學)」을 조작한 것이다.

본(本) 논고(論稿)는 북한의 김일성 1인철학인 「주체철학(主體哲學)」의 성격과 구조를 분석하여 그 철학의 정치적 통속화(通俗化)의 내용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방법은 주로 1958년 이후 소련의 「철학교정(哲學敎程)」, 특히 1962년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1962)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 「주체철학(主體哲學)」이 얼마나 소련의 철학교정을 차용(借用)·변조(變造)했는가를 구명해 보려 했다. 여기서 주된 분석 대상(對象)으로 삼은 자료는 소위 「김일성주체철학」의 방송대학강의록 「철학강좌」이다. 북한의 철학이데올로기 연구에서는 그 자료적 제한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자체가 철학의 저술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해 온 탓으로 김일성 1인 철학의 해설적 교정 이외에는 없다는 난점에 부딪힌다. 본 연구는 소위 「김일성주체철

학」의 기본성격만을 구명하기로 했다.

## 2. 북한관용철학(官用哲學)의 성립과정

8·15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다른 학계(學界)와 마찬가지로, 철학계(哲學界)도 오랫동안 성립할 수 없었다. 1947년 10월, 소위 「김일성종합대학(金日成綜合大學)」이 설립되고 철학을 비롯한 인문(人文)·사회과학(社會科學)은 이 대학에서만 교수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학문을 다룰 수 없었다. 「김일성대학(金日成大學)」의 제1학부인 역사학부(歷史學部)에는 조선사학과(朝鮮史學科)·세계사학과(世界史學科)·철학과(哲學科)의 세 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중 철학과(哲學科)는 당(黨)이데올로기교양(教養)과 당정치간부양성(黨政治幹部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과(特殊學科)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철학과 내(內)에는 자유롭게 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고, 일례(一例)로 월북(越北)한 경성제대출신(京城帝大出身) 철학교수(哲學教授) 신모(申某)가 당면한 당(黨)이데올로기와는 별로 무관한 「철학사(哲學史)」를 강의할 정도였다. 6·25동란 이전 북한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강의(講義)는 소련 모스크바대학(大學)에서 과편된 츠브로브 1인에 국한(局限)되었고, 동대학(同大學) 부총장인 소련출신 2세의 한인(韓人)이 소련 「철학교정(哲學教程)」을 번안해서 강의했는데 그는 소련 시민권(市民權)을 가진 한국인 2세인 공과대출신(工科大出身)이었다.

따라서 당(黨) 통제하(統制下) 관학적(官學的) 철학계(哲學界)나마 형성된 것은 1964년 2월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산하에 철학연구소를 두면서부터이다. 이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은 1952년 10월 설치되었던 「과학원(科學院)」 산하의 사회과학연구위원회가 분리·독립된 것이며 특히 공산당(共產黨)의 정책을 합리화(合理化)하고 주민세뇌(住民洗腦)를 위한 사상 교양(思想教養)의 주입(注入)을 목적으로 한 관제(官制)아카데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철학계(哲學界)가 당(黨)의 강력한 통제하에 성립되고 사회과학, 특히 철학의 소위 「창조적(創造的) 발전(發展)」을 도모한다는 연구사역(使役)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산하에는 역사(歷史), 철학(哲學), 경제학(經濟學), 법학(法學), 언어(言語), 문학(文學), 고고학(考古學) 및 민속학(民俗學), 고전연구소(古典研究所)라는 8개 연구소(研究所)가 있는데, 연구원 서위(序位)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가치척도(價値尺度)에 따라서 역사(歷史)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역사연구소(歷史研究所)가 제1위이고, 철학(哲學)이 제2위이다. 과학원(科學院) 체제하(體制下)에 철학연구소(哲學研究所) 초대 소장(所長)은 정진석(鄭鎭石)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때 정진석(鄭鎭石)이 주동이 되어 「조선철학사」(상권)를 저술했다. 이 철학사(哲學史)의 집단적(集團的) 저술(著述)은 국가과제(國家課題)로 생산된 것이 분명하다. 대개 연구소는 이미 당(黨)에서 계획된 연구계획에 의해 연구업적이 계획 생산되는데, 그 때 연구과제는 크게 구분하여 ① 국가과제(國家課題) ② 계약과제(契約課題) 또는 성과제(省課題) ③ 자체과제(自體課題)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철학사는 직접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저술에 착수했고 그

정책적 목적은 1955년이래 북한 이데올로기의 내면적(內面的) 변화를 시사해 준다. 1956년 이후 비(非)스탈린화(化)로 인해 북한(北韓) 철학계(哲學界)는 중·소이념분쟁과 현대판 수정주의 논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거점(據點)을 상실했고 이 사상적 혼란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를 북한 현실에 소위 「창조적(創造的) 적용(適用)」한다는 명분에서 궁여지책을 개척했고 그것이 소련이나 중공의 사상노선(思想路線)을 들고 나왔고 경제적 실정(失政)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구호를 내걸고 동시에, 사상면(思想面)에서는 자주성(自主性)·주체성(主體性)을 쳐들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의 철학면에서의 대표적인 작업이 「조선철학사」였다. 이와같은 비(非)스탈린화(化)에 대한 북한의 사상정책적 대응은 결국 「소(小)스탈린주의」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 내지는 범(汎)슬라브주의적(主義的)인 소비니즘 경향도 어김없는 스탈린주의의 한 속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스탈린주의(主義)는 마르크스주의(主義)의 국제주의(國際主義)와 아울러 소련시민(市民)의 민족적(民族的) 자부심(自負心)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애국주의(愛國主義)」의 원칙을 제시해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일성(金日成)도 애국주의의 원칙을 원용(援用)하여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愛國主義)의 이론적 바탕에서 출발하면서 국내의 정적(政敵)인 친소파(親蘇派)·친중공파(親中共派)와의 권력투쟁에서 이들 정적(政敵)을 수정주의(修正主義)·교조주의(教條主義), 또는 민족허무주의(民族虛無主義), 종파분자(宗派分子)로 낙인 찍고 김일성(金日成) 자신의 개인우상화와 병행해서 「주체(主體)」의 구호를 마련했던 것이다. 사상면(思想面)에서도 북한의 소비에트화(化) 과정은 먼저 소련 모방(模倣)을 거쳐 얼마 후에 그 모방이 당의 이익이나 현실과 맞지않게 되었을 때 자기응화(自己應化)(Self-Accomodation)의 과정을 건게 된다. 이 과정을 개관(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련 일변도의 모방기(1945~1957) ~

이 시기에는 전적으로 소련을 모방하는데 분명한 나머지 철학면(哲學面)에서도 스탈린 철학(哲學), 즉 볼셰비키당사(黨史) 제4장 「변증법적 유물론(唯物論)과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의 직수입(直輸入)에 그쳤다. 이 시기 북한의 모든 당원(黨員)은 「볼셰비키당사(黨史)」를 바이블처럼 암기하고 특히 제4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신봉했다.

② 모택동사상(毛澤東思想)의 부분적 혼입기(混入期)(1957~59) : 1950년 이래 중공군진주(中共軍進駐)의 영향으로 당(黨)이데올로기에 소극적이거나 반소(反蘇)경향과 더불어, 중공(中共)의 모택동사상이 부분적으로 혼입된다. 특히 사상면(思想面)에서 중·소간에 현대판 수정주의 논쟁이 야기되었을 때는 중공편에 기울어진다.

### ③ 1960년 이래의 소(小)스탈린주의적 김일성(金日成)이데올로기 준비기

이미 1955년말 북한에서는 「주체(主體)」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1960년 4월에는

과학원(科學院) 철학연구소(哲學研究所)의 과제연구로 「조선철학사」(상)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주체(主體)는 아직 김일성 1인숭배를 사상면에서 구체화한 김일성개인의 생애와 언설(言說)에 기초한 소위 「혁명전통(革命傳統)」 옹호의 저술이 되지 못하고 사료(史料)를 유물사관적 방법으로 처리하면서도 박은식(朴殷植)·신채호(申采浩) 등의 애국계몽적 민족사관의 영향이 철학사의 바탕을 이룬 감을 준다.

④ 1966년 8월 12일 「자주(自主)」선언 이후 주체 철학의 조작·체계화

일단 자주노선(自主路線)을 내외(內外)에 천명한 김일성은 그 노선을 철학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각 연구기관에 지시 하달했으며 철학연구소는 약 4년간에 걸쳐 「철학사전」을 편찬, 1970년에 완성했다.

⑤ 1973년 김일성 방송대학강의록(放送大學講義錄)으로 「철학강좌」 발표

이 강의록에서 처음으로 「주체철학(主體哲學)」을 공식적(公式的)으로 내세운다. 1966년(年) 자주선언(自主宣言)의 사상노선(思想路線)인 「사상(思想)에 있어서의 주체(主體)」란 슬로건을 북한중심의 새 철학교정(哲學敎程)의 생산 체계화 과정에 구현시켰다. 이 「주체철학(主體哲學)」의 체계화는 주로 소련의 철학교정 중 1960년의 수정(修正)된 Kuusinen편(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를 대본(臺本)으로 해서 이 체계에 김일성어록(語錄)을 가미(加味)해서 만든 것이다. 이 「주체철학(主體哲學)」이 제시된 시기는 그 강좌의 끝에 「1973. 4학년도 김일성의 주체철학강의를 전부 마친다」라고 한데서 1973년으로 추정된다.

⑥ 1970년대의 「조선철학사상과 연구」 등의 발간

70년대에 들어서면 「철학강좌」 이외에는 일체 철학(哲學)이데올로기의 발표는 없고 소위 「조선철학」이라 해서 우리나라 철학사상(哲學思想)에 관한 것만이 발표된다.

이상 개관(概觀)에서 추구해 온 바와 같이 소위 「김일성(金日成) 주체철학(主體哲學)」은 1973년 방송된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에서 준비되고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와같은 김일성(金日成) 1인우상화(人偶像化)의 철학적 합리화인 「주체철학(主體哲學)」을 내놓게 되었는가?

### 3. 「주체철학(主體哲學)」과 소련 「철학교정(哲學敎程)」과의 관계(關係)

원래 공산권 내에서는 전전(戰前)에도 그랬거니와 전후(戰後)에도 철학(哲學)이데올로기는 각국의 당(黨)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소련의 볼셰비키당사(黨史) 제4장의 스탈린철학(哲學)이나 소련의 「철학교정(哲學敎程)」을 번역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그러나 1956년(年) 이후 비(非)스탈린화(化)의 결과로 불변(不變)의 경전화(經典化)되었던 철학교정(哲學敎程)도 불가피하게 수정(修正)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소련에서 1956년 6월 6일 소련 전고등교육기관(全高等教育機關)에 DIAMAT(변증유물론)의 교정(敎程)(공식적 교과서)을 실시하는데 관한 당중앙위원회(黨中央委

員會)의 결의(決議)에 주목해야 하며 이 결의로 1936년 이후 소련뿐만 아니라 전 공산권에서 철학교정으로 고정화되었던 관제철학(官制哲學)인 스탈린의 「변증법 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폐지된 것이다. 이 조치는 일단 소련에서 DIAMAT에 얽매었던 철학연구소의 숨통이 트이게 되고 소련당국에서는 즉시 비(非)스탈린화(化)된 철학교정의 편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非)스탈린화(化) 2년 후인 1958년에 새로운 소련의 공식적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 콘스탄티노프편(編)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초」이다. 이 교정은 소(蘇)연방과학원철학연구소의 집단적 저작으로 나온 것이며 750만부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1958년판 「철학교정」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스탈린 개인저작(個人著作)의 교조화(敎條化)를 탈피하긴 했으나 아직 스탈린 철학의 DIAMAT적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철학적 사색이나 그 논리전개면에서 스탈린주의 철학의 교조를 탈피하는데는 수차의 논쟁(論爭)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1960년에 신판 소련 「철학교정」인 Kuusinen편(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가 나왔다. 이 신판은 흐루시초프의 비(非)스탈린화(化)를 여러 측면에서 구현했다고 평가된다. 이 신판은 1960년의 제1판보다 1952년의 제2판(수정판)에서 크게 개편되었고, 1971년에는 정치주의가 대폭 배제된 새 교과서가 되었다. 이 신판 「철학교정」이 흐루시초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이 교과서에 명시된 반(反)스탈린적인 서술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Kuusinen편(編) 신판 「철학교정」의 제2판(수정판)은 스탈린 개인우상화(個人偶像化)에 반대한 점에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김일성우상화(金日成偶像化)를 격화시켜 가던 북한의 강제 이데올로기 형성에 한층 더 역행(逆行)하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수정주의적(修正主義的) 교정(敎程)이었다. 이 제2판(수정판)은 개인숭배(個人崇拜)에 대해서 스탈린을 해임해야 한다고 12차 당대회에 보내진 유명한 레닌의 유서(遺書)(1922년말 1923년초)까지 인용, 스탈린을 규탄했다. 이 유서는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의 부정적 성질을 지적하여 「동료에 대해 난폭하고 불성실하고 권력남용(權力濫用)의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당서기장의 자리에서 해임하도록 호소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2판(수정판)은 제6장 「역사에 있어서 인민대중(人民大眾)과 개성(個性)의 박탈」에서 「개인숭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순된다」는 항목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동지(同志) 스탈린은 당서기장(黨書記長)이 된 후부터 방대한 권력을 손아귀에 집중시켰는데 그가 항상 신중히 이 권력을 행사할는지 나에게서는 의문이다.> 레닌은 스탈린에 대해 그 특유한 험량(狹量), 불성실(不誠實), 동지(同志)에 대한 무관심, 안하무인적 성격 등을 지적하면서 <스탈린은 심히 난폭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스탈린주의비판(主義批判)은 실질적으로 스탈린주의를 강화시켜가던 김일성체제에 대한 일대 도전이었고 스탈린의 부정적성격(否定的性格)묘사는 그대로 김일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소련 「교정(敎程)」을 철학에 있어서의 수정주의적 경향

으로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의 「철학교정」 제3판(1971)은 다시 수정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1962년의 제2판마저도 아직 스탈린시대의 인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62년판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만 정치적 비판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971년의 제3판은 제2판의 혹독한 스탈린 비판의 노골적인 표현을 약간 완곡하게 완화시켰다.

제3판은 정치주의(政治主義)를 배제하고 철학 자체의 학문성에 철저하려고 했다. 이밖에도 제3판은 우선 「부정(否定)의 법칙(法則)」을 법칙으로 내세우지 않게 되고 경제적(經濟的)·역사적(歷史的)인 필연(必然)의 법칙(法則)도 약간 약화시켜 결정론적(決定論的) 색채를 수정하면서 인간(人間)의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제3판은 계급투쟁(階級鬭爭)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역할,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관료주의 문제 등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데올로기 분쟁을 일으킨 이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言及)하기를 회피했다.

이상과 같은 소련 「철학교정」의 탈(脫)스탈린화(化) 수정화과정(修正化過程)은 전후 공산권의 정치, 경제적 변동도 그 요인의 일부이지만 주된 요인은 흐루시초프 집권 후 철학계의 해빙(解氷)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소련에서의 철학에 관한 중요사건의 연대는 다음과 같다.

1947년 1월 : 알렉산드로프(著) 「철학사(哲學史)」에 관한 철학연구소에서의 토론.

1947년 6월 16일~25일 : 위의 비판을 위한 회의. 이 회의에서 주타노프의 알렉산드로프 「철학사(哲學史)」 비판연설.

1947년 9월 : 소련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哲學)의 제문제(諸問題)」(Voprosy Filosofii) 창간호 발간.

1948년 3월 23일 : 고등교육상(高等教育相) 까프다로프, 비정치적(非政治的) 형식논리학을 비난.

1948년 7월 : 고등교육성의 논리학 강령 발표.

1948년 7월 31일~8월 27일 : 루이생고 논쟁.

1950년 5월 : 「프라우다」지(紙) 게재의 언어학(言語學)에 관한 치바꼬바의 논설(論說).

1950년 6월 20일 :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言語學)에 관한 「프라우다」지의 스탈린 논문.

1953년 1월 18일 : 스탈린 사망(死亡).

1955년 3월 : 상대성이론(相對性理論)의 철학적(哲學的) 문제(問題)에 관한 토론(討論)에서의 결정(決定).

1956년 2월 14일~22일 : 제20차 당대회에서의 비(非)스탈린화(化).

1956년 6월 : 전고등교육기관(全高等教育機關)에 대해 변증법적(辨證法的)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의 교정(教程)을 실시하는데 관한 ZK의 결의(決議).

1958년 10월 21일~25일 : 근대자연과학(近代自然科學)의 철학적(哲學的) 제문제(諸問題)에 대한 전(全)소비에트회의.

1958년말 : 「마르크스주의철학(主義哲學)의 기초」의 간행.

자료의 제한으로 위와같이 1947~58년間に 국한시켜 소련철학계(哲學界)의 중요한 사건을 열거해 보았거니와, 이 연표(年表)에서 보듯이, 1950년 스탈린의 언어학논문(言語學論文)을 기점으로 해서 스탈린주의적철학(主義的哲學)의 1인 독점(獨占)이 해체되면서 어느 정도의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소련철학교정의 수정과정은 수많은 철학논쟁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그 중 대표적 철학논쟁은 다음과 같다.

- ① 변증법적(辨證法的) 논리(論理)와 형식논리학(形式論理學)에 관한 논쟁
- ② 언어학논쟁(言語學論爭)
- ③ 토대(土臺)와 상부구조(上部構造)에 관한 논쟁
- ④ 자연과학(自然科學)의 철학적(哲學的) 문제(問題)에 관한 논쟁
- ⑤ 사회주의하(社會主義下)의 모순논쟁

이런 소련 또는 공산권의 철학논쟁(哲學論爭)은 불가피하게 철학교정을 대폭 수정케 했고 소련 이외의 공산제국의 공산당에 대해서도 철학(哲學)이데올로기의 수정(修正)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그런 영향에서 북한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다.

「북한총감(北韓總鑑)」의 「철학계(哲學界)」 항목에 의하면 북한의 관학적(官學的) 철학풍토(哲學風土)에서도 소련의 철학론의 영향이 파급되어, 주로 「토대(土臺)와 상부구조(上部構造)」에 관한 논쟁을 비롯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그 밖의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점 등은 공개적(公開的) 토론(討論)에 붙이지 않고 관제적(官制的) 자기응화(自己應化)로 소화했다. 그 소화과정에서 북한이 택한 기본노선은 1966년의 「자주노선(自主路線)」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철학사」 등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유물사관적(唯物史觀的) 재긍정작업(再肯定作業)이었다.

6·25 이전 북한철학계의 중심적 논의(論議)거리는 「조선혁명(朝鮮革命)의 성격(性格)」에 관한 정치적인 문제였고, 마르크스주의(主義)의 혁명이론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는데에서 나타나는 논쟁이었다. 그러나 휴전 후 토대(土臺)와 상부구조에 관한 논쟁이 북한 철학계를 지배했다. 이 논쟁은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공식인 물질의 선차성(先次性)에 관한 유물론의 원칙을 사회경제면에 적용하면 토대가 일방적으로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토대결정론이 되는 유물사관의 공식문제에서 야기되었다. 전후(戰後) 북한이 공산화과정에서 분단 후 경제적 토대면에서는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인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한다면 그 「반영(反映)」으로서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도 따라서 사회주의(社會主義) 내지는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으로 개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히려 계급의식, 사상교양 등 정치적인 의식동원을 통해서 거꾸로 경제적 토대를 바꾸려는 의식결정론적인 일종의 정신주의(精神主義)를 취해야 하는 이론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문제는 대내적(對內的) 요인(要因)보다 오히려 대외적(對外的) 영향에 의한 것이며, 특히 1962년 소련 「철학교정」이 상부구조가 토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수정을 가한 논쟁결과가 파급되어 야기된 철학적 논쟁이었다. 이 밖에도 북한 학계에서는 평화공존에 관한 문제, 봉건사회로부터 공산사회로의 비약적 이행의 가능성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유물론철학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다.

요컨대 1970년대 김일성의 소위 「주체철학(主體哲學)」의 조작적 체계화 작업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 철학의 수용과정(受容過程)에서 소련의 「철학교정」의 수차에 걸친 수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기방어행위(自己防禦行爲)였고, 소련 수정주의 철학의 유입이 북한의 김일성 1인 전체체제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대응 조치이기도 했던 것이었다.

북한에서 1960년 이후 활발해진 전통적(傳統的) 민족사상(民族思想)의 유물사관적 재평가작업도 마르크스·레닌주의철학의 수정주의화(修正主義化)의 위협으로부터 김일성독재체제(金日成獨裁體制)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자폐적(自閉的) 이데올로기의 방공호요, 철학적 자기도피행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성을 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배명분(支配名分)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북한공산사회의 성격상, 아무리 「주체(主體)」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재공정(再肯定)만으로는 그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대용(代用)하기는 곤란했기 때문에 따로 북한형 철학교정의 공식화(公式化)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정」은 소련의 철학교정 등에서 그 이론과 논리를 대폭 차용(借用)했던 것이다.

#### 4. 소련의 철학논쟁이 북한에 미친 영향

다음 「주체철학」 형성의 배경으로서 1950년 이래 소련의 철학논쟁이 어떻게 등장되고 그 대표적 논쟁이 무엇이었는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1956년 흐루시초프의 비(非)스탈린화(化)를 계기로 해서 소련철학을 지배하던 스탈린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권은 오직 스탈린 1인(人)이 가진다는 <철학의 1인독점>이 해체된 것을 의미한다. 사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철학은 스탈린 자신이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련 공산당약사(共産黨略史)」 제4장 「DIAMAT」와 「HIMAT」(사적유물론)로 공식화된 이래 절대무류(絶對無謬)의 「공산경전(共産經典)」으로 경화(硬化)되고 말았다. 스탈린은 당료지배(黨僚支配)를 위한 「철학의 당파성」 원칙과 일인독재의 강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의 정통화를 조작하기 위해 관제(官製) 이데올로기로서 「고정철학」의 교조화(教條化)와 아울러 「철학의 독점」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소련철학은 여러 논쟁을 거쳐 자기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본제(本題)와 관련된 대표적 철학논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50년 「언어학논쟁(言語學論爭)」
- ② 1950~52년 「논리학논쟁(論理學論爭)」
- ③ 1950년대 「토대(土臺)와 상부구조논쟁(上部構造論爭)」
- ④ 1955~58년 사회주의하(社會主義下)의 모순논쟁(矛盾論爭)
- ⑤ 1957년 이래의 「사회주의적 휴머니즘 논쟁」

이상과 같은 철학논쟁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공산권 전체의 가담으로 확대된 전후(戰後) 최대의 철학논쟁이 1955~58년의 「사회주의하(社會主義下)의 모순논쟁(矛盾論爭)」이다.

이 논쟁은 한낱 소련철학계 내(內)의 논쟁이 아니라 마침내 모택동이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和平共存路線)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선언에 관한 비판에서 흐루시초프를 「현대관수정주의자」로 낙인찍는 데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평화공존논쟁이기도 하다.

1963년 10월 중공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주양(周揚)이 중국 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철학·사회과학 공작자의 전투적 임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소련의 「현대 수정주의」와 투쟁할 것을 역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소련 철학자들의 「무갈등론(無葛藤論)」(비적대적 모순에 관한 철학설)을 공격하면서 소련 철학자들의 「조화」, 「통일」, 「단결」의 변증법을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모순논쟁은 중·소이념논쟁의 철학적 심부에 해당하고 이로써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분열을 노정한 셈이다.

#### (1) 철학논쟁의 발단

-스탈린의 언어학논문(言語學論文)-

전후 소련철학에 있어서 비(非)스탈린화(化)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은, 1950년(6월 20일) 「푸라우다」지(紙)에 발표된 스탈린의 논문 「언어학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주의에 관하여」(Concerning Marxism in Linguistics)였다. 1950년(5월 9일자) 「푸라우다」에 한 무명의 대학교수(트비리시 대학 A·치바코바 교수)가 「소련 언어학(言語學)의 몇 가지 문제」란 논문으로 기왕의 지배적 언어학설이던 Nicolai Marr의 「언어·계급·상부구조설」을 반박한데서 언어학 논쟁이 야기되었고, 이 논쟁의 종결토론 형식으로 스탈린은 오히려 Marr 학설을 뒤엎고 「언어는 상부구조가 아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수정을 폈던 것이다. 스탈린은 이 논문에서 언어는 상부구조와 다르고 언어의 계급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전인민적(全人民的) 민족어(民族語)」의 존재를 용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언어학 논문은 단지 언어문제에 그치지 않고 마르크스 후의 철학전반에 걸친 다각적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우선 이 논문은 스탈린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이래의 「민족」개념에 대해 크게 자기수정(自己修正)을 가했고 「학문의 당파성」 공식에 묶였던 형식논리학이 변증법 교조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수학, 수학논리학, 심지어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까지도 DIAMAT의 적용에서 벗어나 그 성격이 재규정되었다. 이처럼 「토대(土臺)와 상부구조(上部構造)」의 이분법(二分法)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언어수학과 같은 분야를 용인하게 된 것은 전체학으로서의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공식이 대폭 수정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모순(矛盾)」개념도 애매하게 사용되는데 눈뜨게 된 것이다. 「모순」개념의 규정은 형식논리와 변증법적 논리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모순관계[-(P·P)] (P)-(P)란 배중률(排中律)(Pv-P)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논리의 영역에만 성립된다. 레닌이 예를 든 바와 같은 (+)전기와 (-)전기, 작동과 반작용 등을 이른바 변증법적인 대립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대립은 모순관계(형식논리학)가 아니라 고작해서 반대관계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나 레닌 당시에는 아직 논리학(論理學)의 이론이 미숙하여 모순과 반대를 혼동하는 것이 일수

었다.

또한 Popp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What is Dialectic?) 아무리 변증법적 논리라 하더라도, 형식논리 상의 모순율은 위배할 수 없다는 비판은 옳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일률(同一律)(A is A)에 기초한 형식논리학이 정적(靜的)인 논리로서 운동·발전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革命的) 실천을 부정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논리라는 딱지를 붙여 배척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51년 11월의 예나회의(會議)와 동독 Einheit지(誌)의 「형식논리학 토론」은 형식논리학도 언어나 문법, 기하학과 한 가지로 비(非)계급적이고 비(非)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결론에 도달, 그 후부터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에서 형식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련 철학자 중 변증법적인 학자들도 「DIAMAT」의 「보다 깊은 이해」라는 방패 뒤에서 형식논리 학을 보존(保存)해 왔다. (일례(一例)로 스트로고비치는 <동지 스탈린의 교시에 따라, 이 과학(=형식논리학)이 다시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고)

소련이나 동독 논리학자들은 「스탈린 동지가 계급적으로 제약되는 언어나 문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했다는 동(同)언어학 논문을 방패삼아 「유일한 논리학은 형식논리학뿐이다」라는 공인된 논리학 교수요목이 나오게 되었고 「형식논리학은 무계급사회에서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것이 변증법의 방법론과 결합되었다고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한 견해는 M. Alexeyev와 V. Cherkosov의 논문 「논리학과 그 연구에 관한 문제에 부쳐서」에서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의 관계는 초등수학과 고등수학의 관계와 같다는 앵겔스로부터의 인용(引用)으로 형식논리학을 복권(復權)케 했다. 이제 형식논리학의 변증법에의 연속을 강요하던 「논리학의 당파성」 체제는 종말을 고한 셈이다. 이 논쟁을 통해서 소련 철학자들은 변증법의 핵심인 모순개념이 형식논리상의 그것과 크게 혼동된 점을 깨닫기 시작했고 형식논리와 수학상의 모순율(矛盾律)이 「인간으로 하여금 논리일관된 모순없는 사고 능력」을 가능케 하는 점을 용인하게 된 것이다.

모순논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는 언어학문제나 형식논리학논쟁 이외에도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상부구조는 토대의 반영(Reflex)이라는 반영론(反映論)이 인식론상의 소박한 모사설이라는데 있다.

## (2) 사회주의하의 모순논쟁

1958년에 일단 마무리지는 철학논쟁인 「사회주의하(社會主義下)의 모순(矛盾)」 논쟁(論爭)은 언어학논쟁이나 형식논리학 토론에 비해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 참가한 논문만도 30여편에 이르고, 소련·중공·동구(東歐)제국의 학자들이 참가한 점에서도 열띤 논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변증법의 핵심인 모순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중(中)

·소(蘇)이념 분쟁의 초점이 된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과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의 원리적 대립을 노골화한 면에서도 전후 최대의 철학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상, 이 모순논쟁의 실마리는 전후(前後)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그 발전의 원동력으로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계급사회에서와 같은 적대적 모순 이외에 비적대적(非敵對的) 모순을 계속 인정하여야 했던 사정에서 모택동(毛澤東)에 의해 거론된 「비적대적(非敵對的) 모순(矛盾)」의 이론이 소련에서는 1947년 스탈린, 주타노프에 의해 승인되었다. 아울러 모택동은 모순은 도처에 있다고 하는 그 일반성(一般性)과 더불어 질적(質的)으로 다른 단계에는 모순은 다를 수가 있다는 그 특수성(特殊性)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주의하에서의 모순의 성격은 비적대적(非敵對的)이며 그 방법은 「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모순의 변증법은 공산권 자체 내에서도 모순·대립이 있느냐, 그리고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공산권과 「자본주의 진영」과의 관계를 「적대적 모순」의 관계로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특히 중공측에서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1958년 4월 21일~26일 소련 아카데미 철학연구소에서는 모순에 대한 중대한 철학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미 이 문제는 스탈린 사후(死後) 1955년에 시작되어 소련과학아카데미 회원 스테바닌, 소보레프 등 대표적인 소련철학자와 철학교수로서 구론로드, 투기리노프, 메도베세프 등도 참가했고, 중공의 강시영(江詩永)(중공 <신건설(新建設)> 1958년 4호), 불가리아의 고고로프, 동독의 W. 아이히보른 등도 끼어 있다. 소련철학계 내에서도 상대성 원리의 승인이나 형식논리학과 모순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이를 방해하고 낡은 DIAMAT의 공식에 어긋난다는 고발자 역할을 하는 보수적 그룹(막시모프, 로젠타리 등)이 있었다.

Bochenski가 현대 소련철학자의 세 타입 즉 ① 반동주의자(反動主義者) ② Hegel주의자 ③ 아리스토텔레스학도로 나눈 바 있는데, 이 세 유형은 논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을 발전시켜 변증법적 논리학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모든 존재에는 모순이 있다는 교조(敎條)를 부인한 수학적 논리학자 지노비예프도 있었던 것이다.

이 논쟁은 「DIAMAT」의 공식 중 「대립물(對立物)의 대립(對立)과 투쟁(鬪爭)의 법칙(法則)」이라고 하는 모순의 새로운 해석으로 소련의 국정철학(國定哲學)(1938년 당사(黨史) 제4장에서 교조화된 「DIAMAT」와 「HIMAT」, 1958년(年) 흐루시초프에 개정된 「OCHOBbI」, 1971년(年) 브레즈네프 정권에 와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기초」로 당파성이 희박해짐)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이 논쟁의 이슈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 ① 모순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 ② 사회주의 사회에는 어떠한 모순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 ③ 그러한 모순 중에 기본적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 ④ 있다면 어떤 것이 기본모순인가?

여기서 첫째 문제 즉 모순은 사회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레닌이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모순의 법칙」에 대한 이해, 해석에 관한 가장 원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의 모순의 해석이 가장 큰 딜레마였다. 계급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운동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혁명(革命)의 대수학(代數學)」으로 모순의 변증법이 유효했으나 이른바 「계급적 기본모순이 해결된 사회주의 사회」, 즉 「집권단계」에 와서는 모순이 결국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모순의 해석은 대개 다음 4갈래로 엇갈려 나갔다.

- (a)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原動力)이다. (Stevanyan 등)
- (b)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다. 모순의 극복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루나키 등)
- (c) 모순은 발전을 방해한다. 통일, 단결, 일치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로진·투가리노프 등)
- (d) 어떤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또 어떤 모순은 발전의 장애물이다. (소보레프 등)

이 4가지 해석보다 모순의 변증법에 대해서 보다 결정적인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식논리학의 전통 위에 선 수학적 논리학으로부터의 비판이었다.

1956년 비(非)스탈린화(化)를 계기로 조성된 소련의 해빙(解氷)철학풍토는 철학의 최종적 해석권의 독점자 스탈린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권적 해석의 강요는 완화되고 소련 밖으로부터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중공 등의 견해가 모순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보다 완화되고 비적대적(非敵對的)인 모순인 「비판과 자기비판」의 교조도 모순해석의 일방적 독점을 난감하게 만든 셈이다.

위의 4가지 견해 중에 (a) 형은 Stevanyan에 의해 대표되는 보수적(保守的)인 해석이다. Stevanyan은 사회주의 내부에도 모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DIAMAT」의 교조에 대한 수정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모순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해서 이미 대두된 「무갈등설(無葛藤說)」을 냉혹하게 비판한다.

보수파로서 중공의 강시영(江詩永)(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기본모순)은 「변증법의 기본법칙」은 온갖 사물의 내부의 대립성에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 가운데에서 발전의 근원을 구한다.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경우에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해서 모택동(毛澤東)의 「인민내부(人民內部)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의 테에제를 옹호하면서 중공 국내의 대규모적인 계급투쟁이 기본적 모순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강시영(江詩永)은 사회주의는 인간 수요의 확대로 인해서 생산(生産)과 수요(需要)의 모순은 계속 있게 되고 「이러한 수요는 영원히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 및 원동력이요, 끊임없이 생산을 전진 발전시킨다」라고 해서 기본적 모순의 상존(尙存)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a)형의 보수파 견해는 「DIAMAT」를 사수(死守)할 수는 있으나 변화된 공산권 내에서의 소련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차라리 중공측에게 유리한 입론(立論)이 된다. 이는 중공의 반항을 정당화(正當化) 해주고 소련 중심의 단일석적(單一石的) 단결을 부정하는 논리가 된다.

「모순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명제가 중공측에 유리한 이론적 무기가 된 증거로 1964년의 중공 내에서 일어난 「일분위이(一分爲二)」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헌진(楊獻珍)은 대립의 투쟁면보다 모순의 <조화> 면을 강조해서 <합이이일(合二而一)>을 내세우고 <합이이일(合二而一)>이야말로 대립물의 통일로서 변증법의 기본법칙이라고 내세우고 그 모순대립의 국면(局面)에 대해서는 「합이이일(合二而一)」인 바 사물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일분위이(一分爲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모택동과 철학자들의 공격이 「홍기(紅旗)」(1964년 제16호)에 『철학전선에 있어서의 새로운 논전 - 「합이이일(合二而一)」이라는 양헌진동지의 논점을 둘러싼 토론에 관하여』에서 전개되고 양(楊)은 대립·투쟁을 부정하는 계급조화론(階級調和論)으로 지탄받았다. 그러나 양(楊)의 「합이이일(合二而一)」적(的) 변증법은 이미 보수적인 모순개념을 극복하고 있었다.

다음 (b)형(型)은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며 모순의 극복이 발전의 원동력이다」(루기키 등)와 (c)형(型)을 내세우는 철학자들이 소련 관변철학(官邊哲學)을 대표한다. 이 (c)형에 대하여 불가리아의 꼬꼬로프는 「본질적으로 “무갈등론(無葛藤論)”에의 복귀다」라고 통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C)형은 계급적 모순이 해결된 사회주의사회하에서는 내부모순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력의 통일과 단결만이 있을 뿐이라고 고창(高唱)한다. 로진·투가리노프의 공동 논문 「모순과 원동력」(「철학의 제문제」1957년 제3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건설자들 중에는 발전의 기초에는 반드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일이 없고 오히려 대립의 통일과 대응(對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는 분열·투쟁보다 그 「조화성」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이 「사회주의 진영의 힘과 위력의 원천은 그 내적 모순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힘의 통일과 단결이다」라고 선언한다. 결국 소련사회의 원동력은 소련인 서로간의 모순이 아니라 「그 정신적·정치적 통일」이며 민족간의 반목(反目)투쟁이 아니라 「제민족간(諸民族間)의 우정」이며, 또한 「소비에트적 애국주의」라고 규정한다. 이에 덧붙여서 「비판과 자기비판」, 「사회주의적 경쟁」을 들어 발전의 원동력이라 말한다. 그러나 「비판과 자기비판」도 언론자유를 의미하지 않는 아주 제한된 것이다.

다음 소보레프설(說)로 대표되는 (d)형(型)은 절충설로서 모순에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과 그 방해가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은 상보적(相補的)인 것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나 낡은 것과 새것 사이의 모순같은 것은 발전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절충설도 모순의 변증법이 공격무기로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회주의 단계에 대해서는 자해적(自害的)인 것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 논쟁은 모순의 성질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가져왔다. 대개 계급사회의 모순의 특징이 절대적인데 대해 사회주의하의 모순은 비적대적(非敵對的)이라는데 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스테파노프처럼 모든 모순은 본성상 조화될 수 없고 다만 모순의 극

복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에 이르러서는 모순은 필경 적대적 대립이므로 투쟁을 통해서만이 극복된다는 정통론(正統論)의 고수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문제는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平和共存路線)을 계기로 크게 부각된다. 문제는 공산권과 자본주의제국과의 관계를 모순관계로 규정하고 재래적 모순으로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전쟁측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었다. 흐루시초프의 공존노선은 양진영간의 관계를 계급투쟁적 관계가 아닌 평화적 공존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변증법의 교조마저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흐루시초프를 현대적 수정주의(修正主義)로 낙인찍은 이론적 근거가 나온다.

1963년 6월 중공이 발표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제안」은 주로 후의 공존론이 모순개념의 근본적 수정이며 계급투쟁의 포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현대(現代)의 기본적(基本的) 모순(矛盾)」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견해 차는 아주 크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부총재 A. M. 루안체프는 「현대의 기본적 모순」 「현대 사회과학의 제문제」(1969)에 대해서 1960년대초 「모스크바 선언(宣言)」 이래 모택동파와의 의견대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중공측(中共側)은 「인류발전의 현 단계가 제국주의(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에 초점을 놓고 「현대의 모순」의 결절점(結節點)은 아시아·아프리카라고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의 풀이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택동주의자들은 모순의 첨예화(尖銳化)의 기준을 다만 모순발현의 외면적 형태인 「무장투쟁」-내전(內戰)(Civil War)에 의한 유혈(流血)-투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전형(內戰型)의 민족해방투쟁을 강조하는 중공측의 이론적 근거는 현대의 기본적 모순이 본국과 식민지의 대립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소련측을 대변하는 루안체프의 분석은 중공지도부가 자기들의 성립근거를 내전형(內戰型) 민족해방투쟁에 두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으로 국한된 경험의 만능화(萬能化)」이며 사이버 혁명적(革命的) 공언이나 모험주의적 정책이라고 규탄한다.

루안체프는 모택동의 모순론을 「철학하는 모(毛)는 모순의 유희에까지 빠져들었다」고 경고한다. 모(毛)는 일본이 중국대륙을 점령한 것을 가리켜 「일본인(日本人)은 승리라고 했다. …… 중국인은 패배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패배에는 승리가 내포되어 있고 일본의 승리에는 패배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쓴 바 있는데 (「인민(人民) 내부(內部)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 이 「대립물(對立物)의 상호전환(相互轉化)」라는 노자류(老子類)의 격언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 독일의 패배에는 파시즘의 미래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고 소련의 승리에는 사회주의의 패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루안체프는 야유했다.

### (3) 공산권철학논쟁(共產圈哲學論爭)의 평가(評價)

① 공산권의 모순논쟁은 「변증법의 마술」이 그 마각(馬脚)을 드러낸 셈이 된다. 「모순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명제를 마치 과학적인 보편법칙인양 절대화 하자 어느덧 사회주의하에서 모순이 해소되었다면 그 원동력이 없어 발전은 중지되고 침체할 것이고 모순이 있다고 자인한다면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집권전의 「운동단계」에서 모순의 변증법, 투쟁이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대중 동원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주었으나 일단 집권한 다음부터 「집권단계」 이후의 이른바 「사회주의하」에서는 모순의 변증법은 공산정권 타도의 철학이 되고 지배층 비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소련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련 공산당 노선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가 된다. 모순의 변증법은 그것이 자유세계이든 공산권이든 모든 에스타블리시먼트가 싫어하는 철학이다. 그 「부정(否定)의 부정(否定)」 법칙은 공산당도 조만간 부정한다는 것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변증법의 법칙들, 즉 「양(量)의 질(質)에의 전환법칙(轉換法則)」, 「대립물(對立物)의 침투법칙(浸透法則)」, 「부정(否定)의 부정법칙(否定法則)」 등이 마치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고 과학적 법칙인 것처럼 간주해 왔으나 이들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거시적(巨視的) 가설(假說)에 불과하다. K. 포퍼는 「변증법이란 무엇인가?」란 논문에서 고대(古代) 이래의 변증법이란 인간의 사고(思考)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의 시행 착오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학적 방법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시험적으로 한 해결로서 이론을 제시하며(정립(定立)), 다시 이에 대한 비판과 검사를 정해서 부정하게 된다(반정립(反定立)).

이와같이 과학적 방법은 시행착오의 방법인 동시에 폐기의 방법인 점에서 변증법적이므로 따로 변증법의 절대화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결국 포퍼는 변증법자들이 비유과잉에 빠져 있고 「모순을 무제한하게 인정하는 점」에서 중대한 오해와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분석이다.

② 모순논쟁은 모순개념에 대한 애매한 규정에서 온 것이다. 19세기 논리학은 모순과 반대를 엄밀히 구분할 줄 몰랐고 마르크스도 이를 혼동한 것이다.

원래 모순관계란 P=(~P)와 같은 형식 논리의 세계에서만이 성립되는 불상용적(不相容的) 관계이다. 계급단계는 오히려 공존적 상보적인 면이 있는 현실의 반대적 대립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변증법의 예로서 드는 수학의 +와 -. 물리학의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 전기의 (+) 전기와 (-)전기 등은 논리적 모순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보적(相補的)인, 공존적(共存的)인 것들이다. 변증법에서 분열·대립의 계기로 강조하느냐, 종합·통일의 계기로 강조하느냐는 그것을 이용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실용적 판단에 의한다.

③ 언어학논쟁(言語學論爭)과 형식논리학논쟁(形式論理學論爭)에서도 소련철학의 자기수정이 결과되었다. 원래 「HIMAT」의 명제(命題)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교조화(敎條化)되어 그 적용범위가 언어·수학·수리논리학 등에게까지 확대되어 더욱 물의가 생긴 것이다. 스탈린이 이미 「마르크스주의의 언어학」에서 자인했듯이 수학 언어와 같은 토대·상부구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비계급적인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순대립에 있어서도 바계급적·비투쟁적인 「조화」 면을 어느덧 인정하게 되고 결국 변증법의 자포자기까지도 의미하



게 된다. 이 발단에서 「상부구조(上部構造)의 상대적 독립성」의 수정설(修正說)이 나왔다.

④ 「HIMAT」는 「이론(理論)은 실천을 위한 도구(道具)」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밖으로 과학적 객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당적 실천을 위한 주관주의 프래그마티즘의 색채가 강하다.

결국 모순이 무엇이든 기본적 모순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진리는 소련 공산당의 신념적(信念的) 의지(意志)와 중공당(中共黨)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반(相反)되는 견해의 엇갈림을 보였다. 모순의 변증법도 당의 공산주의적 실천에 봉사하는 정치도구에 불과하고 강제사회 유지를 위한 독재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독재는 대내적 폭력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깊은 피해망상증으로 몰아넣고 그 위기 속에서 오로지 독재자(獨裁者) 일인(一人)에게 귀의하는 도리 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듯이 설득할 때에만 유지된다. 공산독재(共產獨裁)도 국민 모두가 적대적 대립투쟁의 긴장 속에 있도록 하고 항상 대내외(對內外)의 적의 위협하에 있다고 설득한다. 이러한 독재적 지배의 정치적 도구가 모순의 변증법이며 모순대립의 투쟁 이데올로기다.

결국 소련의 철학논쟁은 소련철학이 당적 실천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당이 뜻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진리(眞理)라고 하는 「철학의 당파성」 원칙에서 그 주의주의적(主主義的) 성격과 프래그마티즘화(化)가 폭로된 셈이다. 수차에 걸친 이들 논쟁은 소련 이외의 공산정권에 큰 충격을 줄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중공(中共)과 북한(北韓)의 이데올로기에 더욱 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상과 같은 소련 및 공산권의 철학논쟁은 거의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 때마다 북한학계(北韓學界)에서도 새 수정설(修正說)의 수용(受容)을 위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 5. 북한(北韓) 「철학사전(哲學辭典)」의 「주체사상(主體思想)」적(的) 성격(性格)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 일단 스탈린주의적 교조(教條)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그 대신 소련의 새 「철학교정(哲學教程)」을 수용할 수 없는 사상적(思想的) 곤경에 처하자 드디어 1970년대 초에 김일성(金日成)의 1인 사상중심(思想中心)의 소위 「주체철학」이 급조되었는데 그와같은 철학 이데올로기에 대한 1인 독점의 준비과정에서 1970년간(刊) 「철학사전」이 위치한다.

이 「철학사전」도 소련의 수정주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유입에 대한 방벽(防壁)으로서 소비에트 백과사전(百科事典)이나 수정주의적 철학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 분명하며 특히 김일성 1인 우상화를 철학사전 편찬에서 가장 극단화한 표본을 이 사전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철학사전의 기본적 편찬방침은 1966년의 자주선언에서 제시된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의 철학적 합리화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전에는 아직 「주체철학(主體哲學)」이라는 용어나 항목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과도적 준비단계의 성격을 이 사전에서 역력히 엿볼 수 있다. 그 이전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회과학용어사전류(社

會科學用語辭典類)가 나왔으나 대개가 소련사전의 번안이거나 개작에 불과했지만, 이 사전은 철저히 「김일성선집(金日成選集)」 등에 실린 김일성어록으로 풀이한 명실공히 김일성 1인 철학사전의 체제와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선 이 「철학사전」은 1970년 4월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국판(菊版) 840면의 부피로 간행되었다. 이 사전의 놀라운 특징은 저자(著者)도 집필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집단적 편찬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더우기 사전의 권두에 장장 108면의 긴 서설(序說)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김일성(金日成)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이다. 그리고 각 항목의 풀이는 완전히 김일성 1인의 언설(言說)에서의 인용문으로 꾸민 인용구집(引用句集)으로 되어 있고 마르크스·엥겔스·레닌 등의 인용은 가급적 피하고 간접적으로 김일성의 언설(言說)에서 옮기고 있다.

이 사전의 머리말에서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철학사전〉은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천재적(天才的)인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철학사상을 해설·선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기본원리를 해석함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튼튼히 선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 머리말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전을 「김일성의 탁월한 철학사상을 해설·선전하여」라고 김일성 1인(人) 이데올로기의 해설사전임을 공공연히 전제하고 있다. 이 사전의 이른바 「올림말」 선정과 내용해설에서도 북한의 「사회주의 완수」, 「남조선 혁명」, 「조국통일의 승리」를 위해 세계혁명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철학지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고 있다. [※올림말은 사전편찬상의 표제어(Entry Word)에 대한 북한의 신조어(新造語)]

이 점에서 이 사전은 북한에서의 「철학」에 대한 정의(定義)가 몹시 이데올로기적이며 그 존재구속적인 성격을 띤 것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존재(存在)」는 당(黨)과 김일성(金日成) 1인(人)의 이익(利益)이며 북한 강제사회 유지를 위한 강제(強制) 이데올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철학사전」의 편찬원칙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黨性)과 과학성(科學性)의 원칙을 옹기 관철」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 사전 역시 자주선언(自主宣言)에서의 「사상(思想)에서의 주체(主體)」를 구체화 하기 위한 관제적(官制的) 사전편찬사업이었고 결국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풀이기 위한 철학용어사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전은 김일성(金日成) 「주체철학(主體哲學)」의 목적이 기실은 김일성 1인 이외에는 한 명의 철학자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철학적 저작을 철저히 정치화(政治化)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에서의 철학적(哲學的) 사고(思考)의 불모성(不毛性)과 철학부재(哲學不在)의 산 표본이 이 사전이기도 하다.

이 사전의 두드러진 성격으로 지적해둘 것은 북한 철학계는 기실 존재하지 않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해석권(解釋權)을 김일성 1인이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스

탈린 등 「고전가(古典家)」들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인용이 없을 정도로 소비니즘화(化) 되고 1인(人)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사전 권두에 「김일성(金日成)의 생애와 사상」 해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金日成)의 저작명(著作名)이나 연설제목을 모조리 「울림말」로 망라했고 어휘해설은 모두 김일성의 연설(言說)에서 인용하고 그 인용(引用)부분을 특별히 고딕 활자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 사전의 어휘 배열순서는 북한에서의 한글의 자모순을 따라서 ㄱ~ㅎ(단, ㅇ제외)이 끝난 뒤에 ㅈ~ㅊ를 두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란 항목이 권말, 즉 840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사전에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이란 어휘는 올라 있으나 「주체철학(主體哲學)」이란 어휘는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 이 사전은 570~584면 즉 무려 6면을 배당했고, 이 항목에서는 「자주선언(自主宣言)」의 4자노선(自路線)을 상세히 서술하는데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전이 나온 1970년까지는 아직 「김일성(金日成)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공식화(公式化)가 되지 않은 증거이다.

1920년대 우리나라에 마르크스주의 사상(思想)이 전파된 이래 60년만에 감히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된 세계관이나 소련의 당(黨)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개인숭배에 적합한 김일성 이데올로기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철학사전」은 1960년 「조선철학사 간행 이래,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재긍정작업(再肯定作業)의 결과를 「울림말」에 반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학사에 관한 항목은 김일성 사상에 관한 항목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항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철학사전 : 이 「철학사전」에는 전혀 스탈린에 대한 언급이 없다. 1966년 이후 공산권에 서는 개인우상화와 관련해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스탈린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스탈린 비판에도 소극적으로나마 반대하는 의사로 간주된다.

(A) 인물(人物)(12명)

「김옥균, 최한기, 서경덕, 김시습, 리규경, 리 이, 리 익, 박지원, 정약용, 홍대용, 임성주」

(B) 술어(術語)(8항목)

「동학, 록려잡기, 기일원론, 리(理), 기(氣), 성리학, 음과 양, 의산문답」

이 사전에 오른 우리나라 철학사상 관계항목은 도합 20항목으로 너무 빈약하고 그 선택기준도 주로 기일원론(氣一元論)(이유물론(二唯物論)) 계열의 사상가(思想家)만 추리고 있다. 즉 서경덕(徐敬德), 이이(李珣), 정약용(丁若鏞), 임성주(任聖周),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최한기(崔漢基), 김시습(金時習)에 국한시키고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주리설(主理說)=관념론(觀念論)의 반동적 대표로서 아예 빼놓고 「동학(東學)」항목은 들어 있으나 최제우(崔濟愚)도 항목에서는 빠져 있다. 이 항목선택의 기준이 바로 우리 나라 철학사(哲學史)에 대한 북한사

관(北韓史觀)을 잘 말해주는데 「음(陰)과 양(陽)」, 「기(氣)」, 그리고 실학자 정다산(丁茶山), 박지원(朴趾源)과 개화파 김옥균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한국사상사의 관점에서 꼭 선택되어야 할 사상가로서 원효(元曉), 의천(義天) 등 불교사상가, 1960년경 「조선철학사」에서는 아주 높게 추켜올렸던 묘청(妙淸), 고려시대의 풍수지리사상, 유학사상가의 대부분이 이 사전의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상사관(思想史觀)에서는 음양설·기일원론(氣一元論)·실학사상만이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민족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상의 사상사적 특수성을 거의 무시해 버렸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철학사상에 대한 북한의 철학사관은 일본(日本) 유물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일본에서는 이례적(異例的)으로 우리나라 인물을 항목에 올려 놓거나, 언급하고 있다. 즉 김옥균(金玉均), 김시습(金時習), 홍대용(洪大容), 최한기(崔漢綺), 최제우(崔濟愚), 서경덕(徐敬德), 정약용(丁若鏞), 이익(李穡), 이황(李滉), 이이(李珣), 정도전(鄭道傳), 박은식(朴殷植), 박지원(朴趾源), 유형원(柳馨遠)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철학사전」은 아직 정치적 어필인 「자주선언(自主宣言)」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 뿐, 자주노선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노선과 1960년대 이래의 우리나라 철학사의 양자가 분리된 채 다루어지고 아직 양자를 연관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데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 철학사에 대한 최근의 북한 사관의 변화를 알려주는 책으로는 「조선 철학사상연구」(고대(古代)~근대(近代))가 있는데 역시 1970년대(年代) 후반의 것으로 「철학사전」과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이 저작은 1960년(年)판 「조선철학사」(상(上))를 일단 부정하고 기왕에 채택해 온 그 단계 신채호의 민족사관의 냄새를 일소하고 보다 김일성주의적으로 철저히시킨 철학사로 개편된 것임을 간취할 수 있다. (※ 조선철학사상사 연구 : 저자. 발행년월일 미상) 그러나 이 책 역시 「주체철학」 이전의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철학사를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한 철학사 교과서임에는 틀림없다.

(계속)

# 남북(南北) 연방제론(聯邦制論) 비판(批判) <II>

편 집 실(編輯室)

## IV. 공산주의(共產主義) 국가(國家)의 연방주의(聯邦主義)

### 1. 소련의 연방제도(聯邦制度)

북한(北韓)이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착상(着想)하게 된 동기(動機)와 저의(底意)를 분석함에 있어, 같은 공산국가(共產國家)인 소련(蘇聯)의 연방제도(聯邦制度)에 대한 고찰(考察)은 적지 않은 시사점(示唆點)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共產國家)로서 최초로 연방주의(聯邦主義)를 채택한 것이 소련이기 때문에 북한(北韓)이 이것을 참작했을 것이며, 또한 흐루시초프 소련수상(首相)이 1956년(年) 2월(月), 소련공산당(共產黨) 제(第)20차(次) 대회(大會)에서 평화공존(平和共存)을 제창(提唱)한 후 불과 몇 년(年) 안 되어서 북한(北韓)이 연방제(聯邦制)를 제의(提議)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影響)을 받았을 가능성(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15개(個) 사회주의(社會主義) 공화국(共和國)으로 구성된 특수(特殊) 연방국가(聯邦國家)이다. 소련이 연방제도(聯邦制度)를 채택하게 된 배경(背景)은 광활한 국토(國土) 위에 110여개(餘個)에 이르는 다수민족(多數民族)이 혼거(混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를 형성(形成)해야 할 러시아 혁명후(革命後)의 특수한 정세(情勢)에서 고안(考案)된 제도(制度)이다.

소련의 연방제도(聯邦制度)는 미국(美國)이나 스위스의 연방제도(聯邦制度)와 달라서 연방(聯邦)을 구성하는 각(各) 민족국가(民族國家)는 법률적(法律的)으로 불평등(不平等)한 위치(位置)에 있다. 15개(個)의 구성공화국(構成共和國) 중에서 몇 개의 공화국(共和國)은 자체 내에 자치공화국(自治共和國)이나 자치령(自治領) 또는 민족구(民族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공화국(大共和國)은 소공화국(小共和國)에 비하여 우월한 투표권(投票權)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연방제도(聯邦制度)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特色)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점(點)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소연방(蘇聯)은 볼셰비키의 민족정책(民族政策)의 귀결(歸結)로서 이룩된 민족단위(民族單位)의 연방(聯邦)이라는 것이다. 즉 15개(個) 구성공화국(構成共和國)은 서로 다른 민족(民族)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이들 공화국(共和國)은 제각기 자기의 국명(國名)에 민족(民族)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다만 스탈린에 의하면 이 공화국(共和國)을 조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건(要件)을 구비(具備)하도록 되어 있다.

① 소연방(蘇聯)의 다수민족(多數民族) 중 일정지구(一定地區)에 영주(永住)하는 제(諸) 민족(民族)의 총인구(總人口)가 100만명(萬名) 이상에 달하고,

② 국명(國名)에 자기 민족(民族)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민족(民族)의 총인구(總人口)의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③ 그 주재지구(駐在地區)가 외국(外國)과 국경(國境)을 접(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상(以上) 요건중(要件中)에서 외국(外國)과의 국경(國境)을 접(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憲法上) 각(各) 연방구성공화국(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하여 소연방(蘇聯)으로부터의 탈퇴권(脫退權)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련 개정헌법(改正憲法) 제(第)71조(條)는 「모든 연방구성공화국(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하여 소련 연방(聯邦)으로부터 자유(自由)로 탈퇴(脫退)하는 권리(權利)가 유보(留保)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第)79조(條)는 「연방구성공화국(聯邦構成共和國)은 제(諸) 외국(外國)과 관계(關係)를 맺으며 그들과 협력(協力)을 체결(締結)하고 외교대표(外交代表) 및 영사(領事)를 교환하며 국제조직(國際組織)의 활동(活動)에 참가(參加)할 권리(權利)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백(白)러시아의 두 공화국(共和國)은 유엔에 가입(加入)해 있다.

둘째로, 세계(世界)의 어떠한 민족(民族)에 있어서도 만일 그 민족(民族)이 사회주의제도(社會主義制度)를 채택하며, 또한 소연방(蘇聯)에 가입(加入)을 희망하면 그 가입(加入)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 기술(記述)한 연방구성공화국(聯邦構成共和國) 중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의 3국(國)과 함께 외몽고(外蒙古)의 서북(西北)에 위치(位置)한 도바 공화국(共和國)(1944년(年) 10월(月), 자치주(自治州)로서 소연방(蘇聯)에 가입(加入)의 소연방(蘇聯) 가입(加入)은 실재는 여하튼 간에 형식적(形式的)으로는 이들 제국(諸國)의 인민(人民)의 희망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소련측에서는 발표(發表)하였다.

셋째로, 볼셰비즘적(的)인 지도자(指導者) 정치(政治)의 원칙(原則)으로부터 연방구성민족(聯邦構成民族)의 자결권(自決權)뿐만 아니라 그 민족성(民族性)까지도 형식화(形式化)되어, 실제적(實際的)으로는 강력한 사회주의(社會主義)에 의해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으로 지도(指導)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지도(指導)가 현실(現實)로는 소연방(蘇聯)의 지배세력(支配勢力)인 공산당(共產黨)이 상이(相異)한 인종적(人種的), 문화적(文化的) 배경(背景)을 갖는 지방민족(地方民族)에게 그들이 연방정부(聯邦政府)에 충성(忠誠)

을 하는 한(限), 어느 정도 문화적(文化的) 내정자치(內政自治)를 허용(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정자치(內政自治)에서 정치력(政治力)을 강화(強化)하려는 노력(努力)을 연방정부(聯邦政府)는 부단히 억압하여 오고 있다.

## 2. 중공(中共)의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

북한연방제안(北韓聯邦制案)의 성격(性格)과 존재목적(存在目的)이 「단일(單一)한 전조선 통일정부(全朝鮮統一政府) 수립(樹立)을 위한 전제(前提)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적(過渡的)이고 임시적(臨時的)인 조치(措置)」라고 할 때 이는 1945년(年) 4월(月) 국공간(國共間)의 공존(共存)을 앞세워 국민당(國民黨) 타도(打倒)에 이용(利用)했던 모택동(毛澤東)의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과 비교(比較)해 볼 만하다.

일제(日帝)의 패망(敗亡)이 목전(目前)에 이른 1945년(年) 4월(月) 연안(延安)에서 개최(開催)된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 제(第)7회(回) 대표대회(代表大會)에서 모택동(毛澤東)은 소위 「연방정부론(聯邦政府論)」을 내놓았다.

이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은 ① 중국인민(中國人民)의 기본요구(基本要求), ② 국제정세(國際情勢)와 국내정세(國內情勢), ③ 항일전(抗日戰) 중 두개의 전선(戰線), ④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의 정책(政策), ⑤ 전당단결(全黨團結)로서 당임무(黨任務)의 실현(實現)을 위해 투쟁(鬭爭)하자는 등의 5장(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택동(毛澤東)은 여기서 중국인민(中國人民)의 기본요구(基本要求)는 각당(各黨) 각파(各派) 및 무당(無黨) 무파(無派)의 대표단(代表團)을 결집(結集)시켜 민주적(民主的)인 임시연합정부(臨時聯合政府)를 만들어 일본(日本)을 패배(敗北)시키고 해방(解放)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그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제(第)1단계(段階)에서는 각당(各黨) 각파(各派)(국민당(國民黨), 공산당(共產黨), 민주동맹(民主同盟)), 무당(無黨) 무파(無派)의 대표적(代表的) 인물(人物)의 연합(聯合)에 의해 임시연합정부(臨時聯合政府)를 수립(樹立)하여 민주개혁(民主改革)과 당면위기(當面危機)의 극복(克服), 그리고 전(全) 중국항일력량동원(中國抗日力量動員)으로 통일(統一)을 이룩하여 연합국(聯合國)과의 협동작전(協同作戰)으로 일본(日本) 침략(侵略)에서 해방(解放)한다.

제(第)2단계(段階)에서는 자유선거(自由選舉)에 의해 국민대표대회(國民代表大會)를 소집(召集)하고 각당(各黨) 각파(各派), 무당(無黨) 무파(無派)의 보다 광범한 대표적(代表的) 인물(人物)을 포함하는 연합적(聯合的) 성격(性格)의 정식민주정부(正式民主政府)를 수립(樹立)하여 해방후(解放後)의 전국인민지도(全國人民指導) 및 독립(獨立)나 자유(自由), 민주(民主), 통일(統一), 부강(富強)의 신국가(新國家)를 건설(建設)한다는 것이다.

모택동(毛澤東)은 제(第)7회(回) 당대회(黨大會)에서의 주장(主張)에서 공동강령(共同綱領)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일반강령(一般綱領)과 구체적(具體的) 강령(綱領)으로 2분(分)하였

으며 후자(後者)를 최저한도(最低限度)의 강령(綱領)이라고 제시했다. 일반강령(一般綱領)은 신삼민주의(新三民主義)의 발전(發展)이라고 하는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를 골자로 하는 것인데, 프롤레타리아 영도하(領導下)에 장래의 최고강령(最高綱領)인 사회주의(社會主義)와 공산주의(共產主義)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의 최저한도강령(最低限度綱領)에서 국민당(國民黨) 일당독재(一黨獨裁)의 폐지(廢止) 및 연합정부(聯合政府)의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의 건립(建立) 내지 해방구(解放區) 정부(政府)의 승인(承認)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以上)에서 모택동(毛澤東)의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의 최저한도강령(最低限度綱領)에 명시(明示)된 바와 같이 국민당(國民黨)의 지위(地位)를 말살(抹殺)하는데 기초(基礎)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모택동(毛澤東)은 이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을 제시한지 4개월후(個月後)인 1945년(年) 8월(月)~10월(月)간(月間) 장개석(蔣介石)과 중경회담(重慶會談)을 벌였으나 이것이 실패(失敗)로 돌아가자 국민당(國民黨) 정부(政府)에 대한 적극공세(積極攻勢)를 취해 마침내 중국대륙(中國大陸)을 적화(赤化)하는데 성공(成功)했던 것이다.

## 3. 동독(東獨)의 국가연합론(國家聯合論)

우리와 같은 분단국(分斷國)인 동(東)·서독(西獨)이 1950년대(年代) 후반에 통일(統一)의 과도기적(過渡期的) 조치(措置)로서 국가연합논쟁(國家聯合論爭)을 치열하게 벌인 일이 있다. 1956년(年) 12월(月) 31일(日), 동독(東獨)의 올브리히트(올브리히트)는 통독(統獨)에의 과도기적(過渡期的) 조치(措置)로서 국가연합안(國家聯合案)을 서독측(西獨側)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內容)은 양독(兩獨)이 국제법적(國際法的) 기반(基盤) 위에서 국가연합(國家聯合)을 구성(構成)되 양독(兩獨)을 초월하는 자주적(自主的) 국가권력(國家權力)은 수립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전독위원회(全獨委員會)」라는 조절기구(調節機構)를 두어 양독간(兩獨間)의 제반(諸般) 문제(問題)를 협의(協議), 처리(處理)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전독위원회(全獨委員會)는 양독의회대표(兩獨議會代表)로 구성(構成)하고 여기서 4대강국(大強國)의 병력철수(兵力撤收) 문제를 비롯하여 양독간(兩獨間)의 경제협력관계(經濟協力關係), 상호협력방안(相互協力方案), 정당활동(政黨活動)의 자유보장(自由保障) 문제 등을 협의(協議)하고자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동독(東獨)의 주장(主張)에 대해 서독(西獨)은 몇 가지 이유(理由)를 들어 거부(拒否)하였다. 즉, 독일통일달성(獨逸統一達成)은 양독정부(兩獨政府) 사항(事項)이 아니고 전독일국민(全獨逸國民)의 배타적(排他的) 권한(權限)에 속하는 것이며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공산주의간(共產主義間)의 이념상(理念上) 모순(矛盾) 때문에 연합안(聯合案)은 행동(行動)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거(論據)를 내세웠다.

동시(同時)에 국가연합안(國家聯合案)은 서독(西獨)의 동독(東獨)에 대한 국가승인결과(國

家承認結果)를 초래하고 서독연방(西獨聯邦) 공화국(共和國)은 이미 국가연합(國家聯合)의 한 예(例)로서 그 위에 또 다시 연합(聯合)의 둘레를 씌운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의 불필요(不必要)한 제도(制度)라고 반박하였다.

1960년대(年代) 초(初)까지 계속된 이 국가연합(國家聯合) 논쟁(論爭)은 소련이 동독(東獨)의 주장(主張)을 뒷받침해 주고 반면(反面)에 미국(美國)이 서독측(西獨側) 반론(反論)의 타당성(妥當性)을 입증(立證)해 주는 등 강대국관계(強大國關係)까지 확대(擴大)되었으나 결국 강력한 서방측(西方側)의 반대(反對)에 부딪쳐 무산(霧散)되고 말았다.

동독(東獨)이 국가연합안(國家聯合案)을 주장(主張)한 것은 국가연합(國家聯合)을 통하여 동독정권(東獨政權)의 합법성(合法性) 내지 국가성(國家性)을 획득함으로써 서독(西獨)과의 대등(對等)한 관계(關係)를 유지하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동독(東獨)은 양독관계(兩獨關係)를 국제법적(國際法的) 평등관계(平等關係)로 보고 독일적(獨逸的)인 연합체(聯合體) 형성(形成)을 시도(試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西獨)은 양독관계(兩獨關係)를 국내법적(國內法的) 특수관계(特殊關係)로 보며 전독적(全獨的) 공영체(共榮體) 형성(形成)을 지향(指向)하였다. 특히 서독측(西獨側) 입장(立場)에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공산주의(共產主義)에는 이념상(理念上) 대립요인(對立要因) 때문에 연합성립(聯合成立)이 곤란하다는 냉철한 현실논리(現實論理)를 중요시(重要視)하였는 바, 이것은 같은 분단국(分斷國)인 남(南)·북한간(北韓間)의 연합형성(聯合形成)에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 4. 베트남의 인지연방론(印支聯邦論)

무력(武力)에 의해 베트남 통일(統一)을 이룩한 베트남 공산정권(共產政權)은 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궁극목표(窮極目標)라고 할 수 있는 인도지나연방(印度支那聯邦) 형성(形成)을 획책하고 있다.

베트남 국방상(國防相) 「만 도이 난단」은 프놈펜을 함락한 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인지(印支) 3개국연합(三國聯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3개국(三國)은 새로운 생존(生存)을 위해 상호연합(相互聯合)할 것이지만 각기 완전한 독립국가(獨立國家)로서 단결(團結)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베트남은 인지연방(印支聯邦)이라는 오랜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베트남 통일(統一)이 급선무(急先務)였다. 베트남의 통일(統一)은 ① 1954년(年)의 분단(分斷)에 대한 민족적(民族的) 비운(悲運)을 제거하고, ② 북(北)쪽의 경제적(經濟的) 압박(壓迫)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③ 북(北)쪽에 통합(統合)시키겠다는 남부인(南部人)에 대한 약속(約束)을 이행하고, ④ 북부(北部) 베트남 정권(政權)에 위협을 주는 남부인(南部人)의 충성심(忠誠心)을 북(北)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통일정책(統一政策)은 월남전(越南戰)을 승리(勝利)로 이끌어 가면서 실현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 그들의 궁극목표(窮極目標)인 인지연방(印支聯邦)의 수립(樹立)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호志明(胡志明)이나 베트민이 라오스, 캄보디아를 하노이 지배하(支配下)에 넣어서 인지연방(印支聯邦)을 계획했다는 확실한 증거(證據)와 공식적(公式的)인 언급(言及) 등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역사적(歷史的)으로 볼 때 베트남이 북경(北京)에 종속되는 것을 저항했었다는 민족적(民族的)인 문제(問題)와 한때 프랑스연합(聯合)내(內)에서 베트남 주도하(主導下)의 인지연방(印支聯邦)이 형성(形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베트남정책(政策)에 추종(追從)하는 인접국(隣接國)으로 만들어 북경(北京)의 세력팽창(勢力膨脹)에 대항(對抗)하고 인도지나(印度支那)에 자신의 세력(勢力)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지연방(印支聯邦)을 구상할 가능성(可能性)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 양국(兩國)은 역사적(歷史的)으로 일찌기 어느 정도 베트남의 종속국(從屬國)이었다는 사실(事實)로서도 그 가능성(可能性)은 크다고 보겠다.

이러한 가능성(可能性)이 앞서 지적한 베트남 군기관지(軍機關紙)에 의해 현실화(現實化)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는 1961년(年)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包含)하는 인도지나중립지대(印度支那中立地帶)를 강대국(強大國) 보장(保障)에 의하여 형성(形成)할 것을 제의했었다. 그리고 1963년(年) 12월(月)에는 캄보디아와 남(南)베트남을 포함한 중립화(中立化)된 인지연방(印支聯邦)의 창설(創設)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인지연방론(印支聯邦論)은 79년(年)에 베트남이 캄보디아 구국통일전선(救國統一戰線)(KNUFNS)이라는 친(親)베트남, 친소(親蘇)의 괴뢰정권(傀儡政權)을 앞세워 캄보디아를 침공(侵攻), 폴 포트(Pol Pot) 정권(政權)을 몰아냄으로써 보다 구체화(具體化)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1977년(年)에 이미 군사적(軍事的)으로 점령한 라오스와 우호협력조약(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속방화(屬邦化)시켰다. 베트남은 우호협력조약(友好協力條約)에 따라 라오스에 대하여 경제(經濟)·군사(軍事)·사회(社會) 등 모든 분야(分野)에 걸쳐 원조(援助)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베트남은 3만명(萬名)의 병력(兵力)을 라오스에 주둔(駐屯)시키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최근 캄보디아 영내(領內)에 수만명의 베트남 민간인(民間人)을 대거 이주(移住)시키므로써 캄보디아를 사실상 합병(合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정부(政府)가 캄보디아를 정치(政治)·군사적(軍事的) 측면(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社會)·인종적(人種的)인 면(面)에서도 동화(同化) 합병(合併)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민간인(民間人)을 캄보디아에 대거 이주(移住) 정착(定着)시키므로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지나국가(印度支那國家)들을 합병(合併)시켜 인지연방(印支聯邦)을 구성하려는 팽창정책(膨脹政策)의 첫 조치(措置)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북한(北韓)과 4개(個) 공산국가(共產國家)의 비교(比較)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北韓), 소련(蘇聯), 중공(中共), 동독(東獨), 베트남의 5개(個) 공산국가(共產國家) 중 소련은 이미 오래 전(前)부터 연방제(聯邦制)를 채택하여 오고 있고 중공(中共), 동독(東獨), 베트남은 연합정부(聯合政府)와 국가연합(國家聯合), 연방(聯邦)을 시도(試圖)한 바 있었다.

이들 5개국(個國)이 취한 통합개념(統合概念)은 연방(聯邦), 연합정부(聯合政府), 국가연합(國家聯合) 등 꼭 다양하다. 이것은 이들 국가(國家)가 시공간적(時空間的)으로 각기 다른 여건(與件)과 환경(環境)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이 표방한 통합개념(統合概念) 가운데는 다음 비교도표(比較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특징적(特徵的) 양상(樣相)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다음 도표(圖表)에서 보면 통합개념(統合概念)의 형태(形態)와 명칭(名稱)이야 어떻든 그 성격(性格)은 모두가 통일(統一)에의 과도적(過渡的) 조치(措置), 즉 공산화(共產化) 통일(統一)을 위한 중간과정(中間過程)으로 연방(聯邦)(국가연합(國家聯合), 연합정부(聯合政府))을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北韓), 중공(中共), 동독(東獨) 등 분단국(分斷國)은 상이(相異)한 정치이념(政治理念)의 조건(條件)에서 공산주의식(共產主義式) 통일(統一)을 향한 중간단계(中間段階)로 이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民族), 영토구성면(領土構成面)에서는 북한(北韓)을 제외(除外)하고 모두 다수민족(多數民族)이 공존(共存)하는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과 광활한 영토적(領土的)인 배경(背景)을 가지고 연방(聯邦)을 형성(形成)하거나 시도(試圖)하였다. 공동방위(共同防衛)의 대상면(對象面)에서는 이들 국가(國家)의 대부분(大部分)이 외세배격(外勢排擊) 또는 외부(外部) 세력(勢力)의 위협(威脅)으로부터의 자기보호(自己保護)라는 목적(目的)에서 연방형성(聯邦形成)을 시도(試圖)하였고, 소련을 제외(除外)한 4개국(個國)이 과거(過去)의 통합경험(統合經驗)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연방(聯邦)·연합(聯合)을 주장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연방(聯邦)·연합(聯合)의 중앙기관(中央機關) 제시(提示)와 구성국간(構成國間)의 평등관계(平等關係)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산당(共產黨) 중심(中心)의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지도(指導)를 추구하고 있다.

<表 1>

상호비교표(相互比較表)

구분(區分)	북한(北韓)	소련(蘇聯)	중공(中共)	동독(東獨)	베트남
1 형태(形態)	연방(聯邦)	연방(聯邦)	연합정부(聯合政府)	국가연합(國家聯合)	국가연방(國家聯邦)
2 성격(性格)	통일(統一)에의 과도적(過渡的) 조치(措置)	연방(聯邦)의 항구적(恒久的) 유지(維持)	통일(統一)에의 임시적(臨時的) 조치(措置)	통일(統一)에의 과도적(過渡的) 조치(措置)	
3 민족(民族)	단일민족(單一民族)	다수민족(多數民族)	다수민족(多數民族)	단일민족(單一民族)	다수민족(多數民族)
4 영토(領土)	협소(狹小)	광활(廣闊)	광활(廣闊)	보통(普通)	보통(普通)
5 이념(理念)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공산주의(共產主義)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삼민주의(三民主義)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공산주의(共產主義)
6 공동방위대상(共同防衛對象)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일본침략(日本侵略)에서 해방(解放)	4대강국(大強國)의 병력철수(兵力撤收)	중공위협배제(中共威脅排除)
7 통합경험(統合經驗)	경험(經驗) (분단이전(分斷以前))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경험(經驗)(중(中)·일전쟁(日戰爭) 이전(以前))	경험(經驗)(제(第)2차 대전(次大戰) 이전(以前))	경험(經驗)프랑스연합(聯合)내(內)에서 인지(印支)연방형성(聯邦形成)
8 연방기관(聯邦機關)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	소연방최고회의(蘇聯邦最高會議) 소연방최고재판소(蘇聯邦最高裁判所) 소연방각료회의(蘇聯邦閣僚會議)		전독위원회(全獨委員會)	
9 연방정부(聯邦政府)와 구성국관계(構成國關係)		공산당중심(共產黨中心)의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지도(指導)			
10 구성국상호관계(構成國相互關係)	남(南)·북(北)의 현재(現在) 정치체제유지(政治體制維持) 내정불간섭(內政不干涉)	불평등관계(不平等關係)	국민당(國民黨) 일당독재폐지(一黨獨裁廢止)	양도관계(兩獨關係)를 국제법적(國際法的) 평등관계화(平等關係化)	각기(各其) 완전(完全)한 독립국가(獨立國家)

## V. 연방주의(聯邦主義) 통합이론(統合理論)의 제(諸) 명제(命題)

본(本) 장(章)에서는 북한(北韓)이나 공산국가(共產國家)의 연방주의(聯邦主義)와는 관계없이 일반(一般) 서구적(西歐的) 개념(概念)의 연방주의(聯邦主義)(영어(英語), 독어사용국가(獨語使用國家)의 연방(聯邦) 제도(制度)에 입각하여 국가간(國家間) 또는 사회적(社會的) 단위간(單位間)의 연방적(聯邦的) 통합(統合)에 관련(關聯)되는 명제(命題)들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통합(統合)은 현재 분리(分離)되어 있는 복수단위(複數單位)가 하나의 단위(單位)를 형성(形成)하는 과정(過程)이라는 간단한 정의(定義)를 전제(前提)로 한다면, 두 단위(單位)가 통합(統合)을 할 수 있는 또는 통합(統合)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條件)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연방통합후(聯邦統合後) 그것의 운영(運營)을 촉진(促進)하는 행위(行爲)가 있을 것이므로 편의상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동기(成立動機)에 관한 명제(命題)와 성립요건(成立要件)에 관한 명제(命題), 그리고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에 관한 명제(命題)로 구분(區分)하여 논(論)하기로 한다.

### 1.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동기(成立動機)에 관한 제(諸) 명제(命題)

세계(世界) 각(各) 연방국가(聯邦國家)는 상이(相異)한 시기(時期)에, 상이(相異)한 필요성(必要性)의 인식(認識)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연방주의(聯邦主義)는 필연적으로 동태적(動態的)이고 계속 변화(變化)하는 체계(體系)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연방국가(聯邦國家)들은 그 구성체(構成體)가 단일국가(單一國家)를 형성(形成)하기에는 부적합(不適合)한 이질적(異質的) 요소(要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질적(異質的) 요소(要素)를 조화(調和)시켜 공존(共存)할 수 있는 통합요소(統合要素)를 공유(共有)할 때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단일국가형성(單一國家形成)의 원심적(遠心的) 작용요인(作用要因)과 복합국가형성(複合國家形成)의 구심적(求心的) 요인(要因)이 조화(調和)를 이룰 때 연방성립(聯邦成立)이 가능(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이질면(異質面)에서 본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동기(成立動機) 요소(要素)로서 ①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 ② 영토(領土)의 광활(廣闊), ③ 지분국(支分國)의 독자성(獨自性) 유지(維持)라는 3개(個)의 변수(變數)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통합면(統合面)에서 본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동기(成立動機) 요소(要素)로서는 ① 공동이념(共同理念)의 존재(存在), ② 공동방위(共同防衛)에 관한 인식(認識), ③ 경제적(經濟

的) 통합(統合)에 대한 소망(所望), ④ 상호간(相互間) 지식(知識)과 작용(作用), ⑤ 통합경험(統合經驗)이라는 5개(個)의 변수(變數)를 고려할 수 있다.

각(各) 변수별(變數別) 명제내용(命題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 존재(存在)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이 크면 클수록 정치체제(政治體制)가 일원적(一元的)이기보다는 연방제(聯邦制)가 될 가능성(可能性)이 더 크다.

다수민족(多數民族)이 공존(共存)하거나 역사(歷史)·문화(文化)·언어(言語)·종교상(宗教上)의 차이(差異)를 가지고 있을 때 연방제통합(聯邦制統合)이 적합(適合)하다.

나. 국토(國土)의 광활(廣闊)

통합지역(統合地域)이 방대하면 할수록(혹은 인구(人口)가 밀집(密集)될수록) 정치체제(政治體制)가 일원적(一元的)이기보다는 연방제(聯邦制)가 될 가능성(可能性)이 더 크다.

이때 통합(統合)하려는 두 단위간(單位間)의 지리적(地理的) 인접성(隣接性)이 통합(統合)을 촉진(促進)하는 요인(要因)이 된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다. 지분국(支分國)의 전통성(傳統性) 유지(維持)

연방구성국(聯邦構成國)들이 전통적(傳統的)으로 각기(各其) 실질적(實質的)으로 완전(完全)한 통치제도(統治制度)를 가지고 있고 연방통합후(聯邦統合後)에도 그러기를 희망(希望)할 때는 연방제(聯邦制)가 적합(適合)하다. 이렇게 형성(形成)된 연방(聯邦)은 항구성(恒久性)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연방주의(聯邦主義)는 기본적(基本的)으로 구성국(構成國)(지분국(支分國)들의 다양성(多樣性)을 보호(保護)하고 명시(明示)하려는 국민(國民)들의 심리적(心理的),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 공동이념(共同理念)의 존재(存在)

연방형성(聯邦形成)의 구심점(求心點)인 공동(共同)의 정치이념(政治理念), 국가목표(國家目標)가 존재(存在)하여야 한다. 연방주의(聯邦主義)는 구성국간(構成國間)의 외부세력(外部勢力)으로 공존(共存)과 공동적(共同的) 목표추구(目標追求)를 위한 제도(制度)이기 때문이다.

마. 공동방위(共同防衛)에 관한 인식(認識) 및 외부적(外部的) 힘의 작용(作用)

연방구성국(聯邦構成國)들이 외부(外部)로부터의 군사적(軍事的) 불안감(不安感)과 그로부터 기인(起因)한 공동방위(共同防衛)의 필요성(必要性), 그리고부터의 독립(獨立)에 대한 열망(熱望)을 가질 때 연합(聯合)을 원(願)한다.

미국(美國)과 국경(國境)을 접(接)하고 있는 국가적(國家的) 상황(狀況)으로부터 야기되는 압력(壓力)으로 인한 캐나다 연방(聯邦)의 경우와 동(東)·서진영(西陣營)으로부터 발생(發生)하는 압력(壓力)으로 인한 독일(獨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共同)의 적(敵)에 대한 공동방위(共同防衛)의 필요성(必要性)은 초기(初期)에는 연방체(聯邦體)를 자국, 고무하고 나아가 그 연방체(聯邦體)를 유지(維持)시켜 준다. 또한 외부(外部)에서 작용(作用)하

는 힘의 적용방향(適用方向)이 새로 형성되는 통합체(統合體)의 힘의 구조(構造)와 같은 방향(方向)일 때는 통합(統合)의 성공도(成功度)를 높여준다.

바. 경제적(經濟的) 통합(統合)에 대한 소망(所望)

연방구성국(聯邦構成國)들이 경제적(經濟的) 분리상태(分離狀態)에서 오는 불이익(不利益)을 통합(統合)을 통해 이익(利益)으로 전치(轉置)시킬 수 있다는 소망(所望)을 가질 때 연방체(聯邦體)를 자극, 고무한다.

사. 상호간(相互間) 지식(知識)과 작용(作用)

구성국(構成國) 상호간(相互間)의 지식(知識), 이해(理解) 및 사회적(社會的) 작용(作用)은 그들이 하나의 정치적(政治的) 공동사회(共同社會)를 이루어 효과적(效果的)으로 기능(機能)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하다.

아. 통합경험(統合經驗) 구성국(構成國)들이 그 전(前)에 통합(統合)을 했던 경험(經驗) 또는 정치적(政治的) 단합경험(團合經驗)이 있으면 통합(統合)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 진다. 다만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이 좋은 보상(報償)을 주었을 때 한(限)한다.

## 2.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요건(成立要件)(헌법(憲法) 및 법적(法的) 기반(基盤))

구성국간(構成國間)의 연방주의(聯邦主義)에 관한 합의(合意)가 이루어져 연방(聯邦)을 형성(形成)하려고 할 때 헌법(憲法) 및 법적(法的) 수준(水準)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要件)이 구비(具備)되어야 한다.

① 성문(成文)의 연방헌법(聯邦憲法)에 기초(基礎)하여 수립된다. 연방적(聯邦的) 관계(關係)는 항구적인 연방헌장(聯邦憲章)을 통해서 확립(確立) 또는 견고화(堅固化)되어야 한다. 정치체계(政治體系) 내(內)에서 권력(權力)이 분배(分配)되거나 공유(共有)되는 것의 정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 성문헌법(成文憲法)이 구체화(具體化)되어야 한다. 현재(現在) 모든 연방제(聯邦制)는 연방제원리(聯邦制原理)를 갖는 다른 체제(體制)와 마찬가지로 성문헌법(成文憲法)을 보지(保持)하고 있다.

② 연방(聯邦)도 지분국(支分國)도 다 같이 국가(國家)이다.

③ 주권(主權)은 연방(聯邦)만이 보유(保有)한다.

④ 지분국(支分國)은 연방(聯邦)으로부터 탈퇴(脫退)할 자유(自由)를 갖지 않는다.

⑤ 연방(聯邦)과 지분국(支分國)은 연방헌법(聯邦憲法)에 의거, 임무영역(任務領域)이 배분(配分)되어 있고, 이 임무영역(任務領域) 내(內)에서는 독립(獨立)되어 있다.

⑥ 지분국(支分國)은 연방입법기관(聯邦立法機關)에 대표기관(代表機關)을 설치(設置)한다.

⑦ 연방최고재판소(聯邦最高裁判所)가 설치(設置)되어 있다.

⑧ 지분국(支分國) 상호간(相互間)의 지위(地位)는 평등(平等)하다.

## 3.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에 관한 제(諸) 명제(命題)

구성국간(構成國間)의 합의(合意)에 의해 성립(成立)된 연방국가(聯邦國家)가 당초의 목표(目標)대로 운영(運營)·발전(發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要件)이 충족(充足)되어야 한다.

가. 연방체(聯邦體)와 구성체간(構成體間)의 의사소통(意思疎通)

현대(現代)의 연방제(聯邦制)는 일반적(一般的)으로 국민(國民)과 연방정부간(聯邦政府間)에 커뮤니케이션 통로(通路)를 제공(提供)한다. 국민(國民)은 연방정부(聯邦政府)에 진출(進出)하는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하며 모든 연방정부(聯邦政府)는 개개(個個) 국민(國民)에게 봉사하는 행정(行政)을 수행한다.

이와같이 직접적(直接的)인 커뮤니케이션 통로(通路)가 존재(存在)하는 점이 연방제(聯邦制)를 다른 동맹체(同盟體)와 국가연합(國家聯合)으로부터 구분(區分)짓는 특징(特徵)이기도 하다. 이는 흔히 국민(國民)과 연방체(聯邦體)를 결합(結合)하는 공동체(共同體) 의식(意識)에 근거를 둔다.

나. 연방체내(聯邦體內)의 대의성(代議性)

연합체(聯合體)의 안정성(安定性)은 구성원(構成員)의 정치적(政治的) 대의권(代議權)이 막히면 곧 와해(瓦解)되거나 적어도 발전(發展)이 저지(沮止)되게 된다.

의사결정과정(意思決定過程)에 광범위한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는 정치적(政治的) 구조(構造)가 사회내(社會內)의 단결(團結)에 기여하는 반면 전제적(專制的) 구조(構造)는 반대의견(反對意見)을 자초(自招)하며 좌절감(挫折感)이 폭력(暴力)으로 폭발하게 되므로 공동체(共同體)가 와해(瓦解)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연방체(聯邦體)가 성공적(成功的)으로 기능(機能)하기 위해서는 특수(特殊)한 정치적(政治的) 환경(環境)을 필요(必要)로 한다.

대중정부(大衆政府)에 공헌(貢獻)하는 것, 정치적(政治的), 협력(協力)과 자제(自制), 그리고 미국(美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민주주의(地方民主主義)를 통한 권력(權力)의 지역 분산(地域分散)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多樣)한 집단(集團)에 대해 고유(固有)의 지역적(地域的) 권력토대(權力土臺)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조화(調和)시키는 것은 민주정부(民主政府)를 보존(保存)하면서 정치적(政治的) 통합(統合)의 수단(手段)으로서 연방제도(聯邦制度)를 발전(發展)시켜 온 비결(秘訣)이 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질서(國內秩序)를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使用)하는 것은 연방제(聯邦制) 형태(形態)의 정부(政府)를 유지(維持)하는데 해(害)로운 것이다.

또한 많은 공직(公職)에 충원(充員)될 수 있는 많은 유능(有能)한 인적(人的) 자원(資源)을 가지며, 자유(自由)의 가치(價値)의 일부(一部)로서 적당량(適當量)의 경제적(經濟的) 소비생활(消費生活)을 충족(充足)시킬 수 있는 물질적(物質的) 자원(資源)을 가진 사회(社會)에서 연방제도(聯邦制度)는 가장 성공적(成功的)이었다.



# 새 공화국(共和國)의 경제과제(經濟課題)

편집실(編輯室)

제5공화국(共和國)의 새 국회(國會)가 80년대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건설의 견인차(牽引車)라는 점에서 국민(國民)의 막중한 기대가 걸려있다. 때문에 이번 국회(國會)를 구성한 각 정당들은 정치(政治)강령이나 경제공약(經濟公約)들을 실속과 합리의 바탕 위에 기필코 구현시켜야 한다. 이들 강령과 공약들을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은가, 진로(進路)와 처방(處方)들을 과제별로 엮어본다.

## 1. 민생안정(民生安定)과 복지(福祉)

### GNP성장 자성론(自省論)

현대국가는 그 사회구성원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다.

말하자면 민생안정(民生安定)과 복지증진(福祉增進)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제기된 갖가지 부작용이 현재화(顯在化)되고 있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제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장위주의 경제전략으로 인해 부(富)의 편재(偏在)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외형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생활의 질적(質的)향상은 그 외형적 성장을 뒤따르지 못하는 부진을 보여왔다. 더구나 급속한 개발인플레이는 소득(所得)구조의 왜곡(歪曲)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투기(投機)를 통한 일확천금 내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선호(選好)하는 그릇된 사회풍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 다. 연방체(聯邦體)의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

연방주의(聯邦主義)는 사실상(事實上) 자체적(自體的)으로 유지(維持)되고 있는 다수(多數)의 정치단위(政治單位)들에 대해 실질적(實質的)인 권력(權力)을 분배(分配)해야 한다. 이러한 권력(權力)의 분산(分散)을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라고 말할 수 있다.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는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와는 다르다.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는 중앙정부(中央政府)가 지방정부(地方政府)에 특정권력(特定權力)을 이양(移讓)하되 중앙정부(中央政府)의 일방적(一方的) 결정(決定)에 의해 철회시킬 수 있는 조건부적(條件附的)인 권력분산(權力分散)이다.

그러나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는 단순(單純)한 권력이양(權力移讓) 이상(以上)의 것이다. 즉 중앙정부(中央政府)가 하위(下位) 정치단위(政治單位)인 지방정부(地方政府)에 일방적(一方的)으로 권력(權力)을 이양(移讓)하는 것이며, 통상적(通常的)으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체(聯邦體)의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를 유지(維持)시키는 요소(要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지분국간(支分國間)의 균형(均衡) 연방제(聯邦制)를 구성(構成)하는 정치체(政治體)들은 인구(人口), 부(富) 또는 지리적(地理的)으로나 수적(數的)으로 동등(同等)해야 한다. 연방체제(聯邦體制)를 구성(構成)하는 정치체간(政治體間)의 불균형(不均衡)이 연방제(聯邦制)가 실패(失敗)하는 주요원인(主要原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개(個) 지분국(支分國)으로 구성(構成)된 연방(聯邦)은 지분국(支分國) 상호간(相互間)의 힘의 균형유지(均衡維持)가 절대조건(絕對條件)이 된다.

### (2) 지분국간(支分國間)의 경계선(境界線)

지분국간(支分國間)의 경계선(境界線)의 항구성(恒久性) 역시 성공적(成功的)인 연방제도(聯邦制度)의 한 특징(特徵)이다.

경계선(境界線)의 변동(變動)은 정치체(政治體)의 동의(同意)에 의해서만 가능(可能)하고 극단적인 상황(狀況)을 제외(除外)하고는 없어야 한다.

(3) 지분국간(支分國間)의 상이(相異)한 법체계(法體系) 연방(聯邦)을 구성(構成)하는 정치체(政治體)에 상이(相異)한 법체계(法體系)를 제도적(制度的)으로 보장(保障)함으로써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가 지탱되는 경우가 있다.

### (4)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된 정당체계(政黨體系)

연방제적(聯邦制的)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를 유지(維持)하는데 가장 중요(重要)한 요소(要素)의 하나는 비중앙집중적(非中央集中的)인 정당체계(政黨體系)의 존속(存續)일 것이다.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된 정당(政黨)들은 우선 연방적(聯邦的) 계약(契約)의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를 개발(開發)한다.

때문에 경제(經濟)의 외형적인 양적성장(量的成長)보다는 내면적인 질적(質的) 발전(發展)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책당국자들까지도 「GNP성장(成長)의 신화(神話)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자성론(自省論)을 펴고 있다. 영국(英國)의 저명한 경제석학 싱어 박사(英(英)서섹스 명예교수)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전략을 종래의 「주된 목표 GNP성장, 희망적인 부산물 빈곤(貧困)제거」에서 이제는 「주된 목표 빈곤(貧困)제거, 희망적인 부산물 GNP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總選)을 배경으로 각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公約)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 민생안정과 복지(福祉)증진에 가장 큰 역점이 두어져 왔다. 그 공약(公約)들을 보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서부터 국민복지연금제의 실시, 의료보험수혜확대, 노인 및 장애자 복지법제정, 최저임금제의 실시, 직업안정을 위한 취업등록제 실시 등이 주요 골간(骨幹)을 이룬다. 이들의 주장과 공약이 국민 생활의 기본수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다. 또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분배(分配)·성장(成長)에 조화(調和)를

그러나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과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여건의 성숙, 그리고 분배와 성장과의 조화 등이 긴밀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나친 사회보장의 실시는 자칫 사회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이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와 성장의 침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적절한 성장에 뒤따르지 않는 분배정책은 경제의 축소재생산을 의미할 것이다.

흔히 강조되고 있는 복지(福祉)의 개념도 어느 일방의 소득을 다른 일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소득자에 대해 소득의 기회를 균등히 해줌으로써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노동이 없는 노약자나 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社會保障)의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 소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줌으로써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한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 물질적인 기본수요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회참여나 성취감 등 정신적인 행복이 결여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민생안정과 복지시책은 이같은 기본방향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입안(立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유명무실한 기구의 설치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政策)의 내실화(內實化)도 기해야 할 것이다.

### 물가(物價)안정이 급선무(急先務)

이렇게 볼 때 복지시책은 서민층의 최저 생활보장에 우선이 두어져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의

수단으로는 소득을 늘려주거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고용증대를 통한 소득기회의 확충과 함께 의료보험실시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 기본 생계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급선무이다. 인플레이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조장시킬 뿐 아니라 임금상승과의 악순환을 통해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본 생활필수품만이라도 가격 안정을 피할 수 있는 산업 및 금융, 세제정책이 강화돼야겠다.

현재 극히 소홀히 다루지고 있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비단 복지증진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불만해소라는 사회정책적인 의미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생활환경의 개선도 시급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다. 생활환경의 오염은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시키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나 사회의 발전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종 공해방지는 당장의 투자효과보다 장기적인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고용보험의 실시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제5공화국의 국가목표에 비취볼 때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부(國富)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성장(成長)과 복지(福祉)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치(相馳)되는 경우가 많다. 성장(成長)과 복지(福祉)를 어느 정도 조화있게 선택하느냐는 것이 경제시책의 가장 큰 핵심이자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 2.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

### 통첩(通牒)·지시(指示) 이미 줄어

경제(經濟)를 인체(人體)라 한다면 금융(金融)은 그 혈관(血管)이다. 경제(經濟)를 움직이는데 금융(金融)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 경우란 없기 때문이다.

금융이 경제(經濟)정책의 핵(核)을 이룰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經濟)는 지금 체질적 변화기를 맞고 있다. 정부주도(政府主導)가 아닌 이른바 민간주도(民間主導)체제로의 전환이다. 경제(經濟)체질이 바뀌면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金融)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민간주도 경제체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를 운용하자는 것이니까 금융 메카니즘도 그렇게 따라와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가 바로 그것이다.

때마침 집권당인 민정당(民主黨)도 이번 총선(總選)에서 금융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경제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의 경제현실로 봐서 적절한 정책제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사실 금융의 자율화 방침은 이미 정부가 강조해 오고 있고 또 몇 가지 방안도 나와 실천단계에 있다. 우선 은행(銀行)내부경영과 관련된 각종 통첩이나 지시사항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만큼 은행(銀行)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또 연내 정부 소유 주식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1개 시은(市銀)을 민영화(民營化)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금융자율화가 은행의 예산이나 하루 조직 인사 등 내부경영에 자율성이 좀 보장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정책(政策), 일반(一般)금융구획(區劃)

또 은행장(銀行長)이 자기 판단에 의해 소신껏 여신(與信)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선 단순한 은행(銀行)의 민영화만으로 금융이 자율화 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김준성(金埈成) 한은(韓銀) 총재가 최근 전경련(全經聯)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금융에서 60%나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가 일반금융이다.

결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반기업들이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는 40%에 불과한 셈이다. 그래서 항상 자금이 달릴 수 밖에 없다. 금융시장에서 금리(金利)가 자금수급조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책금융은 필요악이라지만 꼭 필요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과감하게 축소, 현재의 60% 비중에서 4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취급기관과 일반 금융 취급기관으로 은행(銀行)의 여신(與信)업무를 뚜렷이 구획정리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산은(産銀) 등 국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시은(市銀)은 일반금융을 중점취급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금리(高金利)체제를 지속하다 보니 기업(企業)의 금융부담만 가중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가(物價)만 부채질하고 있다.

80년 중 상장(上場)기업체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이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업의 금리부담이 얼마나 과중한 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임금(賃金)상승에 의한 인건비까지 합친 금융(金融)부담은 총 매출액의 5~12.7%나 차지한다.

### 물가안정(物價安定) 선행(先行)을

최근 무협(貿協)분석자료에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輸出)금융금리는 연 12%인데 경쟁국인 자유중국(自由中國)은 연 10.5%, 우대금리는 우리가 연 19.5%, 자유중국(自由中國)은 연 16.2%로 나타나 국제경쟁력 약화와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물가(物價)도 작년에 우리가 도매 38.9%, 소비자 28.7%나 올랐는데 반해 자유중국(自由中國)은 각각 21.6%와 19%에 그쳤다.

금리(金利)가 제 기능을 발휘, 기업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金融)자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은행(中央銀

行)인 한은(韓銀)의 독립성(獨立性) 보장이 급선무이다. 한은(韓銀)이 「재무부(財務部) 남대문지점(南大門支店)」으로 통하는 현실에서 금융자율화는 의미가 없다. 은행(銀行)의 은행(銀行)인 중앙은행(中央銀行)이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근거는 뚜렷하다. 정부가 재정적자(財政赤字) 계정의 보전을 발권력(發券力)에 의존한데서 오는 통화팽창을 막고 정권교체에 따른 급격한 화폐적 교란을 막아 중앙은행(中央銀行)이 자속적이고 안정된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정책의 집행은 금융의 이론과 실무적 기술을 겸비한 중앙은행이 정부와는 독립하여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金融)자율화가 근본적으로 이뤄지려면 한은(韓銀)에 독자적인 예산 및 인사권(人事權)이 부여돼야 한다. 재무부 업무검사와 회수를 연 1회로 완화하고 국책은행의 업무와 복무에 관한 지침대상에서도 한은(韓銀)을 제외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 송기철(宋基澈) 교수(고대(高))의 말이다.

## 3. 합리적 세제(稅制)운용

### 작년(昨年) 0.6% 초과(超過)징수

경제정세(經濟情勢)가 안팎으로 변혁(變革)을 일으키고 있다. 대내적(對內的)으로 경제활동의 민간주도(民間主導) 의식이 팽배해지고 국외(國外)에선 「작은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변혁(變革)의 축(軸)은 역시 정부역할의 축소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을 줄여보려는 수단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 껍은 미국(美國) 등 구미(歐美)국가들이 감세(減稅)를 기능축소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세금(稅金)만은 논의(論外)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제(稅制)만은 별로 변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세금(稅金)에 관한 한 「소정부(小政府)」가 아니라 「대정부(大政府)」의식이 강하다고나 할까. 공전(空前)의 불황기(不況期)였던 지난해도 우리 정부는 0.6%나 세금(국세(國稅))을 초과징수했다. 물론 유가(油價)인상 등에 의한 인플레이의 덕을 본 것이긴 하지만…….

감세(減稅)를 통해 조세(租稅)의 경기(景氣)대책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時點)에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둔 셈이다.

조세원론적(租稅原論的) 입장에서 분명 불황시(不況時)에는 세율을 낮춰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창출토록 추구하고 있다. 정부당국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원론(原論)을 강조한다. 그러나 세법개정(稅法改正) 때마다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것도 사실이다. 지난 연말의 세법개정(稅法改正) 때도 그랬다.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가세율(附價稅率)의 조정만은 외면했다. 재정세목(財政稅目)의 40%를 차지하다 보니 역시 인색해진 것이다. 이런 재정수요(財政需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국민의 세(稅)부담은 줄어들 줄 모른다. 해마다 소득의 증가분보다 조세(租稅)의 증가분이 더 많아진다.

### 세금(稅金)증가 소득(所得)앞서

71년부터 80년 사이에 우리의 국민총생산(GNP)은 8백15% 증가했지만 조세(租稅)는 1천 15%나 늘어났다. 조세부담률이 73년 이후(12.5%) 계속 증대, 지난해 18.8%로 늘어난 것도 당연하다. 재정(財政)에 집착하다 보니 세제(稅制)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소득의 역진성(逆進性), 무차별적으로 걸리는 간접세(間接稅)비중의 과다(65%) 등이 그 사례다. 미국(美國)의 간접세 비중이 8%라면 우리 세정(稅政)의 문제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법인세율(法人稅率)만 보더라도 명목세율은 평균 40%로 외국에 비해 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세, 방위세 등의 부가세(附加稅)를 몰다 보면 최고세율은 무려 53%에 이른다.

구미(歐美)국가들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목(稅目)을 단일화시키고 있다. 캐나다 46%, 덴마크 37%, 벨기에 48% 등이 모두 단일 세율(稅率)이다. 부가세(附加稅)를 징수하는 자유중국(自由中國)도 법인에 대한 최고세율은 44% 선이다. 국내기업들이 절세(節稅)에 집착할 만도 한 것이다. 소득세도 우리의 세금(稅金)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대변한다. 명목세율 62%에 최고세율은 무려 79%를 기록한다. 1백원의 소득 중 약 80원을 세금으로 내는 꼴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세법상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다양한 주세 감면혜택이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감면혜택이란 원칙적으로 바른 세정(稅政)일 수 없다. 공평과세(公平課稅)라든가 소득의 재분배 기능면에서 보면 경직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정당(政黨)들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선거공약에서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부가세(附加稅)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조세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의 세정(稅政)을 흔히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한다. 손쉽게 세수(稅收)를 꺾을 수 있는 부문에 집착한다는 뜻이다.

### 세수(稅收)확보에 치우쳐

무차별적인 부가세(附加稅)는 분명 재정(財政)이 위급할 때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세목(稅目)이다.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근로소득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인색한 것 역시 세원(稅源) 포착이 손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하기가 정부가 매년 팽창예산을 편성하는 자체에서 이미 세(稅)부담완화의 설득력은 잃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에도 예산팽창에 의한 국민의 세(稅)부담증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정부가 2일 발표한 8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5% 내외 늘어난 9조 8천억원으로 잠정책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증가율이 25% 안팎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本)에 산규모에 국한된 것이고, 내년도 재정 형편에 따라선 추경(追更)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될 경우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조세(租稅)정책은 세수(稅收)확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젠 기업의 투자이익 진

작을 위한 경기 조절기능 강화와 함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세정(稅政)운용을 합리화하며 음성세원을 발굴, 세(稅)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중소기업(中小企業) 육성

### 관심(關心) 부족 외면(外面) 일쑤

복지국가건설(福祉國家建設)을 목표로 출범한 새 공화국(共和國)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課題)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이라면 먼저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안정발전(安定發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생산(生産)과 고용(雇傭)의 증대, 국내 자원(資源)의 최대활용 및 지역 사회(地域社會)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구조(產業構造)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발전이 국가산업사회(國家產業社會)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국민소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안정대(社會安定帶)로서의 역할은 물론 복지국가건설의 초석(礎石)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중심의 개발정책(開發政策)에 밀려 규모의 영세성, 자본구조의 취약, 기술력부족, 거래조건의 불리, 관리능력 미약 등 갖가지 애로점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저하돼 가고 있다. 때마침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당인 민정당(民主黨)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보호육성을 다짐하는 정강(政綱)·정책(政策)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상호보완관계정립(相互補完關係定立), 자금지원강화, 세제 지원강화, 중소기업청(中小企業廳)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공약(公約)이나 공언(公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법(關係法)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다만 그동안 각종의 중소기업육성책을 마련해 놓고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그 운영을 중소기업의 실익(實益)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 뿐이다. 그러므로 화려한 육성안보라는 실태(實態)를 정확히 파악 이해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 광공업체(鑛工業體)의 96%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79년말 현재, 3만2천 4백59개 업체로서 전체 광공업체수(鑛工業體數)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從業員數)에 있어서는 1백 4만 1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류(生産類)는 전체의 32.6%, 부

가가치(附加價值)는 35.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63년도의 사업체수(事業體數) 98.5%, 종업원(從業員) 62.4%, 생산류(生産類) 56.3%, 부가가치(附加價值) 49.7%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美國), 서독(西獨), 일본(日本) 등의 중소기업 비중이 50% 이상에서 점증(漸增)하고 있는 현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출에서는 전체수출액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수출금융의 수혜난(受惠難) 등 수출환경의 불리(不利)로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투자(投資)도 올해의 경우 5백 80억원으로 총예산의 경제 개발비중 4.4%에 불과, 지난해보다 오히려 1%가 감소했는데 일본(日本)의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율 19.6%에 비하면 무려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고도성장정책(高度成長政策)에 따라 주요기간산업분야를 비롯한 대규모 장치산업의 건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만큼 이제 이를 보완하는 입장에서라도 중소기업의 육성(育成)은 시급해졌다. 이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사회정책적(社會政策的)인 관점에서보다 산업정책적(產業政策的)인 관점에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 행정(行政)에 연계성(連繫性) 결여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財政), 금융(金融), 기술(技術) 등 지원행정(支援行政) 상호간의 연계성(連繫性)이 결여돼 있고 중소기업행정태세(中小企業行政態勢)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중소기업청을 독립 발족시켜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그동안 중화학부문(重化學部門)집중 투자에 따른 유희시설증가, 시설중복, 재무구조의 악화 등을 해소하고 기술 및 지식집약적 중소기업개발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화(專門化) 계열화(系列化)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購買促進法) 제정, 협동조합(協同組合) 공동사업 기금조성 지원,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재정투자(財政投資)확대, 법인세율(法人稅率)의 인하로 중소기업자의 기업이익을 복돋아 줘야 한다. 아뭏든 새 국회는 중소기업이 산업사회(產業社會)의 경제적(經濟的) 안정대(安定帶)로서 중소기업의 안정발전이 바로 국가산업사회 발전에 직결되며 복지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중소기업육성 시책이 과거와 같이 약한 자를 돕는 구제사업과 같은 구호정책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하겠다.

### 5. 농정(農政)의 새 방향(方向)

#### 농경지(農耕地) 해마다 줄어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전략(經濟成長戰略)은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성장격차를 심화시켜

농았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년도의 22.9%에서 79년도에는 17.4%로 크게 떨어졌다. 농가인구도 약 4백만명이 감소하여 총 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이 45.9%에서 28.9%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산업구조(產業構造)의 변화는 농업부문 종사자의 구성비를 같은 기간에 49.5%에서 34.0%로 축소시켰다.

농업부문 취업인구의 이같은 감소현상은 70년대 중반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랫동안 농업발전의 제약요소가 되어 왔던 과잉인구의 부양(扶養)압력과 실업문제가 최근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바뀌게 했다. 또한 농경지(農耕地)를 포함한 농업자본도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非農業)부문으로 빠져나갔다. 농경지의 경우 면적이 70년 2백 29만 7천정보였던 것이 79년에는 2백 20만 7천정보로 약 9만여 정보가 감소, 해마다 1만 여정보씩 줄어든 셈이다.

이와같은 농업자원의 유출은 농업노임을 비롯한 농업자원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농업경영의 현금지출을 늘려 놓는 등 영농비(營農費)를 인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의 제약 요인이 되게 했다. 농산물 유통면에 있어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에 생산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급불균형(需給不均衡)과 가격불안정의 문제를 발생케 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압력증대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보호란 문제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문제로 진통을 겪게 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이 농업의 확충적 성장없이 급속히 이룩된 공업화 전략에서 연유된 것이다.

#### 공업(工業)원료 수입대체(輸入代替)

그러나 우리 농업정책의 최대과제가 주곡(主穀)의 자급(自給), 농외소득(農外所得)의 증대로 집약되고 농업기능이 국민필수식량을 자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관련 공업원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고 공업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뜻에서 소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식량부족 현상을 비롯해 제조부문에서 원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상대적으로는 국내시장의 수요창출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4차 5개년 계획 기간까지 전체 투용자 규모에 대한 농수산 부문의 투용자 비율은 계획기간이 거듭될수록 떨어지지만 했다.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외화를 써왔다. 더구나 식량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추세 속에 식량의 자급달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5차 계획기간 중 식량 증산을 위한 각종 사업에 농정 당국의 계획대로 투용자 된다 해도 매년 3백만섬의 쌀과 4백 만~5백만톤의 잡곡을 수입해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소득(所得)격차 등 부작용(副作用)

이 같은 상황 속에 제5공화국이 맡게될 제5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과업을 안고 있다.

80년대의 농업은 새로운 전략산업(戰略產業)으로서 또는 수입대체산업(輸入代替產業)으로

서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수지맞는 농업, 살기에 쾌적한 농촌, 편리한 농사, 그리고 농민들이 농정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새로운 농촌경제사회의 건설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같은 기대 속에 제5공화국에 거는 농정은 종합개발(綜合開發)차원에서 농업과 농촌공업(農村工業)을 병행해 개발할 수 있도록 농정(農政)의 영역확장(領域擴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농촌공업(農村工業)의 개발은 농외소득(農外所得)증대 측면에서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공업(都市工業)의 농촌입주(農村入住)촉진, 식품가공업, 농업자재생산 등 농촌의존형공업(農村依存型工業)의 육성, 농촌가내공업(農村家內工業)의 활성화(活性化)가 이루어져야겠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간여(行政干與)를 배제하는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의 농정운용은 주곡증산(主穀增産)이라는 정책목표(政策目標)달성에만 급급, 획일적 지원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농가간의 소득격차(所得隔差) 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고 이로 인해 농가 지원제도(支援制度)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처,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정책결정과정(政策決定過程)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요약해서 제(第)5공화국(共和國)이 말게 될 80년대, 새 농정은 「종합안보(綜合安保)」의 차원에서 국민 식품(食品)의 안정적(安定的) 확보를 위한 국내공급능력의 향상, 농촌경제조직(農村經濟組織)의 재편(再編)과 농업생산(農業生産)의 효율화, 농정운용(農政運用)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을 통한 농물향상, 농촌지역사회의 균형적 개발을 추구하는 종합개발농정(綜合開發農政)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 6. 국토(國土)개발

### 분극화(分極化)현상 뚜렷

국토(國土)는 만인(萬人)이 평등하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국토는 물과 공기와 같이 누구에게 독점될 수 없으며 인간(人間)의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소(場所)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국토개발(國土開發)은 국토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자원(資源)과 잠재력(潛在力)을 최대한 개발해서 국민복지(國民福祉)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 어느 곳에 사는 국민(國民)이라도 동질(同質)의 복지(福祉)를 향유(享有)할 수 있게 개발돼야 하는 것이다.

국토개발계획(國土開發計劃)이 경제개발(經濟開發)계획과 사회(社會)(문화(文化))개발(開發)계획과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토는 생산적(生產的)으로 개발 이용돼야 하고 그 성과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福祉)로 승화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토개발(國土開發)은 경제성만을 최우선한 거점개발(據點開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구미(龜尾), 울산(蔚山), 창원(昌原) 등 경부(京釜)간의 중앙축대(中央軸帶)를 중심으로한 공업기지(工業基地)건설은 산업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를 유발시켰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출발한 능률 위주의 점개발전략(點開發戰略)을 펴온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년)의 결과였다.

서울과 부산(釜山)에 전 인구의 29.8%, 도시 인구의 46%가 몰려있으며 총 광공업 생산액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불균형의 개발로 인해 분극화(分極化)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인구집중은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택난을 심화시켰고 광공업체의 편중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특히 동남해안(東南海岸) 일대에 건설된 포항(浦項), 마산(馬山), 창원(昌原), 울산(蔚山), 여천(麗川) 등의 공업벨트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심화현상을 빚고 있다. 지나친 경제성위주의 국토개발(國土開發)이 오히려 복지(福祉)의 혜택을 저해해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국토개발계획이 경제개발계획 중심으로 이끌려가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10년을 주기로 한 장기적인 국토개발(國土開發)계획이 5년의 단기성 경제개발계획에 좌우됨으로써 초래되는 모순성의 노정으로 지적된다.

### 전국(全國)은 1일생활권(日生活圈)

이는 올해로 마무리짓게 되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적(79년말 현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반부문의 공업용지(工業用地)는 계획 3백44.1km에 실적 94.3%, 공업용수는 1일 7백 39만 4천톤 계획에 90.2%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사회간접시설인 통신, 상하수도, 철도 그리고 농업 및 생활용수(生活用水)를 공급기 위한 다목적(多目的) 댐 건설실적은 44~90%에 지나지 않고 있다. 경제성의 우선순위에서 주도되고 있는 국토개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집권당인 민정당(民主黨)은 총선(總選)공약을 통해 국토개발(國土開發)을 수송·지역개발부문에 중점을 두겠다고 천명했다. 인천(仁川)~목포(木浦)간의 서해안(西海岸) 고속도로와 경부(京釜)간 고속전철을 건설하여 전국을 1일생활권화(日生活圈化)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광주권(光州圈) 제주(濟州)종합개발 사업을 조기완공하고 영동(嶺東)지리산, 속리산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할 방침으로 있어 지역간의 개발불균형에서 오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도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균형개발이 시급하다.

국토개발 전문가들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기간(82~91년) 중에는 개발이익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축(軸) 내지 광역개발에 역점을 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중개발된 서울~부산축(釜山軸)은 그대로 유지되되 대전(大田)~광주(光州), 대전(大田)~동해축(東海軸)을 개발, 소위 K자축(字軸)으로 지역 및 산업개발을 균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수도권(首都圈)의 인구를 대전권(大田圈), 태백권(太白圈), 부산권(釜山圈), 광주권(光州圈)으로 분산시키는 동시 농촌과 소도시에서 배출되는 인구의 최종 차단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國土)는 한정돼 있다. 모자란다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생산할 수도 없는 유한성(有限性)을 지니고 있다.

#### 수자원(水資源)도 활용(活用)돼야

때문에 국토(國土)가 지니고 있는 자원(資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생활의 보금자리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에너지 등 주요자원의 부족에 대비한 자원(資源)절약적 국토개발(國土開發)이 시행되어야겠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강우량이 연평균 1천 1백 60mm(세계(世界)평균치 7백 50mm), 서남해안(西南海岸)에는 간석지(干潟地)가 65만ha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수자원(水資源)개발과 국토확장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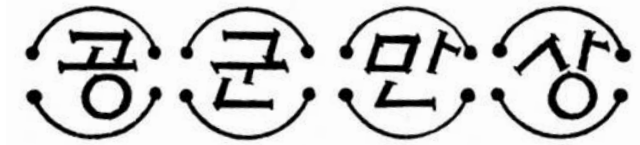
간석지를 농토, 도시, 임해공단(臨海工團), 목장 등으로 바꾸고 다목적(多目的)댐의 건설확충으로 각종 용수(用水) 및 수력발전(水力發電)을 공급,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남한강(南漢江)의 경우 댐 5개 정도가 더 건설되면 수로(水路)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명장명언(名將名言)〉

어떠한 군사행동(軍事行動)에서도 보급(補給)은 작전기능(作戰機能)을 유지하는 신경계통(神經系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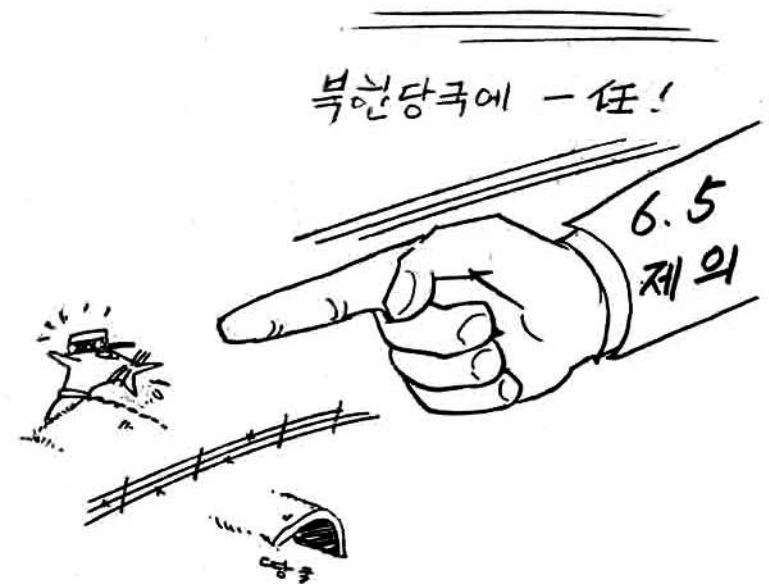
- 맥아더 -



정운섭 (鄭雲燮)

#### 〈6.5 제의〉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교류부터



# 공·군·만·상

<태평양시대 열리다>

대통령 각하 아세안 5개국 순방



## 공군교리(空軍敎理)

윤재진

만일 교리(敎理)에 대하여 연구(研究)를 해보려고 하거나, 교리발전(敎理發展)에 직접(直接) 책임(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質問)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에 착수(着手)할 수 있게 된다. 즉 “교리(敎理)란 무엇인가(개념(概念))?” “무엇을 근본(根本)으로 한 것인가(원천(源泉))?” “어떻게 하여야 실행(實行)될 수 있는가(전개방향(展開方向))”이다.

이러한 기본적(基本的)인 질문(質問)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근본적(根本的)인 문제(問題)를 다룬 자료(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교리(空軍敎理)가 공군력(空軍力)을 건설(建設)하고 운용(運用)하며 발전(發展)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活動)의 출발점(出發點)이라는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한다면, 교리발전(敎理發展)에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리(敎理)를 업무수행상(業務遂行上) 모든 사고(思考)의 준거(準據)로 이용하는 공군구성원(空軍構成員) 모두가 교리(敎理)가 무엇이며, 그 역할(役割)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基本的)인 문제(問題)를 이해(理解)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교리(敎理) 발전(發展)을 위한 활동(活動)이 미흡했던 이유를 분석(分析)해 보면 첫째는, 교리(敎理)를 연구발전(研究發展)시키기 위한 영구적(永久的)인 기구(機構)가 없어 활동(活動)이 중단(中斷)되었으며, 둘째는 교리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內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거나 서로 다른 의견(意見)을 갖고 있어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다행(多幸)히 작년(昨年) 공군대학내(空軍大學內)에 연구처(研究處)가 발족됨으로써 교리발전(敎理發展)에 새로운 관심(關心)과 활력(活力)이 되고 있다. 이제 공군구성원(空軍構成員)의 교리(敎理)에 관(關)한 이해(理解)와 관심(關心)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 외국(外國) 학술지(學術誌)에 실렸던 글을 본지(本誌)를 통하여 계속 소개할 계획(計劃)이며 그 첫번째로 본 논문(論文)은 교리(敎理)의 개념(概念)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한정(限定)함으로써 교리(敎理)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유용(有用)한 방법(方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공군대학평론(美空軍大學評論)(Air Univ Review)에서 관계되는 논문(論文)을 모아 작성한 것이다.

<필자(筆者) 주(註)>



## 1. 공군교리(空軍敎理)의 개념(概念)

공군교리(空軍敎理)는 원칙(原則)이고 진리(眞理)이며, 기정사실화(既定事實化)된 가정(假定)인 동시에 공군력(空軍力)을 건설하고 운용(運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지침(指針)과 방향(方向)을 제시해 주는 과학(科學)이다.

공군교리(空軍敎理)는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근본적(根本的) 원칙(原則)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는 전쟁(戰爭)의 원칙(原則)이다. 즉 모든 유형의 전쟁(戰爭)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方法)으로 증명되어온 원칙(原則)으로, 집중(集中), 기습(奇襲), 지휘통일(指揮統一), 그리고 보안(保安)과 같은 개념(概念)이 그러한 원칙(原則)에 포함되어 있다. 공군교리(空軍敎理)를 구성하는 두번째 원칙(原則)은 대부분 실제 과시(誇示)되었거나 공군(空軍)만이 갖고 있는 특성(特性)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지(地)·해상군(海上軍)과 다른 공군력(空軍力)을 건설(建設)하고, 조직(組織)하고, 운용(運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方法)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原則)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논쟁(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군력(空軍力)의 운용(運用)에 관한 근본적(根本的)인 원칙(原則)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 공군우세(空軍優勢)는 지상(地上), 해상(海上), 공중(空中)에서의 전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 전략폭격은 적(敵)의 전쟁수행능력을 파괴시킴으로써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
- 공군력(空軍力) 운영(運營)의 최선은 공격이다.
- 공군력(空軍力)은 지휘(指揮)의 통일과 통제(統制)의 분권화(分權化) 원칙(原則)에 따라 최선으로 운용(運用)될 수 있다.

### 가. 교리(敎理)의 역할(役割)

교리(敎理)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準據)와 방법(方法)을 제공해 주며, 군(軍) 구조(構造), 전략(戰略)과 전술(戰術), 훈련(訓練), 그리고 기능적(機能的) 절차(節次) 등 모든 면에서 시발점(始發點)과 기초(基礎)가 되고 또한 공군력(空軍力)의 운용(運用)과 발전(發展)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침(指針)을 제공한다. 공군력(空軍力)의 운용(運用) 원칙(原則) 중에 「공중우세(空中優勢)는 다른 업무의 성공적(成功的)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라는 것을 예로 든다면, 공중우세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성은 공대공(空對空) 전투기의 필요성을 지시하며, 이것은 다시 항공기의 발전과 획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특히 우리와 같이 국가의 재정적(財政的) 자원(資源)이 제한된 어려운 경우에서 군사력(軍事力)을 건설하는데 어디에 먼저 자원(資源)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리(敎理)는 또한 새로운 개념(概念) 뿐 아니라 기술적 발전과 정책(政策)까지도 시험(試驗)하고, 평가(評價)하고, 운용(運用)하기 위한 근거(準據) 또는 건전(健全)한 심사수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지휘통일(指揮統一)이라는 개념(概念)을 공군력(空軍力)을 조직하

고 운용(運用)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原則)으로 채택한다면, 군(軍)을 재편성(再編成)하려는 새로운 제안이 있을 시 이를 평가(評價)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새로운 편성(編成)이 지휘통일(指揮統一)을 감소시켜가는 혹은 보강시켜가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교리(敎理)는 공군력(空軍力)의 편성(編成)과 운용(運用)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배경이 된다. 공군력(空軍力)이 어떤 것에 강(強)하고 어떠한 것에 무능(無能)한가를 설명(說明)해 주며 어떤 구조를 갖추고 어떤 방향(方向)으로 운용(運用)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교리(敎理)는 단지 일반적(一般的)인 안내를 할 뿐이다. 교리(敎理)는 나침반이지 지도(地圖)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 하는 세부적(細部的)인 사항은 말해 주지 않는다. 즉 특정상황에 대한 요구(要求)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 세부적인 것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교리(敎理)라는 용어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흔히 교리(敎理)와 혼동하기 쉬운, 그러나 반드시 분리(分離)되어야 할 교리(敎理)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치적(政治的) 지침(指針)」의 범주 내에 속하고 두번째 것은 「지시방법(指示方法)」이나 「절차(節次)」에 속하는 것들이다.

### 나. 교리(敎理)와 국가정책(國家政策)

정치적(政治的) 지침(指針)은 실제로 공군(空軍)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며 아주 명확(明確)하게 국가활동(國家活動)에 대한 군(軍)의 책임을 부여한다. 정치적(政治的) 지침(指針)은 국가정책(國家政策)과 국가목표(國家目標)로부터 나오며 군(軍)은 이러한 국가정책(國家政策)과 목표(目標)를 확실히(確實) 이해하고 따라야 하나, 그러한 유동적인 정치적(政治的) 입장(立場)을 교리(敎理)로 취급함으로써 추구하는 내용(內容)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교리(敎理)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基本的) 원칙(原則) 안에 내재(內在)하고 있는 모든 개념(概念)은 안정(安定)되고, 영속적(永續的)이며 장기적(長期的)인 지침(指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개념(概念)이어야 한다. 교리(敎理)를 구성(構成)하는 뼈대가 정치적(政治的)인 결정(決定)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면 교리(敎理)가 확고(確固)한 원칙(原則)으로 구성(構成)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모순이 된다.

공군교리(空軍敎理)의 내용이 되고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진리(眞理)는 공군력(空軍力)을 건설하고 운용(運用)하는 최선의 방법을 설명(說明)해 준다. 근본적(根本的)인 진리(眞理)는 정책(政策), 목표(目標) 그리고 그에 따라 설정(設定)된 임무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存在)하고 있으며, 공군(空軍)의 기초(基調)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基本的) 원칙(原則)이 존재(存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原則)만이 군(軍)의 방향설정(方向設定) 과정(過程)에 유일한 지침(指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군(軍)은 정치적(政治的) 목적(目的)을 위하여 존재(存在)하며 또 존재(存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군(軍)의 책임이 인식(認識)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政治的)인 고려에 따라 지도(指導)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리(敎理)를 국가정책(國家政策)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 왜냐하면 공군력(空軍力)의 발전과 운용(運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政治的) 배려를 포함한, 외적 요소(外的要素)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군(空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안내해 주는 일정한(一定)한 표준(標準)이나 준거(準據)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政治的)으로 허용(許容)되는 방법이란 계속 바뀌게 마련이고, 바뀌더라도 조건(條件)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지향(指向)해야 할 최상의 방법에 접근(接近)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공군 지도자(空軍指導者)들이 공군(空軍)을 조직하고 운용(運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우기 교리(敎理)가 제공하는 사고준거(思考準據)는 우리가 이상적인 방안으로부터 얼마나 뒤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실행가능한 행동방안(行動方案)이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다.

국가(國家) 통수권자(統帥權者)는 군(軍)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군대(軍隊)의 능력(能力)과 제한(制限)을 알아야 한다. 공군(空軍) 지도자(指導者)들은 교리(敎理)를 통하여 정부(政府)에 대해 「우리는 당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당신은 이것이 공군력(空軍力)을 조직하고 운용(運用)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効率的)이고 충분한 방법(方法)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칙(原則)들에 따라서 운영(運營)하도록 허락된다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권고는 경우에 따라서 통수권자(統帥權者)의 특권에 의해 무시될 수 있으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충분(充分)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때에 따라 교리(敎理)를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 다. 교리(敎理)와 절차(節次)

교리(敎理)에 관한 우리의 노력은 교리(敎理)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실무(實務)에 적용시키는 데에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일 항공력(航空力) 운용(運用)의 가본을 이루고 있는 교리(敎理)의 기본적(基本的) 원칙(原則)을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교리(敎理)는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론적(方法論的)인 지시는 항공력(航空力)의 운용원칙(運用原則)에 근거(根據)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체가 교리(敎理)는 아니며 단지 공군(空軍)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유지하며 운용(運用)하는 지시(指示)이다. 그것은 원칙(原則)이라기보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절차이며, 이러한 절차(節次)는 기본적(基本的) 원칙(原則)을 수행하는데 있어 누가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하는가를 지시한다.

어디까지가 원칙(原則)이고 어디서부터 절차(節次)인지를 분명(分明)히 구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一般的)인 의미(意味)에서 공군력(空軍力)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원칙(原則)이고 이러한 원칙(原則)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들은 절차(節次)이다. 다시 말

해서 항공력(航空力)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자주 바뀐다. 공중우세(空中優勢)의 확보(確保), 지상군(地上軍)을 위한 효과적 근접지원(近接支援), 그리고 운용(運用)되는 모든 부대를 위한 통일(統一)된 지휘(指揮) 체제(體制) 등과 같은 고려사항 등은 제한(制限)된 전쟁(戰爭)에서 공군력(空軍力)의 운용(運用)을 위한 원칙(原則)이며 이러한 원칙(原則)을 실행(實行)으로 옮기는 행동방식(行動方式)은 절차(節次)의 범주(範疇)에 속한다.

우리는 왜 이 절차(節次)를 교리(敎理)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는, 절차(節次)는 우선 교리(敎理)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時間)에 대한 영구성(永久性)과 일반적인 진리(眞理)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節次)는 교리(敎理)로부터 유도되긴 했으나 일시적(一時的)인 정치적(政治的), 기술적(技術的)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적(節次的)인 지시(指示)는 공군(空軍)의 효과적인 운용(運用)과 조직(組織)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일 원칙(原則)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교리(敎理)는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節次)를 교리(敎理)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요점을 혼동시키게 된다. 원리(原理), 절차(節次), 그리고 정치적(政治的) 정책(政策), 이 세 가지 요소(要素)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리(敎理)가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길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정치적(政治的)인 고려나 원칙(原則)을 적용하는 방법은 변할 수도 있으나, 교리(敎理)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원칙(基本原則)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구성(永久性)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교리(敎理)의 근원(根源)

교리(敎理)는 이론(理論), 기술(技術) 그리고 역사적(歷史的) 경험(經驗)의 세 가지 원천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다.

### 가. 이론(理論)

경험(經驗)에 의해 실험(實驗)되지 않은 법칙은 실질(實質)과 기본(基本)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론(理論)이 결여된 경험(經驗)은 다가오는 변화(變化)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

우리의 공군(空軍)과 항공력(航空力)에 관한 개념(概念)은 과거(過去)의 경험이 새로운 차원(次元)의 항공전(航空戰) 수행(遂行)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 창의력있는 이론가들에 의해서 생겨났다. Douhet, Mitchell, Treuchard 그리고 그들의 협력자들이 항공력(航空力)에 대한 그들의 이론(理論)을 설명(說明)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교리(敎理)를 발전시키기 시작(始作)했을 때, 그들은 1차대전(次大戰)에서 항공력(航空力)이 무엇을 했는가에다 근거(根據)를 둔 것이 아니라 만일 적절히 발전되고 운용되었다면 항공력(航空力)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들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분명히 오늘날의 공군(空軍)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들은 공군(空軍)의 존재(存在)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를 제시했으며 공군(空軍)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운용하는 더욱 실용적인 절차(節次)에 대한 방향감을 주었고, 공군(空軍)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미래(未來)를 보도록 고무시켜 그들의 짧은 안목의 한계(限界)를 넘어 멀리 볼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성품(性品)과 미래적(未來的)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미래를 지향(指向)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군대(軍隊)는 영원히 과거(過去)나 현재(現在)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의 전쟁에 대항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장차전(將次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리(敎理)를 전적으로 이론적(理論的) 기본(基本)에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리(敎理)는 현재(現在)의 전쟁(戰爭)을 수행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미래(未來)의 전쟁(戰爭)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리(敎理)는 일반적(一般的) 원칙(原則)으로 되어 있으나 원칙(原則)으로서 실효성(實効性)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상(理想)에만 근거(根據)를 둔 교리(敎理)는 만일 다음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기술(技術)이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하다.

#### 나. 기술(技術)(Technology)

기술(技術)과 교리(敎理)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 1920년대(年代)와 30년대(年代)의 항공 이론가들에 대한 평가 중의 하나는 그들 교리(敎理)의 대부분이 기술을 훨씬 앞질렀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평가는 기술(技術)이 교리(敎理)를 낳게 하고, 교리(敎理)는 모든 기술적(技術的) 발전(發展)과 함께 변화할 것이라는 논리(論理)는 영구성(永久性)있는 진리가 못된다. 어떤 의미에선 교리(敎理)는 기술(技術)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연구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원리(基本原理)들을 보다 낡은 새로운 무기체계(武器體系)의 발전을 위한 지침(指針)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은 실효를 거두게 된다. 전투 지역에서 공(空)·지작전(地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공중우세획득(空中優勢獲得)의 필요성 인식은 분명히 공대공 전투기 개발의 배경이 되는 추진요소(推進要素)의 하나이며, 이러한 상황은 교리(敎理)와 기술간(技術間)의 관계의 일측면(一側面)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와 발전은 교리(敎理)에 의해 발생한 요구에서 기인(起因)된다.

하지만 모든 기술적 발전이 교리(敎理)에 의해 부과(賦課)된 요구의 결과만은 아니며, 기술적 발전은 특정 군사지침(軍事指針)과는 관계없이 일어난다(예를 들자면, 핵폭탄(核爆彈)의 발전은 군(軍)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자들에 의한 실험과 노력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경우 항공력(航空力) 운용원칙(運用原則)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체제의 잠재적(潛在的) 효과(效果)와 유용성(有用性)을 평가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결국 기술적(技術的) 혁신(革新)이 교리(敎理)의 변화(變化)나 심지어 새로운 교리(敎理)의

확립을 강요하는 때가 있을 수 있으며, 발명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항공 장비의 발전은 그 적절한 예(例)이다. 전쟁이 3차원(次元)으로 확대됨에 따라 항공기는 군사이론가로 하여금 경험(經驗), 전쟁원리(戰爭原理),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 특성으로부터 신무기의 효율적(効率的) 운용(運用)을 제시해 주는 교리(敎理)를 추출하게끔 한다.

교리(敎理)와 기술간(技術間)에 적절한 균형(均衡)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사이의 경계선에는 함정이 있다. 주어진 교리(敎理)에 집착하는 것은 기술적(技術的) 진보(進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차대전(兩次大戰) 사이에 미육군(美陸軍) 항공대(航空隊)의 전략 폭격에 대한 교리(敎理)는 B-17과 B-19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추진시켰으며, 반대로 독일 공군의 지상(地上) 돌파전(突破戰)에 참가(參加)한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 발전(發展)을 저해(沮害)시켰고, 이것은 대영국전(對英國戰)과 소련(蘇聯) 침공(侵攻)에서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되었다.

교리(敎理)의 여러 가지 측면(側面)을 고려할 때 간단한 대답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군이 정적(靜的)인 교리(敎理)를 새로운 체제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유일(唯一)한 기본으로서 사용한다면, 「새롭다」는 것은 단지 「개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개념적(概念的) 사고(思考)와 연구 발전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1차대전후(次大戰後)에 프랑스는 방어적(防禦的) 교리(敎理)에 의존함으로써, 육군 고위장교들이 탱크를 보병부대(歩兵部隊)에 분산(分散)시키는 것보다 집단(集團)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게 했으며, 반대로 독일군은 방어에 얽매이지 않고, 집단으로 운영하는 대체방안(代替方案)을 모색, 새로운 Idea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한편, 새로운 무기 개발에 따라서 교리(敎理)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히 교리(敎理)를 포기하거나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안정성을 잃게 되고, 지침(指針)마저 상실케 마련이다. 공군력을 운용(運用)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발전은 교리(敎理)보다는 절차(節次)에 영향을 주며, 원칙(原則) 자체(自體)보다는 그 시행방법(施行方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공중우세(空中優勢)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세적(攻勢的) 제공작전(制空作戰)의 중요성은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이나 대공포(對空砲) 등 대공화기(對空火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원칙(原則)으로 남아 있으나, 공격기(攻擊機)의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전자전(電子戰) 또는 방어제압 등의 공세적(攻勢的) 제공작전(制空作戰)에 수반되는 절차(節次)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技術)과 교리(敎理)의 관계를 밝히려면 먼저 우리는 새로운 기술발전(技術發展)이 교리(敎理)와 일치(一致)하는가를 검토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술발전에 따라서 교리(敎理)를 조정하는 동시에, 교리(敎理)로 하여금 현존하는 체제를 운용(運用)할 뿐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발전을 이끌어 주도록 함으로써 교리(敎理) 그 자체가 교리(敎理)를 발전시키는 우리의 행동양식이 너무 경직성(硬直性)을 띠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역사적경험(歷史的經驗) (Historical Experience)

군사교리(軍事敎理)는 미래(未來)의 작전(作戰)을 위해서, 예견(豫見)과 경험(經驗)으로부터 도출(導出)된 확실(確實)한 지침(指針)을 구비(具備)하여야 한다.

교리(敎理)가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서 추출(抽出)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교리(敎理)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根本的) 원칙(原則)은 경험(經驗)에 기초(基礎)를 두어야 타당성(妥當性)을 갖는다. 항공력(航空力)으로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할 수 없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교리(敎理)는 순전(純全)히 가설(假說)과 공군력(空軍力)의 능력(能力)에 대한 추측(推測)으로부터 도출(導出)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경험은 교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제공(提供)하며, 가설(假說)뿐 아니라 추측(推測)에 대한 증명(證明)이 된다. 즉 과거의 경험은 교리를 다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준다.

반대로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執着)은 교리(敎理)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 보(普)·불(佛) 전쟁(戰爭) 후에 프랑스 군사이론가(軍事理論家)들은 그들의 치욕적(恥辱的)인 패배를 반전(反轉)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을 예전의 로마 시대에서 찾았다. 프랑스의 이론가(理論家)들은 옛 로마제국(帝國)의 승리를 공세적 행동에 대한 신뢰와 연관된 용기와 활력의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집단 의존적(集團依存的)인 공세적 이론과 우세한 이론적 배경을 열렬히 지지하는 기습공세(Offensive à outrance)교리를 추론(推論)해 냈다. 프랑스육군(陸軍)은 이 교리(敎理)에 보조(步調)를 맞추고 그 당시의 기술적 발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고착(固着)된 보병(步兵), 기병부대(騎兵部隊) 그리고 열세(劣勢)인 기관총을 가지고 1914년(年)에 전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전쟁(戰爭) 개전초기(開戰初期)에서부터 패배에 가까왔고 향후(向後) 4년만에 걸쳐 프랑스 남성 인구의 대량전사(大量戰死)라는 결과(結果)로 나타났다.

이 말은 과거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認識)과 객관성(客觀性)을 가지고서 과거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공력(航空力)의 건설(建設)과 운용(運用)에 대한 적절한 원칙을 도출(導出)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評價)는 세부적(細部的)이고, 객관적(客觀的)이어야 하며, 또 실제로 무엇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리(敎理)는 채택되었으나 실제로 증명되지 않는 형식적(形式的) 구호(口號)보다는 어떤 특정상황(特定狀況)에서 항공력(航空力)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하는 비판적 분석에 근거(根據)하여야 한다.

### 3. 교리(敎理)의 전개방향(展開方向)(What to do with doctrine)

가장 좋은 교리(敎理)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교리(敎理)는 이해(理解)되어야 하고, 타당성(妥當性)을 가지며, 행동(行動)으로 실천(實踐)

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기준(基準)을 충족시켜야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교리(敎理)가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가. 교리(敎理)의 이해(理解)

유익(有益)한 교리(敎理)를 위한 이 세 가지 요구에 우선(優先)을 부여(賦與)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것이 다 중요성(重要性)을 갖는다. 그러나 교리(敎理)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말할 것도 없이 교리(敎理)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役割)을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현재 교리(敎理)란 단어는 너무 광범위하여 지침(指針)과 이론적(理論的) 배경을 제공하기보다는 개념(概念), 원리(原理)와 실행(實行) 그리고 정책(政策) 등이 서로 혼동되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리(敎理)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교리(敎理)가 항공력(航空力) 건설과 운용(運用)의 기본(基本)이 되는 근본적(根本的) 원칙(原則)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 근본적(根本的) 원칙(原則)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意見)을 일치(一致)시켜야 한다.

먼저 교리(敎理)를 구성(構成)하는 기본원칙(基本原則)을 결정한 후에 그 원칙(原則)을 글로 작성해야 하며, 이것은 단지 팜플렛이나 교범(敎範)을 만들어 내고 모두에게 그것을 읽도록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교리에서 도출된 절차(節次)뿐 아니라 교리(敎理) 그 자체도 연구(研究)되고, 분석(分析)되고, 토론(討論)되어야 한다.

교리(敎理)는 결국 공군(空軍)의 모든 것을 위한 기본(基本)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構成員)은 그들 자신들의 업무(業務)의 기본으로 인식(認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리(敎理)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리(敎理)에 대한 교육(教育)은 입대(入隊)할 때부터 시작(始作)되어야 하며 공군교리(空軍敎理)의 연구(研究)는 모든 전문군사교육(專門軍事敎育)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이 원칙(原則)들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증명되어 왔는가? 무엇이 그 원칙(原則)들을 현재(現在)와 미래(未來)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게 만드는가? 연합, 통합작전이 이러한 원칙(原則)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의문(疑問)에 대한 연구(研究)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리(敎理)에 대한 열성적인 토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지금까지 공군에서 발간하는 공군지(空軍誌), 공군평론(空軍評論)에 교리(敎理)에 대한 기고(寄稿)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교리(敎理)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준다. 교리(敎理)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교리(敎理)가 어떻게 형성되고 시행되는가를 알림으로써 교리(敎理)를 직접 담당하는 참모(參謀) 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자원(人的資源)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 공군(空軍)을 통해 비공식적인(그리고 자발적인) 전문적 연구집단을 복돋우는 것이며, 현재 공군본부(空軍本部)의 기획관리참모부(企劃管理參謀部)는 그러한 집단 또는 개인 연구를 종합, 전파할뿐만 아니라 과업(課業)까지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리(敎理)에 의해서 오늘의 공군(空軍)을 생각해야 한다.

#### 나. 교리(敎理)의 유효성(有效性) 유지(維持)

교리(敎理)는 유용(有用)하고, 건전(健全)하고, 기초(基礎)가 튼튼해야 한다. 즉 한 마디로 말해서 진실되어야 한다. 우리 교리(敎理)를 구성하는 원칙(原則)의 유효성(有效性)을 보장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그 원칙(原則)들을 광범위한 역사적(歷史的) 경험(經驗)의 객관적(客觀的) 분석(分析)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그러한 평가(評價)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각(各) 전쟁(戰爭)마다 특유(特有)한 요소(要素)와 조건(條件)을 식별하고 그럼으로써 잠정적인 절차(節次)에서 영속적(永續的)인 원칙(原則)을 구분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敎理)의 역사적(歷史的) 기본(基本)을 확고(確固)히 하기 위해 공군내(空軍內)에 교리(敎理)의 발전, 시행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역사연구(歷史研究) 부서간의 밀접한 협조관계를 확립(確立)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밀접한 협조는 역사적(歷史的) 공동체(共同體)인 공군(空軍)에 명확(明確)하고 더욱 특정적(特定的)이며 실용적(實用的)인 초점을 제공하여 교리(敎理)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치있는 분석평가(分析評價)를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역사가들에게 교리발전(敎理發展)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분석에 관한 지침(指針)을 주게 된다.

교리(敎理)를 유효화(有效化)하고 시행하는 기본으로 역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역사란 한 세대의 진정한 의미를 들어 내주고 또한 다음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의미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역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접근 방법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 역사를 이용하여 교리(敎理)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현재와 미래에 접근하는 방법을 위하여 과거 역사가 제공하는 것은 지침(指針), 일반적(一般的) 경향(傾向) 및 하나의 제안(提案)이라는 것을 알고 과제(課題)에 접근해야 한다.

역사는 변화(變化)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즉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가를 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아닌 과거의 사건(事件)으로부터 도출된 지침(指針)(현재(現在)와 미래(未來)의 특수(特殊)한 조건에 대한 제안(提案)에 대한 상상적인 평가와 지적(知的)인 분석(分析)을 하게 하며,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론(理論), 기술개발(技術開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교리(敎理)와 교리(敎理)의 시행은 역사(歷史)에 대해 종속적이다. 역사(歷史)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원칙(基本原則)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을 가져다준다. 상상력의 적용(과거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원칙(原則)의 성공적 실천(實踐)에 핵심이 되고 있는 한편, 역사(歷史)에 대한 분석적(分析的) 접근은 원칙(原則)과 절차(節次)를 더욱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토록 인도해 준다. 그러나 유효성(有效性)은 과거 경험 이상(以上)의 것에서 유래한다. 교리(敎理)는 경험(經驗), 기술발전(技術發展), 그리고 가설(假說)의 종합(綜合)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각(各) 요소(要素)의 부단(不斷)한 재평가(再評價)에 의해서만 그 적용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리(敎理)와 교리(敎理)를 시행하는 절차(節次)가 시대에 뒤떨어진 독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다. 교리(敎理)의 시행

실제 사용되지 않는 교리(敎理)는 존재가치(存在價值)가 없다. 만일 교리(敎理)를 구성하고 있는 원칙(原則)들이 학문적(學問的) 흥미 이상의 것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행동(行動)으로 옮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敎理)가 제공하는 일반적(一般的)인 지침을 특정한 지시문(指示文)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일이 뒤따른다. 그것은 항공력(航空力)에 관한 원칙(原則)에 대한 확실한 이해, 군대(軍隊)(특(特)히 공군(空軍)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경험(經驗)에 대한 인식, 현재 진행 중인 기술개발(技術開發)과 경향(傾向)에 대한 이해, 국가정책(國家政策)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행동(行動)에 옮길 수 있는 절차(節次)로 종합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공군(空軍)은 이러한 절차(節次)들이 실제로 교리적(敎理的) 원칙(原則)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것들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갈등을 갖지 않도록 교리(敎理) 시행과정에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방향제시(方向提示)를 하여야 한다.

교리(敎理)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경험(經驗)을 무시하고 교리(敎理)의 재분석(再分析)과 시행을 경시(輕視)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리(敎理)와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節次)는 모든 분쟁에 대처(對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군사작전(軍事作戰)의 연합, 통합적 성격(性格)과 타군, 우군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공력(航空力)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을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한다. 융통성이 항공력(航空力) 고유의 특성이며 가장 큰 자산(資產)이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항공력(航空力)의 한계(限界)를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어떤 특정한 군(軍)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보다는 정치적(政治的)인 운동으로 그들의 존재(存在)를 정당화 시키고, 국방예산 중 그들의 몫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임무와 역할을 채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특정(特定)한 군(軍)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까지 해치는 처사이다. 공군본부(空軍本部)에서 교리발전(敎理發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교들의 문제와 고민이 바로 교리(敎理)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교리(敎理)의 내용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공군(空軍)의 발전(發展)과 운용(運用)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잘 이해되고 활용되는 교리(敎理)에 굳건히 기초를 둔다면, 우리의 최대 목표인 「필승(必勝)의 제공태세(制空態勢) 확립(確立)」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소련 (蘇聯)

# 항공지원(航空支援)의 발달(發達)

### 최양수역(譯)

제병연합부대작전을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의 요소는 기동성 있는 부대에 대한 항공지원과 지상기지 방공(防空)이다. 항공지원은 적 지상군부대에 고도로 기동성 있는 화력투하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육군방공은 적의 지상공격 항공부대에 대하여 우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련군은 이와같은 두 가지 능력을 착실하게 개발하여 왔으며, 구라파의 전시 작전을 위하여 소련의 교리상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 왔다.

이 기사에서는 지상군에 대한 소련항공지원의 발달을 취급하였으며, 다음 기사에서는 기동성 있는 SAM 및 AAA를 포함하여 소련의 전술방공의 개발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와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특수 요구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각 능력은 서로를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련의 이와같은 각 능력을 완전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구라파의 전장에서 소련의 전반적인 전투에 대한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직접지원임무(直接支援任務)-전시경험(戰時經驗) (1941~45)

항공직접지원을 위한 소련개념의 기원 및 개발은 1941~45년 동안에 발생하였던 Great Patriotic War 기간 중에 발생 및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에 380만 횟수의 전투 Sortie로부터 발전된 소련 교리는 기본적인 골격에 불과하였으며 후에 여러 가지로 수행되어 왔다.

소련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직접지원임무는 VVS(군항공대)의 기본적인 임무였다. 소련의 권위있는 교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공군 및 지상군간의 관계에 관한 소련의 연구는 “VVS의 작전전술의 개발에 대한 무력전의 특성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항상 다른 주제, 즉 지상전에 대한 공군력의 영향을 특색으로 하여 왔다.

소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소련의 일반적인 항공지원 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별개의 4가지 임무, 즉

- Air defense cover
- Reconnaissance
- Air accompaniment
- Suppo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Aviation accompaniment는 돌파된 적 방어선을 훨씬 넘어선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한편, 이 돌파작전(Breakthrough)을 이용하고 있는 우군을 지원하면서 공대지 무기를 투하함을 뜻하며, Aviation Support는 전선 근처에 있는 우군의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공대지 무기를 투하함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 당국자들은 서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인 “Close Air Support(근접항공지원)”이나 또는 “Interdiction(후방차단)”이라는 말은 언제나 사용하지 않는다.

Great Patriotic war 기간 중에 항공지원임무는 소련의 전술 Sortie 중 가장 큰 몫을 하였다. 항공지원임무는 공격작전 중 비행한 모든 Sortie 중 46.5%에 달하였으며 기타 3개 임무는 보다 소규모로 비행을 하였다.

전선공군(Frontal Aviation)은 적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Sortie 중 11%만을 비행하였다. Air defense cover 및 Air accompaniment 임무에 대한 요구는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하였다.

1941~42년 동안에는 독일군의 집중적인 공중공격을 반격하기 위하여 부대에 대한 공중엄호가 필요하였다. 소련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전투기의 상당한 수적인 우세를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공중엄호는 전과 같이 크게 우선권을 두지 않은 반면에, Air accompaniment 임무는 그 횟수가 증가되었다.

1942년 5월 전에는 소련항공부대는 분산되어 있었으며 중앙 지휘권이 결핍되어 있었다. 항공사단이 가장 통제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비효과적이었다. 직접지원을 위한 계획의 범위는 인접 전술사항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군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항공부대 중 어느 부대를 파견하기를 꺼려하였다.

1942년 5월에 편제를 과감하게 재조직하여 지상군 사령관 산하에 예속된 항공기들을 새로이 창설된 Air army에 예속하도록 하였다. Air army는 전선 사령관(Front commander)에 직접 예속되어 있었으며, 사령부 및 참모기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최초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지상군에 대한 효과적인 항공지원이 가능하였다.

이와같은 조직은 전쟁기간 중에도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의 기본적인 Form이 계속되고 있다. 각각 특수임무(전투기, 전투-폭격기, 또는 폭격기)를 수행하는 여러 항공사단에는 Air army가 각각 있다.

각 항공사단은 언제나 42대의 단좌형(3x12전투기 및 6대의 훈련기)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

다. 부대별 모든 형태에 있어서는, 3개 대대가 1개 연대를 구성하고 3개 비행중대가 1개 대대를 구성한다. 전쟁기간 중에 전투기 및 전투폭격기 편대의 기본 전투부대는 분대(Pair)였으며, 폭격기의 경우는 3대 비행이 기본 전투부대였고 정찰기는 언제나 1대 또는 여러 개의 분대(Pair)로 비행을 하였다.

소련은 적군에 비하여 보다 확실히 수적으로 우세함을 유지하도록 강조하여 왔다(소련 공군은 1943년에는 8,290~2,980 또는 2.8-1로 1944년에는 11,800~2,800 또는 4.2-1로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소련 당국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련은 전투기와 폭격기의 많은 대수를 주축으로, 집중을 하였다.

소련의 약 8,700대의 항공기가 1944년의 Beloru-ssign 작전에서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약 7,500대의 소련전투기가 Berlin에 대한 최종공격에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소련의 Planner들은 적 공군을 수적으로 능가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어 오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하중(Payloads)을 보다 장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의 능력이 전쟁 동안에 계속 향상되었다. VVS의 항공기가 운반할 수 있는 총 무장능력은 전쟁의 초기 동안에 2배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추세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급진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전의 Luftwaffe사령관과 다른 관측자들은 소련이 갖고 있는 명확한 취약점-교리상의 개념에 대하여 엄격하고 완고하게 신뢰하고 있으며, 아주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층들이 이니시아티브가 역시 결핍된-을 주시하였다.

소련 조종사들은 자기네들 편대의 유지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기동법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소련 조종사와 공군 Planner들이 전술적 유연성에 대한 재간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같은 재간을 갖는 일은 전쟁도중에 Radio Receiver가 대부분의 전투기에 장착된 후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지상에서 비행요원과 대화를 하는 일은 부대 지휘관들에게만 허용되었다.

### ○ 제트 항공기로 전환 (1945~50)

소련에 대해서, 전에 없었던 위협을 주는, 원자폭탄을 미국이 갖고 있음을 소련의 Leader들은 알고 있었다. Stalin과 Malenkov는 전략공격 및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헌신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고고도에서 미국 폭격기를 요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트 전투기로 VVS부대를 무장시켰다.

소련군의 생각은 IL-2인 기습공격 항공기에 대한 제트후계기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소련에는 MiG-15가 대량으로 소개되었으며 Yak-17, Yak- 25 및 La-15와 같은 항공기는 물론, 다른 제트 전투기들이 제작되었다. 전쟁 후 15년 동안에 나타났던 유일한 대지공격용 항공기는 IL-28경량 폭격기로서, 프로펠러식 항공기인 Pe-2 및 Po-2기를 대체하였다.

### ○ 다시 공중전으로-한국전 (1950~53)

소련은 한국전에서 직접 전투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서방의 제반 보고에 의하면 소련의 항공요원(Airman)들은 1951년 초까지는, Manchuria에서 중공군부대와 3개 월간씩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소련의 전체 연대가 중공군의 항공사단(Airdivision)에 예속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공인민공군(CPAF)은 소련의 VVS부대의 확장에 따라 대규모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1941~45간의 경험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볼 때, 소련과 그의 동맹국들은 한국전에서 대지(對地)공격에 역점을 두지 않았었다. 주직접지원임무는 Cover 임무였으며 이 임무는 아마도 모든 비행 Sortie 중 적어도 4/5(80%)에 달하였을 것이다. 소련, 중공 및 북괴 조종사들은 일부 정찰 비행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Sortie 중 10%에 불과했을 것이다.

Aviation Support 및 Accompaniment 전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1대 이상의 항공기가 참가한, 적의 대지공격작전에 대한 특수한 예는 극히 드물다. 미군에게는 “Bedcheek Charlies”라고 알려진 Po-2 쌍엽기 1대가 간혹 미군 집결지역에 폭격을 하였으나, 실제적인 위협 이상으로 귀찮은 존재였다.

이와같은 항공작전의 수행은 Moscow의 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었음이 틀림없다. 소련은 분명히 미군 및 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하여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대신 제트기간에 공대공전투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데 전쟁을 이용하였으며 이와같은 교훈은 새로이 창설된 Pvostrany(본토방공군)와 전선공군에 이용하였다.

소련은 1941~45동안의 기간에서는 대지공격작전의 값진 경험을 하였으며, 한국전에서는 Aviation cover에 이용할 수 있는 공대공 작전의 경험을 하였다. 미공군 조종사들은 30가지 형태의 다른 적 전투기동방법을 관측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가 8대 또는 그 이상의 MiG 기 편대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와같은 기동방법 중의 일부, 특히 “Uppercut” 기동방법이나 “Staircase” 기동법과 같은 기동법은 Great Patriotic war에서 이원된 기동법 같이 보인다.

### ○ Kruschev시대-직접지원에서 소극적 발전 (1953~64)

Kruschev가 지배하였던 여러 해 동안의 분위기에서는 직접지원항공을 주창하는 주창자들은 거의 더 이상 호의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였다.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략적 공격 및 방어에 집중된 상태였었다.

소련의 Planner들은 지상군의 인력을 축소시키고, 전략 및 전술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NATO의 「핵무기」에 대한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교리의 반응을 보였다. 이 시대에 가장 특색이 있었던 주요한 조직적인 변화는 1960년에 독립부대로서 전략 로켓트군(SRF)이 창설된 것이었다.

소련의 항공기술은 계속 서방의 항공기술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기체, 엔진, 전자장비 및 무기 면에서의 기술적인 Gap은 아주 넓었다. 그 결과로써 소련의 대지공격용 항공기의 하중(Payloads)은 항공기의 이륙 중량 중 극소량(약 5~15%)에 불과하였으며, 항공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아주 제한된 상태였다.

전선공군의 주 임무는 방공이었으며 이 부대는 대부분이 알맞게 무장을 하였다. Mach 2인 MiG-21이나, 최초로 개발된 항공 미사일과 같은 그 당시의 소련의 기술적인 발전은 대지공격 임무보다는 방공임무에 훨씬 더 많이 이용되었다. 반면에 전선공군의 대지공격능력은 인상적이 못된 상태였었다.

1959년에 Su-7 Fitter A가 출현하였으며, Fitter A의 실용수명(Service life)의 초기 때부터 항속거리/하중능력이 결핍되어 있었다. Yak-28 Brewer기는 대략 1962년에 출현하였으며, 미군의 F-4(당시의 작전부대에 취역)와 같은 항공기가 나오므로써 Yak-28은 성능면에서 확실히 뒤지게 되었다.

Kruschev 재직기간 중에는 소련의 전선공군은 Support 및 Accompaniment 임무를 수행하기에 대체적으로 부적합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Kruschev 정권이 재래식 능력에 대하여 등한시한 부산물이었을 것이다.

1965년 1월의 Red Star지에 실린 특종기사는 어리석은 계획에 따라 군이 희생되어 왔음을 환기시키면서 Kruschev와 그의 정책에 대하여 신랄한 비난을 하였다. VVS가 4가지의 기본적인 모든 직접지원임무를 알맞게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갖기까지에는 여러 해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이다.

### ○ 최신군으로의 발전 (1965-현재)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Brezhnev 정권은 소련의 재래식군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재래식군은 새로운 장비를 인수받기 시작하였다. 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Su-17, Su-19, MiG-27 및 Mi-24인 기습공격 헬리콥터와 같은 대지 공격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새로운 계열의 항공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1962년에 최초로 표현되어 1967년에 채택되었던 NATO의 「유연성 반응교리(Doctrine of Flexible Response)」는 새로운 대지공격용 항공기에 대한 소련의 요구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교리는 NATO가 구라파에서 재래식 또는 핵전의 변하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바르샤바 조약군과 교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소련군의 생각은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최신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기 위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직접지원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확실한 언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련의 저자들은 직접지원을 전선공군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G Shorikov 상장(上將)(VVS 주요참모장)은 1978년 8월에 「공군의 최신기술장비는 적의 제반 공격수단의 파괴, 아군부대의 지원, 공중우세를 위한 투쟁, 특수정찰임무수행 및 기타 제반 복잡한 임무수행 등을 가능케 한다」고 진술하였다.

Shorikov 상장(上將)은 「제 3세대의 전투기 및 헬리콥터가 성공적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환기시켰으며 그의 기타 군 고위층들은 모든 직접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균형이 잘 잡힌 전술공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1945년 이래 소련은 최초로 4가지의 직접지원 임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른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그 자체가 소련의 전술가들에게 전투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주며 이는 한 대의 항공기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힘이 다른 항공기의 약점들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최신전술기 및 임무별 적합성

Cover	지원(Support)	Accompaniment	Recon
MiG-21(J-N)	Mi-8	MiG-27	MiG-21(H)
MiG-23	Mi-24 MiG-27	Su-17 Su-19	MiG-25-
	Su-17		

소련의 현대화 계획의 2가지 주요한 분야는 3세대 제트전투기(Fishbed J/K/L/N, Flogger B/D, Fitter C/D, Foxbat B/D 및 Fencer)의 소개와 Hind B/D/E 및 Hip C/E 헬리콥터를 주축으로 한 막강한 기습공격용 헬리콥터 부대의 발달에 있어 왔다.

제3세대 제트항공기의 소개와 기습공격 헬리콥터 부대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중복되어 왔다. 제3세대 제트항공기는 1970년대초와 중반에 전선공군에 취역하였고, 기습공격 헬리콥터부대의 편성은 1970년대 중엽에 시작되었으며 그 계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소련의 국방기금은 전선공군의 현대화를 수반하기 위하여 개편되었다. 미 CIA의 일반 보고 문서에 의하면, 1967년과 1977년간의 소련공군기금은 다른 군부대의 기금보다 신속하게 증가하였으며, 1969년대에서 1973년까지의 전체국방기금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1967~1977년간의 공군에 대한 총 기금 중, 단연 가장 크게 증가된 기금은 전선공군을 위한 기금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전선공군의 전술기의 재고가 약 50% 증가되었다.

비례적으로, 장거리 공군과 항공수송군의 기금도 약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선공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기금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전선공군부대의 질적 향상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었다.

1977년까지는 전선공군의 전투기중 60% 이상이 1969년 이후에 생산된 전투기들이었다. 1980년에 와서는 이와같은 새로운 전투기들은 전선공군의 4,350대의 전술기 중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 소련지상군의 자족능력의 증가

소련 전선공군자산의 현대화는 소련군구군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지상군 및 공군에 대한 능력향상의 결과로 소련 전장부대는 10년 전에 가졌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완전한 화력지원 및 Cover 능력을 그들 자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소련 자신의 증가되고 있는 자족능력은 4가지의 기본적인 항공 지원임무 중 어느것도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상군의 자족능력은 지원 및 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선공군의 능력을 증가시켜 왔다. 다시 말해서 이는 더 많은 항공기가 자유로운 활동 및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소련 군부대는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보다는 포병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Great Patriotic War 이후 여러 해 동안에 야포, 다탄로켓 발사대(MRLS), 박격포, 105mm, 곡사포 및 전술미사일과 같은 장비를 상당히 증가시켜 왔다.

1950년대에 항공지원이 별 위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포병무기와 전술미사일이 작전화 되었었다. 보다 최근에 와서는 전차 및 MR 사단은 견인식 포병무기(수년전에 사용된 105mm포에서 최근 MR 사단에서 사용하는 165mm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차사단의 36mm~70mm Gun에 이르기까지)를 지원하여 왔다. MR사단에는 BM-21 Type의 MRLS가 상당히(적어도 3배)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122mm와 152mm 자주포가 각 사단의 명중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아래에 나열된 각종 포병 무기들은 오늘날 NATO와 적대시하고 있는 소련군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들이다.

무기	사정거리(km)	보유부대(대수)
120mm박격포	5.7	대대(6)
122mm towed/sp	15.3/21.9	연대(18), 사단(36)
130mm towed	30	여단( ? )
BM-21 MRL	20.5	사단(18)
152mm SP	17.3	사단(18)
Frog 7	60	사단( 4 )
Scud B	280	軍( ? )
180mm towed	44	軍( ? )

따라서 소련은 FEBA선 밖의 수 마일 떨어진 거리에 화력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보다는 보병에 더 의존할 것 같이 보인다. 공격의 권위자인 A. A. Sidorenko 대좌는 현대의 조건하에서는 포, 대전차 유도미사일, 전차 및 자주포 등이 공격을 위한 준비로 직접 화력지원임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같은 방법은 FEBA선에서나 FEBA선에 인접해 있는 중심지역에서의 적의 방어적인 제반 노력을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관측된 적 무기를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Sidorenko와 같은 소련의 Planner들은 보병의 화력권 밖에 있는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공격의 중요한 역할을 미리 알고 있다.

또한 소련의 지상군 부대는 엄호(Cover)시 10년전의 경우보다 항공기에 적게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계열의 전술 SAM은 소련군 부대에 밀집되고 중복된 방공을 제공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신속하게 기동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기동성이 있다.

NATO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적인 우세를 잘 알고 있는 소련방어 계획가들은 1965년 이후부터 이와같은 전술방공체제인 SA-4, SA-6, SA-7, SA-8, SA-9과 같은 SAM과 Zsu-23-4 자주 대공포 등을 소개하여 왔다. 이와같은 전술방공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기사에서 상세하게 취급할 것이다.

소련은 지상군 고유의 방공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NATO의 공중공격에 대하여 지상군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중구라파에 대다수의 전술기를 배치하고 있다. 헬리콥터와 지원기는 감소되는 반면에 동독주둔 제16항공대의 약 60%의 항공기는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는 전투-폭격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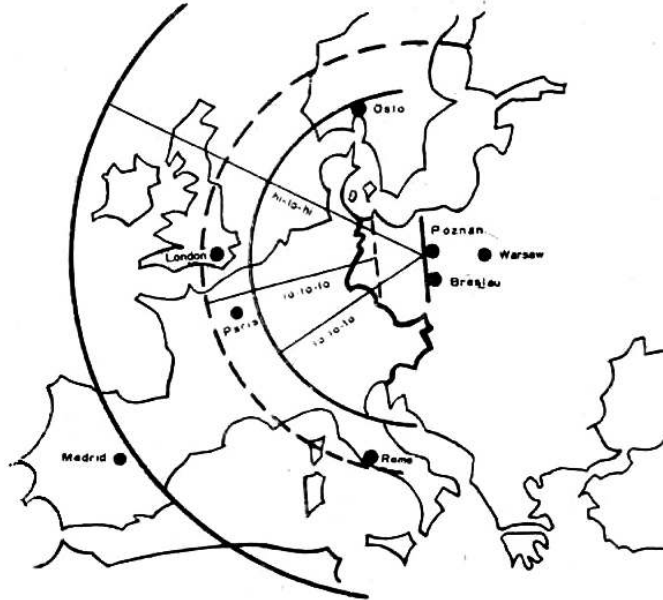
공격 헬리콥터-새로운 차원

과거 10여년 동안 소련군의 생각은 항공지원을 위한 무기계열의 통합적인 일부분으로서 공격 헬리콥터를 점점 인식하여 왔다. 로켓과 기관총으로 무장을 한 Mi-4 및 Mi-8 헬리콥터는 Dnepr(1967), Dvina(1970년) 훈련 및 각종 Shield 기동훈련에서 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1976년에 실시하였던 Sever, Kavkay 및 Shield와 같은 3가지의 주요훈련은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도록 설계된 헬리콥터 수송작전이 특색이었다. 특히 1976년 이후부터는 소련은 전차부대와 차량화 소총부대 및 공격헬리콥터 부대가 상호지원하는 전투 Team으로 구성되도록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각종 형태의 지상군 작전에서 상세한 훈련을 받는다.

Mi-24 Hind 계열의 공격 헬리콥터는 소련의 항공지원 능력에 상당한 위력을 첨가시켰다. MiG-27, Su-17 및 Su-24(전의 대지공격모델을 대체한)와는 달리 Mi-24 Hind 헬리콥터는 전선 근처에 신예부대를 투입시키고, 각종 탄약무기로서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데 새로이 발전된 능력을 제공하여 준다.

전선 공군부대에서 비행한 Hind E라고 부르는 최신에 Model은 양 Stub wing 아래에 4



No photos of the advanced Su-19 Fencer fighter-bomber, now deployed in considerable numbers by the USSR, have yet been released for publication. This map indicates its wide radii of action on hi-lo-hi and lo-lo-lo missions carrying 2,000kg of stores(including stand-off ASMs), from bases in Poland and East Germany.

발의 AT-6 Spiral 대전차 미사일과 128mm 로켓 4문을 무장하여, Nose 아래에 4연신 Gatling-type gun 1문을 무장한다.

소련군 생각은 지상군에 대하여 초근접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항공수단을 항상 인식하여 왔다. 이는 군부대가 이와같은 공격의 결과를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at Patriotic war기간 동안에는 소련공격항공기는 때때로 우군에서 500~800m 떨어진 거리에 무기를 투하하였다. 현대전의 상황하에서는 제트항공기에 신속하게 기동하는 부대를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될 때에는, 우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이와 같은 근접지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Mi-24는 초근접지원을 위한 이와같은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같이 보인다. 동향공기의 속도는 구형의 IL-2(약 220knots)보다 느리다(약 150knots). 따라서 Mi-24의 조종사들은 목표물 상공을 비행함이 없이 알맞는 시간에 그의 공격을 계획할 수가 있다.

더우기 Mi-24는 구형의 IL-2보다도 외부무장을 여러 배로 할 수 있고, 대기갑작전, 도하작

전지원 및 NATO 공격 헬리콥터에 대한 대헬리콥터 임무와 같은 다른 관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Mi-24 헬리콥터는 Afghanistan의 대게릴라 작전에서 철저하게 시험 중에 있으며 그곳에서의 유일한 주요한 제한은 전투 상승한도인 것같이 보인다.

과거 2년 동안에는 공격 헬리콥터의 전투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의 기사가 소련 군사저널지에 실려 왔으며, 이는 소련이 이와같은 무기체제에 절대적으로 위탁되어 있음을 뜻하는 확실한 징후이다. 소련 헬리콥터 작전의 일부 주요 교리는 헬리콥터가 목표물로 접근할 때 엄폐하기 위하여 지형이나 기상(구름) 등을 이용하며, 병력을 수송한 똑같은 헬리콥터로 지상군의 상륙대를 직접 지원하며 겨울과 같은 기상조건하에서나 고정익 전술기가 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하에서는 주로 헬리콥터에 의존하는 것같이 보인다.

소련은 서방 헬리콥터작전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왔으며, 교리상의 여러 가지 개념을 모방하였다. 소련 공격헬리콥터 사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M Belov 대좌이며, 인도차이나와 중동에서의 전투는, 헬리콥터의 집중 사용은 지상군에 대한 기동성과 화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그는 역설하였다.

### 바르샤바 조약군에 대한 기여

바르샤바 조약군의 공군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미·소, 바르샤바조약 국가들은 최근에 와서 제3세대 전술기와 공격헬리콥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Flogger 전투기와 전투폭격기의 대수가 미·소, 바르샤바조약군간에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구형 모델인 Fishbed의 전의 소개를 뒤따르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Flogger는 동구라파에 있는 소련동맹국 간의 표준전술기로서 Fishbed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과거 2년 동안에 미·소, 바르샤바 조약국가들은 공격헬리콥터 부대를 발전시켜 왔다. 지금까지는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등을 포함한 여러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은 Hind D를 인수하였다. 또한 중무장 Mi-8 HipF(HipE의 수출형)는 많은 미·소, 바르샤바 조약국 공군의 공격헬리콥터 부대에서 출현되어 왔다.

### 1980년대

동구라파에 있는 소련 및 그의 동맹국들은 그들의 항공부대가 신뢰성 있는 다목적 임무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계획을 착수하였다. 전술기 및 헬리콥터 부대는 변하는 여러 가지 전투단계(중구라파에 대해서 계획되었던 전투와 같은 대게릴라 작전에서부터 재래전 또는 핵전에 이르기까지)에서 4가지의 기본적인 임무중 어느 임무라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소련의 교리상의 문헌과 바르샤바조약군에 의하여 발전된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능력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알 수 있다.

-기계획된 공격임무에 대한 종전의 강조에서부터 시간에 민감한 목표물에 대한 보다 민감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변화가 있으며

-전천후 항공능력에 대한 강조가 점점 증가되고

-군작전상 똑같은 군구내에 있는 모든 바르샤바조약군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려는 이미 밝혀진 소련목표의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정확유도무기의 Gap을 좁히고 있다. 이 분야의 무기에 있어서는 바르샤바조약군은 NATO의 능력보다 오랫동안 뒤떨어져 왔다. 대체적으로 새로운 소련의 정확유도무기는 공격헬리콥터가 무장하는 ATGM 이외에도 AS-7, AS-9 및 AS-10 미사일을 들 수 있다.

바르샤바 조약군의 공군현대화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소련 지상군 부대에 일치되는 향상과 결부시켜 검토하여야 한다. 바르샤바 조약군은 보강된 항공대지공격 능력은 물론 지상군이 높은 준비능력을 갖도록 계속 강조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르샤바 조약군의 전투능력의 질이 새롭게 된 것은 바르샤바 조약군의 지상군에 대한 고조된 전비태세가 우리의 신속한 보급로를 더욱 더 필요케 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바르샤바 조약군 공군의 새로운 특질이 그들을 더욱 더 취약하게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와같은 전략은 일관성 있는 전략이며, 만약에 우리가 지상군에 대하여 공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파괴시킬 수 있는 한 전략이다.

전선공군의 대지공격 능력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은 새로운 전장미사일이나 Pershing II 및 NATO가 1983~84년부터 전개를 시작하게 될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등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몇 가지 암시를 갖게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엽 이후부터 소련 군사교리 전문가들은 적의 미사일부대와 같은 소규모 기동성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기에는 전술항공기가 아주 적합하다고 진술하여 왔다. 최근에 있었던, NATO의 계획된 Pershing II 및 GLCM의 전개에 대한 모스크바의 선전운동은 소련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와같은 새로운 미사일을 검토 중임을 강하게 암시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샤바 조약군의 사령관들이 대지공격 항공임무 중 적어도 일부를 이와같은 미사일부대를 공격하는 임무로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世界) 최고(最高) 보유대수(保有臺數)를 지향(指向)하는

## MiG-23 (Flogger) 전투기(戰鬪機)



이 건 순(李建淳) 역(譯)

### Flogger기(機)의 출현(出現)

오늘날 소련 공군(空軍) 보유항공기(保有航空機) 보유목록중(保有目錄中)에서 가장 활발(活潑)하게 확산(擴散), 발전(發展)되어 나가고 있고, 또한 마치 서방세계(西方世界)에서 요사이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으로 Puny 소형차(小型車)가 생산(生産)되어 나가듯, 항공기(航空機) 조립선(組立線)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서, 서방진영(西方陣營)에서 “Flogger”라고 대수롭지 않은 통속적(通俗的)인 이름을 붙여 준 이 항공기(航空機)가 이제는 그와 같은 족보(族譜)의 선조격(先祖格)인 세계(世界)에서 가장 널리 수출(輸出)된 “Fishbed”란 변명(變名)을 가진 MiG-21기(機)와 경쟁적(競爭的)인 입장(立場)에 어찌면 능가(凌駕)할지도 모를서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年前) 이 항공기(航空機)가 소련의 전술공군적(戰術空軍的) 위치(位置)에 있는 전선공군(戰線空軍)의 전투기(戰鬪機)로, 또한 그로부터 2년(年) 뒤부터 소련 국토방공군(國土防空軍)에 방공임무기(防空任務機)로 곧 바로 배치(配置)되면서부터 이 항공기(航空機)의 기본설계(基本設計)가 기본기체구조(基本機體構造)나, 체제품(體系品)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내(範圍內) 즉(卽),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동족계열기(同族系列機)로서 크게 번져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요격기(邀擊機)에서 대지공격(對地攻擊) 및 후방차단(後方遮斷) 등(等)의 제공임무기(制空任務機)에 이르는 거의 전체(全體) 전투기종(戰鬪機種)을 커버할 수 있는 대가족(大家族)으로 번식(繁殖)되어 나가고 있다.

더우기, 지난 수년전(數年前)부터 상당수(相當數)의 Flogger 계열기(系列機)들이 Algeria나 Cuba 같은 공산국(共產國)이나, 또는 체코, 동독(東獨) 및 헝가리 같은 Warsaw 조약국(條約國)들의 주요(主要) 공군기(空軍機)로서 활발(活潑)히 수출(輸出)되고 있는 한편, 소련-인도(印

度) 양국간(兩國間)에는 2종(種)의 이열기(系列機)를 인도국내(印度國內)에서 80년(年) 중반(中盤)부터 라이선스생산(生産)토록 계약체결(契約締結)의 완료(完了)를 보고 있다.

어쨌든, 이 Flogger기(機)를 개발(開發)해 낸 바 있는 Mikoyan-Gurevich 설계국(設計局)에서는 지난 5~6년(年) 동안 Rostislav A Belyakov란 이름의 총설계자(總設計者)의 지원하(支援下)에 소련내(內)에서 가장 훌륭한 전투기중(戰鬥機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집중노력(集中努力)한 결과(結果), 이제 Flogger기(機)는 소련 전선(前線) 공군(空軍)에 이미 1,600대(臺) 이상(以上)이 취역(就役)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일향후(一向後) 수년(數年)동안을 모든 Warsaw 조약국공군(條約國空軍)들의 주종무기(主宗武器)로의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게 될 것이다. 일효율적(一効率的) 운용면(運用面)이나 수적면(數的面)에 있어서 소련 전술공군(戰術空軍) 내(內)에서 완전(完全)히 중추적(中樞的) 위치(位置)를 굳히고 있다고 최근(最近) 서방진영(西方陣營) 분석가(分析家)들의 평가결과(評價結果)를 이상(以上)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약(約) 500대(臺)가 내국방공(內國防空)을 위(爲)해 소련 국토방공군(國土防空軍)에, 또한 생산(生産)의 가속화(加速化)로 100 내지 150대(臺)가 Warsaw 조약국(條約國) 공군(空軍)에 추가(追加)로 공급(供給)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Flogger 전투기(戰鬥機)가 탄생(誕生)하게 된 계기(契機)로서는:

- 소련이 전투기(戰鬥機)들의 역할(役割)을 재평가(再評價)하게 됨에 따라,
- 60년대(年代) 중반(中盤)의 그들의 전술적(戰術的)인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일대변혁(一大變革)을 가져오는 계기(契機)를 마련하게 되었고,
- 그들의 전선공군보유(前線空軍保有) 항공기(航空機) 목록표(目錄表) 중(中)에서 F-105 Thunderchief나 F-4 Phantom에 필적(匹敵)할만한 최신형(最新型) 전투기수(戰鬥機數)가 극(極)히 적은 실정하(實情下)에서,
- 주(主)로 공대지(空對地) 임무(任務)비행에 치우치는 설계개발개념하(設計開發概念下)에서, Flogger기(機)의 출현(出現)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항공기(航空機)의 주개발목표(主開發目標)로서는 전세대(前世代) 전투기(戰鬥機) 개발시(開發時)와 같이 이착륙(離着陸) 성능(性能) 등(等)의 Field Performance에 대(對)하여서는 조금 강조(強調)하는 반면(反面), 무장적재(武装積載)/유효거리(有効距離) 성능(性能)을 대폭증가(大幅增加)시킬 수 있는 매우 융통성(融通性)이 높은 항공기(航空機)를 생산(生産)해 내는 것이 그 주목적(主目的)이었다.

이상(以上)과 같은 개발목표(開發目標)에 따라 자연히 가변익기(可變翼機)에 그 우선권(優先權)을 두고서, Mikoyan-Gurevich 설계국(設計局)에서는, 기속(機速)에 따른 주익자연후퇴방식(主翼自然後退方式)(Fall-back Solution)의 대체방안(代替方案) 채택(採擇)과 더불어 미국(美國) NASA 연구소(研究所)의 개발방식(開發方式)인 주익외측(主翼外側)에 마련된 힌지(Hinge)를 통(通)하여 조종사(操縱士)가 기내(機內)에서 임의(任意)로 후퇴각(後退角)을 선택

(選擇), 조작(操作)하게 되어 있는 방식(方式)으로 되어 있는, 후퇴방식(後退方式)을 이용(利用)하는 등(等), 이상(以上) 두 기종(機種)에 의(依)한 동시(同時) 병행(併行) 연구시험(研究試驗)을 거듭하면서, Phantom기(機)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形態)의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와 지상조작시(地上操作時) 지표면(地表面)과의 충분(充分)한 거리(距離) 유지(維持)를 위(爲)해 후부동체(後部胴體) 복부(腹部)에 달린 복부안정판(腹部安定板)을 접어지게 된 모습으로 1966~67 겨울에 드디어 시험(試驗)비행에 나서게 되었다.

소련 항공기(航空機) 설계사상(設計史上) 가변익이론(可變翼理論)을 실제(實際) 적용(適用) 시킴으로써 현저(顯著)한 전진(前進)을 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다년간(多年間)에 걸친 이 분야(分野)의 연구실험(研究實驗) 결과(結果)에 순종(順從)하려는 듯 이들 설계(設計) Team들은 가능(可能)한 한(限), 복잡성(複雜性)을 내포(內包)한 부분(部分)은 피(避)하는 방향(方向)으로 설계(設計)해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 실례(實例)로서, 그들은 주익상(主翼上)의 정교(精巧)한 고양력발생장치(高揚力發生裝置)(High-lift devices)의 적용(適用)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가동익부분(可動翼部分) 후연(後緣)쪽에 평범(平凡)한 평(平)플랩(Plain flaps)을 설치(設置)하고 있다.

Ye-231 실험기(實驗機)가 1967년(年) 7월(月), 모스크바의 Domodedovo 공항(空港)에서 첫 공개(公開)비행을 가진 바 있는데, 이에 대(對)해 ASCC(Air Standardization Coordinating Committee)에서는, 지금까지 처녀출현(處女出現)하는 소련 항공기(航空機)들에 대(對)하여 후(後)에 애매하다는 말을 듣지 않고자 명명(命名)할 때면 매우 조심해 온 바 있는데, 이번에 첫 진출(進出)하는 항공기(航空機)를 “Flogger”라고 명명(命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이 항공기(航空機)의 미지(未知)의 성능(性能)에도 구애되지 않는 확고(確固)한 태도(態度)를 표(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형(型)이란 꼬리이름을 부치게 된 것은 70년대초(年代初)에 와서, 초기형(初期型)인 항공역학실험기(航空力學實驗機) 모습과 후(後)에 나온 것 간(間)에는 상당(相當)한 모습의 변화(變化)를 가져 왔기 때문에 A형(型), B형(型)으로 구분(區分)하여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當時) Foxbat라는 변명(變名)을 가진 MiG-25란 신형기(新型機)와 아주 전문가(專門家) 아니고서는 자주 혼돈(混沌)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 가변익(可變翼)의 항공기(航空機)가 소련식(式)이름으로 MiG-23이란 이름으로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양산(量産)을 위(爲)한 재설계(再設計)

초기(初期) 시작기(試作機)와 후(後)에 나온 양산기(量産機) 사이에는 상당(相當)한 설계개발(設計開發)이 이루어진 흔적이 엿보이는데, 여기에는 이 새 항공기(航空機)를 위(爲)해 주(主)로 개발(開發)된 R-27, Turbofan Engine이 Sergeik Tumansky 설계국(設計局)에 의(依)해

매우 짧은 기간중(期間中) 그토록 빠른 속도(速度)로 훌륭하게 개발완성(開發完成)해 낸 덕분으로 상당(相當)한 설계개량(設計改良)이 가능(可能)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Flogger A형(型)과 B형(型) 사이에는 기체부분(機體部分)에서도 상당(相當)한 차이점(差異點)을 보여 주고 있다. 즉(卽) 주익가동부분(主翼可動部分)이 전방(前方)으로 약(約) 24inch(60cm) 이동설치(移動設置)되었다. 이로써 고정익(固定翼)의 덮개(Fixed wing glove)를 적게 줄일 수가 있었고, 주익(主翼)을 완전후퇴(完全後退)시켰을 때, 주익(主翼)과 수평안정판(水平安定板)과의 사이를 충분(充分)히 떼어 놓을 수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공력중심점(空力中心點)을 훨씬 전방(前方)으로 이동(移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전연(前緣) Flaps를 가동익(可動翼)에도 추가(追加)되었는데, 이 Flaps는 Taper진 돌출지지구(突出支持具)에 달려 조작(操作)되게 되어 있고, 최소각(最小角)으로 주익(主翼)을 후퇴(後退)시켰을 때는 고정익(固定翼) 글러브(Glove)와는 좁은 홈(Narrow Slot)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중간위치(中間位置)로 후퇴시(後退時)는 Dogtooth 모양으로 주익전연(主翼前緣)의 돌출부분(突出部分)이 생기게 된다. 그 세번째의 중요변화점(重要變化點)은 후부동체부분(後部胴體部分)에서 배기(排氣)노즐이 약(約) 3.5ft(1.06m) 정도(程度) 짧게 되어 그 부분(部分)의 윤곽(輪廓)을 새로 다듬어짐과 동시(同時), 수직안정판(垂直安定板)의 재설계(再設計)가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동체(胴體)의 부하량(負荷量)을 줄이게 되어, 따라서 구조강도(構造強度)도 그만큼 가볍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리하여 MiG-23기(機)는 앞으로 각종(各種) 주무기(主務機)로 먼저 나갈 수 있는 모형기(母型機)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인데 일항공기외부(一航空機外部)의 여러 가지 걸치게들을 동체(胴體) 바깥쪽으로 밀어 내 동체(胴體)의 Radar 단면적(斷面積)을 최소(最小)로 유지(維持)케 하는 소련식(式) 설계방침(設計方針)을 고수(固守)하며, 그러나, 특수임무수행(特殊任務遂行)을 위(爲)한 변형기(變型機)의 성능(性能)을 극대화(極大化)시키기 위(爲)해서는 매우 넓은 폭(幅)의 설계변화(設計變化)를 감행(敢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MiG -21, Fishbed가 걸어가고 있는 전철(前轍)을 틀림없이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Flogger기(機)는 그의 선배기(先輩機)들에 비(比)하여 볼 때, 구조(構造)의 단순성(單純性), 경량성(輕量性), 또한 값싸게 만들어진 격투기(格鬪機)(Dogfighter)등(等) 면(面)에서 판이(判異)한 차이(差異)가 있다는 것은 확실(確實)히 강조(強調)할 만하다. 그런데, Flogger기(機)가 설계개발시(設計開發時)는 Dogfighter로 만들어 낼 생각은 없었는지 모르나, 공대공(空對空) 임무기(任務機)로서도 앞으로 상당(相當)히 오래 동안 이 분야(分野) 임무수행기(任務遂行機)로서의 연출목록(演出目錄)에 우선권(優先權)이 부여(賦與)된 것은 물론(勿論), 앞으로 수년(數年) 동안은 높은 우선권(優先權) 속에서 개발(開發)과 생산업무(生產業務)가 즐거운 행복(幸福) 속에 지속(持續)되어 나갈 것이 틀림없다.

양산초기형(量產初期型)으로서 서방측(西方側)에서는 Flogger B형(型)으로 잘 알려진 이 항공기(航空機)는 부차적(副次的) 임무(任務)로 극(極)히 제한(制限)된 범위(範圍)의 대지(對地)

공격기능(攻擊機能)을 수행(遂行)한다는데 대(對)하여 다소(多少) 수궁(首肯)하면서 이 항공기(航空機)가 어디까지나 방공전용기(防空專用機)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B형(型)도 지난 10년(年) 동안의 생산기간(生產期間)을 통(通)하여, 개발(開發)의 성공(成功)한 최신형(最新型) Radar, 무장(武装) 그리고 좀 더 강력(強力)해진 Tumansky Turbofan Engine 등(等)으로 개발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漸次的)으로 그 성능(性能)의 향상(向上)을 도모(圖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예(例)를 들어, -23M 또는 -23MF 같은 성능강화형(性能強化型)까지도, 특별(特別)히 외형적(外形的)으로 구분(區分)될 만한 변화점(變化點)들을 ASCC 보고체계(報告體系)에 의거(依據)하여서도, 찾아 볼 수가 없어, 초기(初期) 생산형기(生產型機)의 B꼬리 문자(文字)를 오늘날까지 그대로 부쳐오고 있다.

양산(量產) 초기(初期), Flogger-B형(型)의 Engine은

최대추력(最大推力) 15,430LB(7,000kg) A/B 최대(最大) 22,485LB(10,200kg)의

R-27 Tumansky Turbofan Engine 이었던 것이, 1975-76년(年) 사이에

최대추력(最大推力) 17,635LB(8,000kg) A/B 최대(最大) 25,350LB(11,500kg)의

R-29 Engine으로 개장(改裝)되었다 하지만, MiG-21MF와 같이

제이세대(第二世代) 항공기(航空機) 범주(範疇)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最近) 일선(一線) 배치형(配置型)을 보면,

○ 최대탐색거리(最大探索距離) 53miles (85km)

○ 최대목표추적(最大目標追跡)거리 35miles(55km)

○ 제한(制限)된 하방감시능력(下方監視能力)

○ J-band의 매우 크고 강(強)한 출력(出力)의 Radar(NATO "High Lark")를

탑재(搭載)하고 있고, 초기(初期) Flogger B형(型)의 무장(武装)으로서는,

○ IR-homing AA-2(K-13A)

○ Radar-homing AA-2-2 (NATO "Atoll")을 주(主) 공대공(空對空) 무장(武装)으로

탑재(搭載)하였었다.

이들 무기(武器)는 양(兩) Airintake Trunk와 고정익(固定翼) Glove 밑에

적재(積載)했었다.

그런데, 70년대(年代) 후반(後盤)부터 이들무장(武装)이,

○ Semi-active Radar-homing AA-7

중거리(中距離) 미사일 ( NATO "Apex" )

○ IR-homing AA-8 Dogfight 미사일(NATO "Aphid")로

교체(交替) 적재(積載)되고 있다.

Flogger B형(型)의 모든 항공기(航空機)들은 예외(例外)없이 23mm Gsh-23L 쌍연신기관

포(雙連身機關砲)를 복부동체(腹部胴體) 중심선상(中心線上)에 탑재(搭載)하고 있고, 또한 이 차적(二次的)인 대지공격(對地攻擊) 임무수행(任務遂行)을 위(爲)해 UV-16-57 흑(或)은 이와 비슷한 Rockets탄(彈)을, 또한 500kg 짜리 투하폭탄(投下爆彈)들을 고정익(固定翼)의 가변익(可變翼) 덮개부(部)에 종렬(縱列)로 공대공(空對空)미사일 대신(代身) 적재(積載)한다. 360° 경계(警戒)가 가능(可能)한 "Sirena 3" (SO-69) Passive Warning Radar가 기수(機首) 밑부분(部分)에 장착(装着)되어 있고, 그 밖에, Dopplar 항법(航法) Radar 및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장치(裝置)가 탑재(搭載)되어 있다. 동체복부(胴體腹部) 중심선상(中心線上)에 3028 gal(800ℓ) 보조연료(補助燃料) Tank를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Ferry 비행(飛行)을 위(爲)해 가동익(可動翼)에 거의 같은 용량(容量)의 연료(燃料) Tank를 적재(積載)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익(主翼)을 완전전개상태(完全展開狀態)로 비행시(時)는 거의 예외(例外)없이 주익 보조연료(主翼補助燃料) Tank를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동체구조(胴體構造)는 재래식항공기(在來式航空機)에서 보는 바와 같은 Semi-Monocoque 구조(構造)로 되어 있고, 그 형태(形態)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원형구조(圓形構造)이다. 조종석(席) 양측(兩側) Airintake 전방(前方)은 평평(平平)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후부동체(後部胴體)로 가면서 점차적(漸次的)으로 원형(圓形)으로 다듬어져 있다. 공기 흡입구(空氣吸入口)의 동체접촉부(胴體接觸部)에는 커다란 평판(平板)을 붙여 경계층류격판(境界層流隔板)(Boundary Layer Solitter Plate) 역할(役割)을 하게 했고, 또한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 Trunk 상(上)에 2개(個)의 작은 공기취입구(空氣吹入口)(Air blow-in door)를 뚫어 유입공기(流入空氣) 증대책(增大策)을 꾀하고 있는데, 이 취입구(吹入口)는 고정익(固定翼) Glove 전연(前緣) 바로 밑 부분(部分)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최근(最近) 생산(生産)된 R-29 Turbofan Engine은

- 공기역축부(空氣壓縮部)가 저압(低壓)-5단(段) 고압(高壓)-6단(段)으로 되어 있고,
- 압축비(壓縮比)는 12.4/1
- 유량(流量)은 231.5LB(105kg)sec
- 재연추력(再燃推力)은 21,825LB (9,900kg)→23,350LB(11,500kg)으로 증가(增加)
- 가속소요시간(加速所要時間) Idle→Max Power까지 3~5sec소요(所要)
- F100-PW-100(미(美) Pratt & Whitney사제(社製))와의 비교(比較)

R-29 Engine의 자중(自重)(Dry weight)가 3,880(1,760kg)로서 F100 보다 850LB(385kg) 정도(程度) 무겁지만, A/B 최대추력(最大推力)은 23,350LB(11,500kg)대

(對) 23,810LB(11,727kg)으로서 F100측(側)이 오히려 추력(推力)이 약간(若干) 더 많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후퇴각(後退角)을 수동(手動)으로 작동(作動)되는데,

- 최대후퇴각(最大後退角)-17°

이 때에는 엄격(嚴格)한 G제어(制御)비행이 요구(要求)되며, 또한 이 상태(狀態)에서의 전투기동평가(戰鬥機動評價)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중간(中間) 및 최대전개각(最大展開翼角) 중간(中間)-45° 최대전개(最大展開)-72° 가동익(可動翼)과 고정익(固定翼) 사이에 각(各) 가변각시(可變角時) 생기는 간격(間隔)은 스프링의 힘을 이용(利用)한 간격(間隔) 마개를 이용(利用)하고 있다.

○ 가동익(可動翼)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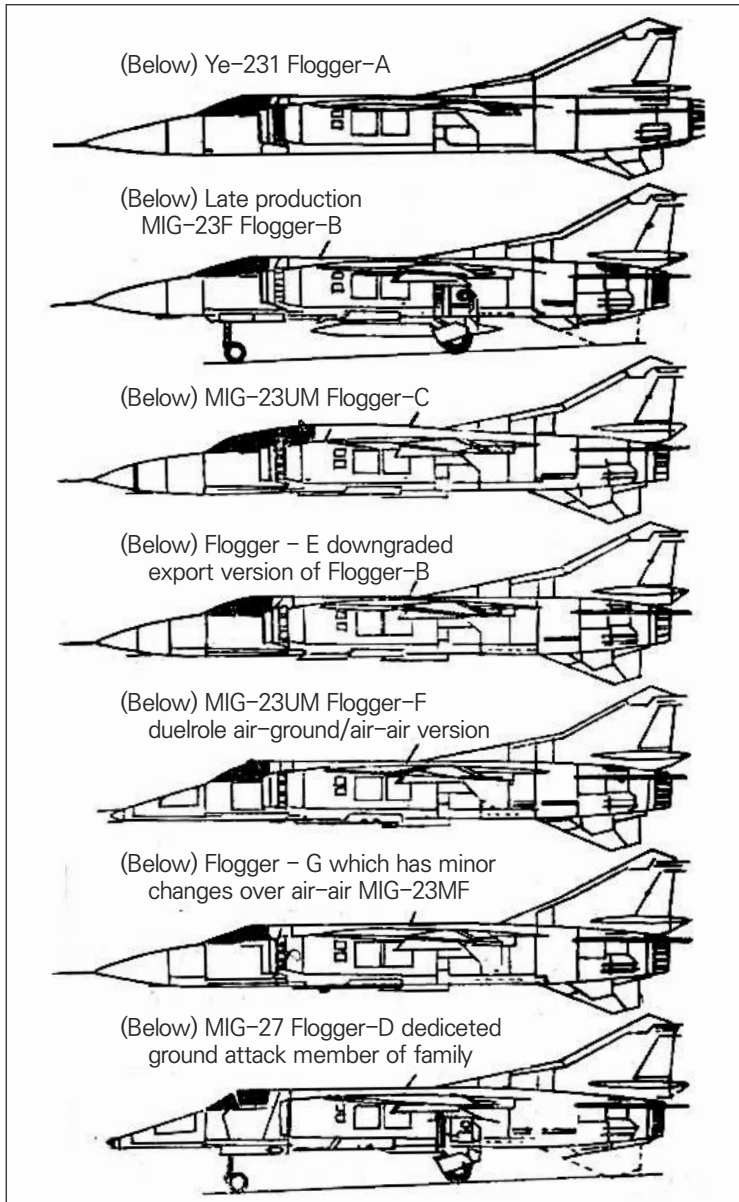
- 후연부(後緣部)에 전폭(全幅)에 걸친 삼단식(三段式) Flaps
- 익단(翼端) 2/3 부분(部分)부터 독립적(獨立的)으로 가동(可動)되는 전연(前緣) Flaps가 설치(設置)되고 있고,
- 익상면(翼上面)에 설치(設置)된 차동(差動) Spoilers와 후연(後緣) Flaps의 전개시(展開時)는 전가동식수평미익(全可動式水平尾翼)과 연동작용(連動作用)하게 되어 있다.

## 변형기(變型機)

MiG-23, Flogger-C형(型)은 단좌전투기(單座戰鬥機)를 종렬배치복좌(縱列配置複座)로 변형개조(變型改造)시킨 것으로서, 이들은 단좌전투형(單座戰鬥型)과 거의 같거나, 또는 약간 늦게 취역(就役)되고 있다. 이 Flogger-C형(型) (MiG-23U 및 MiG-23UM)도 단좌전투형(單座戰鬥型)인 Flogger-B형(型)과 같은 Gsh-23L 기관포(機關砲)와 AAM 4발식(發式)을 적재(積載)함으로써 전투가능기화(戰鬥可能機化)시켰다 하지만, 이들 복좌형(複座型)들은 거의 예외(例外)없이, 기수(機首) Radome이 단좌형(單座型)에 비(比)해 적다. 따라서 Radar 성능(性能)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암시(暗示)해 주고 있는데, 이 Radar는 아마도, MiG-21bis, Fishbed-N형(型)이 탑재(搭載)하고 있는 탐색거리(探索距離) 20miles(32km)와 하방감시능력(下方監視能力)이 없는 J-band 주파(周波)의 Jay Bird Radar를 탑재(搭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관조종사용(教官操縱士用)으로 쓰여지는 후방석(後方席)은 동체연료용량(胴體燃料容量)의 상당량(相當量)을 희생(犧牲)시키면서, 표준형(標準型) 좌석(座席)을 삽입(插入)시켜, 전방좌석(前方座席)보다 약간(若干) 높게 만들었고, 좌석내(座席內)에는 학생조종사(學生操縱士)의 폭격(爆擊)·사격(射擊)이나 이착륙시(離着陸時) 조종 모습 관찰(觀察)에 사용(使用)키 위(爲)한 인입식(引込式)페리스코프(Periscope)가 달려 있다. ECM 안테나는 Wing Glove 하방우측(下方右側)에, 그리고 ILS 안테나는 그보다 훨씬 앞 부분(部分)에 줄지어 설치(設置)되어 있는데, 전반적(全般的)으로 Flogger-C형(型)은 추력(推力)이 약간(若干) 뒤떨어지는 R-27 Turbofan 엔진을 장착(装着)한 초기형(初期型) Flogger-B형(型)과 매우 유사(類似)하다.

한편 수출형(輸出型) 복좌기(複座機)를 살펴보면, 단좌수출용변형기(單座輸出用變型機)를 공급(供給)받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모두 소량식(少量式)이나마 이 복좌형(複座型)이 수출



〈Flogger 족속기(族屬機)들의 측면도(側面圖)〉

(輸出)되고 있는데, 그 모양은 국내(國內) 사용기(使用機)에 비(比)해 예(例)를 들어, 보다 적은 Radar와 ILS 안테나 위치(位置)의 변경(變更) 설치(設置)되어 있는 Flogger-E형(型)인 주수출용(主輸出用) 복좌형(複座型)으로 단일화(單一化) 되어 있다. 이들 항공기(航空機)들은 Flogger-B형(型)과 같이 주임무(主任務)가 방공(防空) 그리고 제한(制限)된 대지임무(對地任務)를 수행(遂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Doppler 항공장비(航空裝備)나 Laser 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들이 달려 있지 않은데다 Radar마저 저성능(低性能) 것이 탑재(搭載)되어 있어 국내형(國內型)에 비(比)해 그 성능(性能)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普通) AA-2 Atoll 미사일을 적재(積載)하고 있다. 이들 항공기(航空機)는 통칭(通稱) Flogger-C 또는 F형(型)이란 이름으로, 쿠바, 이라크, 이집트, 이디오피아, 리비아 및 시리아 등(等) 나라에 공급(供給)되고 있다.

요즘 항공기임무(航空機任務)가 방공(防空)보다도 대지(對地) 또는 후방차단(後方遮斷) 쪽으로 치중(比重)됨에 따라, 최근(最近) 들어, 공대지(空對地) 임무성능(任務性能)을 극대화(極大化)시킨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변형기(變型機)가 만들어져, 70년대(年代) 중반(中盤)부터 소련 공군내(空軍內)에서 취역(就役)·활동(活動)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변형기(變型機)들은 모두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 포착(捕捉)을 좀더 용이(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앞 기수부분(機首部分)이 수그러지게 설계(設計)되어 잘 구분(區分)되고 있다. 그 첫번째 것은 MiG-23BM 또는 Flogger-F형(型)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는 비(非) Warsaw 조약국(條約國)에 수출(輸出)되어 오던 기종(機種)으로서, 소련 공군내(空軍內)에서 활약(活躍)하고 있는 유일(唯一)한 기종(機種)인데, 한 때는 전적(全的)으로 수출전문기(輸出專門機)로서 알려져 왔던 것인데, 1975-76년(年) 사이 소련 전술공군부대(戰術空軍部隊)들에 배속(配屬)되기 시작(始作)한 것으로서, 소련 전선공군(前線空軍)에 상당(相當)한 대수(臺數)가 취역(就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형기(型機)의 엔진이 R-29 B형(型)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R-29 엔진과 거의 같은 추력(推力)에 속(屬)하기 때문에 별문제(別問題) 아니고, 이 항공기(航空機)가 공대지(空對地) 기능(機能)을 극대화(極大化)시키기 위(爲)해 몇 가지 개조작업(改造作業)을 가(加)하긴 하였지만, 근본적(根本的)으로 B형(型)과 별차이(別差異)가 없다. 그러나 조종석에서 앞 부분(部分)은 전적(全的)으로 새로운 설계(設計)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방공전용(防空專用)에 속(屬)하는 모든 기종(機種)들의 기수(機首) 모양이 원형천정(圓形天井)에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된 Ogival Radome 모양이었던 것에 반(反)해, 조종석 앞부분(部分)부터 밑으로 매우 급(急)하게 깎아졌고, 양측면(兩側面)에서 배 밑부분(部分)이 평평(平平)하게 처리(處理)되어 있다. Laser 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와 표시식(表示式) 목표탐지기(目標探知器)가 기수(機首) 끝부분(部分)에 탑재(搭載)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아마도 Doppler 지형회피(地形回避) Radar 같은 것이 장비(裝備)되어 있는 듯, 앞바퀴가 좀 더 커지면서 따라서 바퀴 수납실(收納室) 덮개가 물집 모양으로 볼록 나오게 처리(處理)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이 깎기어진 모양의 기수(機首)는 Warsaw 조약국(條約國)들이 공급(供給)받고 있는 Flogger 기종(機種)의 오리 주둥이

모양의 기수(機首)와 우연히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F형(型)의 기수(機首)가 급(急)한 경사(傾斜)를 이루게 됨으로써, 조종석 창문(窓門)이 밑으로 넓어지게 되어 조종사 시계(視界)가 훨씬 양호(良好)하게 되었고, 조종석 주위(周圍)에는 지상포화(地上砲火)로부터의 피해(被害)를 줄이기 위(爲)해 장갑보강(裝甲補強)되고 있다.

- 쌍연신(雙連身) 23mm Gsh-23L 기관포(機關砲)와 더불어,
- 5개소(個所)의 외부가(外部架)에 최대(最大) 9,920LBS(4,500kg)까지의 무장(武裝)을(내부연료(內部燃料) 적재량(積載量)을 줄여서) 단거리임무용(短距離任務用)으로 적재(積載)
- 500kg 폭탄(爆彈) 6발(發) 또는
- 동체중심선상(胴體中心線上)의 2개(個)의 이중가(二重架)와 Airintake Trunk와 Wing Glove의 각(各) 1개(個)씩의 무장가(武裝架)에 적재(積載) 후(或)은
- Airintake Trunk의 각(各) 1개(個)씩과 Wing Glove 중앙선상(中央線上)의 종렬(縱列)로 2개(個)씩의 무장가(武裝架)에 적재(積載)
- 또한, 대체무장적재(代替武裝積載)로서, 각종(各種) 폭탄가(爆彈架)와 Rocket Pods를 이용(利用)한 무장(武裝) 적재(積載)가 가능(可能)한데, 이 중(中)에는 Wing Glove 가(架)에 AS-7 Kerry ASM 미사일 적재(積載)도 가능(可能)한 것으로 보는데 이 미사일은, Radio 제어유도(制御誘導) 미사일로서 유효사거리(有效射距離) 약(約) 6miles(10km), 무게 2,650LB(1,200kg)의 것이다.

Flogger-F형(型)의 내부연료적재량(內部燃料積載量)은 1518Gal(5,750L)을 넘는 것 같지 않고, 비행시 가끔 동체중앙선상(胴體中央線上)에 211gal(800L)짜리 Drop Tanks를 달고 날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Ferry 비행(장거리(長距離) 자력공수비행(自力空輸飛行))을 위해 위와 같은 용량(容量)의 Drop Tanks를 가동익상(可動翼上) 비선회성(非旋回性)(NonSwivelling) Pylons에 적재(積載)할 수 있도록 가동익(可動翼)에 수유구(受油口)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중량(重量)은

- Clean 중량(重量) : 34,170LB(15,500kg)
- Max T/O Weight : 44,312LB(20,100kg)

또한 성능일반(性能一般)은 -B형(型)과 근본적(根本的)으로 별차(別差)가 없지만, Clean 상태(狀態)에서,

- 최대속력(最大速度)(저공(低空)) M=1.1
- 최대속력(고공(高空)) M=2.3
- 정당전투행동반경(正當戰鬥行動半徑) 590miles(950km)

- 동체중앙(胴體中央) Drop Tank 1개(個)
- 최소한(最小限)의 Dash 비행 후(或)은 전투기동(戰鬥機動)

○ 이착륙속도(離着陸速度)

Clean 상태(狀態)에서

- 이착속도(離着速度) 205mph(330km/h)
- 착륙접근속도(着陸接近速度) 174mph(280km/h)

여기에 인용(引用)되고 있는 자료(資料)들은, 소련이 -F형(型)의 장기수출목적(長期輸出目的)으로 작성공여(作成供與)된 것으로서, 비교적(比較的) 정확(正確)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투(戰鬥) 성능(性能)에 관(關)한 것들이 언급(言及)되지 않아 유감이다. 1978년(年) France의 동북부(東北部)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Reims시(市)를 -G형(型)이 방문비행(訪問飛行) 하였을 때도, 동체중앙(胴體中央) Tank는 적재(積載)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체 내부(胴體內部)의 여러 가지 장비품(裝備品)들이 일부러 제거(除去)되고, 또한 23mm 기관포탄(機關砲彈)도 실려 있지 않은 상태(狀態)여서 -F형(型)의 Clean 상태중량(狀態重量)과 매우 비슷한 무게 상태하(狀態下)에서 이륙(離陸)거리가 2,625ft(800m) 이내(以內)였다.

MiG-23 변형기(變型機)들이 체코와 같은 Warsaw 조약국(條約國)들에게 공급(供給)되고 있고, 또한 인도(印度) 항공산업(航空産業)이 인도(印度) 공군(空軍)을 위(爲)해 라이센스 생산(生産)코자 요청(要請)한 2가지 기종중(機種中)에서 하나가 MiG-23BN형(型)인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구입자측(購入者側)이 특별(特別)히 별도주문(別途注文)한 장비탑재(裝備搭載)의 차이(差異) 뿐인 것으로서, Flogger -F이란 별명(別名)을 갖고 있는 MiG-23BM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New Delhi로부터의 비공식(非公式) 보도(報道)에 따르면, 소련측(側)은 상기기종(上記機種)을 인도측(印度側)에 공급(供給)함에 있어 영국(英國)의 Jaguar International기(機)보다도 약(約) 60% 싼 값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事項)들을 이행(履行)할 것을 시사(示唆)하였다고 한다.

- 완제기(完製機)의 초도공급분(初度供給分) 대금(代金)
- 지원장비비(支援裝備費)
- 조종사(操縱士)와 지상근무요원(地上勤務要員) 훈련비(訓練費)
- 인도항공산업사(印度航空産業社)가 조립생산(組立生産)하게 되는 분해상태(分解狀態)로 공급(供給)되는 몇 대(臺)의 항공기(航空機) 구입비(購入費)
- 인도측(印度側)이 향후(向後) 17년(年) 동안 라이센스 생산(生産)하는 동안, 대당(臺當)로 알티가 2.5 %에 불과(不過).

## 설계(設計)와 기종명(機種名) 변경(變更)

Flogger-F형(型)은 공대공(空對空) 방공전담기(防空專擔機)인 -B형(型)으로부터, 부차적(副次的)으로 방공능력(防空能力)을 유지(維持)시키면서, 공대지능력(空對地能力)을 구비(具備)



시키기 위해 최소한(最小限)의 설계변경(設計變更)을 한 바 있지만, 두번째로 시도(試圖)된 공대지(空對地) 부류(部類)에 속(屬)하는 -D형기(型機)는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 마땅할 정도(程度)로 대대적(大大的)인 설계변경(設計變更)으로 공대지기능(空對地機能)의 극대화(極大化)를 꾀한 것으로서, 소련 공군내(空軍內)에서 MiG -27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취역(就役)하고 있다.

Flogger-D형(型)을 대지공격전용기(對地攻擊專用機)로 개발(開發)시킴에 있어, Mikoyan Gurevich 설계(設計)팀들은 의식적(意識的)으로-어쩌면 현명(賢明)한 방법(方法)일지도 모르는-저공(低空) 내지 중고도(中高度)에서의 전투행동반경(戰鬥行動半徑)을 증대(增大)시키기 위해, 최고속력(最高速力)인 M=2.0 급성능(級性能)을 희생(犧牲)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엔진에 있어서도, MiG-23의 R-29 엔진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같은 축심구조(軸心構造)로 되어 있지만, 저압력축기부분(低壓力縮器部分)이 좀 더 크고, 또한 길이가 짧고, 2개(個)의 개폐위치(開閉位置)를 단순화(單純化)시킨 배기(排氣) 노즐로 된 엔진을 채택(採擇)하고 있다.

저공(低空)에서 높은 치(值)의 아음속력(亞音速力)과 비재연추력(非再燃推力)(Dry Thrust)인 (4,350LB(6,500kg)를 약(約) 25% 정도(程度) 증대(增大)시킬 수 있는 구조(構造)가 단순화(單純化)된 Afterburner를 필요(必要)로 한다는 주요요구조건(主要要求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기 위해, Flogger-D형(型)에서의 Turmansk 엔진은 종(鐘)과 같이 벌어지고, 비교적(比較的) 넓어진 고정식(固定式)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의 모양과, 축소(縮小)된 경계기류격판(境界氣流隔板)(Solitter Plate), 그리고 약(約) 16inch(40cm)가 짧아진 배기(排氣) Pipe로 된 엔진을 장착(裝着)하고 있다.

잔디 비행장(飛行場)에서의 작전성(作戰性)을 높이기 위해, Main Gear 바퀴의 경(徑) 및 폭(幅)을 약간(若干) 크게 하였고, Door bay도 넓혔고, Fairing Door도 배가 나온 모양이 되고, 부분적(部分的)으로 이 부분(部分)의 단면적(斷面積)을 증대(增大)시킴과 동시(同時), 이곳의 구조강도(構造強度)가 보강(補強)되었다. 지금까지는 모든 Flogger 족속기(族屬機)들이 쌍연신(雙連身) Gsh-23L 기관포(機關砲)를 장착(裝着)하여 왔으나, 이번 -D형(型)에서 소련 전투기(戰闘機)로서는 처음으로 6연신(連身)의 23mm Gatling 회전신포(回轉身砲)로 바뀌게 됨으로써 그 발사력(發射力)이 훨씬 증대(增大)되었고, 또한 장착위치(裝着位置)가 지금까지는 공기흡입통(空氣吸入筒) 아래였던 것이 통(筒) 밖으로 바뀌었다. 모든 방공임무기(防空任務機)와 훈련용(訓練用) Flogger기(機)들이 공동(共同)으로 달고 있던 Missile Pylon 대신(代身)에 이 -D형(型)에서는 폭탄기(爆彈架)로 바꾸어 달았고, 여기에는 AS-7 Kerry와 같은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발사대(發射臺)도 달 수 있다. 고정익(固定翼) Glove 전연(前緣) 폭탄적재기(爆彈積載架) 바로 앞에는 ECM Antenna Pod와 Missile 유도(誘導)안테나가 달려 있다. -D형기(型機)가 이와 같이 많은 변화점(變化點)을 가능(可能)하게 한 것은 속도성능(速度性能)을 일차원(一次元) 저급화(低級化)시킨 결과(結果)이다.

Flogger-D형기(型機)의 속도성능(速度性能)은 다음과 같다.

○ 최대속도(最大速度)(저공(低空)) M=0.95

최대속도(고도(高度)) M=1.6

그러나, 서방측분석가(西方側分析家)들에 따르면 같은 Flogger 족속(族屬) 공대지기(空對地機)에 비(比)해 현저(顯著)하게 그 성능(性能)의 향상(向上)을 가져 오고 있다고 평가(評價)하고 있다.

MiG-23 계열기(系列機)로서, 가장 최근(最近) 일반(一般)에게 공개(公開)된 것으로서는 Flogger-G형(型)인데, 이들 6대(臺)의 항공기(航空機)들이 지난 1978년(年) 8월(月), 핀란드 Kuopio-Rissala 공군기지(空軍基地)에, 그리고 동년(同年) 9월(月), France의 Reims 기지(基地)를 예방(禮訪)한 것이 처음이었다. Laser 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의 성능(性能)이 아주 뒤떨어지는 것을 비롯, 소련 항공기(航空機)들은 한 두 가지 무용지물(無用之物)을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보통(普通) 있는 일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Warsaw 조약국(條約國) 밖으로 예방비행(禮訪飛行)에 나선 탓인지, 이러한 물건(物件)들을 제거(除去)한 것으로 보이며, Flogger-G형기(型機)는 최근(最近) 제작(製作)되는 Flogger-B 계열기(系列機)로서는, 비교적(比較的) 적은 설계변경점(設計變更點)을 보여 주는 방공기(防空機)이다. 그런데, 이번 달라진 것 중(中)에서도 가장 인상적(印象的)인 것은, Dorsal fin과 이에 연(連)이은 수직안정판(垂直安定板)이 축소개조(縮小改造)된 것인데, 이것은 이번 예방시(禮訪時)의 곡예비행기능(曲藝飛行機能)을 증대(增大)시키기 위(爲)해 많은 부심(腐心)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Flogger기(機)들은 지금까지 소련 공군내(空軍內)에서 활약(活躍)한 바 있는 어떤 전임자(前任者)들보다도 뚜렷이 그 유능성(有能性)을 드러내 보이는 항공기(航空機)임이 틀림없고, 따라서, 향후(向後) 약(約) 5년(年) 내지 그 전후기간(前後期間) 동안 전술공군력(戰術空軍力) 분야(分野)에서 지금까지의 NATO측(側)의 기술적(技術的) 선도위치(先導位置)에 중요(重要)한 한 부분(部分)을 잠식(蠶食)해 들어 가는 역할(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서방측(西方側)이 가장 중요시(重要視)해야 할 점(點)은, 그들이 해 낼 수 있는 거대(巨大)한 양(量)에 있다. 소련은 그들의 영향력(影響力) 속에 있거나, 또는 정치적(政治的)으로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할 수 있는 세계도처(世界到處) 나라들에게, 서방진영(西方陣營)에서는 도저(到底)히 경합(競合)할 수도 없는 싼값으로 그나마 차관형식(借款形式)으로 팔고 있다. 따라서, 80년대(年代) 중반(中盤)이 되기도 전(前)에, 이 Flogger 계열기(系列機)들이 이 세계상(世界上)에서 가장 널리 또 많은 수자(數字)의 항공기(航空機)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疑心)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 소련(蘇聯)의 패권주의(霸權主義)

박종언 역(譯)

소련(蘇聯)쪽으로 기우는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을 합리화(合理化)하는데 이용(利用)되는 소련식(蘇聯式) 완곡어법(婉曲語法)을 빌어 “힘의 상관관계(相關關係)”라는 말에서 1980년대(年代) 서두(序頭)가 서방(西方)에 불안(不安)한 도전기(挑戰期)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미합참의장(美合參議長)의 의회군사동향보고(議會軍事動向報告)에서도 전조(前兆)처럼 그 점을 지적(指摘)하고 있다. “서방(西方)이 감당(堪當)할 수 없게 계속(繼續) 증강(增強)되는 소련군사력(蘇聯軍事力)은 전략전술핵(戰略戰術核) 및 재래전전력(在來戰戰力)같은 주요 전력부문(主要戰力部門)에서 미국(美國)과 그 맹방(盟邦)들에 불리(不利)하게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을 변화(變化)시키고 있다. 이 놀라운 발전추세(發展趨勢)는 자유세계(自由世界)의 번영(繁榮)과 생존(生存)을 지탱(支撐)해 온 상호신뢰(相互信賴)를 해(害)치며 미국(美國)과 맹방(盟邦)들의 안보(安保)에 명백(明白)한 정치(政治), 군사적(軍事的) 도전(挑戰)을 증가(增加)시키고 있다.”

통계상(統計上)으로도, 현재(現在) 미국(美國)의 국방비(國防費)는 1963년(年)보다 실제면(實際面)에서 더 적지만 같은 기간(期間)에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는 두배로 늘어났다. 1963년(年)에 소련(蘇聯)은 미국방비(美國防費)의 약(約) 60%를 투자(投資)했지만 1980년(年)에는 미국방비(美國防費)보다 약(約) 150%를 더 할당(割當)했다.

또한 소련(蘇聯)은 그들 정치체제(政治體制)를 이용(利用)해 중요무기체계(重要武器體系)의 연구(研究), 개발(開發), 획득(獲得)에 있어 막대한 경비(經費)를 국방비(國防費)로 돌릴 수 있다. 결과적(結果的)으로, 소련(蘇聯)은 자국방어(自國防禦)와 안보(安保)에 필요(必要) 이상(以上)의 많은 무기(武器)를 만들어 냈다.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이 그들의 패권주의(霸權主義)를 감추기 위(爲)해 국가안보(國家安保)라는 뜻을 왜곡(歪曲)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 최근(最近)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으로 뒷받침됐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소련(蘇聯)이 근본목표(根本目標)로 하는 그 본성(本性)에 대(對)한 서방(西方)의 재이해(再理解)가 정치적(政治的), 군사적(軍事的)으로 필요(必要)한 대

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시킬 것이며 오래 지속(持續)시킬지가 주목(注目)된다. 분명(分明)한 것은, 소련(蘇聯)의 호전성(好戰性)과 극한정책(極限政策)이 그들의 군사력우세(軍事力優勢), 특(特)히 전략공격력부문(戰略攻擊力部門)의 우세(優勢)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1980년(年) 군사동향보고(軍事動向報告)에서 지적(指摘)되고 있듯이, 소련군사력(蘇聯軍事力)의 제(第)3세계주입(世界注入)에는 대외군수품판매(對外軍需品販賣) 뿐만 아니라 군사지원(軍事支援)이 1950년대(年代) 이후(以後) 복합적(複合的)으로 추구(追求)돼 왔다. “최근(最近) 소련(蘇聯)이 시도(試圖)하는 것으로 새로운 점이란 과거(過去)의 호전성(好戰性)에다 목표달성방법(目標達成方法)을 다양(多樣)하게 확대(擴大)시키는 것이다. 현재(現在) 소련군사요원(蘇聯軍事要員) 및 고문(顧問)들은 30개(個) 비동맹국(非同盟國)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소련 제(蘇聯製) 무기(武器)가 33개(個) NNA (Non- Aligned) 국(國)에서 팔리고 있다.”

제(第)3세계(世界)를 전복(顛覆)시키기 위(爲)한 이러한 방법(方法)들만 가지고는 만족(滿足)하지 않고 소련(蘇聯)은 최근(最近) 보다 세련(洗練)된 접근책(接近策)을 채택(採擇)했는데 이 들에는, 비동맹국(非同盟國)과의 장기우호협력조약체결(長期友好協力條約締結), 국내군사시설물(國內軍事施設物)의 소련건설(蘇聯建設) 그리고, 특(特)히 소련(蘇聯)의 대리국(代理國)으로 비동맹국(非同盟國)을 이용(利用)할 책략(策略)들이 포함(包含)된다. 이 주(主)된 보기가 쿠바로서, 이 나라의 군사요원(軍事要員)과 고문단(顧問團)들은 20개국(個國) 이상(以上)에서 군(軍), 민(民)합해 수천명에 달(達)하는 숫자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미군사전문가(美軍事專門家)들은 소련(蘇聯)이 쿠바, 북한(北韓), 이디오피아, 아덴, 예멘,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특(特)히, 베트남을 그들의 대리국(代理國)으로 이용(利用)해서 중대(重大)한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토록 할 “전격확장(電擊擴張)” 비상계획(非常計劃)을 작성(作成)해냈다는 증거(證據)를 잡고 있다. 이들 전문가(專門家)들이 예상(豫想)하는 바, 소련(蘇聯) 개입(介入)의 초점(焦點)은 중남미(中南美)와 회교권국(回教圈國)에 놓인다. 중남미(中南美)에 있어 개입(介入)의 주관건(主關鍵)은, 이들의 오래 곱아온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병폐와 소련(蘇聯)의 지도(指導) 아래 쿠바가 만들어내는 마르크스주의자(主義者)들의 세력확대(勢力擴大)다.

회교권국(回教圈國)에 있어, 어떤 흉사(凶事)에도 좋은 반면(反面)은 있다는 식(式)의 서방(西方)의 지나친 낙천가(樂天家)들의 생각은 2가지 면(面)으로 해(害)로운 것이다.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이 베트남에서처럼 곤경(困境)에 빠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정치(政治), 군사적(軍事的) 관점(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地理的)으로도 논리적(論理的)이 거나 사실적(事實的)이 아니다. 산 많은 아프카니스탄 북부지역(北部地域)에 일부 저항(抵抗)의 근거지(根據地)가 남아 있는지 여부(與否)는 소련전략가(蘇聯戰略家)들에게 별로 중요(重要)한 것이 아니다. 주로 개활지(開闊地)로서 게릴라 활동(活動)에는 불리(不利)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남부지역(南部地域)은 명백(明白)히 소련의 다음 목표(目標)인 파키스

단과 이란에 대(對)해 공개(公開) 또는 비밀작전(作戰)을 수행(遂行)키 위(爲)한 이상적(理想的)인 도약대(跳躍臺)가 되고 있다. 이같은 침략행위(侵略行爲)는 소련정책상(蘇聯政策上) 단지 중동(中東)과 남부(南部) 지중해에 면(面)한 페르시아만과 기타 유전(油田)이 풍부한 회교권국(回教圈國)들을 장악(掌握)하기 위(爲)한 서곡(序曲)에 불과(不過)하다.

서방대의정책연구가(西方對外政策研究家)들 사이에 나도는 둘째 이론(理論)으로 최근(最近) 소련침략성(蘇聯侵略性)의 근본원인(根本原因)이 심각한 경제문제(經濟問題)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소련(蘇聯)에게 매우 유리(有利)한 생각이다. 이 사실(事實)에 대(對)한 보다 비판적인 검토(檢討)에서, 소련(蘇聯)은 전세계산업국중(全世界産業國中) 자연자원(自然資源), 특(特)히 에너지자원(資源)에서 가장 독립적(獨立的)이라는 결론(結論)을 내리고 있다. 더욱 결정적(決定的)인 것은, 소련(蘇聯)이 아무리 결핍(缺乏)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지라도 이에 따른 국내정치결과(國內政治結果)를 통제(統制)할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따라서 중동(中東)에서 소련(蘇聯)의 침략행위(侵略行爲)가 "에너지위기(危機)"의 감정에서 싹트다는 생각은, 소련(蘇聯)의 호전성(好戰性)이 경제적(經濟的)인 문제(問題)로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希望)과 마찬가지로, 소련군(蘇聯軍)이 베트남에서처럼 아프카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터무니없는 망상(妄想)이다.

세계패권주의(世界霸權主義)를 향(向)한 소련(蘇聯)의 현추진단계(現推進段階)에서는, 그리고 중공(中共)과 상대하는데 있어서는 베트남을 이용(利用)할 것이다. 소련(蘇聯)의 군사(軍事), 경제적(經濟的) 원조(援助)로 지지(支持)되고 한때 인도지나로 알려진 모든 나라를 통치(統治)하도록 소련(蘇聯)의 강제(強制)가 차츰 줄어들는데 고무(鼓舞)된 베트남은 물질면(物質面)에서는 전적(全的)으로 소련(蘇聯)에 의존(依存)하고 있고 정치적(政治的), 자립면(自立面)에서는 항구적인 침략성(侵略性)을 추구(追求)하고 있다. 또한 응징원정의 형태(形態)로 이 까다로운 이웃국(國)에게 또 한 차례의 교훈(教訓)을 주려고 버리고 있는 중공(中共)이라는 공포(恐怖)의 대상(對象)은 하노이로 하여금 암전하게 소련(蘇聯)의 명령(命令)에 따르는 외(外)에는 달리 선택권(選擇權)을 주지 않는다.

미군사전문가(美軍事專門家)들의 견해(見解)에 따르면, 동남아사태(東南亞事態)가 폭발(爆發)할 가능성(可能性)은 지난 10년(年) 전(前)보다 오늘날 더 크다. 베트남의 캄보디아정복(征服) 여파(餘波)가 여러 캄보디아진영(陣營)에 피난처를 제공(提供)하고 있는 태국(泰國)으로 쉽게 넘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자동적(自動的)으로 미국(美國)은 소(蘇)·월(越), 중공간(中공間)의 대규모충돌(大規模衝突) 속에 동남아(東南亞)에서 재개입(再介入)하게 될 것이다. 기술적(技術的)인 면(面)에서도 소련대리국(蘇聯代理國) 베트남에 의(依)한 태국공격(泰國攻擊)은 마닐라조약(條約)에 따라 미국(美國)이 방콕방어(防禦)에 나서도록 의무짓고 있다.

베트남내(內) 소련군사력(蘇聯軍事力) 주둔(駐屯)은 미전문가(美專門家)들이 큰 불안감(不安感)을 갖고 지적(指摘)하는 바 "상당하며 또 점증(漸增)"하고 있다. 군사동향보고(軍事動向

報告)에 따르면 "소련(蘇聯)은 전례(前例)없이 많은 베트남내(內) 항구(港口)와 비행장(飛行場)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소월양국간(蘇越兩國間)의 긴밀한 관계로 소련(蘇聯)은 동남아(東南亞)에 주둔(駐屯)해서 중공(中共)과 서방(西方)의 영향력(影響力)을 점차 약화(弱化)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변(變)하고 있는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

만일(萬一) 수명예상통계(豫想統計)가 어느 정도 신빙성(信憑性)이 있다면 앞으로 수년내(數年內) 소련(蘇聯)에는 정년퇴직한 지도층(指導層)의 대대적인 교체(交替)가 예상(豫想)된다. 내밀(內密)한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世界)에서 누가 소련공산당정치국원(蘇聯共產黨政治局員)이 될지는 예측불허하다. 그래서 전문가(專門家)들도 다가올 변환기중(變換期中) 나타날 기본추세(基本趨勢)만 제시(提示)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기서는 2가지만 인용(引用)한다. 장차(將次)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通)해 공산당(共產黨) 하부조직내(下部組織內)의 지속적(持續的)인 지지(支持)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치(政治), 군사적(軍事的) 범주내(範疇內)에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取)하는 것이 그들을 회유(懷柔)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強力)한 것이다.

둘째로, 다가올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 후대(後代)는, 전문가(專門家)들의 견해(見解)에 의(依)하면 인사면(人事面)에서, 너무 젊어 제이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의 상처(傷處)를 입지 않았고 총동원하(總動員下)의 미국(美國)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포함(包含)될 것이다. 현지도층(現指導層)은 거의 예외(例外)없이 제이차대전(第二次大戰)의 직접경험(直接經驗)을 갖고 있어 신중(慎重)하게 세계전(世界戰)을 유발할 행동(行動)을 꺼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제(自制)와 냉정(冷靜)이 결여(缺如)된 미래(未來)의 지도층(指導層)은 전지도층(前指導層)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핵전쟁(核戰爭)을 유발(誘發)시킬 수 있는 정치(政治), 군사적(軍事的) 도박을 벌일 것 같다. 모험(冒險)을 거는 경향(傾向)은 틀림없이 소련(蘇聯)과 그 추종국(追從國)들을 사상(史上) 처음으로 세계(世界) 여타국(國)보다 우세(優勢)한 군사강국(軍事強國)으로 만들 것이다.

소련문제전문가(蘇聯問題專門家)들 사이에 나도는 또다른 이론(理論)에 따르면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의 변화(變化)가 이미 진행중(進行中)이라는 것이다. 최근(最近) 소련(蘇聯)의 냉전재개행위(冷戰再開行爲)는 국방상(國防相) 우스티노프의 작품(作品)으로 전(傳)해진다. 비록 병(病)든 브레즈네프 보다 2살 아래지만 우스티노프는 강건(強健)하며 후계자경쟁(後繼者競爭)에서 선두(先頭)다툼에도 열성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권력(權力)바탕을 강화(強化)하고 평판을 높이려고 D. F. 우스티노프가, 아프카니스탄침공(侵略)과 같은 "애국적(愛國的) 국방노력(國防勞力)"으로 국가(國家)를 재무장(再武裝)시키기 위(爲)해 군수(軍需) 및 방위산업(防衛産業)에 역점(力點)을 두고 있다는 확실(確實)한 증거(證據)가 보인다. 이 말이 사실(事實)

이라면 그것은 우스티노프가 무슨 일든 할 수 있는 소련정치국원(蘇聯政治局員)들 사이에 강력(強力)한 지지를 받고 있어 브레즈네프서기장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정권인수(政權引受)를 위(爲)한 선결요건(先決要件)을 마련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아몽든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을 위(爲)한 그들 내부운용방식(內部運用方式)에 대(對)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바, 국방성(國防省)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수(數)의 몽고군(軍)이 침공작전(侵攻作戰)을 수행(遂行)할 군주둔지(軍駐屯地)로 이동(移動)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이민족집단(蘇聯異民族集團) 사이에 나있는 몽고군(軍)의 평판(評判)으로 그들이 침공군(侵攻軍) 속에서 높은 충성(忠誠)과 낮은 도망율(逃亡率)을 보였을 거라는데 의심(疑心)할 여지(餘地)는 없다

### 상승(上昇)하는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

금년초(今年初) 발표(發表)된 미(美) CIA의 달러가(價) 대비(對比) “1970~1979년(年) 미(美) · 소(蘇)국방비(蘇聯國防費)” 보고(報告)에 따르면 지난 10년간(年間) 누적(累積)된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는 미국방비(美國國防費)보다 30% 앞서 있고 연지출성장율(年支出成長率)은 약(約) 3%를 나타냈다. 현재(現在) 생산(生産), 개발중(開發中)인 무기체계(武器體系)를 바탕으로 중요방위산업체건설(重要防衛產業體建設)이 계속(繼續)되고 현대무기(現代武器)가 차츰 고가화(高價化)하기 때문에 장기적(長期的)인 추세(趨勢)로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는 1980년대(年代)에도 같은 비율(比率)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작년(昨年) CIA가 산정(算定)한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는 약(約) 1,650억불(億弗)로 미국(美國)의 1,030억불(億弗)보다 5%가 더 많았다.

1970년에 루블화(貨)로 산정(算定)되어 GNP점유율(占有率)로 발표(發表)된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는 10년(年) 동안 평균 GNP의 11~12%를 차지해 왔다. 이에 비(比)해 미국방비(美國國防費)는 1970년(年)에 GNP의 약(約) 8%를 차지했지만 1979년(年)에는 5%로 떨어졌다. 무기(武器)와 장비조달(裝備調達), 설비건설(設備建設)을 포함(包含)하는 주요투자부문(主要

	제 2 차 대전	현재
 항공모함	55,000	2,500,000
 전투기	54	19,000
 신예폭격기	210	100,000
 공격용잠수함	4,700	303,000

投資部門)에서 지난해 소련(蘇聯)은 미국(美國)보다 놀랍게도 8%나 더 썼다.

소련(蘇聯)은 또한 군사작전비면(軍事作戰費面)에서도 미국(美國)을 능가(凌駕)했는데 1979년(年) 소련군사작전비(蘇聯軍事作戰費)는 미국(美國)보다 35%나 더 많았다. 전체 10년 동안 그들은 미국(美國)보다 총(總) 15% 더 투자(投資)했다. 소련(蘇聯)은 1970~79기간중(期間中) RDT & E(연구(研究), 개발(開發), 실험(實驗) 및 평가(評價) 분야(分野)에서도 비슷한 추세(趨勢)의 경비확대(經費擴大)와 성장(成長)을 나타냈다. 지난 10년간(年間) 소련(蘇聯) RDT & E 활동비(活動費)는 미국(美國)의 지출(支出)보다 1.5배(倍)나 더 많았다.

소련군(蘇聯軍) 병력수(兵力數)는 1979년(年) 약(約) 430만(萬)으로 미군(美軍)의 2배(倍)가 넘는다. 이 숫자에는 국방성(國防省) 직속(直屬) 5군(軍)과 소련국경경비군(蘇聯國境警備軍)만 포함(包含)됐고 내무성보안군(內務省保安軍) 및 철로(鐵路), 건설군(建設軍) 50만(萬)은 소련(蘇聯)이 국방군(國防軍)으로 인정(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除外)됐다.

CIA연구(研究)에 따르면 군병력추세(軍兵力趨勢)는 양국(兩國) 국방조직체(國防組織體)에 드는 총경비(總經費)와 일치했다. 1970년(年) 이래 10년(年) 사이에 소련군(蘇聯軍)은 40만명(萬名) 이상(以上)이 늘었다. 최대증가(最大增加)는 소련지상군(蘇聯地上軍)에서 20만(萬)이 늘었다. 이와 대조적(對照的)으로 미군병력(美軍兵力)은 베트남전(戰) 때 최고(最高)를 나타낸 이후(以後) 매년(每年) 떨어져 1970년(年) 310만(萬)으로부터 1979년(年) 210만(萬)으로 감소(減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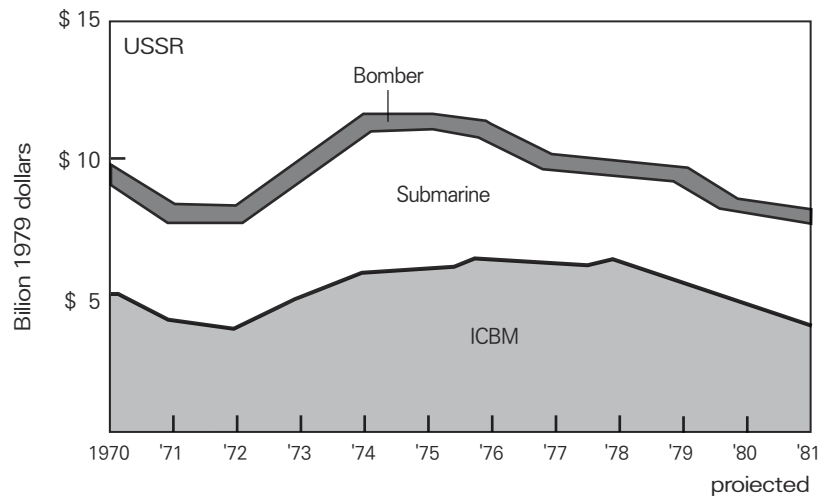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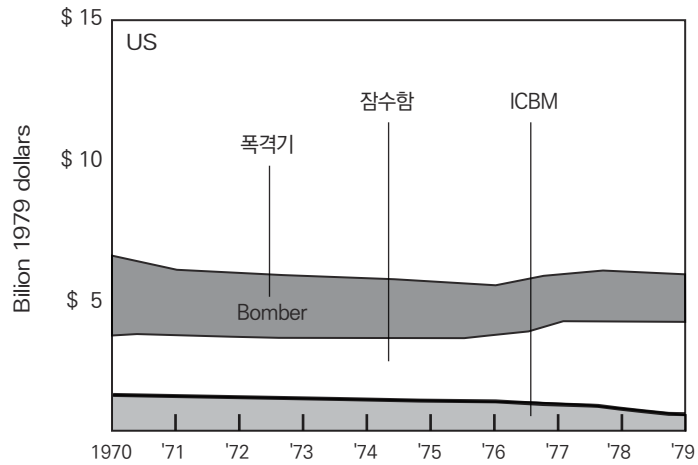
특수임무수행부문(特殊任務遂行部門)의 미(美) · 소(蘇) 달러지출대비(支出對比)에서 대륙간공격(大陸間攻擊), 전략방어(戰略防禦), 전략통제(戰略統制) 및 감시(監視), 그리고 말초신경공격군(末梢神經攻擊軍)(이 분야(分野) 미국(美國)은 없음)으로 구성(構成)되는 전략군(戰略軍)의 경우(境遇) 소련(蘇聯)의 지출(支出)은 지난 10년(年) 동안 미국(美國)의 3배(倍)에 달(達)했다.

대륙간공격군(大陸間攻擊軍)의 경우(境遇) 소련(蘇聯)의 지출(支出)은 현재(現在) 그들의 4대(代) ICBM인 SS-17, SS-18 및 SS-19의 배치(配置)가 완료(完了)됐으므로 개발중(開發中)에 있는 신형(新型) 제(第) 5대(代) ICBM체제(體制)를 배치(配置)할 것으로 예상(豫想)되는 1980년대(年代) 중반에 급격히 상승(上昇)하기에 앞서 잠깐 떨어질 것으로 CIA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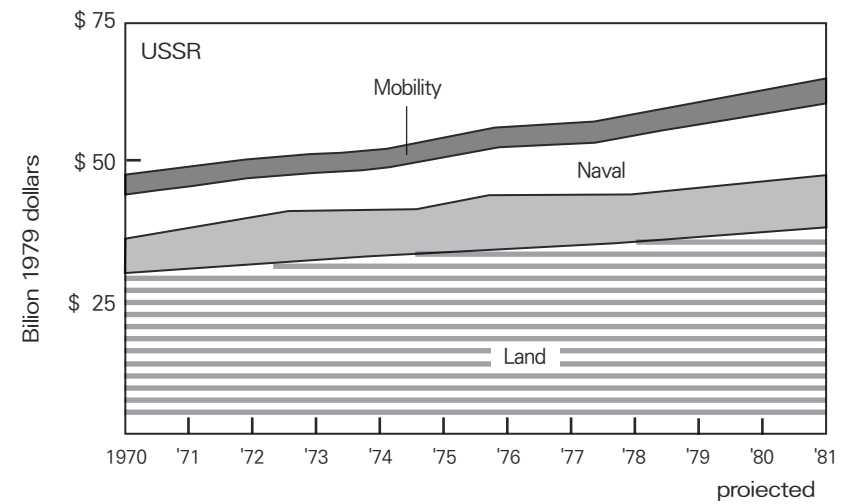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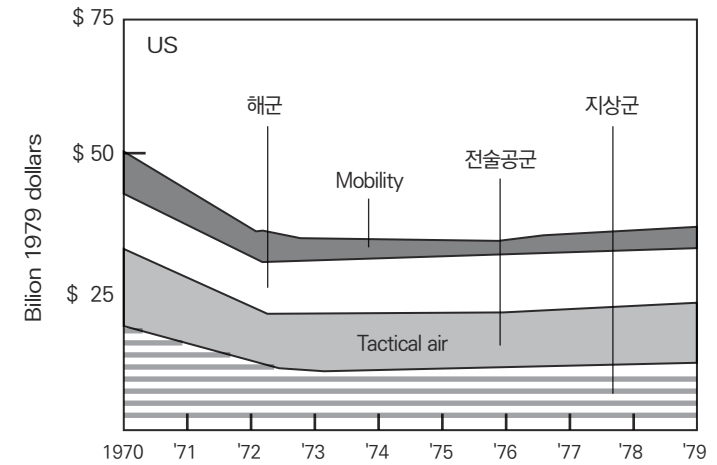
지난 10년간(年間) 소련전략방어군(蘇聯戰略防禦軍)이 쓴 경비(經費)는 전체 소련전략임무수행총경비(蘇聯戰略任務遂行總經費)의 약 반을 차지했다. 반면(反面) 미전략방어군비(美戰略防禦軍費)는 미전략군총경비(美戰略軍總經費)의 불과 15%를 차지했다. 10년 동안 소련전략방어군비(蘇聯戰略防禦軍費)는 1970년(年) 미국(美國)의 5배(倍)로부터 작년(昨年)에는 25배(倍)로 늘어났다.

소련(蘇聯)은 그들의 방공망(防空網)을 가일층(加一層) 개선(改善)하기 위(爲)해 새로운 세대(世代)의 요격전투기(邀擊戰鬥機)와 지대공(地對空)미사일을 개발(開發)할 것이므로 소련전

〈표(表) 2〉 미(美)·소(蘇) 대륙간공격무기(大陸間攻擊武器) 달러가(價) 지출대비(支出對比) (1970~1981)



〈표(表) 3〉 미(美)·소(蘇) 전군(全軍) 달러가(價) 지출대비(支出對比) (1970~1981)



략방어군비(蘇聯戰略防禦軍費)는 1980년대(年代) 초(初)에도 계속 증가(增加)될 것이다.

육(陸)·해(海)·공군(空軍) 및 기동군(機動軍)을 포함(包含)하는 전체 군분야(軍分野)에서 소련(蘇聯)은 미국(美國)보다 약 55%나 더 많은 경비(經費)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모함(航空母艦)과 부속항공기(附屬航空機)를 포함(包含)하는 미전술공군(美戰術空軍)의 활동비(活動費)는 1970년(年)부터 74년(年)까지는 떨어졌지만 그 이후(以後)에는 증가(增加)됐다. 소련전술공군비(蘇聯戰術空軍費)도 비슷하게 주기적(週期的)이지만 위로 상승(上昇)하는 양상(樣相)을 보였다. 70년대(年代) 말(末)까지 미전술공군비(美戰術空軍費)는 소련(蘇聯)보다 20%나 더 많다. 그러나 미항공모함(美航空母艦)과 그 부속항공기(附屬航空機)들이 포함(包含)되지 않는다면 소련(蘇聯)은 미국(美國)보다 1979년(年) 한해에는 35%, 지난 10년간(年間)은 45%나 더 쓴 셈이다.

해군(海軍)에서도 공격(攻擊) 및 다목적용(多目的用) 항공모함(航空母艦)과 부속항공기(附屬航空機)들을 제외(除外)하면 소련해군비(蘇聯海軍費)는 미국(美國)보다 약(約) 50%나 지난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 전력(戰力)이 포함(包含)되면 사정(事情)은 달라져 미해군비(美海軍費)는 소련(蘇聯)보다 지난해 최고(最高)인 20%, 그리고 전체 10년간(年間)은 5% 더 많았다.

후방지원군비(後方支援軍費)에서도 큰 변화(變化)가 있었다. 미국(美國)의 후방지원군활동비(後方支援軍活動費)는 10년(年) 동안 전체적으로 약(約) 20%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年)에 미후방지원군비(美後方支援軍費)는 소련(蘇聯)보다 ½나 많았지만 70년대말(年代末) 양국(兩國)은 똑같아졌다. 소련후방지원군비(蘇聯後方支援軍費)의 명백(明白)한 증가(增加)이유(理由)는 타임수행군(他任務遂行軍)의 성장(成長)에 따라 후방지원군(後方支援軍)의 규모(規模)를 확대(擴大)시킬 필요성(必要性) 때문이었다.

지리적(地理的)인 면(面)에서,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의 막대(莫大)한 대부분이 동(東), 서부(西部) 전선(前線)에 쓰이지만 소련국방비(蘇聯國防費)(RDT & E 경비제외(經費除外))의 10~15%는 주로 중공전선(中共前線)에 쓰이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중공전선군(中共前線軍)의 일부(一部)는 또한 기타 비상사태(非常事態)에 대처(對處)하는데 사용(使用)된다.

미군사동향보고서(美軍事動向報告書)가 CIA 통계(統計)를 부연(敷衍)해서 지적(指摘)한 바 “소련(蘇聯)의 계속(繼續)된 기간(期間) 동안 큰 폭의 국방비증가(國防費增加)로 소련(蘇聯)은 현재(現在) 미국(美國)보다 25~50% 더 많은 군사자산(軍事資產)을 갖고 있다. 이 차이(差異)는 1980년대(年代) 중반(中盤)에 가면 소련(蘇聯)쪽으로 40~60% 더 커질 것이다. 소련(蘇聯)은 지난 10년(年) 동안 미국(美國)보다 군사비(軍事費)를 더 썼을 뿐 아니라 투자(投資)도 더 했다.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높은 군사비(軍事費) 지출(支出)로 이룩된 소련군사력증강계획(蘇聯軍事力增強計劃)의 추진력(推進力)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에 있어 미국(美國)이 현재(現在) 취하고 있는 국방예산(國防豫算) 증대(增大)에도 불구하고 현재(現在)의 추세(趨勢)를 계속 보장(保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美國)이 국방예산(國防豫算)

을 크게 증가(增加)시키더라도 앞으로 수년내(數年內)에는 군사비(軍事費)의 「갭」을 메꿀 수는 없을 것이 예상(豫想)된다.”

## 소련전략군(蘇聯戰略軍)

어느 나라의 전략공격력(戰略攻擊力)도 승리(勝利)보다는 핵전(核戰)을 방지(防止)하도록 설계(設計)되어야 한다는 서방군사전문가(西方軍事專門家)들의 고매(高邁)한 생각을 신봉(信奉)하는 자(者)가 소련정치국(蘇聯政治局)이나 총참모부내(總參謀部內)에는 없다. 핵전(核戰)에서 승리(勝利)하겠다는 의지(意志)와 능력(能力)이 결여(缺如)된 핵전억제력(核戰抑制力)이란 빈약한 이유(理由)와 불충분(不充分)한 전력(戰力)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련(蘇聯)은 결코 이 개념(概念)에 찬성(贊成)하지 않는다. 소련(蘇聯)의 핵전략(核戰略) 및 전력구조(戰力構造)는 핵전(核戰)에서의 승리(勝利)가 재래전(在來戰)에서처럼 달성(達成)해야 할 필수적(必須的)인 것이라는 원칙(原則)에 못박혀 있다. 그러므로 소련전략군(蘇聯戰略軍)에게 중점적(重點的)으로 요구(要求)되는 것은 적당(適當)한 기간내(期間內)에 완전히 회복(回復)될 수 있는 충분(充分)한 잉여능력(剩餘能力)을 갖춘 지구상(地球上)에서 가장 강력(強力)한 생존국(生存國)으로 부상(浮上)할 것을 보장(保障)하겠다는 각오(覺悟) 속에 지구전(持久戰)을 수행(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배치(配置)됐거나 개발중(開發中)인 소련전략전력(蘇聯戰略戰力)도 이 원칙(原則)에 따른다. 소련전략공격군(蘇聯戰略攻擊軍)의 주전력(主戰力)은 ICBM, SLBM 폭격기(爆擊機)의 세력인데 이들은 각기 5천개(個) 이상(以上)의 병기(兵器)를 미목표(美目標)에 투여할 수 있다. 소련전략군(蘇聯戰略軍)의 주공격력(主攻擊力)은 약(約) 1,400기(基)의 ICBM(대륙간탄도유도탄(大陸間彈道誘導彈))과 불확실(不確實)하지만 틀림없이 많은 예비탄도탄(彈道彈)이 차지한다. 소련(蘇聯)의 ICBM전력(戰力)은 1975년(年) SALT I 협정(協定)에 따라 209기(基)의 구식(舊式) SS-7과 SS-8이 해체(解體)된 후(後) 수적(數的)으로 줄었다. 그러나 수적(數的) 감소(減少)는 병기성능(兵器性能)의 현대화(現代化)로 상쇄(相殺)되고도 남았다. SS-16, SS-17, SS-18, SS-19로 구성(構成)된 제(第)4대(代) ICBM들은 성능면(性能面)에서 크게 향상(向上)돼 매년(每年) 약(約) 150기(基)의 비율(比率)로 구식(舊式)병기(兵器)와 교체(交替)되고 있다.

이들 신형(新型) ICBM은 디지털컴퓨터, 발사후(發射後) 추진체(推進體)(Post-boost vehicles), MIRVs(SS-16은 제외(除外)) 등(等) 진보(進歩)된 유도(誘導) System을 갖고 있다. 사일로와 지휘통제시설(指揮統制施設)들도 3대(代) ICBM보다 훨씬 개선(改善)됐다. 4대(代) ICBM의 기본(基本) 특징(特徵)은 고도(高度)의 정확성(正確性), 큰 발사중량(發射重量), 많은 MIRV탄두(彈頭)수용력, 그리고 높고 빠른 경보반응율(警報反應率) 등(等)에 있다. 3대(代)로부터 4대(代) ICBM의 전환(轉換)으로 소련(蘇聯)은 약(約) 5,500개(個)의 탄두증가(彈頭增加)와 ½nm으로부터 낮게는 500피트까지 운반(運搬)할 수 있을 것이다.

〈표(表) 4〉 미(美)·소(蘇) 전략무기(戰略武器) 비교(比較)(1979~1980)

	JANUARY 1, 1979		JANUARY 1, 1980	
	US	USSR	US	USSR
<b>Offensive</b>				
Operational ICBM Launchers <sup>1,2</sup>	1,054	1,398	1,054	1,398
Operational SLBM Launchers <sup>1,3</sup>	656	950	656	950
Long-Range Bombers(TAI) <sup>4</sup>				
Operational <sup>5</sup>	348	156	348	156
Others <sup>6</sup>	221		225	
Force Loadings <sup>7</sup> Weapons.	9,200	5,000	9,200	6,000
<b>Defensive<sup>8</sup></b>				
<b>Air Defense</b>				
Surveillance Radars	99	7,000	88	7,000
Interceptors (TAI)	327	2,500	327	2,500
SAM Launchers	0	10,000	0	10,000
ABM Defense Launchers	0	64	0	64

〈표(表) 5〉 소련(蘇聯) 4대(代) ICBM들

Missile	SS-16	SS-17		SS-18			SS-19	
	★	About 150		More than 200			More than 200	
		Mod		Mod			Mod	
		1	2	1	2	3	1	2
Warheads	1	4	1	1	8/10	1	6	1
Maximum Range (km)**	9,200	10,000	11,000	12,000	11,000	16,000	9,600	10,100
Launch Mode	Hot	Cold	Cold	Cold	Cold	Cold	Hot	Hot
Fuel	Sol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2개(個)의 다른 변형(變形)인 Mod 1과 3은 18에서 25메가톤 출력(出力)을 갖는 단독탄두(彈頭)를 갖고 있다. SS-18은 발사형태(發射形態)가 Cold식(式) JCBM으로 주추진(主推進) 엔진이 불붙기 전(前)에 CEPs(예상원형오차)를 줄이는 정확성증대(正確性增大)를 얻게 되었다.

세계최대(世界最大) ICBM은 SS-18인데 이것은 발사중량(發射重量)이 Titan의 2배(倍), MinutemanIII의 6배(倍)나 된다. 이 유도탄(誘導彈)은 308기(基)의 구식(舊式) SS-9의 교체용(交替用)으로 지금까지 210기(基) 이상(以上)의 SS-18이 4개(個)의 다른 변형(變形)으로 배치(配置)되어 있다. Mod-4로 알려진 SS-18의 최신(最新) 변형(變形)은 불확실(不確實)하지만 틀림없이 일부가 약(約) 600킬로톤, 나머지는 약(約) 1메가톤의 탄두출력(彈頭出力)을 갖는 14개(個)의 탄두(彈頭)를 가스발생기(發生機)의 도움으로 사일로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기술(技術)은 미사일의 “Rattle space”를 줄이고 상승력(上昇力)을 증가(增加)시켜 이용(利用)할 수 있는 사일로 크기보다 미사일 크기를 증대(增大)시킨다. 더구나 이 Cold-launch기술(技術)은 Hot-launch보다 사일로에 Damage를 훨씬 적게 하고 부수(附隨)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時間) 안에 사일로의 재장전(再裝填)을 가능(可能)하게 한다. 이 재장전특징(再裝填特徵)은 미감시(美監視) 체제(體制)가 정확(正確)히 미사일 발사대수(發射臺數)는 셀 수 있지만 발사(發射)된 사일로의 재장전(再裝填)하여 사용(使用)하는 숨겨진 미사일 수(數)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重要)한 것이다.

SS-19는 미공군(美空軍)이 계획(計劃)한 MX이동(移動)미사일과 대략 같은 크기인데 발사중량(發射重量)은 「타이탄」 II와 같고 Minuteman III의 3배(倍)인 Hot-launch시스템이다. 이 미사일은 지금 약(約) 200기(基)가 배치(配置)돼 있는데 약(約) 600킬로톤의 탄두출력(彈頭出力)을 가진 6개(個)의 MIRV를 운반한다.

SS-17은 또하나의 Cold-launch시스템으로서 약(約) 150기(基)가 배치(配置)돼 있다. SS-19보다 다소 성능(性能)이 떨어지는 SS-17은 보통 600킬로톤급(級) 탄두(彈頭) 4개(個)를 운반하지만 단독탄두(彈頭)를 갖고 실험(實驗)된 하나의 변형(變形)이 있다. 서방전문가(西方專門家)들도 SS-19가 대략 같은 크기중(中) 더 우수(優秀)한 무기(武器)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SS-17이 대규모(大規模)로 배치(配置)된 점에 대(對)해서는 설명(說明)을 못하고 있다.

소련(蘇聯) 4대(代) ICBM중(中) 유일하게 고체연료(燃料)를 쓰도록 설계(設計)된 것이 SS-16인데 이것은 원래 기동성(機動性)있는 ICBM으로 개발됐다. 이 미사일의 현재(現在) 변형(變形)들은 다 1개(個)의 탄두(彈頭)를 운반하지만 MIRVs를 개조(改造)시킬 선택권(選擇權)을 주는 발사후추진체(發射後推進體)를 갖고 있다. 이 미사일의 실험(實驗)은 1974년(年)에 완성(完成)됐지만 이 System의 미래는 SALT II의 불확실성(不確實性)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SALT II협정(協定)은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으로 현재(現在) 담보상태에 있는데 이 협정(協定)은 소련(蘇聯)에게 SS-16미사일이나 또는 그 독특한 구성요소(構成要素)의 생산(生産), 실험(實驗), 배치(配置)를 못하도록 의무짓고 있다. 그러나 이 서약(誓約)은 틀림없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소련(蘇聯)은 현재(現在) 3단계추진(段階推進) SS-16보다 2단계(段階)나 적어서 SALT요건(要件)에 해당되지 않는 기동성(機動性)있는 MIRVed SS-20 중거리(中距離) 탄도(彈道) 유도탄(誘導彈)을 대량(大量)으로 배치(配置)하고 있다. 실제 양(兩)미사일들이 운반되는 「캐니스터」가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 질 수 있어 미국(美國)은 그들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입증(豫防立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소련(蘇聯)은 SS-16보다 2단계(段階) 높은 SS-21 MRBM(중거리탄도유도탄(中距離彈道誘導彈))을 개발(開發)하고 있다. 따라서 SS-16이나 그 독특한 구성요소(構成要素)를 모방(模倣)한 것의 생산(生産), 실험(實驗), 배치(配置)에 대(對)한 SALT II의 금지(禁止)는 웃음극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SS-16은 소련(蘇聯)에게 생존력(生存力)있고 기동성(機動性)있는 ICBM을 미국(美國)보다 수년(數年) 앞서 신속(迅速)하고 비밀히 배치(配置)할 선택권(選擇權)을 주고 있다. 합참(合參)이 지적(指摘)한 대로 소련(蘇聯)은 틀림없이 SS-16으로 기동성(機動性)있는 ICBM실험(實驗)을 계속할 것이다.

ICBM성능(性能)에 있어 앞서가는 소련(蘇聯)을 따라 잡을 전망(展望)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쳐서조차 밝지 못하다. 합참(合參)이 군사동향보고(軍事動向報告)에서 인정(認定)한 대로 303기(基)의 SS-18급(級) 현대식(現代式) 대형 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 부스터와 비교적 큰 SS-17과 SS-19부스터들로 소련(蘇聯)은 미국(美國)이 계획(計劃)한 MX전개후(展開後)에도 ICBM전력(戰力) 우위(優位)를 견지(堅持)할 것이 예상(豫想)된다.

### 잠수함발사유도탄(潛水艦發射誘導彈)(SLBM)

지금까지 소련(蘇聯)은 SALT I 한계(限界)인 950기(基)의 SLBM을 보유(保有)해 왔다. 이 숫자는 대략 미보유량(美保有量)의 1배반(倍半)이다. 이들 미사일들은 SALT감독하(監督下)에 있는 62척(隻)의 현대식(現代式) 「양키」 및 「델타」 SSBN(핵력함대탄도탄잠수함(核力艦隊彈道潛水艦))으로 운반된다. 그렇지만 이 밖에 25척(隻)의 핵(核), 또는 디젤발전(發電) 잠수함(潛水艦)에 전구핵병기(戰區核兵器)로서 SALT에 고려 안 된 Hotel과 Golf급(級) 탄도(彈道) 미사일 75기(基)가 더 있다. 미국(美國)의 찰스톤 S. C에 기항(寄港)한 미해군(美海軍)의 SSBN들에게 중대(重大)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쿠바의 Cienfuegos에 때때로 전개(展開)되는 이들 미사일이다.

현재(現在) 작전중(作戰中)인 62척(隻)의 현대식(現代式) SSBN 보다 더 많은 Delta III SSBN이 건설중(建設中)인 것으로 믿어진다. 소련(蘇聯)은 또한 Delta II보다 큰 Typhoon이라는 신형(新型) SSBN을 건조중(建造中)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신형(新型) SSBN용(用) 미사일은 현재 배치(配置)된 소련(蘇聯)의 최신(最新) SLBM인 4,050노티컬마일 사거리(射距離)의 MIRVed SS-N-18보다 더 클 것이 예상(豫想)된다. Typhcion SSBN용(用) 신형(新型) 미사일은 MIRVed이지만 고체(固體)보다는 액체추진연료(推進燃料)를 쓸 것이다.

현재(現在) 전개(展開)된 SLBM인 SS-N-18s와 4,800노티컬마일 사정(射程)의 SS-N-8S 대부분의 소련기항(蘇聯寄港)으로부터 미국목표(美國目標)에 발사(發射)될 수 있는 충분(充分)한 사정거리(射程距離)를 갖고 있다. 이 능력(能力)은 소련잠수함(蘇聯潛水艦)들이 일단 그들의 기항(寄港)인 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을 떠나기만 하면 그린란드-아일랜드-영국(英國)(GIUK)의 「갭」, 발틱해(海), 흑해 및 동해(東海)와 같은 미국(美國)과 NATO ASW군(軍)이 지키고 있는 「초크포인트」(목점)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중요(重要)한 것이다.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시베리안항(港)에 주둔(駐屯)한 잠수함(潛水艦)들은 직접 대양(大洋)으로 접근(接近)할 수 있지만 미해군청음진(美海軍聽音陣)에 의(依)해 모니터링되는 지역(地域)을 통과(通過)해야 하므로 쉽게 대잠전투병기(對潛戰鬪兵器)의 밥이 될 수 있다. 소련(蘇聯)의 신형(新型) SLBM들은 이제 막 재고품으로 들어가는 미국(美國)의 Trident(C-4) 미사일보다 사정거리(射程距離)와 Payload에서 우세(優勢)하다. 따라서 미국(美國)에 대(對)한 소련(蘇聯) SLBM의 위협은 계속(繼續) 증대(增大)될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차원(次元)의 소련잠수함위협(蘇聯潛水艦威脅)은 작전훈련중(作戰訓練中)에 실험(實驗)되는 많은 소련기술(蘇聯技術)들이 매우 진보(進步)되어 미전문가(美專門家)들이 관련원리(關聯原理)들을 이해(理解)하지 못한다는 점(點)에 있다. 또한 소련(蘇聯) Alpha잠수함(潛水艦)의 최근변형(最近變型)은 현존(現存)하는 혹은 계획(計劃)된 어떤 미잠수함(美潛水艦)보다 더 빨리 가고 더 깊게 잠수(潛水)할 수 있게 하는 티타늄선체(船體)와 정교(精巧)한 유체역학(流體力學) 및 진보(進步)된 조종장치(操縱裝置)를 사용(使用)하고 있다. 그래서 미정보전문가(美情報專門家)들은 소련(蘇聯)이 바야흐로 ASW와 SSBN기술(技術)에서의 미국(美國)의 우위(優位)를 따라잡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 소련장거리공군(蘇聯長距離空軍) (LRA)

장거리공군(長距離空軍)은 소련전역(蘇聯全域)에 걸쳐 3개(個)의 주공격사령부(主攻擊司令部)에 배치(配置)된 800대(臺) 이상(以上)의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로 구성(構成)된다. LRA군(軍)의 약(約) 75%는 NATO에 대(對)해 포진(布陣)되고 나머지는 중(中)·소공경(蘇國境)에 배치(配置)돼 있다. 약(約) 600대(臺)의 장거리(長距離) 및 중거리전략폭격기(中距離戰略爆擊機), 미사일 운반체(運搬體)들이 주공격력(主攻擊力)을 제공(提供)한다. LRA군(軍)에는 약(約) 100대(臺)의 「터어보프롭」 엔진 Bear폭격기(爆擊機)와 56대(臺)의 「터어보제트」 Bison 폭격기가 포함(包含)된다. SALT한계(限界)가 156대(臺)인데 소련(蘇聯)에는 이 밖에 50대(臺) 이상의 가변익(可變翼) Backfire 폭격기가 LRA와 해공군(海空軍)에 각각 더 있다. Backfire기(機) 생산(生産)은 매달 약(約) 2.5대(臺)꼴로 계속된다. SALT II에는 고려(考慮)되지 않았지만 Backfire의 항속거리(航續距離)는 Bison에 비교(比較)된다. 최대항속거리추정(最大航續距離推定)이 구구하지만 Backfire는 분명히 재급유(再給油)없이 미국(美國)과 다른 나라의 목표



(目標)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재급유(再給油)되면 이것은 소련극기지(蘇聯極基地)로부터 고고도(高高度), 아음속(亞音速)으로 미국(美國)을 왕복할 수 있다. 미공군(美空軍)의 추정(推定)에 따르면 재급유 안된 Backfire의 전투(戰鬥)반경은 약(約)2,950km인데, 재급유(再給油)되면 5,600km으로 늘어난다. 서방정보기관(西方情報機關)에 포착된 대부분의 Backfire가 재급유용(再給油用) 수유(受油)파이프를 갖고 있다. 급유기(給油機)로 이용(利用)할 수 있는 약(約)50대(臺)의 Bison기(機) 또는 1-76 Candid 제트수송기(輸送機)에서 파생된 신형(新型) 급유기(給油機)와 공동작전으로 Backfire기(機)는 상당한 항속거리(航續距離)를 연장(延長)할 수 있을 것이다.

LRA군(軍)의 중거리용(中距離用) 전력(戰力)에는 연락기 ECM/ELINT Badger기(機) 그리고 급유기(給油機)로 지원(支援)받는 약(約) 400대(臺)의 Badger기(機)와 Blinder기(機)가 포함(包含)된다.

미본토(美本土)에 대(對)한 주공중위협(主空中威脅)은 Bear기(機)와 Bison기(機)로부터 나온다. 4개(個)의 「터보프롭」 엔진을 가진 Bear기(機)는 장거리전략폭격기(長距離戰略爆擊機)의 최대전력(最大戰力)을 형성(形成)한다. 1980군사동향보고서(軍事動向報告書)에 따르면 Bear기(機)의 반 이상이 AS-3 「강가루」 공대지(空對地)미사일로 장비(裝備)되어 있다. 이 미사일은 약(約) 650km 사거리(射距離)에 약(約) 5메가톤 출력(出力)을 갖는 탄두(彈頭)를 운반한다. 동시(同時)에 Backfire기(機)는 AS-4 「키친」 미사일로 장비(裝備)됐는데 이 미사일은 약(約) 270km사거리(射距離)에 3~4메가톤급(級) 탄두(彈頭)를 갖고 있다. 게다가 1,000km에 초음속(超音速)으로 발사(發射)될 수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Backfire의 궁극적인 사용(使用)을 위해 개발됐다는 정보가 몇 가지 있다.

지난 수년간 소련(蘇聯)은 B-1과 비슷한 특징(特徵)을 가진 새로운 장거리폭격기(爆擊機)의 개발을 꾀해 왔다. 이미 여러개의 원형(原型)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들 중(中) 한 둘은 Tu-144 Soviet SST의 파생체(派生體)일 수 있다는 정황적(情狀的)인 증거(證據)가 있다. 이들 항공기(航空機)의 비행실험(飛行實驗)이 시작(始作)되지 않아서 항공기성능(航空機性能)에 관한 특별(特別)한 지식(知識)을 미(美)정보당국이 갖고 있지 않지만 군사동향보고서(軍事動向報告書)에 의(依)하면 이들 신형폭격기(新型爆擊機)의 배치(配置)는 1988년(年)이 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비록 SALT II 협정(協定)의 비준(批准)이 의문시되지만 소련(蘇聯)이 동협정(同協定)을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소련전략공격무기(蘇聯戰略攻擊武器)는 대략 다음과 같은 2,250기(基)(또는 대(臺))의 전략무기운반체(戰略武器運搬體)들로 이루어진다.

- 308기(基)의 SS-18형(型) “중(重) MIRVed” 미사일
- 510기(基)의 SS-17 또는 SS-19형(型) MIRVed 미사일
- 신형(新型)이 틀림없는 508기(基)미만의 단독 RVICBM
- 380기(基)의 SS-N-18형(型) MIRVed SLBMs
- 470기(基)대(臺) 이상(以上)의 단독 RVSLBMs와 폭격기(爆擊機)의 혼합체(混合體)

## 전략방어군(戰略防禦軍)

강력(強力)한 방어태세(防禦態勢)를 취(取)해온 소련(蘇聯)의 역사적(歷史的)인 배경으로 소련(蘇聯)은 전략방어분야(戰略防禦分野)에서 명백(明白)한 전력우위(戰力優位)를 누리고 있다. 소련방공군(蘇聯防空軍)은 약(約) 12,500기(機)의 지대공(地對空)미사일, 약(約) 7,000대(臺)의 감시(監視)레이다, 그리고 2,700대(臺)의 요격기(邀擊機)로 구성(構成)된다. 전시(戰時)에 이 군(軍)은 약(約) 4,500대(臺)의 전투기(戰鬥機)와 약(約) 4,200기(機)의 SAM으로 구성(構成)되는 전술방공군(戰術防空軍)의 몫으로 전력(戰力)을 증대(增大)시킬 것이다.

소련(蘇聯)의 주요격전력(主邀擊戰力)은 고고도(高高度) 및 중고도목표(中高度目標)에 대(對)한 포괄적인 능력을 제공한 다. 미그-23 Flogger와 미그-25 Foxbat는 지난 수년간 가장 널리 전개(展開)된 요격기(邀擊機)가 될 것이다. “B” 모델로 알려진, 향상(向上)된 레이다 성능(性能)과 강화(強化)된 저고도 요격능력(邀擊能力)을 갖춘 Flogger의 한 변형(變型)이 최근(最近) 배치(配置)되고 있다.

Su-15 Flagon이 방공력(防空力)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Su-9 Fishpot, Yak-28 Firebar, Tu-128 Fiddler, MIG-19 Farmer, MIG-17 Fresco같은 구식항공기(舊式航空機)가 소련방공력(蘇聯防空力)의 약(約) 30%를 점(占)하고 있다.

현재(現在) 소련방공능력(蘇聯防空能力)은 정교한 저공감시(底空監視) 레이다를 가진 조기경보기의 결여(缺如)로 절름발이 상태(狀態)에 있다. 그러나 미공군(美空軍)의 E-3A AWACS에 버금가는 조기경보기(早期警報機)가 개발(開發)됐다는 증거가 있다.

소련(蘇聯)본토 지대공(地對空)미사일 방어군(防禦軍)은 장거리(長距離) 고고도방어용(防禦用) SA-5 Gammon, 저고도방어용(防禦用)의 SA-3 Goa, 그리고 중거리(中距離) 중(中)고도防禦用 SA-2 Guideline 미사일로 구성(構成)돼 있다. 또한 한정된 수(數)의 SA-1 Guild급(級) 구식(舊式)미사일들이 모스크바 주위를 방어(防禦)하려고 아직 남아 있다.

소련(蘇聯) SAM군(軍)은 SA-5미사일 추가배치(配置)와 SA-3의 개선(改善)된 변형(變型)의 도입으로 현대화(現代化)되고 있다. 게다가 크게 진보(進步)된 SA-X-10 전략지대공(戰略地對空)미사일이 실험(實驗)을 끝내고 배치중(配置中)에 있는데 이것은 크루즈 미사일 방어용(防禦用)에 적합(適合)한 것으로 보인다.

탄도(彈道)미사일방어(防禦)(BMD)분야(分野)에서도 소련(蘇聯)은 분명히 미국(美國)에 앞서 있다. 소련(蘇聯) BMD군(軍)은 Hen House조기경보(早期警報)레이다, Dog House 및 Cat House전투제어(戰鬥制御)레이다 그리고 Try Add 교전(交戰)레이다로 구성(構成)된다. Galosh-1b요격체제(邀擊體制)는 모스크바 부근에 배치(配置)돼 각기 16개(個)의 발사대(發射臺)를 갖춘 4고(固)의 콤플렉스로 이루어진다. 각(各) 콤플렉스는 사이트마다 2개(個)의 대형추적레이다, 4개(個)의 소형요격기(邀擊機)추적 및 유도레이다를 갖춘 Try Add교전(交戰)레이다 사이트를 2개씩 갖고 있다. Galosh는 수백마일 사정거리(射程距離)에 1~2메가톤급 핵탄두를

운반한다. 소련(蘇聯)이 현재전개(現在展開)된 64개체제(個體制) 이외의 요격기발사대를 증가할 계획(計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현재의 조기경보(早期警報) 및 전투제어레이다를 향상(向上)시키고 Hen House조기경보망(早期警報網)을 확장(擴張)시키고 있다. 또한 소련(蘇聯)은 레이더개선(改善)과 새로운 요격기미사일의 연구(研究) 개발(開發)을 강화(強化)하고 있다. 소위 4개(個)의 X3 BMD전투제어(戰鬪制御)레이더들이 소련 외부(蘇聯外部)에 배치(配置)된 진보(進歩)된 레이더와 컴퓨터능력(能力)을 통어(統御)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형(新型)레이더들은 구(舊) System과 함께 전(前)보다 좋은 목표조작(目標操作)과 충돌예보(豫報)를 할 것이 틀림없다.

### 씩트는 민방위력(民防衛力)

소련(蘇聯)은 민방위(民防衛)를 전체군사전략(軍事戰略)의 통합체(統合體)로 다룬다. 만일(萬一) 전쟁(戰爭)이 일어나면 다른 수단과 함께 민방위(民防衛)를 통(通)해 자국(自國)의 생존(生存)을 보장(保障)하고 소련(蘇聯)을 상대방(相對方)보다 더 강력(強力)한 전후(戰後)위치를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방위(民防衛)는 계속되는 군사작전(軍事作戰)동안 병참(兵站)기능을 유지하고, 제한된 인적(人的), 물적(物的)손실을 돕고, 핵전의 영향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이다.

민방위활동(民防衛活動)은 소련정부(蘇聯政府) 및 경제구조(經濟構造)에 있는 10명(名) 이상(以上)의 전담자로 구성되는 전국 민방위조직(組織)에 의(依)해 지시(指示)된다.

소련(蘇聯)민방위 계획(計劃)의 한가지 주목적(主目的)은 핵전(核戰)에서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의 생존(生存)을 보장(保障)하는 것이다. 적어도 소련 지도층 110만명(萬名)을 위(爲)한 초강력병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체 민간노동력의 20~24%에게도 높은 수준의 보호(保護)가 주어진다. CIA보고(報告)에 따르면 “불과 수시간의 경보에 의(依)한 공격(攻擊)의 경우에도 많은 퍼센트의 지도층(指導層)이 살아 남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무제한의 핵전(核戰)으로부터 사상자(死傷者)는 1억(億), 최상(最上)의 경우(境遇)에는 수천만 명(名)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생산자원(經濟生産資源), 특(特)히 공업(工業)의 생존(生存)을 보장(保障)하는데 관계된 소련민방위계획(蘇聯民防衛計劃)의 효과(效果)는 괜찮은 편이다.”

### 증하는 소련전구핵군(蘇聯戰區核軍) (TNFs)

소련군사노선(蘇聯軍事路線)은 유럽에서 군사적(軍事的) 충돌(衝突)이 핵전(核戰)을 가증(加增)시킬 것이라는 교리(敎理)와 일치된다. 소련전구핵군(戰區核軍)의 비대한 성장(成長)도 이 노선(路線)의 결과(結果)다. 소련(蘇聯)의 TNFs군(軍)에 할당된 중요임무중(重要任務中)의 하나가 빠르고 선수권(先手權)을 가진 NATO TNFs과괴에 있지만 3,000마일 이상(以上) 사정

거리를 가진 IRBM인 기동성(機動性)있는 MIRVed SS-20의 연구 및 대대적인 배치(配置)가 이 군(軍)의 기본방향이 공격적(攻擊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배치(配置)된 300기(基) 외에 각각(各各) 500킬로톤급 탄두 3개를 가진 SS-20미사일 약(約) 1,200기(基)가 계획(計劃)되고 있다. 현재(現在) 배치(配置)된 미사일 약 반이 NATO목표(目標)에, 나머지 반이 중동(中東)·중공(中共)·일본(日本)의 목표(目標)에 포진(布陣)하고 있다. SS-20의 증대(增大)는 거의 20년(年)된 구식(舊式) SS-4 「센달」과 SS-5 「스케안」 중거리탄도탄(中距離彈道彈)과 교체(交替)하기 위(爲)해서다.

소련내(蘇聯內)사이트에서 전서구(全西區)를 위협(威脅)할 수 있는 SS-20 미사일은 각각(各各) 9개(個)의 발사관(發射管)을 갖고 있는 35개(個) Launch 콤플렉스속에 배치(配置)돼 있다. 차례차례로 각발사(各發射) 대(臺)는 3개(個)미사일을 재장전(再裝填)할 수 있어 약(約) 1,200기(基)의 미사일을 더 갖는 셈이다. SS-20은 미국(美國)의 감시 통제(統制)에 아랑곳 없는 고도로 기동성(機動性)있는 체제(體制)로 미정보(美情報)기관에서 평가한다. 이 미사일은 어떤 사전(事

〈표(表) 6〉 미(美)/NATO와 소련지상기지(蘇聯地上基地) 전구핵무기(戰區核武器) 비교(比較)

Strike Inventory						
		Missile Range		Mid-1980s		
		Aircraft Radius (km)		1980	(Estimated)	
				Weapon		
		Total	European	Total	European	per
		Worldwide	Theaterb	Worldwide	Theaterb	Systemc
<b>Soviet</b>						
SS-20 Launchers	4,400	100	60	250~300	e	3
Backfire Bombers <sup>d</sup>	4,200	60	40	100~150	e	4
Older Missile Launchers	1,900~4,100	450	450	50~?f	50~?f	1
Older Bombers <sup>d</sup>	2,800~3,100	450	350	350	300	2
<b>NATO</b>						
UK Vulcan Bombers	2,000	56	56	0	0	?
US F-111 DCA	1,800	365	170	254	166	2
US GLCMg	2,000	0	0	464	464	1
US Pershing II <sup>g</sup>	1,000	0	0	108	108	1

前) 감시 안된 사이트로부터 발사(發射)될 수 있고 생존력(生存力)도 높은 것으로 평가(評價)된다.

소련(蘇聯) TNFs는 무유도(誘導) Frog 전술로켓, 160노티컬마일 사정(射程)의 Scud, 500 노티컬마일사정(射程) Scaleboard도 포함(包含)한다. 2개(個) 신형체제(新型體制)인 SS-21과 SS-22가 재고(在庫)되고 있어 조만간 Frog와 Scaleboard를 대체(代替)할 것이 예상(豫想)된다.

소련(蘇聯)은 또한 현대식 2중성(重性)있는 전투, 폭격기(爆擊機)로 그들의 핵무기(核武器) 수송능력(能力)을 크게 증가(增加)시켰다. 최근(最近)의 Fencer, Flogger 및 Fitter기(機)는 생존력(生存力)도 좋고 사정(射程)거리와 Payload도 증가(增加)돼서 NATO후방 깊숙한 목표(目標)까지 핵위협(核威脅)을 증대(增大)시키고 있다. 게다가 소련은 전구핵전임무(戰區核戰任務)에 약(約) 500대(臺)의 Badger와 Blinder 장거리폭격기(爆擊機) 뿐 아니라 Backfire기(機)까지 이용(利用)할 선택권(選擇權)을 갖고 있다.

소련해군(海軍)도 전(全) 유럽목표를 강타(強打)할 수 있는 핵무장(核武裝)된 탄도(彈道)미사일로 TNF군(軍)에 가세(加勢)할 수 있다. 기타 해공(海空), 해상(海上), 해저(海底) 플랫폼에서도 크루즈미사일, SAMs, ASW수중폭탄(水中爆彈) 및 로켓, 어뢰, 함포(艦砲) 등(等)을 통(通)해 다양한 핵무기(核武器)를 발사(發射)할 수 있다. 소련(蘇聯)과 바르샤바조약군의 방사능전(戰) 수행(遂行)을 위(爲)한 훈련(訓練)은 심각한 것이다.

### 소련지상군(蘇聯地上軍)

소련지상군(蘇聯地上軍)은 약(約) 180만(萬)으로 소련내(蘇聯內) 16개(個) 군구(軍區), 동구(東區)의 4개집단군(個集團軍), 몽고 1군(軍)으로 조직(組織)된다. 지상군(地上軍)의 주전술부대(主戰術部隊)는 24군(軍), 10군단(軍團), 173개사단(個師團)으로 편성돼 있다. 소련지상군사단(蘇聯地上軍師團)의 ⅓는 각기(各其) 1만(萬)2천(千)의 병력(兵力)을 가진 자동(自動)소총사단(師團)이고 나머지는 공수사단(空輸師團)과 전차사단(戰車師團), 그리고 포사단(砲師團)으로 구성(構成)돼 있다.

소련지상군(蘇聯地上軍)은 지난 70년(年) 이래(以來) 약(約) 20만(萬)의 병력(兵力)과 22개사단(個師團)이 증가(增加)됐다. 또한 새로운 장갑체제(裝甲體制)가 많이 도입됐고 재래(在來) 전수행능력(戰遂行能力)도 신형포(新型砲), 대전차유도탄(對戰車誘導彈), 대공무기(對空武器), 도하장비(裝備), 소형무기(武器), 장갑수송(裝甲輸送)차량 등(等)의 추가배치(追加配置)로 강화(強化)됐다.

바르샤바조약군(條約軍)은 NATO지역(地域)에 약(約) 4만(萬) 5천대(千臺)의 경(輕), 중(中), 중전차(重戰車)를 보유(保有)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T-62로 미국(美國)의 최신(最新) M-60전차(戰車)에 비교(比較)된다. 이밖에 더 새롭고 진보(進步)된 T-64 및 T-72전차(戰車)가 대량(大量)으로 배치중(配置中)에 있다.

### 전선공군(前線空軍)(Frontal Aviation)

지난 수년간 새로운 현대식(現代式) 항공기(航空機)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소련(蘇聯)은 전선공군(前線空軍) 다방면(多方面)의 전투력(戰鬥力)을 향상(向上)시켰다. 이들 신형 항공기(航空機)는 IR유도(誘導)미사일 및 스마트폭탄 같은 현대식(現代式)병기를 갖고 있다. 전선공군(前線空軍)은 4백(百) 30대(臺)의 전투훈련기(戰訓訓練機)를 제외(除外)한 약(約) 4천(千) 7백대(百臺)의 고정익항공기(固定翼航空機)를 갖고 있다.

소련(蘇聯)신형전투기(戰訓機)들은 적어도 최대(最大)속도가 7백(百)노트(1,295km/시)에 약(約) 15km사정(射程)의 공대공(空對空)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전투(戰訓) 반경은 5백(百)노티컬마일을 넘는다. 소련대지공격기(蘇聯對地攻擊機)들은 약(約) 3백(百)노티컬마일 반경에 4천(千)파운드의 Payload를 갖고 있다. 보다 단거리에서 이들 전투기(戰訓機)들은 1만(萬)파운드의 폭탄과 로켓 유도(誘導)미사일을 발사(發射)한다.

대대적인 현대화계획(現代化計劃)으로 전선공군(前線空軍)(EA)의 전투력(戰鬥力)이 강화(強化)되고 있다. FA의 전요격기(全邀擊機)와 대지공격기(對地攻擊機)의 75%가 지난 10년내(年內) 소개(紹介)된 항공기(航空機)들이다.

약(約) 5,500대(臺)의 소련(蘇聯)헬리콥터군(軍)도 성장(成長)과 현대화(現代化)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이 중(中) NATO에 대(對)해 배치(配置)된 대지공격(對地攻擊)헬기(機)들의 현대화(現代化)가 특(特)히 강조(強調)되고 있다. 여러가지 신형(新型) 고성능(高性能)헬기(機)들이 개발돼서 멀리서도 목표(目標)를 강타(強打)할 수 있다.

소련(蘇聯)은 현재(現在) 전선공군(前線空軍)의 대지공격력(對地攻擊力)을 향상(向上)시키기 위(爲)해 보다 정교한 다목적(多目的) 항공기개발(航空機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수송공군(輸送空軍)(Military Transport Aviation)

소련공군(蘇聯空軍)에 종속(從屬)된 3개사령부중(個司令部中) 하나인 소련수송공군(蘇聯輸送空軍)(VTA)의 화물운반력(運搬力)은 약(約) 20미터톤(20,000kg)의 적재량을 가진 중거리용(中距離用) 터보프롭 4엔진의 An-12 Cubs기(機)가 거의 대부분인 약(約) 700대(臺)의 중(中) 및 중수송기(重輸送機)가 제공하고 있다. 보유(保有) 중(中)인 최대수송기(最大輸送機)는 An-22 Cook기(機)로서 전차(戰車)같은 특대형화물(大型貨物)을 포함(包含)한 80미터톤 Payload를 운반(運搬)할 수 있는 장거리용(長距離用) 터보프롭엔진 항공기(航空機)다.

VTA의 최신항공기(最新航空機)는 Il-76 Candid기(機)로서 현재(現在) 120대(臺)가 취역중이다. 소련(蘇聯)의 유일한 항공사(航空社)인 Aeroflot소속기(所屬機)들도 전시(戰時) 또는 비상시(非常時)에 군수송력(軍輸送力)을 증대(增大)시킨다. 승무원들은 동원군사훈련(動員軍事訓練)을 받는다.

Aeroflot의 1,300대(臺) 중거리(中距離) 및 장거리항공기(長距離航空機) 대부분이 후미(後尾)적재특징(特徵)을 갖지 않아서 그들은 대형차량은 운반할 수 없고 따라서 소형장비(裝備)와 병력수송(兵力輸送)에 한정(限定)된다.

## 해군(海軍) (Naval Forces)

연안방어용에서 세계최강(世界最強) 중의 하나로까지 소련해군(蘇聯海軍)의 비교적(比較的) 빠른 발전(發展)은 많은 수의 소형, 단순형 배로부터 보다 크고 성능좋은 배로의 정책(政策)변환을 통(通)해 달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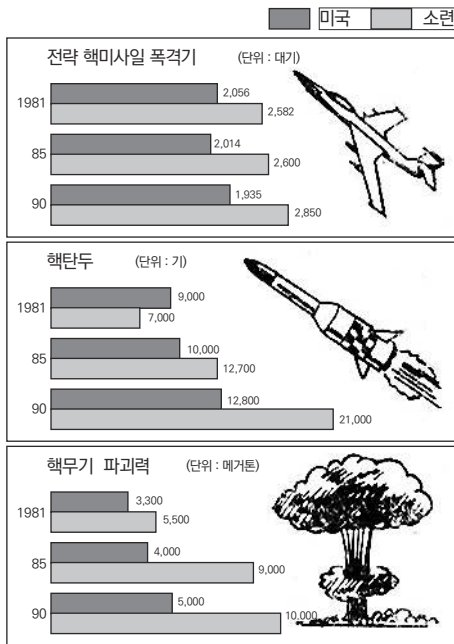
소련해상군(蘇聯海上軍)은 2척(隻)의 키에프급항공모함(航空母艦)(또 한척이 최근(最近) 진수(進水)되었음), 2척(隻)의 모스크바급(級) 순양함, 25척(隻)의 미사일순양함, 10척(隻)의 포(砲)순양함, 36척(隻)의 유도미사일로 장비된 구축함, 35척(隻)의 재래식 구축함, 163척(隻)의 프리게이트함(艦)(1943년형 대잠수함용(對潛水艦用)) 소형구축함)으로 구성(構成)된다. 소련(蘇聯)해군은 또한 270척(隻)의 다목적 잠수함(多目的潛水艦)과 약(約) 90척(隻)의 수륙양용선(水陸兩用船)을 자랑하고 있다.

소련함선(蘇聯艦船)들은 전반적으로 서방함선(西方艦船)보다 중무장(重武裝)되어 훨씬 더 많은 포(砲)와 재래식(在來式) ASW 병기(兵器)를 갖고 있다.

소련함선(蘇聯艦船)들은 장기전(長期戰)보다는 단기(短期), 집중(集中) 교전(交戰)에 유리(有利)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해공군(蘇聯海空軍)은 다양한(多樣)한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는 약(約) 1,320대(臺)의 항공기(航空機)로 구성(構成)된다. 대함(對艦)미사일로 장비(裝備)된 약(約) 300대(臺)와 배제기(機)와 블라인더기(機)가 대함주공격력(對艦主攻擊力)을 이룬다. 약(約) 50대(臺)의 대함용(對艦用) 백파이어폭격기(爆擊機)들이 최근(最近) 배치(配置)됐고 모함(母艦)에 기지(基地)를

미(美)·소(蘇) 핵전력(核戰力) 비교 및 추세(趨勢)



※ 1980년대(年代) 미(美)·소(蘇) 핵전력(核戰力) 추세(趨勢)

둔 많은 수의 Forger V/STOL기(機)와 Fitter 지상기지기(地上基地機)들이 해군공격용(海軍攻擊用)으로 할당되었다.

소련해공군(蘇聯海空軍)은 약(約) 130대(臺)의 연락기와 약(約) 80대(臺)의 Badger 급유기(給油機)로 지원(支援)받는다. 그밖에 ASW임무(任務)에 할당된 370대(臺)의 항공기(航空機)와 헬기(機), 290대(臺)의 수륙양용기(水陸兩用機), 수송기(輸送機) 및 훈련기(訓練機)가 해군(海軍)을 보강(補強)하고 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이 전세계(全世界)에 걸쳐 증강(增強)되고 있는데 이처럼 패권주의(霸權主義)를 향(向)한 소련(蘇聯)의 돌진(突進)으로 야기될 1980년대(年代)의 전조(前兆)는 무엇인가?

만일(萬一) 미합참(美合參)의 평가(評價)가 옳다면 소련(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侵攻)은 세계패권(世界霸權)을 장악하기 위(爲)한 시합에서 1980년대(年代)의 1회전(回戰)을 알리는 시작(始作)중에 불과한 것이다.

### 《명장(名將) 명언(名言)》

전쟁(戰爭)에서 성공하는 사(四)분의 삼(三)은 정신적(精神的) 요소(要素)에 기인하고 사(四)분의 일(一)만이 물자(物資)에 좌우된다.

- 나폴레옹 -

절대로 진지(陣地)를 양보하지 말라!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없었던 진지를 재 탈환하는 것보다 몇 갑절의 희생(犧牲)을 적게 하기 때문이다.

- 팻튼 -

용기(勇氣)는 모든 군사활동(軍事活動)을 성공(成功)시키는 기초(基礎)이다.

- 맥아더 -

## 고려명장(高麗名將) 강감찬(姜邯贊)

편집실(編輯室)

강감찬(姜邯贊)의 처음 이름은 은천(殷川)이요, 본관은 금주(衿州)(공주)이다. 그의 5대조 여청(餘淸)이 신라 때에 시흥군(始興郡)으로 와서 살았는데, 이곳이 곧 금주(衿州)다. 그의 아버지는 궁진(弓珍)인데 고려 태조(太祖)를 섬겨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 되었다.

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이한 계략이 많았다. 성종조(成宗朝) 때 갑과(甲科) 제1인(人)에 뽑혔고, 벼슬이 여러 번 옮겨져 예부시랑(禮部侍郎)이 되었다. 현종(顯宗) 원년(元年)에 계단(契丹)(거란) 임금이 스스로 장수가 되어 평양을 공격해 와서 우리 군사가 패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때 여러 신하들은 항복하자는 의견들이었으나 감찬은 홀로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그 죄가 강조(康兆)에게 있으니 벌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적은 군사로서 많은 적을 대항할 수 없으니, 마땅히 적의 예봉(銳鋒)을 피했다가 서서히 회복을 도모할 것입니다」 했다.

이에 왕을 권하여 남쪽으로 거동하게 했다. 2년에 국자제(國子祭)(醜)주(酒)가 되었다가 다시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옮기고 중추사(中樞使)가 되었다. 이 때 사직단(社稷壇)을 수리할 것을 청하여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짓게 했다. 다음에 이부상서(吏部常書)로 벼슬이 끝났다. 감찬은 본래 발 12결(結)이 개령현(開寧顯)에 있었는데, 왕에게 아뢰어 이것을 군호(軍戶)에 주도록 했다.

9년에는 서경유수(西京留守) 내사시랑(內史侍郎) 동내사문(同內史門) 하평장사(下平章事)가 되었다. 이때 왕이 손수 사령장을 써서 주면서, 「경술년에 오랑캐의 난리가 일어나 적병이 한강가에까지 들어왔었는데, 당시 강공(姜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오랑캐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했다. 이것을 당시 세상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여겼다.

거란의 소배압(蕭排押)이 침입해 왔을 때, 그들 군사의 수가 10만 명이라고 떠들었다. 이 때 감찬은 서북면(西北面)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로 있었는데, 왕은 그를 상원수(上元帥) 대장군(大將軍)에 임명하고 강민첨(姜民瞻)으로 부장(副將)을 삼고, 내사사인(內史舍人) 박종검(朴從儉)과 병부랑중(兵部郎中) 유참(柳參)을 판관(判官)으로 삼아, 군사 20만 8천 3백 명을 거느리고 영주(寧州)(안주(安州))에서 흥화진(興化鎭)(의주군(義州郡) 함원면(咸遠面))에까지 주둔했다. 여기에서 다시 기병(騎兵) 1만 2천명을 뽑아서 산골짜기 속에 매복(埋伏)시키고, 긴 새끼

에 쇠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큰 내를 막고 기다리고 있었다. 적병이 도착하자 막았던 냇물을 트고 복병(伏兵)이 내달아 크게 깨쳤다. 배압(排押)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경성(鏡城)으로 달아나자 강민첨(姜民瞻)이 뒤를 쫓아 자주(慈州) 내구산(來口山)에서 또 크게 깨쳤다. 또 시랑(侍郎) 조원(趙元)은 마탄(馬灘)에서 공격하여 적병 만여 명을 죽였다.

이듬해 정월에 거란 군사가 서울을 침략한다 하자 감찬은 병마판관(兵馬判官) 김종현(金宗鉉)을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빨리 가서 지키게 했다. 또 동북면(東北面) 병마사(兵馬使)도 역시 군사 3천 3백 명을 보내어 이를 후원했다. 이 때 거란은 군사를 돌려 연천(連川), 위주(渭州)에 이르렀다. 감찬 등은 이를 엄습해서 적병 5백여 명을 베었다. 2월에 거란 군사가 구주(龜州)를 지나게 되었다. 이 때 감찬 등은 동쪽 들에서 맞아 싸웠는데 양쪽 군사가 서로 버티고 있어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종현(宗鉉)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 들어가니, 갑자기 풍우(風雨)가 남쪽에서 일어나서 깃발들이 북쪽을 향했다. 우리 군사는 이 형세를 타고 힘껏 싸우니, 용기가 배나 생겨 거란 군사들은 패해 도망했다. 우리 군사는 그 뒤를 쫓아 쳐서 석천(石川)을 지나 반령(盤嶺)에 이르렀는데, 적의 시체가 들에 널려 있고, 포로로 잡은 군사와 마필(馬匹), 그리고 병기는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때 적군으로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거란이 이렇게 크게 패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거란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어 배압(排押)을 책망했다.

「네가 적을 경솔히 여기고 깊이 들어 갔다가 이 꼴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느냐? 짐(朕)은 마땅히 네 낮가죽을 벗겨 죽일 것이다.」

감찬이 3군을 거느리고 개신해 돌아와서 포로를 바치자, 왕은 친히 영파역(迎波驛)에 나와 맞고, 비단으로 누각을 만들어 음악을 갖추어서 장사(壯士)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 자리에서 왕은 친히 금으로 만든 꽃을 감찬의 머리에 꽂아 주고 왼손으로는 감찬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고서, 감찬을 위로하고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감찬은 절하고 감사해하기를 마지 않으니, 드디어 이 역 이름을 고쳐서 흥의(興義)라 하고, 역리(驛吏)들에게 관대(冠帶)를 하사하고, 고을 관리들에게도 모두 상을 주었다.

감찬이 글을 올려, 늙었기 때문에 벼슬을 내놓겠다고 청했으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계장(几杖)을 하사하고, 사흘에 한 번씩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고, 그에게 검교태위(檢校太尉) 문하시랑(門下侍郎) 동내사문하평장사(同內史門下平章事) 천수현개국남(天水顯開國男)의 칭호(稱號)를 더해주고 식읍(食邑) 3백 호(戶)를 내렸다. 그리고 추충협모(推忠協謀) 안국공신(安國功臣)의 칭호를 내렸다.

11년에 감찬은 또 글을 올려 벼슬을 내놓겠다고 정하니 왕은 이를 윤택하고, 특진검교태전성(特進檢校太傳城) 천수현개국자(天水顯開國子)의 칭호를 더 내리고 식읍(食邑) 6백 호를 주었다. 감찬은 서울에 성곽이 없으므로 나성(羅城)을 쌓도록 청하자, 왕은 이를 좃아 왕사도(王司道)를 시켜 성을 쌓게 했다.

21년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을 배(拜)했다. 덕종(德宗)이 즉위하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추충협모(推忠協謀) 안국봉상공신(安國奉 upper功臣) 특진검교태사시중(特進檢校太師侍中) 천수군개국후(天水郡開國侯)의 벼슬을 제수하고 식읍 1천 호(戶)를 내렸다. 얼마 후에 감찬이 죽으니 나이가 84세였다. 3일 동안 조회를 폐지하고 시호를 인헌(仁憲)이라 내렸다. 왕은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회장(會葬)하고 조상하게 했으며, 부의를 내리는 것을 한결같이 시중(侍中) 유진(劉璿)에게 하던 예(禮)와 같이 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어느 사신이 시흥군(始興郡)에 들어가다 보니 큰 별이 어떤 민가(民家)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 보게 했더니, 여인이 사내 아기를 낳았더라고 한다. 사신은 마음 속으로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이가 바로 강감찬(姜邯贊)이었다고 한다.

감찬이 정승이 된 뒤에 송(宋)나라 사신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그를 보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 절을 하고는,

「문곡성(文曲星)을 뵈은 지 오래 되었더니 이제 이곳에 계십니까?」

했다고 한다.

감찬은 성질이 청아하고 검소하여 산업(産業)을 경영하지 않고, 몸질은 작은데다가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보통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서서 큰 일을 처리하고, 온 계획을 결정 지을 때에는 뚜렷한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다. 이 때 곡식은 풍성하고 백성은 편안하여 안팎이 태평하니, 사람들은 이를 감찬의 공이라 했다.

벼슬을 내놓고 성 남쪽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와서는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과 「구선집(求善集)」을 저술했다.

뒤에 현종(顯宗)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문종(文宗)은 수태사겸 중서령(守太師兼 中書令)을 증직했다.

## 우리는 대한국군

모기윤 작사

김희조 작곡



영 광 된 조국앞에 자랑스런 우리용사  
 땅 에서 바다에서 높고 푸른 하늘에서



나 라 위 한 보 략 에 의 기 도 드 높 다  
 필 승 의 굳 은 신 념 태 양 보 다 뜨 겁 다



살 아 서 겨 레 의 꽃 죽 어 서 겨 레 의 별  
 늠 림 한 우 리 위 품 충 정 에 불 타 오 니



장 하 다 새역사의 선봉에 선 대한의 건 아  
 애 국 애 족 붉은정열 내 나라에 바 치 리 라  
 (후렴)



아! 우 리 는 용 감 한 대 한 의 국 군



빛 내 리 내 조 국 영 원 무 궁 빛 내 리

## 은익의 노래

조지훈 작사  
김성태 작곡

힘차게



국 토 - 를 지 키 려 는 원 이 몽 - 처 서  
하 늘 - 을 지 키 려 는 원 이 몽 - 처 서



하 늘 높 이 떴 지 어 솟 아 오 - 르 - 니  
죽 음 으 로 맹 세 코 날 개 를 - 펴 - 니



그 이 름 도 아 름 답 다 창 공 의 용 사  
그 모 습 도 믿 어 울 다 창 공 의 용 사



해 - 동 청 보 라 매 - 가 바 람 을 - 탄 - 다  
검 은 구 름 헤 - 치 - 며 웃 으 며 - 간 - 다



하 늘 에 살 아 서 높 아 저 라 이 상 아  
하 늘 에 살 아 서 넓 어 저 라 도 량 아



희 망 에 빛 나 는 아 - 은 빛 날 개 다  
정 의 에 빛 나 는 아 - 은 빛 날 개 다

## 보라매의 꿈

정훈감실 작사  
여 대 영 작곡

즐겁게



1. 기 상 의 나 팔 소 리 나 - 를 깨 우 고  
2. 출 격 의 요 동 소 리 지 - 축 흔 들 고



우 령 찬 폭 음 소 리 삼 천 만 을 깨 우 - 네  
폭 음 이 메 아 리 처 하 - 늘 - 지 킨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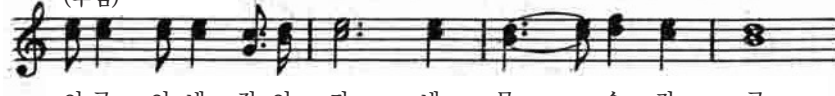


질 푸 른 하 늘 위 에 하 안 줄 무 닉 -  
오늘 도 나 른 - 다 저 하 늘 높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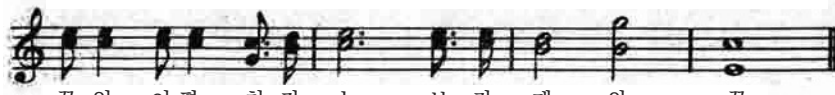


오늘 도 우 리 - 는 하 - 늘 - 에 산 - 다  
오늘 도 나 른 - 다 저 - 하 - 늘 높 - 이

(후렴)



이 곳 이 내 집 이 다 내 목 - 숨 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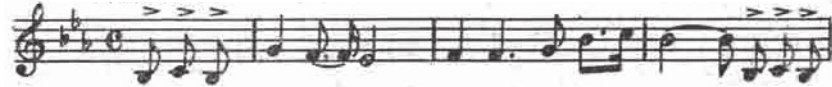


끝 없 이 펼 처 지 는 보 라 매 의 꿈

## 비행 행진곡

최용덕 작사  
김성태 작곡

대담하게



1. 씩씩한 이 나라에 대한 의아 - 들 - 빛나는  
2. 용감한 젊은이 대한 의아 - 들 - 하늘도



배달문화 전통을 잇 - 고 - 새로운  
좁을 세라 용솟는 의 - 기 - 날썩인



자유낙원 건설하고 자 - 기록한 싸움터에 이 몸 바쳤  
애기에 - 몸을 싣고 서 - 오늘도 날고 나뭇푸른 하늘

(후렴)



네 - 저 하 - 날 - 넓은 들에 날  
로 - 하 늘 - 은 - 우리 들의 영



개 - 쳐 - 가 세 막 힘 이 있 - 을 -  
원 - 한 - 소 망 하 늘 은 우리 들 -



까 위 로 - 아 래 로 하  
의 영 원 한 일 - 터

## 선 고 (宣告)

프란츠 카프카 작(作)

### <작자소개(作者紹介)>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출생하여 비엔나 근교 키어링에서 1924년 사망하였다. 그는 부유한 유대인 상가에서 태어나 프라하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190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베를린에서 문필생활을 계속하였는데 대표작으로는 변신(1916), 선고(1916), 시골의사(1920) 등의 단편과 심판(1925), 성(城)(1926), 아메리카 등의 장편과 기타 일기(1951), 미래에나 보내는 편지(1952) 등이 있다.

그가 실존주의 문학의 유니크한 소설가로서 독일과 전세계에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제2차대전 후부터이며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인식되었다.

<선고>는 카프카의 다른 작품처럼 너무나 암시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아무도 단정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한편 누구에게나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아들의 친구와의 삼각관계에서 율법의 수호자인 아버지는 율법의 충실한 신봉자인 아들의 친구가 참된 아들이고 자기 아들은 위선자로 규정해 버린다.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우스꽝스러운 희극배우로 보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나 친구에 대해서 표면상 성실하고 세심하나 마음 속에는 해명할 수 없는 고독감과 배타적인 방만과 옹고집에 굳어 있다. 아버지는 양심이 경직된 이 아들에게 익사형(溺死刑)의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리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은 아들은 강에 투신 자살한다.



화창한 이른 봄의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商人) 게오르그 벤데만은 2층에 있는 자기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부근의 주택들은 개천을 따라 나직하고 아담하게 늘어서 있었고 높이와 색깔만이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이었다. 그는 방금 외국에 나가 있는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놓고는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그것을 천천히 봉했다. 그런 다음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거기에는 개천과 다리와 연초록으로 물든 맞은편 언덕이 바라다 보였다.

그는 집안 살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몇해 전에 소련으로 도망쳐 버린 그 친구를 생각해 보았다. 그 친구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했었다. 처음에는 괜찮게 되었던 모양이나 수년 전부터는 그의 귀향(歸郷)이 점차로 드물어졌을 뿐더러 그때마다 사업상의 고충을 늘어놓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업은 기울어진 것 같았다. 그 친구는 이국에서 쓸데없이 고생만 죽도록 했고 어린 시절부터 낯익은 그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염만이 거칠었으며 누런 안색은 무슨 병자 같았다. 그의 말하는 품으로 보아 그는 동향 사람들인 그 지방의 독일 사람들과 별로 연락도 없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토착민들과도 접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는 할 수 없이 독신생활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길을 잘못 든 사람이었다. 누구나 동정은 하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나이에겐 도대체 뭐라고 편지를 쓴다는 말인가.

고향으로 돌아와 여기서 다시 살림을 시작하고 옛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무런 장애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 밖에도 친구들의 협조를 믿어 보라고 그에게 충고해 주어야 할까? 그러나 그렇게 말해 준다는 것은 결국 그때까지의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며, 또 되돌아온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조소를 받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친구들만은 그를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니 고향에 남아 있으면서 성공한 친구들의 뒤를 이제부터 따라야 할 나이 먹은 어린 애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고민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어느 무엇으로도 그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자신도 이미 고향의 사정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니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역에 남아 있을 것이며 친구들의 충고로 인해 오히려 기분을 상해서 친구들과도 소원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런 충고에 따라 이곳에 돌아와서 그의 마음이 내켜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겠지만 오히려 더욱 생기를 잃어버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나, 혹은 혼자 있을 때나 수치감에 괴로와하며 고향도 친구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역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그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는 그가 이곳에 와서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멀리 떠나 있는 다른 친구라면 기탄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에게만은 사실대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벌써 3년 이상이나 고향에 돌아오지 않

았다. 그것은 소련의 정국이 불안해서 할 수 없다고 그 친구는 설명했던 것이다.

수 많은 소련인들이 마음놓고 세계를 돌아다녀도 소상인은 잠시라도 집을 비울 수가 없었고 그랬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에 고향의 게오르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년 전에 모친이 돌아가셨고 그 후부터 게오르그는 늙은 부친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는 터였고 어느 편지에서 그가 친구는 무뚝뚝한 말투로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대해 조의를 표해 온 일도 있었다. 이역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할 수도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척이나 무뚝뚝한 말투였었다.

게오르그는 언제나 그랬지만 그때부터 더욱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다. 모친이 살아 있을 때는 사업상에 있어서 부친이 너무 자기의 고집만 내세웠었다. 사실 게오르그씨는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모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부친은 장사일을 돌보기는 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한 사건이 커다란 계기가 되어 2년 동안에 사업은 갑자기 변창하게 되었다. 종업원도 배로 늘려야 했으며 매상고도 4, 5배나 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게오르그의 이러한 변화를 조금도 모른다. 훨씬 전의 일이지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조의를 표해 온 어느 편지에서였다. 그는 게오르그더러 소련으로 이주하라고 말하면서 페테르부르크에는 게오르그의 영업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가지로 보인다고 자세히 적어 보내온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게오르그의 사업이 이런 발전에 비한다면 그가 제시한 그런 숫자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게오르그는 자기의 사업상의 성공을 그 친구에게 적어 보내고 싶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그 후라도 만일에 그런 편지를 냈더라면 정말 그 꼴이 이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게오르그는 일요일 같은 쉬는 날이면 흔히 떠오르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만을 그에게 적어 보내었다. 고향친구로 하여금 오랫동안 떠나있으면서 고스란히 지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던 고향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흐트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게오르그는 그 친구에게 어떤 평범한 남자가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벌써 세 번씩이나 적어 보낸 적이 있었다. 게오르그로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 친구는 그러한 사연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게오르그는 그런 남의 일은 써 보내면서도 자신이 한 달 전에 어떤 부유한 집안 처녀인 프리다부란덴헬트 양과 약혼했다는 사연은 써 보내지 않았다.

게오르그는 가끔 자기 약혼녀에게 그 친구와 자기와의 특별한 서신 연락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결혼식에는 참석 못하겠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알아두고 싶었는데요.」

「나는 그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내 말을 잘 들어 봐요. 그 친구는 틀림없이 올거야. 틀

립없다니까. 그러나 그가 내키지 않는 길을 왔다가 기분을 잡치거나 나를 부러워하고 불만스럽게 느낀 나머지 그 불만을 한아름 안은 채 혼자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지. 혼자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이 저희들의 결혼소식을 다른 데서 알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거야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그의 생활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그런 일은 없을거야.」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아예 약혼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 그건 우리 두 사람의 책임이지 그러나 나는 지금에 와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어.」

이때 그녀는 갑작스런 그의 키스를 받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자 게오르그는 그 친구에게 모든 사건을 다 적어 보내도 그것이 정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그 친구도 나를 이런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이어서 말을 계속했던 것이다.

「아마 그 친구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친구에게 이 일요일 오전에 쓴 편지에서 자기의 약혼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던 것이다.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끝까지 미루어 왔었네. 나는 프리다 브란덴헬트 양과 약혼했네. 부자집 딸인데, 자네가 떠난 후 얼마쯤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으니 자네는 아마 그녀를 모를 걸세. 그녀에 대해서는 차차 자세한 것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나 오늘은 내가 몹시 행복하며 또한 우리들의 우정도 약간 변해서 자네가 보다 행복한 친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으로만 끝내겠네.

자네에게 진심으로 문안을 보내게 될 나의 약혼자는 자네의 진실한 친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네. 그리고 앞으로는 자네에게 직접 편지도 하게 될 걸세. 그리고 그런 일은 미혼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일세. 자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를 찾아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있네만, 나의 결혼식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라도 우리를 꼭 찾아주리라 믿고 있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까지 올 수 있나. 그저 자네의 소신대로 태도를 결정해 주게나.>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게오르그는 오랫동안 밖을 내다보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가를 지나치다가 그에게 인사를 보낸 어떤 친지를 보고도 그는 답례조차 잊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 편지를 넣고는 방에서 나왔다. 복도를 지나 몇달 동안이나 들어간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금껏 그 방에 들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와는 상점에서 언제나 함께 지냈고 점심식사도 식당에서 함께 했다. 저녁에는 각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했지만 게오르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자기 약혼녀를 방문할 때 외에는 대개 잠시 동안이라도 부자는 제각기 신문을 들고 안방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햇빛이 내려쬐이는 맑은 오후인데도 아버지의 방이 너무 컴컴한데 게오르그는 깜짝 놀랐다. 좁다란 뜰 저쪽에 우뚝 서 있는 높은 울타리가 것처럼 그림자를 던져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방 안의 여러 가지 기념물에 장식을 해 놓았다. 아버지는 창문가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시력을 조절할 셈인지 신문을 눈앞에서 약간 비스듬히 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그리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

「게오르그냐!」 하며 아버지는 그를 맞아 주었다. 아버지의 묵직한 잠옷이 발을 옮길 때마다 펄럭이며 옷깃이 그의 몸에 감겼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신 걸」

게오르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몹시 어두운데요.」

「그래, 너무 어두운 것 같구나.」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창문까지 닫아 놓으셨어요?」

「그러는 것이 더 좋구나.」

「밖은 몹시 따뜻하네요.」 하고 게오르그는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식탁의 식기를 들어서 그것을 상자 위에다 치웠다.

「실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요.」

그는 아버지의 동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약혼한 소식을 페테르부르그에 알릴까 하는데요.」

그는 편지를 반쯤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페테르부르그에?」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저의 친구에게 말이에요.」

게오르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상점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저렇게 편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는데……

「그래, 네 친구한테다?」

아버지는 힘을 주면서 말했다.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본래는 저의 약혼소식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좀더 두고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그 친구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그의 고독한 생활태도로 보아서만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저의 약혼소식을 다른 방면에서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었지요.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소식을 저 자신이 전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이지?」

아버지는 펼친 신문을 그대로 창문턱에 걸쳐 놓고는 그 위에 안경을 벗어 놓더니 한손으로 그 안경을 만지작거렸다.

「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 보았지요. 만약 그가 저의 진정한 친구라면 저의 행복한 약혼은 그에게도 역시 기쁜 일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알리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편지를 보내기 전에 아버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오르그야!」

아버지는 이가 다 빠진 입을 크게 벌려 이렇게 말했다.

「좀 들어 봐라! 너는 그 문제를 나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인데 물론 너의 그런 성의만은 매우 고맙다.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다 털어 놓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쾌할 뿐이다. 이 문제와 관계없는 일들을 꺼내고 싶지도 않다. 인정 많던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는 벌써 몇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말할 때가 온 모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온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상에서도 나는 여러가지 일에 실망을 느꼈다. 물론 너는 내게 숨기는 것은 없을 게다. 이제와서 숨기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미 나는 기력도 없거니와 기억력도 감화되었다. 또한 여러가지 소소한 일들을 보살필 힘도 없다. 그것은 첫째 자연의 탓이며, 둘째는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너보다도 나를 훨씬 더 의기소침하게 해준 탓이다. 그러나 게오르그야, 우리가 이런 일, 바로 이 편지 같은 문제에 부닥쳤으니 제발 부탁인데 나를 속이지 말아라. 그런 것이 무어 대단한 일이라고 나를 속이려 하니, 그래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있느냐?」

게오르그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들이 있으면 뭘 합니까? 제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진심을 아시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건강을 돌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이는 당연히 여러가지 권리를 요구하지요. 사업상에 있어서도 아버님은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쯤은 아버지께서도 잘 아실 테지요. 그러나 만일 사업이 아버지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사업을 아주 치워 버리겠습니다. 사업때문에 아버지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버님을 위해서 다른 생활 방식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원래 아버지는 이 검소한 방안에 앉아 계시기를 좋아하시지요. 안방에 가시면 아름다운 햇빛도 받으실 수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아침을 그렇게 적게 드시고서야 어떻게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창문을 닫아놓고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을 바꾸십시오. 아버님이 안방을 쓰시고 제가 이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든 가구는 고스란히 옮겨 놓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좀더 침대에 누워 계시시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이리 오세요. 옷을 벗겨 드릴테니

가요. 제가 그만한 일쯤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열린 안방에 가서 우선 저의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오르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게오르그야!」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게오르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피로에 지친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를 노려보는 커다란 두 눈동자가 보였다.

「페테르부르크에는 너의 친구는 없어. 너는 항상 장난을 치는데, 나한테도 예외는 아니었어. 어떻게 그런 곳에 친구가 생겼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면서 게오르그는 아버지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다. 원기없이 그 자리에서 계시는 아버지의 잠옷을 벗겨 주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처음 찾아왔던 때가 머지 않아 1년이 되는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군요. 아버지는 그를 유난히 싫어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저의 방에 앉아 있을 때에도 저는 두 번씩이나 그가 없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아버지의 혐오감은 제 눈에도 역력했으니까요. 저의 친구는 매우 성미가 까다롭지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매우 정답게 그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끄덕거리기도 하시며 가끔 질문도 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그는 믿기 어려운 러시아 혁명가를 애기했지요. 예를 들면 그가 장사 일로 키에프에 갔을 때인데 어떤 발코니 위에 목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넓은 논바닥에는 피어린 십자가를 새기고 그 손을 높이 쳐들어 군중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는 따위의 이야기였지요. 아버지께서도 그 후 가끔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게오르그는 아버지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아마로 짠 아버지의 내의를 양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벗겨 낼 수가 있었다. 더러운 내의를 보자 그는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나 소홀히 했었구나 하고 자책감을 느꼈다. 아버지에게 내의를 갈아입게 하는 것은 확실히 의무일 게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여생을 편히 해드릴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 약혼녀와 구체적으로 의논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무의식적이거나 아버지는 낡은 집에 혼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앞으로 새 살림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모셔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니 그동안 아버지에게 너무나 소홀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아버지를 안아 침대로 옮기려고 두서너 걸음 걸어갔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늘어진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알고는 몸서리가 쳐졌다. 아버지가 시계줄을 꼭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는 아버지를 열린 침대에 눕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침대 위에 눕히자 아버

지는 어느 정도 안심하는 듯했다. 어찌까지 이불을 끌어 올렸다. 아버지는 게오르그를 쳐다 보았다. 별로 악의가 있는 시선은 아니었다.

「이제는 그 친구가 생각나세요?」

하고 게오르그는 물으면서 아버지에게 힘을 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젠 잘 덮었느냐?」

아버지는 발이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듯 물었다.

「이제는 침대에 누우셨으니 마음이 좀 안정되실 거예요.」

하며 게오르그는 이불을 끌어 잘 덮어주었다.

「이젠 잘 덮었느냐?」

아버지는 또다시 그렇게 물었으나 그의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엄려마세요. 잘 덮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게오르그의 대답이 자기의 질문하는 의도에 거슬리는 듯, 아버지는 단번에 이부자리를 걷어차 버렸다. 이불은 모두 젖혀지고 아버지는 침대 위에 똑바로 일어나 있었다.

한쪽 손으로는 천정을 가볍게 붙들고 있었다.

「나를 이불로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다 알고 있다. 이 쾌씹한 놈아! 그렇게 쉽게 덮어 씌워지는 않는다.

내 비록 최후의 힘일망정 너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 나는 물론 너의 친구를 잘 알고 있어. 어쩌면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식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너는 몇 년 동안이나 그를 속여 왔어. 그 밖에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니? 너는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믿느냐? 그래서 너는 사무실에 처박혀 사장은 집무 중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는 소련으로 허위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에게 아들의 정체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지. 너는 아버지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예 꼼짝도 못하게 해놓았다고 말야. 그러고는 이제 결혼할 결심을 했다 이 말이지!」

게오르그는 아버지의 놀라운 표정을 쳐다 보았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페테르부르크의 친구에게 마음이 사로 잡혔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게오르그의 눈앞에는 친구가 넓은 소련 땅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빼앗겨 텅 빈 상점 문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다 부서진 진열장과 못쓰게 된 상품과 쓰러져 가는 가스등 사이에 그 친구는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먼 이국으로 떠나야만 했었을까!

「나를 좀 봐라!」

아버지는 또 한번 외쳤다. 게오르그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급히 침대로 달려가다가 그만 중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년이 걸핏하면 치맛자락을 치켜올린 탓이지.」

하고 나직히 중얼거렸다.

「그년이 치맛자락을 치켜올린 때문이야, 빌어먹을 년이!」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그런 시늉을 해 보였다. 전쟁통에 입었던 허벅다리의 상처가 다 드러나도록 자기의 잠옷을 높이 치켜올린 것이었다.

「그년이 치맛자락을 이렇게 높이 치켜 들었지. 그래서 너는 그년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마음 놓고 그년과 놀아나려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조차 더럽혔으며 친구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꿈쩍할 수 없게 이 침대에 처박아 놓았던 거야. 그러나 그 아비가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지 한 번 두고 볼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두 다리를 쪽 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알아차렸다는 듯 눈을 반짝하였다.

게오르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조금 전에 그는 뒤에서든 위에서든 어떤 기습에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 살피겠다고 결심했었다. 지금 그는 그 결심을 다시 상기했으나 이내 잊고 말았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제는 절대로 배반당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외치면서 둘째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그 말을 강조했다.

「나는 그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말이다.」

「희극 배우!」

게오르그는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불리한 점을 깨달았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헛바닥을 깨물었다. 어쩌나 아프던지 그는 허리를 굽혔지만 이미 너무나 늦은 감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희극을 연출했었다! 희극이었지! 그거 참 말 잘했구나! 다 늙어 훌라비까지 된 이 아비가 그 외에 다른 무슨 낙을 바라겠느냐? 말쑥 해봐라-대답하는 순간만이라도 적어도 너는 살아 있는 내 아들일게다. 오로지 골방에서 의리도 없는 고용인들에게 시달리면서 다 늙어 빠진 내게 남은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도 네놈은 거들먹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비가 마련해 놓은 사업을 모두 망치다시피 환락에 빠지면서 날뛰다가도 아비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을 짓는구나! 너에게 배반당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기운이 없어져 쓰러지면 허리를 굽히겠지>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혔으나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쓰러지기는 커녕 게오르그가 가까이 오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 서 있거라! 너 같은 놈은 필요가 없다. 너는 아직 나를 부추켜 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생각만으로 그렇게 주춤거리고 서 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보다시피 네 어머니가 자기 힘을 고스란히 내게 남겨 주었지. 그럴 뿐더러 나는 너의 친구와도 멋지게 연락을 해서 너에 대한 정보를 이 주머니 속에 갖고 있다는 말이다.»

「잠옷에도 주머니가 있구나!」

게오르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온 세상의 아버지들을 중상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잠시였고 이내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너의 약혼자를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녀를 싹 쓰러내고 말테니까. 어떻게 할는지 너는 모를거야!」

게오르그는 아버지의 그런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자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짐이라도 하듯 게오르그가 서있는 방구석을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오늘 내가 찾아와서 친구에게 약혼에 대해서 편지를 내는 것이 어떡냐고 물었을 때 사실 나는 반가웠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어리석은 자식아, 다 안다는 말이다! 네가 어리석게도 내 필기도구를 치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이미 몇 년 동안이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어. 그는 네 편지를 읽기는 커녕 왼손으로 구겨 버렸지만 내 편지를 읽으려고 오른 손을 높이 쳐들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모든 일을 너보다 더 알고 있어!」 하고 아버지는 감동이나 한듯이 팔을 높이 쳐들었다.

「만배는 아니고요!」 게오르그는 아버지를 무시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입 속에서 뿐이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네가 그런 질문을 들고 오리라고 나는 예측했었다. 너는 내가 어떤 다른 일을 염려하는 줄 아느냐? 내가 신문을 읽을 줄 알아? 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게오르그에게 침대 속에서 신문 한 장을 꺼내 던졌다. 게오르그로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낡은 신문이었다.

「네가 크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기도 했다. 어머니는 좋은 날을 못 보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너의 친구는 소련땅에서 파멸해 버렸어. 이미 3년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지. 그리고 나의 취지는 너 역시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너도 그런 것쯤은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보니 아버지는 저를 엿보아 왔군요!」 게오르그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동정이나 하듯 「그래 그런 말을 벌써 했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그런 말은 당치도 않아.」

「그러니까 너 이외에 무엇이 또 있다는 것을 너도 알았겠지, 지금까지 너는 너밖에 몰랐다! 사실 너는 순진한 어린아이였으나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너는 악마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물에 빠져 죽으라는 선고를 내리는 바이다!」

게오르그는 방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나왔다. 그의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치 내리막길을 달리듯이 층계를 내리 달렸다. 계단 위에서 그는 뜻밖에도 거실을 정돈하려고 2층으로 올라오던 하녀와 마주쳤다.

「어머나!」

하녀는 외치며 행주치마로 얼굴을 가렸으나 그는 곧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 그는 문 밖으로 뛰어나와 차도를 넘어 강가로 달렸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움켜잡듯이 난간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난간을 뛰어 넘었다. 그는 어릴 때에는 유망한 운동가여서 양친의 자랑거리였었다. 그는 점점 맥이 빠져 가는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난간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버스의 소음은 그가 강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상쇄해 줄 것 같았다.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이 때까지 두 분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다리 위로는 끊임없이 차들이 지나갔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처 : 공 군 교 재 창  
 편집실 전화 : 829-3511, (호)-5141  
 인 쇄 : 1981년 7월 20일  
 발 행 : 1981년 7월 25일

◇ 군인(軍人)의 길 ◇

나는 영광(榮光)스러운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 필승의 공군 되자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 공군(空軍)의 결의(決意)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